

2017년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 영어 학문 및 교육의 미래 조망
 English Studies and Teaching in Korea: Imagining Our Future

- 장 소: 강원대학교 국제어학원
- 일 시: 2017. 10. 27. (금), 12:00~18:00
- 주 최: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 주 관: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 일 정

시 간	행 사	장 소
12:00-13:00	등록 및 점심	국제어학원 2층 (점심: 백록관 교직원식당)
13:00-17:00	논문 발표	국제어학원 2-3층 강의실
17:00-17:20	지역 총회	강원: 304호 / 충청: 001호
17:20-18:00	전체 총회	001호 대강당
18:00-20:00	만찬	김유정역 닭갈비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7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임원진

(2017. 6. 1. ~ 2018. 5. 31.)

(1967년 창립, 2000년 통합학회 창립, 2001년 통학학회지 『영어영문학 연구』 출간, 년 4회 발행)

고 문	고양성(강원대), 광동벽(충북대), 김기섭(한국교원대), 김덕규(춘천교대), 김성중(서원대) 노창식(서원대), 박순봉(건국대), 박주현(충북대), 손중동(청주대), 송석요(서원대), 신길호(강원대), 유인호(충북대), 윤만근(청주대), 이상혁(상지대), 이성실(강원대), 이진환(충북대), 임희진(상지대), 전홍실(충북대), 조길행(강릉원주대), 조일현(한중대), 조홍섭(한국교통대), 진선주(충북대), 최병정(청주대), 최상길(강원대), 탁기현(상지대), 김영식(청주대)
회 장	구자혁(강릉원주대)
수 석 부 회 장	성기서(서원대)
편 집 위 원 장	김경열(강원대)
연구윤리위원장	박미애(춘천교대)
부 회 장	강남길(극동대), 권영탁(세명대), 김인옥(춘천교대), 윤홍섭(충북대), 이두원(한국교통대), 이상국(연세대), 이우학(건국대), 이승복(춘천교대), 채수경(강릉원주대), 한광석(강원대), 황병수(강릉원주대)
총 무 이 사	이영애(한라대), 박창범(서원대)
편 집 이 사	나경희(충북대), 이용희(강원대), 이용철(청주대)
재 무 이 사	노은미(한림대)
정 보 이 사	강상구(청주대)
섭 외 이 사	구은숙(청주대), 권종일(경남대), 김명섭(한림성심대), 노종진(한국해양대), 박용준(강원대), 신소나(한라대), 신진범(서원대), 엄병호(영동대), 양재용(강원대), 이제원(연세대), 정원돈(세명대), 조남호(한국교통대), 박선화(건국대), 한혜령(서원대)
학 술 이 사	김대중(강원대), 박인규(충북대), 윤택남(춘천교대)
감 사	김형엽(고려대), 정은숙(중앙대)
연구윤리위원	박병주(한국교통대), 신원철(강원대), 오상룡(한국교통대), 장윤상(한국기술교육대), 조인희(선문대)
편 집 위 원	강남길(극동대), 김경열(강원대), 김경한(한국교원대), 김대중(강원대), 김정렬(한국교원대), 김진두(한국교통대), 김영민(대구교대), 나경희(충북대), 노은미(한림대), 노종진(한국해양대), 류승구(강릉원주대), 맹은경(아주대), 박미애(춘천교대), 박선화(건국대), 박인규(충북대), 박창범(서원대), 신진범(서원대), 양용준(제주대), 양윤정(건국대), 양창용(제주대), 유건상(강원대), 윤태진(성신여대), 이두원(한국교통대), 이상민(경희대), 이선주(이화여대), 이영애(한라대), 이용희(강원대), 이정식(원광대)
연 구 위 원	강성우(청주교대), 김규민(청주대), 김상혁(한국교통대), 김성중(고려대), 김애주(동국대), 김옥례(한국교통대), 박찬규(중원대), 박채희(선문대), 양은미(현도사회대), 이경옥(한국교통대), 이창수(영동대), 정문영(계명대), 정익순(중앙대), 조형묵(한국교통대), 진명희(한국교통대), 채수경(강릉원주대)

학회장 인사말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가 2017년 가을 학술대회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영어 학문 및 교육의 미래 조망”이라는 주제로 5개 분과에서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풍성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나날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변함없이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논문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문에 많은 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님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될 것입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초 경북대학교에서 경북, 전남, 제주지역 학회를 포함한 4개 학회 회장단이 만나 공동학회 개최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각 학회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공동학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 봄 학회는 한국영어학회와 공동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 학술지 『영어영문학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계속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 학술지 유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그동안 전임 회장단과 편집위원회에서 헌신의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평가 준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양질의 논문을 투고해 주시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가을 학술대회가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현영총장님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교수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회장 구자혁

Contents

영문학 분과

<영문학 분과1> (강의실 204호)

로렌스 글쓰기의 회화성	김경미(경동대)	00
헬레나 마리아 바라몬테스의 『예수상 발아래』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환경정의	사미옥(충북대)	00
월러스 스티븐스의 詩作: 왜 필요한 천사인가?	정옥희(김포대)	00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에 나타나는 해체된 인륜의 공동체와 에디의 여성적 공간 연구	김대중(강원대)	00
하디의 『푸른 숲 나무 아래』에 나타난 ‘탈-염세주의’ - ‘멜스톡 공동체’를 중심으로 -	사공철(경운대)	00

<영문학 분과2> (강의실 206호)

흑인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토니 모리슨의 『술라』	고득임(한림성심대)	00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실현과 사랑의 힘	이선희(강원대)	00
『리라 아포스톨리카』를 통해서 본 존 헨리 뉴먼의 소책자시학	김연규(강릉원주대)	00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짐의 행동양상 연구	김효실(강원대)	00
윌트 휘트먼과 추의 미학	심진호(신라대)	00

영어학 분과

<영어학 분과1> (강의실 302호)

영어사의 영어교육 적용	신성균(강원대)	00
Reflections on the Acoustic Feature[grave]	이기석(제주대)	00
Idiomatic Passivization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이두원(한국교통대)	00
A Contrastive Study on the Polysemy Structure of the Preposition <i>over</i> and the Prefix <i>over</i>	이정선(강원대)	00

<영어학 분과2> (강의실 308호)

Translating Korean Negation with Lexical Phonology	김형엽·원호혁(고려대) ..	000
Survive-minimalism and Coordination	구자혁(강릉원주대)	000
On R-expressions	강남길(극동대)	000
Analysis of the Types of Errors by the Google Translator	박준석(세명대)	000
Rethinking the real-time status of island phenomena	김일규(강원대)	000

영어교육 분과

<영어교육 분과1> (강의실 304호)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Improving EFL learners' vocabulary through AVI Method	윤택남(춘천교대)	000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on Korean EFL college students to be more motivated in class through class activities.	김동미(충북대)	000
영어교수법의 조망	김정렬(한국교원대)	000
SNS 활용을 통한 학습자 교수자간 관계 향상 연구	김병선(가톨릭 관동대)	00
Exploring Teachers' Knowledge of Texts: First Step in Finding Best Practices and Empowering Teachers in Indonesian Contexts of Education	Wawan Gunawan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000

영문학 분과 1 (204호)

조직위원장: 권영탁, 한광석, 박선화 / 부위원장: 성기서, 양재용, 김대중 / 조직위원: 채수경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00 ~ 1:40	김경미	경동대	로렌스 글쓰기의 회화성	김문주(가톨릭관동대) 조비결(강원대)	이우학 (건국대)
1:40 ~ 2:20	사미옥	충북대	헬레나 마리아 버라몬테스의 『예수상 발아래』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환경정의	이용희(강원대) 서병철(연세대)	
2:20 ~ 3:00	정옥희	김포대	월러스 스티븐스의 詩作: 왜 필요한 천사인가?	백금희(강원대) 박경희(강원대)	
3:00 ~ 3:30	휴식				
3:30 ~ 4:10	김대중	강원대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에 나타나는 해체된 인륜의 공동체와 에디의 여성적 공간 연구	원유경(세명대) 정익순(중앙대)	박병주 (한국 교통대)
4:10 ~ 4:50	사공철	경운대	하디의 『푸른 숲 나무 아래』에 나타난 '탈-염세주의' - '멜스톡 공동체'를 중심으로 -	김덕규(춘천교대) 박선화(건국대)	
5:00 ~ 5:20	지역 총회(강원: 304호 / 충청: 001호)				
5:20 ~ 6:00	전체 총회(001호 대강당)				

로렌스 글쓰기의 회화성

김경미(경동대학교)

I.

로렌스(D. H. Lawrence)는 소설과 시 그리고 산문 작품으로써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언어로 된 작품 이외에도 다수의 그림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 편의 산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림 그리기」(“Making Pictures”)와 「이 그림들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se Paintings”)를 꼽을 수 있다. 로렌스는 이들 산문에서 그림 혹은 예술, 문학, 심지어 인간 삶의 모든 목표가 결국 외부 세계와 직접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맺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림이 때로는 “언어가 줄 수 없는 기쁨”(a form of delight, SE 304)을 전해준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림이 외부 세계의 본질 접근과 관계맺음 그리고 역동적인 소통에 있어 언어보다 훨씬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로렌스는 일찍이 서구 문학 전통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체계와 그 재현 도구인 언어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가 어떤 하나의 주류적인 관념에만 가치를 두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질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한계를 지우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관념의 주된 표현 양식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들이 외부의 실체를 편파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심각한 오류를 범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서구 문명의 고질적인 ‘관념’에 대한 뿌리가 이성 중심의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성 중심의 관념에 의한 지나친 편중이 유동적인 삶의 흐름 속에 있는 생생한 실체와 영원한 간극을 이루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그는 “관념론에 저주를!”(A curse on idealism, LE 162)이라고 말하면서 플라톤 이후 “우리 모두는 시체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we were born corpses... All we know is shadows, SE 329)이라고 한탄한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뿌리 깊은 관념화 경향은 사실 형이상학적인 플라톤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이렇게 이성적인 관념을 우선시하면서 본질 혹은 실체에 해당하는 육체를 배제시킨 플라톤 이후의 모든 서구인은 “시체”에 불과하고 이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추상화된 관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부 실체와 재현 사이의 간극과 단절에 대한 로렌스의 인식은 더 나아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현대적 사고와도 상통한다. 그는 당시에 이미 언어의 ‘기표’(the signifier)와 ‘기의’(the signified) 사이의 상관관계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기능만 있을 뿐 영원히 모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퍼니하프(Anne Fernihough)는 『D. H. 로렌스: 미학과 이데올로기』(D. H. Lawrence: Aesthetics and Ideology)를 통해서 로렌스가 ‘실체’와 그 재현의 일부에 불과한 ‘관념’ 사이의 간극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근대적 관념의 사고를 초월하는 미학과 예술관 그리고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퍼니하프는 로렌스의 허구적 소설과 비소설을 분석하여 그 속에 반영된 로렌스의 문화적 사유 맥락을 짚으면서, 로렌스가 전근대의 “권위적 의도 경계”(the bounds of authorial intention, 9)를 훨씬 넘어서는 사유를 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본즈(Diane S. Bonds)는 『언어와 자아』

(*Language and the Self*)에서 관념의 대표적 표상인 언어의 모호함에 대한 로렌스의 견해를 포착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로렌스는 “언어적 체계의 결정력에 대한 깊은 자각”(Lawrence's deep awareness of the determinative power of the linguistic system, 10)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각으로써 로렌스가 『미국 문학 연구』(*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를 쓰게 되었는데, 이 책에는 언어의 구속 결과 작가 또한 도덕적 혹은 지적 체계 속에 감금된 채로 작품이 빚어지게 됨을 통찰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퍼니하프와 본즈의 로렌스에 대한 언어 인식론에 대한 분석에 공감하면서, 로렌스의 탈중심적인 사고와 언어로 된 텍스트를 통한 재현에 대한 고민이 작품 속에서 회화적인 수사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주로 『연애하는 여인들』과 관련 산문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로렌스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재현된 문학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가 1914년 6월 5일 가넷(Edward Garnett)에게 보낸 편지글에도 나타나 있다(L 2). 그는 작품 속에서 기존의 고정적이고 관념적인 시선과는 달리 조금 더 통찰력 있고 성숙된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조금 더 심층 있는 감각으로 사물을 여러 각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외시되고 주변화되었던 것들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영국 소설: 디킨스에서 로렌스까지』(*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에서 1914년을 로렌스의 비평적 발전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138). 그에 따르면 로렌스는 1914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그리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와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독학자들”(our three great autodidacts, 138)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life-experience)을 실제적인 공동체와 연관하여 확장시키고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장인들, 기능공들, 노동자들, 광부들의 새롭고도 비평적인 경험을 작품 속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소설가들과는 달리 계급, 방법, 밀바탕의 감수성 면에 있어서 기존 “교육의 습관”(the habits of education, 139)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1915년 이후에 발간된 『무지개』(*The Rainbow*)와 『연애하는 여인들』은 당시 전형적인 문학 전통의 소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토고브닉(Mariana Torgovnick)은 『『연애하는 여인들』에서의 회화적 요소』(“Pictorial Elements in *Women in Love*”)에서 로렌스 작품 속의 회화적인 순간과 장면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는 로렌스가 자신의 작품을 언어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림을 감상하듯이 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림’을 통해 “비전적 각성”(visionary awareness, 420-426)을 일깨우려 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비전적 각성”이란 로렌스가 「이 그림들에 대한 소개」에서 말하는 본능적이고 직관적 의식을 일컫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의 물(物) 자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연애하는 여인들』의 제3장 식물학 수업 장면은 그림을 통한 실체로의 접근과 그 순간의 포착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서 로렌스가 굳이 식물학 수업으로 설정한 이유 또한 의미심장한데, 그 이유는 식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생명이 살아있는 실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식물학이야말로 인간의 의도와는 동떨어져 작용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이러한 자율성을 가진 식물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그만큼 소중한다고 여긴 것이다. 버킨(Birkin)은 수업 중이던 개지꽃을 집어 들고는 걸술을 유심히 살펴보고 “흔들리는 진빨강 술”(the flickers of crimson)을 바라보며 “이것들도 빨간 거군요”(The red ones, too, *WL* 36)라고 말한다. 그의 말은 교사인 어슐라(Ursula)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경각시키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그 꽃의 구조와

같은 죽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생명체 자체와 교감하고 “비전적 각성”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버킨은 식물 내부 자체에 존재하는 생명의 흐름과 소통하여 “비전적 각성”을 이루어야 할 수업이 하나의 기표에 불과한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진 지식에 치우쳐진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버킨은 꽃의 모양만을 전하는 “윤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Outline scarcely matters, 36)면 서도 학생들에게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색깔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윤곽”이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 존재의 고정적인 제한성을 두는 것으로서, 언어 체계에 있어서 어느 실체에 대해 하나의 기표로서 단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나타낸다. 로렌스는 실체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언어가 아닌 그림을 도구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림 또한 한계성이 있음을 경각시키고 그 한계성을 초월하기 위해 최소한 “윤곽”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슐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어슐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일 뿐 필기해야 할 주관적 인상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무엇이죠? 빨갛고 조그맣게 뽀족뽀족한 암술머리의 암꽃, 달랑거리는 노란 수꽃의 미상(尾狀) 꽃차례, 수꽃에서 암꽃으로 날아가는 노란 꽃가루 아닌가요? 아이들이 얼굴을 그릴 때 눈 두 개, 코 하나, 이가 있는 입을 그리듯, 사실을 그림으로 기록하게 하세요. 그렇게요.

It's the fact you want to emphasize, not the subjective impression to record. What's the fact? — red, little spiky stigmas of the female flower, dangling yellow male catkin, yellow pollen flying from one to the other. Make a pictorial record of the fact, as a child does when drawing a face — two eyes, one nose, mouth with teeth — so — . (79)

버킨은 언어에 의한 표현은 사물이 지니는 생명을 왜곡시켜 학생과 꽃과의 창조적인 교감을 차단시킬 뿐이므로, 교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사물 자체와 직관적으로 역동적인 의식의 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버킨은 사물의 핵심인 심장부를 무의식적으로 통찰하고 그 사물과 교감하면서 직접 체득하는데 있어, 언어라는 장벽을 거두고 사물의 본질과 신비로움을 인식하고 느끼고자 한다. 말로써는 형언할 수 없고 포착하기도 어려운 사물의 무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애하는 여인들』 제10장 윌리 호수(Willy Water)가에서 어슐라와 구드룬이 스케치하는 장면 또한 로렌스 글쓰기의 회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슐라는 나비를 관찰함에 있어 나비에 대한 자신의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대상 본질과의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공존하고자 한다. 이러한 어슐라와 나비와의 역동적인 활력과 교감에 대해 로렌스는 어슐라가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나비들과 함께 직관적으로 “일어나 나비처럼 무의식 상태로 이리저리 부유했다”([Ursula] rose and drifted away, unconscious like the butterflies, *WL* 119)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 또한 나비에 대해 추상적 관념보다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색감을 통해 나비 고유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로렌스는 자신의 글쓰기에 ‘색감’을 이용하여 사물 실체에 대한 무한한 역동성을 생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나비라는 개체와 “근원적 충동”(the original impulse, 3)을 추구함에 있어 “육체의 언어로 시작되었던 담론이 이제 실체적 존재로부터 비약”(A discourse which began as an idiom of the body has now become a flight from corporeal existence, Fernihough 171)되어 활력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음을 ‘색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실체를 왜곡시키는 알맹이 없는 담론이기 이전에 실체와 독자 사이의 직관적인 체득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III.

쇼드후리(Amit Chaudhuri)는 『D. H. 로렌스와 ‘차이성’』(*D. H. Lawrence and ‘Difference’*)에서 로렌스가 침묵과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을 촉구하면서 “대안적인 미학”(an alternative aesthetic, 113)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 대상과의 순간적인 교감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모더니즘과 크게 구별되는 차별성으로서 당시 다른 모더니즘 작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양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나타나는 소외된 인물들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차이성’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로렌스의 이질성(foreignness)이 1960년대 이후 언어의 기표와 기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점점 커져만 가는 의구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문학 등의 판단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 이외의 것은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잣대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오히려 그동안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 활발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로렌스 문학의 언어와 재현은 이러한 현대적인 사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텍스트 내에서 기표와 기의 간의 접합점을 다양화 하도록 변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텍스트는 어떠한 고정화도 바라지 않고 반복적인 단절, 풍부한 이미지들, 외부 텍스트 구조와의 다양성 등, 늘 새로운 관점을 생성시키면서 어느 한 쪽의 잣대로 기울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텍스트의 카오스적 혼란 속에서 분절과 불연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단편적인 형식의 추구를 쇼드후리는 “포스트모던적인 작은 시뮬라크롬”(a miniature simulacrum of post-modern, 126)이라고 말한다. 로렌스의 재현 활동에 있어 순간은 그 어떤 중심도 없이 항상 “떨리는 순간성”(quivering momentaneity, CP 183)으로서, 로렌스가 사용한 이미지들은 전방위적으로 시선이 다각화, 중층화, 혹은 다층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로렌스의 시학은 한 작가에 의해 예술의 완성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그 작품을 읽고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쇼드후리는 이러한 로렌스의 작품 성향에 대해 로렌스가 마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가 아니라 작가의 작품 활동이 진행 중인 스튜디오에 독자를 초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142).

로렌스는 「벽에 걸린 그림들」에서도 말했듯이, 작품은 고정된 순간들의 시리즈가 아니라 늘 새로운 일상의 문화로 짜여 있는 것이고, 독자는 그 작품을 사소한 일들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여기며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43).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은 어쩔 수 없이 국가와 전통에 의해 형성된 한 문화의 관념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점을 자각하면서 제한된 시각으로써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감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의 미적 맥락 속에 언어의 형이상학적 의미가 내포되어있음을 늘 자각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조명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연애하는 여인들』은 이러한 로렌스의 탈중심적인 글쓰기 시도가 다양한 기법으로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로렌스의 회화적인 글쓰기 기법은 텍스트가 고정된 완전체로서가 아닌 현재 순간의 역동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고, 탈중심화된 시각으로 주변화 되어 있던 객체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다양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그의 미학을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진다.

Works Cited

- Bell, Michael. *D. H. Lawrence: Language and Being*.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Lawrence, D. H. "Poetry of the Present", *The Complete Poems of D. H. Lawrence*. ed. Vivian de Sola Pinto and Warren Roberts. London: Penguin, 1988.
- _____. *Lawrence on Education*. ed. Joy and Raymond Williams. Harmondsworth: Penguin P., 1973.
- _____. *The Letters of D. H. Lawrence*. Vol. 2. Ed. George J. Zytaruk & James T. Boulton. Cambridge: Cambridge UP, 1981.
- _____. *Selected Essays*. Harmondsworth: Penguin P. 1950.
- Torgovnick, Mariana. "Pictorial Elements in *Women in Love* : The Uses of Insinuation and Visual Rhyme." *Contemporary Literature* 21(1980). 420-434.
- Williams, Raymond.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St. Albans: Paladin, 1974.

헬레나 마리아 버라몬테스의 『예수상 발아래』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환경정의

사미옥(충북대학교)

멕시코계 미국 여성 작가들(Chicana writers) 중 가장 현저한 작가는 아마도 헬레나 마리아 버라몬테스(Helena Maria Viramontes)일 것이다. 그녀의 첫 소설인 『예수상의 발아래』(Under the Feet of Jesus)(1995)는 출판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비평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둔다. 첫째로, 린 조하네센(Lene M. Johannessen)과 같은 비평가들은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안나 마리 샌도벌(Anna Marie Sandoval) 및 다른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라티노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다. 앤 셰어(Anne Shea)와 데니스 로페즈(Dennis Lopez)는 부추적의 수단으로서 멕시코계 이민 노동자를 착취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불의에 대해 조사한다. 그러나, 크리스타 그루-볼프는(Christa Grewe-Volpp)는 「'석유는 그들의 뼈로부터 만들어졌다': 헬레나 마리아 버라몬테스의 『예수상의 발아래』에 나타난 환경적 (부)정의」에서,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직면한 환경적 불의에 대해 탐구한다.

위와 같은 비평부류이외에, 이 논문은 또 하나의 비평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이 소설을 필자가 이른바 “탈식민지적 환경 정의”(post-colonial environmental justice)라고 일컫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해석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그루-볼프의 연구에 한 가지 측면을 더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에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이 소설에 나타난 환경적 불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루-볼프가 19세기 미국의 멕시코 전쟁 (Mexican War)(1846-1848) 및 그 이후 맺어진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 (Treaty of Guadalupe Hidalgo)(1848)을 통해서 미국이 멕시코의 영토를 차지한 역사적 상황을 언급하지만, 지나가듯이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중점을 두어 환경적 불의를 살펴볼 것이다. 즉, 멕시코 전쟁 및 그에 따른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 후 멕시코는 거의 영토의 절반을 미국에게 양도해야만 했고, 양도된 지역에 살던 멕시코인들과 다른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과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19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의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즉, 많은 그들의 후손들이 현재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살면서 미국에서 이전에 멕시코 영토였던 땅과 더불어 착취당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을 탈식민지적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첫째로, 멕시코 전쟁과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이 작품의 탈식민지적 환경 정의에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1848년 이전, 이 소설의 배경인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다른 남서부 지역과 함께 멕시코의 땅이었다.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남서부 지역을 사기를 원했으나 멕시코가 거절하자, 1846년에 멕시코 전쟁이 발발했다. 1848년 멕시코의 항복과 더불어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었다. 프레이저(Fraizer)가 그의 저서인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 19세기 제국주의와 갈등』에서 밝히듯이, 비록 이 조약이 평화조약이었으나, 미국에 의해 주도된 조약이고 멕시코는 천오백만 달러에 영토의 거의 절반을 양도했다. 비록, 미국이 돈을 주고 영토를 샀으나,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조약이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결코 영토를 팔기 원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행해진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록 그 조약이 양도된 지역에 살던 멕시코 국민의 기존의 재산권과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카스틸로(Castillo)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

국은 멕시코인에게 시민권과 재산권을 보장한 과달로페 이달고 조약의 8항과 9항을 어겼다”(134). 따라서, 멕시코 전쟁 이후 양도된 지역에 살던 멕시코인들은 그들의 땅, 풍부한 자원 및, 시민권을 상실했다. 게다가,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가 되어 표준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법의 보호 밖에서 착취당했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어떻게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및, 평균이하의 생활수준,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지를 볼 수 있다. 첫째,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여주인공인 에스트렐라(Estrella)의 가족을 통해서 멕시코계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에스트렐라의 가족은 모두 7명이다. 37살의 어머니인 페트라(Petra), 13살 소녀인 에스트렐라, 아버지 역할의 동거인인 일흔 세 살의 퍼펙토(Perfecto), 그리고 네 명의 어린 동생들이 있다. 에스트렐라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후, 페트라는 이주 노동자로서 일거리를 찾아 농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한다. 그들이 매우 가난하고 일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이 없다. 그래서, 임시 거주지인 방 두 개짜리 침대도 없는 방갈로(bungalow)에 산다. 우리는 그들의 힘든 생활조건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침묵과 헛간과 구름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항상 일의 문제였다. 일은 수확, 자동차의 가동 여부, 그들의 건강, 길의 상태, 얼마나 오래 (그들이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지, 날씨에 달려 있었다. 즉, 이는 그들이 의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했다”(4). 그들의 삶이 평균이하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 할 것이 없다. 만일 그들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굶주려야 한다. 만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그들은 일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연현상인 날씨조차도 그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녀의 남편이 가족을 버린 후, 페트라는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다섯 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심지어, 그녀가 만삭의 몸이 되었을 때도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트렐라의 4살 때 기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엄마는 임신한 몸으로 그녀의 만삭인 배를 가리기 위해서 지퍼를 내린 채 남성용 바지와 셔츠를 입었다. . . . 재빠른 두 손으로 목화를 따고, 목화 꼬투리를 삼베 자루에 채우면서, 등이 육신거릴 정도로 수 파운드의 목화를 잡아끌었다. 그 자루는 마치 그녀 몸속에 자라나는 아이처럼 천천히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

The mother showed pregnant and wore large man's pants with the zipper down and a shirt to cover her drumtight belly. . . . She hauled pounds and pounds of cotton by the pull of her back, plucking with two swift hands, stuffing the cloudy bolls into her burlap sack, the row of plants between her legs. The sack slowly grew larger and heavier like the swelling child within her. (51)

비록 그녀가 임신한 몸이지만, 페트라는 유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했다. 대부분의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 아이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든 일을 피하는 반면에,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한 가정의 가장인 페트라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굶주리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과 태아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그녀가 오랜 시간을 일해 왔지만, 그녀의 가족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그날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계 노동자로서 그녀가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의 기업적 농업(agribusiness)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쉐야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적 농업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멕시코계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그들은 부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철저히 착취당한다. 그들은 초과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휴식시간도 없이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러므로, 페트라와 같은 멕시코계 노동자

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국 사회의 맨 밑바닥 계층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이 법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놀고, 공부하는 반면에, 멕시코계 이주민 자녀들은 그러지 못한다. 비록, 노동법상 어린이 노동이 금지되어있으나, 멕시코계 이주민 아이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농장노동이 어린이 노동을 규제하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농장에서 일하는 멕시코계 이민자 자녀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주인공인 13살 소녀 에스트렐라와 16살 소년인 알레조(Alejo)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한다. 에스트렐라는 그녀의 생계를 위해서 엄마와 함께 포도농장에서 일한다. 텍사스 출신인 알레조는 그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한다.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지루한”(monotonous—without beginning, without ending) 거대한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른보다도 신체적으로 훨씬 약하고, 단조로운 일에 쉽게 지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50).

아침, 정오, 또는 밤, 나흠, 열나흠, 또는 사십일이든 항상 같았다. 그녀의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 얼마나 피곤하지 결코 알지 못했다. 울지 마라. 에스트렐라는 쿡쿡 쑤시는 엉덩이를 지탱하면서 가득 찬 바구니를 날랐다. 그리고, 포도송이 앞에서 무릎을 굽혔다. 그녀의 등 근육은 마치 철조망처럼 휘감았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쑤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시원한 헛간에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Morning noon, or night, four or fourteen or forty it was all the same. She stepped forward, her body never knowing how tired it was until she moved once again. Don't cry. Estrella carried the full basket with the help of a sore hip and kneeled before the clusters of grapes. The muscle of her back coiled like barbed wire and clawed against whatever movement she made. She closed her eyes and pulled in the memory of the cool barn. (53)

어른조차도 “기절하는”(fainted)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 에스트렐라는 일을 해야 한다. 로페즈가 지적하듯이, “사십만~오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현재 미국의 농업분야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 . 어린이 농장노동자는 모든 농장노동에 관련된 사망의 20 프로를 차지한다”(61). 요약하면, 비록 어린이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멕시코계 노동자의 자녀들은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한다. 즉, 그들은 값싼 노동자로서 철저히 착취당하며,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주목할 점은 비록 그들이 비인간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현실과는 상반되게, 그들의 노동이 낭만화(romanticized)되고, 그 결과, 볼 수 없는(invisible) 상태로 된다.

가득 찬 바구니를 중이가 있는 곳으로 나르는 것은 에스트렐라가 시장에서 본 붉은 건포도 상자와 같지도 않았고, (그 상자 그림 속에) 빨간 입술로 웃으며 포도를 내미는 부드러운 보닛을 쓴 여성과 같지도 않았으며, 그 여성 뒤에 있는 납작한 오렌지 색 태양 같지도 않았다. 태양은 희고, 에스트렐라의 눈을 마치 양파처럼 쓰라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 바구니들은 마치 자석같이 땅바닥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에스트렐라의 근육을 아프게 했다. 빨간 보닛을 쓴 그 여성은 이러한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무릎은 뜨거운 하얀 흙속으로 가라앉지도 않았다. . . . 그 여성의 보닛은 너무 강력해서 파란 포도를 검은 건포도로 구워버리는 하얀 태양아래 에스트렐라의 밀짚모자만큼 유용하지 못할 것이다.

Carrying the full basket to the paper was not like the picture on the red raisin boxes Estella saw in the markets, not like the woman wearing a fluffy bonnet, holding out the grapes with her smiling, ruby lips, the sun a flat orange behind her. The sun was white and it made Estella's eyes sting like an onion, and the baskets of grapes resisted her muscles, pulling their magnetic weight back to the earth. The woman with the red bonnet did not know this. Her knees did not sink in the hot white soil. . . . The woman's bonnet would be as useless as Estella's own straw hat under a white sun so mighty, it toasted the green grapes to black raisins. (50)

쉐아가 주장하듯이, 건포도 박스위에 그려진 이미지는 “농장노동을 낭만화하고 건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지운다. 그 결과, 그 이미지 뒤에 있는 현실을 ‘모르는’ 소비자를 양산한다”(138). 에스트렐라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소 임금을 받고 힘든 노동에 의해 착취당하는 현실과는 달리, 그들의 노동은 소비자들에게 낭만적으로 제시되고, 그 결과 미국의 기업농업에 의한 멕시코계 노동자들의 착취를 볼 수 없게 만든다. 필자는 이를 통해서 기업노동이 부를 계속해서 축적함과 동시에, 멕시코계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의 상업적 이미지에 대하여 버라몬테스는 그들의 노동력 착취현실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미국의 기업농업의 억압적 관행을 비판한다.

또한 이 소설은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서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우리는 이를 16살 이주 노동자 알레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어느날 농장에서 비행기에 의해 살포되는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맞게 된다. 살충제 분사에 하나 들썩 쓰러져 가는 곤충들처럼, 알레조는 서서히 죽어간다.

그는 맨 처음 그의 발이 점점 무릎관절로 가라앉고, 그 다음 그의 허리와 몸통을 삼킨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타르의 압력이 그의 가슴을 쥐어짜내고, 그의 갈비뼈를 부수는 듯했다. 그의 피부를 그의 턱, 입, 코까지 집어 삼키고, 기포를 삼키듯 했다. 검은 거품들이 그를 지우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지웠고,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수천 개의 뼈들, 표백된 골수.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철사에 의해 엮여져 서로를 찌르고 있는 조각난 뼈가 뼈 표면위에 나오는 듯했다. 지문도, 역사도 뼈도 없는 듯했다. 화산암도 없는 듯했다. 이야기도, 가족도, 뼈도 없는 듯 했다.

He thought first of his feet sinking, sinking to his knee joints, swallowing his waist and torso, the pressure of tar squeezing his chest and crushing his ribs. Engulfing his skin up to his chin, his mouth, his nose, bubbled air. Black bubbles erasing him. Finally the eyes. Blankness. Thousands of bones, the bleached white marrow of bones. Splintered bone pierced together by wire to make a whole, surfaced bone. No fingerprint or history, bone. No lava stone. No story or family, bone. (78)

비록 기업적 농장주는 명백히 살충제의 독성을 알지만, 노동자들에게 언제 살충제를 살포할 지 알리지 않았다. 고용주의 눈에, 알레조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단순히, 소비 가능한 재산 축적의 수단일 뿐인 것이다. 즉, 그들은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노동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똑같은 권리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알레조가 농약중독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고용주에게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 둔다. 이주노동자의 힘든 노동은 미국사회가 부를 축적하는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존재들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버라몬테스는 이를 생생히 보여준다. 알레조가 농약중독이 되기 전, 그는 에스트렐라에게 어떻게 석유가 수백만 년 전 바다 속에 묻혔던 동식물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석유의 원천이 되는 이름 모를 동식물과 같이, 이주노동자 알레조의 노동은 미국사회의 “석유”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타르의 압력”이라는 표현에 의해 상징된다. 마치 석유의 원천인 동식물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듯이, 알레조는 농약 중독 후 그의 노동이 미국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죽어 가는데, “지문도, 역사도 뼈도 없었다. . . . 이야기도 가족도 없었다.”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비단 일터에서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사회가 이러한 “불법” 노동자를 대하는지를 한 백인 간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알레조의 농약중독 후, 에스트렐라 가족은 그를 한 진료소로 데려 갔지만, 불행히도 의사가 없었다. 그 곳에 있는 백인 간호사는 단순히 알레조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조언만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당하게 치료비로 10달러를 요구한다. 에스트렐라 가족이 가진 돈은 단지 9달러 뿐이다. 그 돈은 알레조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필요한 휘발유 값이었다. 그래서, 펄떡도는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그가 진료소의 고장 난 곳을 수리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동정심이 없는 간호사

는 그들의 힘든 형편을 모른 채 하며, 그들의 제안을 무시한다. 백인 간호사를 통해서, 바라몬테스는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불평등한 의료체제도 보여준다. 이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높은 계층인 백인간호사에게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가난한 “불법” 노동자들일 뿐이다. 에스트렐라 가족이 그녀에게 그들의 힘든 상황을 호소해도,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에스트렐라가 퍼펙토에게 지적하듯이, 아무리 그들이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백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151). 그리고, 갑자기 에스트렐라는 알레조가 말해줬던 석유의 생성과정을 떠올린다.

그녀는 타르 구덩이가 생각났다. 에너지 돈, 에너지 물질의 화석화된 뼈들. 어떻게 뼈들이 석유를 만들고, 석유가 가솔린을 만드는지를. 석유는 그들의 뼈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 그녀가 여섯시에 그녀의 아들들을 태우러 가도록 데이비필드로 그녀를 가도록 해 주는 것도 바로 그들의 뼈였다. 자동차 에어컨이 계속 돌아 가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들의 뼈였다. . . . 왜 그 간호사는 그걸 알 수 없는 걸까? 에스트렐라는 그들이 그 간호사에게 빚진 만큼 그녀도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48)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에스트렐라는 석유가 우리사회의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은 미국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만드는 사회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역할이 없다면, 백인간호사와 같은 미국인들은 특권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인간호사는 이를 깨닫지 못하며,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녀는 심지어 그들이 가난한 이주노동자라고 무시까지 한다. 그러므로, 에스트렐라는 너무 화가 나서, 퍼펙토가 차안에 둔 쇠막대기를 꺼내들고는 백인간호사가 치료비로 요구한 돈을 돌려달라고 위협한다.

또한, 백인 간호사의 태도를 통해서, 바라몬테스는 미국사회에서의 멕시코계 노동자들의 인종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로페즈는 이를 주인공들이 알레조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본다. 로페즈에 의하면, “자신을 무언가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스페인 동사 *alejar*로부터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알레조라는 이름은 그의 현재 상황과 꿈을 의미한다: 즉, 멕시코계 이주노동자로서 알레조는 물리적으로 텍사스에 있는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떨어져 있다. 또한 그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함으로써 “그의 노동자계층 사회의 제한과, 짐승취급하며 비인간화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50). 그러나, 바라몬테스는 백인 간호사가 알레조에게 *Alex-hoes*라는 이름부여를 통해서 “자본주의자의 부 축적을 위한 인종화된 계급 관계”에 의해서 확립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52). “알렉스’(Alex)로 미국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조는 여전히 땅을 ‘쟁이질하는’(hoes) 사람으로 인종적으로 표시되고, 정의되어진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인종화된 노동 분류에서 그의 ‘위치’를 강조한다”(51). 그러나, 에스트렐라의 또다른 다른 이름 부여는 미국내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역사화한다. 즉, 백인간호사가 알레조의 이름을 묻자, 에스트렐라는 그의 성이 “이달고”(Hidalgo)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이름은 멕시코 전쟁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즉,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멕시코 지역사회의 오랜 인종화된 억압과 착취”에 대해 떠올리게 한다 (52). 또한, 에스트렐라의 또 다른 이름 부여를 통해서, “에스트렐라는 식민지 저항의 오랜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 즉, “1852년에 형성된 이달고 카운티는 멕시코의 스페인 식민지 통치를 끝낸 전쟁을 야기했던 연설을 했던 유명한 사제인 미구엘 이달고 코스틸라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52). 즉, 로페즈는 에스트렐라가 알레조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식민지 저항의 오랜 역사”를 암시한다고 지적한다. 로페즈의 주장에 덧붙여, 필자는 이 소설에서 사회적 불의에 가장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에스트렐라가 알레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바라몬테스가 미국사회에 뿌리 깊은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관행에 대해 저항할 필요성에 대해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버라몬테스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땅에 대한 소유권과 시민권의 박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논문의 초기에 말했듯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캘리포니아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전에 멕시코의 영토였고,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의 선조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었다. 그러나, 조약이후로 그들은 그들의 재산권과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땅과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계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로 범죄인화된다. 그 결과,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법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민권은 종종 무시되고, 이민국 경찰에 의해 멕시코로 추방당하는 위협을 받아왔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불안감속에 살고 있다. 첫째, 우리는 이를 에스트렐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에스트렐라가 포도농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야구경기를 지켜보게 된다. 그녀는, 야구경기를 국경순찰(border patrol)과 연상시키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

그녀는 마치 자동차의 상향등처럼 눈부신 불빛이 그녀의 눈을 부시게 만들면서 운동장을 비출 때 깜짝 놀랐다. . . . 국경 순찰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철조망의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이 안전한 쪽인지 기억하려고 애썼다. 투광등이 들판의 유령들을 향해 비췄다. 또는 그 불빛들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 구경꾼들이 그녀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녀를 볼 수 있는가? 집은 어디였지? 야구공을 때리는 소리, 무딘 도구가 두개골을 강타하는 소리. 한 야구선수가 득점을 위해 베이스를 달린다. 점수, 도착지: 본루. 누가 복숭아를 잡을 것인가, 누가 그 불빛 속에서 들판을 달릴 정도로 배가 고프는가? 완전한 목표물. 가장 잘 익은 복숭아. . . . 총알을 기다리는 기절한 사슴. 몇몇 관중이 박수를 쳤다. 에스트렐라는 그녀의 칼을 꼭 쥐고 달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점점 깊어가는 밤 속으로 사라졌다. (59-60)

그녀가 야구장의 흰 불빛을 볼 때 그녀는 마치 그것이 국경 순찰등으로 상상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민국 경찰”(La Migra)에 의해 잡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또한, 철로와 야구장 사이의 철조망이 국경의 철조망으로 상상된다. 에스트렐라는 어느 쪽이 안전한 쪽인지 찾으려 노력한다. 왜냐하면, 샌도벌이 언급하듯이, 미국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가 안전한 쪽을 찾지 못하면, 그녀는 이민국 경찰에 의해 총살당하거나, 즉시 멕시코로 추방당할 것이다. 또한, 야구선수가 친 야구공은 이민국 경찰에 의해 가격된 멕시코 이주 노동자의 두개골로 연상된다. 그 다음, 득점을 위해 달리는 선수는 농장에서 고된 노동 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복숭아를 찾아서 들판을 달리는 이주 노동자로 연상된다. 이는 바로 에스트렐라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그녀가 일이 끝나고 먹으려고 가져온 복숭아를 “이빨이 없는 가와모토”(Toothless Kawamoto)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야구경기를 지켜보면서 허기를 느낀다. 마침내 그녀의 상상 속에서 이주 노동자는 이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사냥꾼의 총알을 기다리고 있는 “기절한 사슴”으로 변형된다.

요약하면, 에스트렐라의 야구경기와 국경순찰, 굶주림에 지친 이주 노동자의 연상을 통해서, 버라몬테스는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가 공유하는 집단적인 역사적 기억 및 그들의 공통된 두려움을 제시한다. 비록, 캘리포니아가 오래전에 그들의 영토였고, 그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와 시민권을 소유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과 시민권을 박탈당한 “불법” 노동자로 간주된다.

에스트렐라가 야구장에서 집으로 왔을 때, 그녀는 엄마에게 누군가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극심한 공포를 눈치 챈 페트라라는 그것이 “La Migra”라고 말한다(61).

두려워서 도망가지마라. 그곳에 서서 그들의 눈을 쳐다보렴. 그들로 하여금 네가 그들이 저녁식사로 먹을 야채를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느끼도록 만들지 마라. 만일 그들이 너를 못 가게 저지하면, 그들이 너를 녹색 유개차에 태우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너의 출생증명서가 예수상 발아래 있다고 말해라. 단지 그 말을 해라. 그녀의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 . . 그들에게 que tienes una madre aqui 라고 말해라. 너는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붉은 손가락으로 땅, Aqui를 가리켰다. (63)

페트라는 공포에 질린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에스트렐라가 불법이주자가 아닌 당당한 미국시민권 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민국 경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녀의 출생서류가 예수상 밑에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다. 페트라는 그녀가 이사할 때마다 항상 작은 예수상(Statue of Jesus) 을 지니고 다닌다. 그녀가 신께서 신자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녀 아이들의 출생관련 서류를 예수상 밑에 숨겨둔다. 슈엔 수(Husan Hsu)는 페트라의 아이들의 출생관련 서류가 “예수상 발아래”(Under the Feet of Jesus) 있다는 말은 “그녀의 아이들이 시민권에 대한 종교적, 세속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유라고 말한다 (150). 그러나,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 표현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신자로서 페트라는 예수상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녀의 예수상이 나중에 깨지고 만다. 종교적으로 신은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하듯이, 이 소설에서 페트라의 예수상은 절대적 권위 즉, 법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비유이다. 예수상이 깨지는 사실을 통해서, 베라몬테스는 페트라의 신념, 즉 법이나 미국 정부와 같은 절대적 권위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법이나 미국 정부는 미국시민으로서 멕시코계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 논문 초기에 입증한 바와 같이, 에스트렐라의 가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최소 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착취당한다. 또한, 조하네센이 주장하듯이, 이 소설의 제목에 나타난 “발아래”(under the feet)는 국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종속과 심지어 폭력의 개념을 암시한다” (154). 비록,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은 미국태생으로 법적으로 미국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종종 불법 이민자로 의심받는다. 그래서, 이민국 경찰에게 멕시코로 강제 추방되기도 한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페트라가 에스트렐라에게 이민국 경찰에게 “que tienes una madre aqui,” 즉, “나는 여기에 엄마가 있다”(63)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녀가, “aqui” 즉, “여기”라고 말할 때, 페트라는 그녀의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서, 페트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즉, 케스틸로(Castillo)가 지적하듯이, 멕시코 전쟁에 패한 후 뺏어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은 멕시코인들의 재산권과 시민권을 보장했다. 따라서, 그루-볼레프가 언급하듯이,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그들 자신을 이민자로 간주하지 않고,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후에 미국에 의해 식민지화된 토착민으로 간주한다”(73). 오늘날 이 조약에 기초하여 그들의 법적 재산권과 시민권을 주장하는 멕시코계 미국인 운동가들과 더불어, 베라몬테스는 페트라의 말을 통해서 멕시코계 미국 노동자들의 시민권의 합법성을 암시한다.

Works Cited

- Frazier, Donald S.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t War: Nineteenth-Century Expansionism and Conflict*. New York: Macmillan, 1998. Print.
- Grewe-Volpp, Christa. “‘The Oil Was Made From Their Bones’: Environmental (In) Justice in Helena Maria Viramontes’s *Under the Feet of Jesus*” *ISLE* 12.1 (Winter, 2005): 61-77. Print.
- Griswold Del Castillo, Richard. *The Treaty of Guadalupe Hidalgo: a legacy of conflict*.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0. Print.
- Hsu, Hsuan L. “Fatal Contiguities: Metonymy and Environmental Justice.” *New Literary History* 42.1 (2011): 147-68. Print.
- Johannessen, Lene M. “Memories of Landscape 1: The Meaning of Place in Helena Maria Viramontes’ *Under the Feet of Jesus*” *Threshold Time: Passage of Crisis in Chicano Literature*. New York: Amsterdam-New York, 2008. 147-60. Print.
- Lopez, Dennis. “‘You Talk ‘Merican?’: Class, Value,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Difference in Helena Maria Viramonte’s *Under the Feet of Jesus*.” *College Literature* 41.4 (2014): 41-70. Print.
- Sandoval, Anna Marie. *Toward a Latina Feminism of the Americas: Repression and Resistance in Chicana and Mexicana Literature*.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Print.
- Shea, Anne. “Don’t Let Them Make You Feel You Did a Crime”: Immigration Law, Labor Rights, and Farmworker Testimony” *MELUS* 28.1 (2003): 123-44. Print.
- Viramontes, Helena. *Under the Feet of Jesus*. New York: Plume Book, 1996. Print.

윌러스 스티븐스의 詩作: 왜 필요한 천사인가?

정옥희(김포대학교)

I. 들어가기

실재 혹은 현실로 대변되는 세계(reality)와 상상과 허구 혹은 추상(abstraction)으로 대변되는 비현실적인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스티븐스의 견해는 자주 논의되어지는 주제이다. 그는 때로는 현실 혹은 실재를 강조하지만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며 시라는 허구를 통해 추상과 상상이 주는 혜택을 너무나 잘 인식한 시인이다. 그가 현실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거나 추상화를 시도하면서 살았기에 작품에서 보여주는 채색된 세계나 주변묘사 혹은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가치관등은 그가 꺼안고 가고 싶은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의 초기 시에서 출현하는 비현실적인 신들(the unreal gods)은 “인간의 상상의 투영이었으며”(the projections of the human imagination)(Leggett 65), 그의 종교 관도 그런 의미에서 시나 상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언뜻 보면 두 개의 대변되는 축에 존재하는 듯이 상이한 세계 혹은 개념들에 대한 스티븐스의 견해는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양립하는 두 축처럼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듯싶다. 그는 에세이에서 논하기를 “비실재적인 것들”(unreal things)도 “시라는 상상의 세계에서 나름의 실재 즉 존재가치가 있다”(have a reality of their own, in poetry as elsewhere)고 역설한다(NA 4). 같은 페이지에서 그는 또 묘사하기를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비행은 꺾이고 단단한 땅에 정착하게 된다”(the soul no longer exists and we droop in our flight and at last settle on the solid ground)고 하며 마치 플라톤의 마차를 모는 사람(charioteer)과 날개달린 말(winged horse)로 비유되는 “영혼의 존재”(The existence of the soul)는 오직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immaterial)으로 치부하며 현실주의자로 전환 된다(NA 4).

스티븐스의 시는 상상과 추상을 통해 나름의 실재를 구현해낸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윤희수는 스티븐스가 추상화(abstraction)의 의미 상상을 통해 실재를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언어의 역사성 등 부가적 의미들에 의해 실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다른 허구 내지는 추상의 창조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 상상의 세계에 대한 스티븐스의 견해와 왜 그 세계가 그에게 필요한 천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표현대로 이 상상의 세계는 “화려한 허튼소리”(gorgeous nonsense)일 뿐이며 그의 詩作은 이러한 허튼소리의 창조일 수도 있다(NA 4). 하지만 이러한 허튼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 스티븐스는 현실에 밀착하지 않은 상상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The imagination loses vitality as it ceases to adhere to what is real)(NA 6) 자신의 현실감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스티븐스의 현실과 상상력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가 왜 수필집 제목을 필요한 천사라고 했는지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천사였던 시와 상상력에 대한 역설적인 논의들이 작가의 詩作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작품을 통해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II. 시적상상력과 종교와의 관계

스티븐스는 장로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어머니아래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성경지식에 밀착되어 자랐지만 전통적인 교회의 의식과 제도권의 기독교는 그의 시적 영감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성경보다는 에머슨과 그 당시 미국시인들의 자연친화적인 성향에 공감하고 뉴저지와 롱 아일랜드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After settling in New York in September 1900 to try his hand at journalism, Stevens' Emersonian reflections carried him regularly into nature for long walks on Sundays. On these excursions, "tramping through the fields and woods [beholding] every leaf and blade of grass revealing or rather betokening the Invisible"(L 59), he experienced the sacred. (Richardson 14)

그는 저널에 기록하기를, 자신이 지니고 왔던 오래된 논란은 “세상의 진정한 종교적인 힘은 교회 가 아니고 세상 그 자체이다” 즉 “자연의 신비한 부름과 우리의 반응이다”(L 58)라고 한다. 한 예로 「분명한 포도의 계절에」“In the Clear Season of Grapes”(CP 110)는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작가의 태도가 스며있다. 드넓은 자연의 경계들, 산과 땅과 바다 등의 자연을 보며 식탁에 차려진 보여주기 위한 과일들의 접시를 떠올리며 시인화자는 가을이 주는 자연의 통로들(Autumnal passages)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스티븐스에게 보이는 교회는 의식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마치 상상의 나라를 떠다가 현실의 땅에 가끔 안주하듯이, 때로는 반짝이는 제단이 자신의 감각을 어떻게 자극하고 위안을 주는지 알고자하여(“how the glittering altar worked on [his] senses stimulating and consoling them”), 그는 교회라는 의식적 예식에 발길을 돌리며 참여하고는 했다(L 59). 스티븐스가 그의 연인 엘지(Elsie)에게 쓴 한 편지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매일 기도를 하며 교회가 주는 안도는 “인간적”(human)이고 “엄마”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Richardson 17). 이는 자신의 믿음의 결여에 대한 솔직한 인식과 겸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러한 믿음에의 갈구는 그가 그의 시대의 문제의 특징(lineaments of the problem he would figure as characterizing his age)으로 보는 믿으려는 의지(“the will to believe”)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와 상상이 결여된 현실세계는 스티븐스에게 가혹한 세계였을 뿐이다. 힐리스 밀러의 말처럼 친밀한 연대가 파괴된 현대 세계의 이질성과 불안정, 신이 공중의 구름처럼 사라진 신앙 부재 혹은 부모 없는 자식의 황폐한 현실이 스티븐스 사상과 시의 기초라고(“Poetry of Being” 87-88)(박정필 23에서 재인용) 할 수 있는 데, 그에게 결여된 신앙을 채워줄 존재로서 그가 즐겨 찾았던 에머슨의 자연세계처럼 시와 상상력의 세계는 필요한 천사였던 것이다. 스티븐스는 프로이트의 에세이(Future of an Illusion)에 대해 언급하며 프로이트의 전제가 현재 상황의 특징이 종교의 약속이 작아진 게 아니라 종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덜 주게 되었다고 하며 현실의 잔인함을 견뎌내게 해주는 종교적 환상(religious illusion)이라는 어구들을 사용하여 시적 상상과 종교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NA 14).

「높은 어조의 늙은 기독교인 여인」(“A High-toned Old Christian Woman”)은 스티븐스의 종교관이 잘 나타나있는 시이다. 시인은 거의 신성모독의 수준으로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폄하하고 있다.

Poetry is the supreme fiction, madame.
Take the moral law and make a nave of it
And from the nave build haunted heaven. Thus,
The conscience is converted into palms,
Like windy citherns hankering for hymns.
We agree in principle. That's clear. But take
The opposing law and make a peristyle,
And from the peristyle project a masque
Beyond the planets. Thus, our bawdiness,
Unpurged by epitaph, indulged at last,
Is equally converted into palms, (CP 59)

부인, 시는 최상의 허구이니
 도덕률을 택하여 그것을 신도석으로 삼고
 그 신도석으로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천국을 만드세요.
 양심은 종려나무로 전환되고 바람소리 나는 시턴¹⁾은 찬송을 갈망한다.
 우리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반대의 법을 택하여 열주를 만들고,
 그 열주로부터 혹성들을 뛰어넘는 가면을
 제시하시요. 따라서, 우리의 천박함은,
 묘비명에 정화되지 않고, 마침내 몰입하여
 동등하게 종려나무로 전환 되리니.

시인의 최상의 허구로서의 시적 상상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느껴지는 시이다.

Ⅲ. 현실세계와 상상력의 관계

스티븐스에게 시라는 행위는 현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해석일 뿐이기에 종교적 절대적 진리가 부재하는 것처럼 진리나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가공의 것(fiction)이고 우리가 현실이라 받아들이는 것도 단지 마음이 고안해 낸 것 이라고 한다(Serio 4). 외부현실세계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해석일 뿐이며 그 해석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라는 행위라고 한다(Serio 4).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감정에도 쉽게 좌우되는지 스티븐스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혹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Serio 5). 따라서 시인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들(the credible)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상상과 추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must create his unreal out of what is real)고 한다(NA 58). 그는 은유(metaphor)나 비유(analogy)등 상상력에 의해 연결되는 이미지들이 매우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하며 시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스티븐스는 시인의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라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하지만(NA 29), 시인이 자신이 사는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고 그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환상이나 헛된 것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외부의 실재가 내부의 의식까지 연결되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박 24). 실제로 스티븐스의 시에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 개인의 의식세계를 많이 조명하고 다루는 시들이 많다.

「진창 주인」(“MUD MASTER”)(CP 147)는 자연을 보며 영향을 받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봄이지만 뿌연 하늘아래 진흙탕의 강물을 보며 마음도 진창이 되어버린 목격자에게 불거져 나올 푸름은 아직 안 왔다고 묘사하고 있다.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주관적이며 때로는 심층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The muddy rivers of spring
 Are snarling
 Under muddy skies.
 The mind is muddy.

As yet, for the mind, new banks
 Of bulging green
 Are not;

1) 기타 비슷하게 연주하던 옛 현악기

개인의 사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데, 「실재의 공휴일」(“Holiday in Reality”)이라는 시에서 개개인의 경험이 독특하고 유니크한 점을 부각시킨다. 보편적인 사람(common man) 이나 보편적인 공통의 말(common speech)의 부재를 말한다.

They had known that there was not even a common
speech,
Palabra of a common man who did not exist.

Why should they not know they had everything of
their own
As each had a particular woman and her touch?

After all, they knew that to be real each had
To find for himself his earth, his sky, his sea (CP 312)

보편성이나 공통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스티븐스는 개인의 사색(contemplation)의 힘을 배제시키는 외부사건들의 압력을 “현실의 압박”(the pressure of reality)이라고 규정한다(NA 20). 전 세대(a whole generation)와 전쟁 중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상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믿게 되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의 평범한 진술이 쉽게 가장(affectation)이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But when one is trying to think of a whole generation and of a world at war, and trying at the same time, to see what is happening to the imagination, particularly if one believes that that is what matters most, the plainest statement of what is happening can easily appear to be an affectation. (NA 20)

과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었던 것의 극소량이 사실이고 오직 예견(prophecies)만이 진실임이 관명되었으며(NA 21), 나폴레옹시대의 현실에 일어난 사건들은 코올리지나 위즈워스나 월터 스콧경이나 제인 오스틴 등의 시인이나 소설가에게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패배나 성공은 전쟁이라는 전체의 부분이지만 개인의 운명은 사회의 운명과 다를 수 있다(NA 22). 현실의 압박(pressure of reality)이라 부르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그들 삶의 상황이나 마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로망스 다시쓰기」(“RE-STATEMENT OF ROMANCE”)(CP 146)는 연애시이며 서로에게 열정적인 두 사람을 묘사하는 데 이 시에서 밤은 단지 배경에 불과하고(The night knows nothing of the chants of night),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사람이며 사물은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마치 테네시의 향아리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

「프로렌스에서 죽은 영국인」(“ANGLAIS MORT A FLORENCE”)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마음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인식의 변화가 자연대상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시작부분에서 주인공 화자는 매해 달라지는 자신의 인식의 변화가 그가 함께했던 브람스(Brahms)의 음악과도 멀어지게 되고(walked apart) 3연에서는 별거벗은 달의 모습에서도 그가 과거에 보았던 달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Only last year he said that the naked moon
Was not the moon he used to see, to feel
(In the pale coherences of moon and mood
When he was young), naked and alien,
More leanly shining from a lankier sky.(CP 148)

때론 이성(reason)과 의지(will)을 사용하며 브람스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질서의 분자들(particles of order)로서 홀로 장엄함(a single majesty)을 지킬 때의 모습이었음을 회상하며, 존재(to be)와 기쁨(delight)의 의미가 하나처럼 되어 보이던 시간은 기억 속에 남고 이제는 색조가 짙어지고 작아졌다고 한다. 변화되는 개개인의 인식의 모습을 묘사하며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IV. 시와 시적 상상의 힘

스티븐에게 상상의 힘은 환상과는 다른 매우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경험과 상상력 그리고 추상화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는 개인적 환상이나 망상 등에 대한 신뢰의 위험성도 강조한다. 즉 실재를 망각한 생각을 경계한다. 상상력과 환상의 차이는 아마도 실재와의 밀착도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Mascaro가 번역한 『우파니샤드』(*The Upanishads*)에 나오는 상상과 환상에 대한 다음의 견해는 도움이 된다.

모든 정신적, 시적 비전은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영혼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 . 그러나 상상력은 환상이 아닙니다. . . 환상들은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이들은 파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상상력은 이성의 도움으로 건설로 이끄는 내적 빛입니다. Every spiritual and poetical vision comes from imagination: because imagination is the light of the soul. Without imagination we cannot have faith, because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 . . But imagination is not fancy. . . Fancies disturb the mind and they may lead to destruction; but imagination is an inner light which with the help of reason leads to construction.(Mascaro 26-27) (이철희의 논문 108 페이지로부터 재인용)

시적 상상이 실재(reality)에 밀착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의 사물에 대한 면밀한 인식을 지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인식된 세상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직 스티븐스 본인이 새로이 보고 인식하는 세상이 그의 작품의 모티브와 세계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스티븐스의 시에는 극단의 폭력도 잔인한 비극적 역사의 기록도 적다. 시인은 진정할 수 없는 폭력으로 치닫게 하는 “실재의 압력”(pressure of reality)(NA 22-3)에 저항하거나(박 23) 유일하게 남은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다. 결국 상상이기에 허구이지만 “가상적 실재”(presumed reality)로서 진실인 “최상의 허구”(supreme fiction)를 구축하는 것이 스티븐스의 시작업의 중심에 놓이고 다른 모든 주제를 흡수 한다(Bates 48). 이제 이 최상의 허구가 실재가 되어 전통과 절대적 존재의 대응물이 되고 ‘신앙의 만족’을 제공하여 새로운 질서의 토대와 목표가 된다.

시인으로서의 척도는 현실을 그의 추상화속으로 추상화시키는(abstract himself) 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the lovers of truth)이 강조하는 실재(reality)를 자신의 추상화(abstraction)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인의 척도라고 한다(NA 23).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실재(reality)를 자신의 상상 속에 놓음으로서(by placing it in his imagination)이룰 수 있는 현실의 추상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NA 23). 현실은 삶이 구성하는 장면에서 살아진 삶인 것이다(NA 25). 외부적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진 경험이란 것이다. 시인은 현실 혹은 실재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시의 주제는 우주에 편재하는 단단하고, 정적인 대상들의 모임(collection of solid, static objects extended in space)이 아니고(NA 25), 특정한 장면(the scene)에서 살아진 삶이고 그 삶이 구성하는 것들인 것이다. 실재(reality)의 의미도 외부적(external)인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살아진 삶이라는 것이

다. 실재란 외부적 환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경험 특히 개인적인 색채가 가미된 특이한 경험인 것이다. 스티븐스의 시에서 보면 색조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개인적인 느낌을 담은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는 데, 이는 개개의 경험이 개인의 상상 속에서 창조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스티븐스의 시에서 외부현실의 변화에 민감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외부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점도 부각된다. 「푸른 기타의 남자」(“The Man With The Blue Guitar”)에서 실재로서의 사물이 초록색 기타위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things as they are/ Are changed upon the blue guitar,”) 초록색 기타라는 상상력의 힘에 의해 실재가 해석되고 변화됨을 말해준다. 초록색 기타의 음률에 맞춘 곡조는 상상에 의해서 변화되어 우리들 자신을 넘어선 것이 되며(“But play, you must, / A tune beyond us, yet ourselves,”) 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상의 변화에 맞는 곡조가 아닌 그 이상의 것, 즉 불변의 진리를 노래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면서도 실재를 나타내는 곡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의 v번째 연에서

The earth, for us, is flat and bare.
There are no shadows. Poetry

Exceeding music must take the place
Of empty heaven and its hymns,

Ourselves in poetry must take their place,
Even in the chattering of your guitar. (CP 165)

지구에 그림자도 없다는 표현은 지구가 흰히 보여주는 것 외에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빈 하늘과 찬송가를 대신할 것은 단순한 음악을 능가하는 시이며 이 시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라고 주장한다.

정체된 것이나 불변의 진리 등에 의혹을 갖고 신뢰하지 않는 스티븐스에게 시작은 끊임없는 진리의 추구라는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시가 파괴적인 힘이다」(“POETRY IS A DESTRUCTIVE FORCE”)라는 시에서 불행한 것은 가슴에 담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슴에 심어 줄 변하지 않는 정체된 무엇이 아니며 장차 갖게 되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시를 사자 혹은 황소(an ox)에 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라는 사자는 햇볕을 받으며 자고 있지만 코는 앞발톱에 대고 있으며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That's what misery is,
Nothing to have at heart.
It is to have or nothing.

It is a thing to have,
A lion, an ox in his breast,
To feel it breathing there. (CP 192)

시를 야만적인 짐승의 몸을 지닌 사람(like a man / In the body of a violent beast)으로 의인화하여 그의 영향력을 동물의 포악성에 빗대어 표현한다.

V. 나가며

스티븐스는 필요한 천사로서의 최상의 허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절실한지, 상상으로 빚어진 시를 비롯한 예술의 세계가 없다면 삶의 역경을 어찌 이겨낼 것인지 강한 의혹을 펼친다(*NA* 31). 그는 상상 특이함(peculiarity)을 그리고 그 특이함에 고귀함이라는 품격을 부여한다(the peculiarity of the imagination is nobility)(*NA* 33). 스티븐스가 일컫는 상상은 환상이나 망상과는 다른 고품격의 그 무엇인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 중에 인간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데 스티븐스가 말하는 이 상상력은 이 영적인 영역에 범접하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스티븐스가 수필집에서 말하는 “내면으로부터의 폭력”(a violence from within)이란 이 상상의 힘을 표현한 것으로 이 상상의 힘으로 보편화된 상식적인 현실을 전복한다면, 이러한 작업이 외부의 폭력(a violence without)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이다(*NA* 36). 상상과 추상화를 통한 끊임없는 시라는 허구의 창조는 개인의 평화와 자유를 압제하려는 외부의 현실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기에 스티븐스는 시작을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천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박정필 “능가하기와 닮아가기— 윌리스 스티븐스의 『바위』(*The Rock*)에서 상상과 실제의 관계에 나타나는 근접과 차이” 『현대영미시연구』 제 15권 2호 (2009 가을): 23-59
- 윤희수. “탈중심적세계의 시학: 윌리스 스티븐스의 언어관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제 35집 39-68. 1995.
- 이철희. “영원한 고독, 요가 수행으로 『네 사중주』 읽기” 『T. S. 엘리엇 연구』 26. 3 (2016: 95-115.
- Bates, Milton J. “Stevens and the Supreme Fi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Wallace Stevens*. Ed. John N. Serio. Cambridge: Cambridge UP, 2007. 48-61.
- Miller, Hillis. *The Linguistic Moment*. Princeton: Princeton UP, 1985.
- (Miller, Hillis. “Wallace Stevens’ Poetry of Being.” *ELH* Vol. 31(1964): 86-105.)
- Richardson, Joan. “Wallace Stevens: a likeness.” *The Cambridge Companion to Wallace Stevens*. Ed. John N. Serio. Cambridge: Cambridge UP, 2007. 8-22.
- Riddel, Joseph N. *The Clairvoyant Eye; the Poetry and Poetics of Wallace Stevens*. Louisiana State UP, 1965.
- Serio, John N. Ed.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P, 2007.
- Stevens, Wallace. *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 Knopf, 1954.
- Stevens, Wallace. *The Contemplated Spouse: The Letters of Wallace Stevens to Elsie*. ed. J. Donald Blount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6.
- Stevens, Wallace *The Necessary Angel: Essays on Reality and the Imagination*. Vintage, 1951.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에 나타나는 해체된 인륜의 공동체와 에디의 여성적 공간 연구

김대중(강원대)

I. 에디(Addie)의 목소리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As I Lay Dying*)는 저자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가 한 대학 강연에서 이 작품이 “역작”(tour de force)이라고 자평했을 정도로 포크너의 세계와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칼빈 베디언트(Calvin Bedient)는 이 작품이 “모호함”의 두께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고 본다(262). 베디언트는 이 작품이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못하고, 경험될 수는 있지만 번역될 수는 없으며,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석될 수는 없다”고 논하면서 특히 작품 속 에디(Addie)의 “중요한 독백이 혼란스럽고 이해불가능의 놀라움”을 보여준다고 논한다(263). 베디언트가 논하듯 『내가 죽어 누어 있을 때』가 가진 모호함의 두께의 중심에는 에디가 있으며 이 모호함은 “모호함의 미”(beauty of opacity)로까지 승화된다(263). 실제로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를 해석하는 많은 비평가들은 번드런 가(the Bundrens)의 가족들이 죽어 누어 있는 어머니 에디의 매장을 위해 제퍼슨시(Jefferson)으로 신고 가는 관에서 들려오는 에디의 비현실적 목소리에 주목해왔다. 가령 작품이 나오고 바로 나온 여러 서평들 중에서 에드윈 뮈어(Edwin Muir)는 작품의 “진짜 주제는...늦은 중년에 죽은 한 여인의 시체로서” 포크너가 마치 추리소설 작가처럼 쫓고 있는 것이 “이 시체의 역사”라고 평한다(169). 어빙 하우(Irving Howe)는 재난과 불운의 여정의 중심에는 에디의 독백이 있으며 이 독백을 “포크너의 가장 뛰어난 수사적 작품들 중 하나”라고 논한다(176). 올가 빅커리(Olga W. Vickery)는 “번드런 가문의 사람들은 각기 모두 에디의 죽음과 그녀의 장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에디가 단순한 “어머니나 시체나 혹은 약속이 아니라 아이들의 피 속의 요소로 존재하면서 그들의 복잡한 심리학적 대응들을 지배하고 형성시킨다”라고 해석한다(237). 또한 올가는 에디에게는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려 시도하는 언어의 제의”와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행동의 제의”가 나뉘어 있으며 에디는 후자를 추구한다고 해석한다(239). 그러나 올가는 에디의 불륜을 통해 주얼(Jewel)을 낳는 선택을 은총으로 보는 등 획일적 도덕적 잣대로 작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작품과 에디가 갖는 전복적 성격을 보지 못했다.

도덕주의적이고 가부장-기독교적 해석에 반하여 에디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석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이아나 요크 블레인(Diana York Blaine)은 올가와 같이 에디를 신화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해석해온 비평가들이 에디를 남근중심적 사유에 묶어두는 해석이라고 비판한다(84). 블레인은 오히려 에디를 “혼돈의 작동자이자 죽음의 대변인”으로 파악한다(85). 블레인은 또한 “에디가 찌어가는 시체로서 기능을 하면서도, 그녀의 몸은 종결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텍스트 안에서 자율적인 욕망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87). 블레인이 논하듯 에디의 사중생 속 목소리는 여성의 죽은 몸이 갖는 조용함과 경건함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있으며 새로운 여성성과 목소리를 나타낸다. 또다른 페미니스트 해석으로 도린 파울러(Doreen Fowler)는 이 작품의 제목이 『오딧세이』에서 전쟁을 위해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죽여 신에게 받치지만 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클리템네스트라로부터 복수를 당하는 아가멤논의 대사의 한 구절에서 나온 점으로 미루어 이 소설이 “모친살해와 어머니의 복수”를 다룬다고 논한다. 이 논문에서 파울러는 ‘어머니의 살해’를 다룬 그리

스 비극들 속 어머니 살해에 대해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의 해석을 빌어 논한 다음 어머니를 살해하고 죽음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세계에 어떻게 에디가 저항하고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논의한다(317). 파울러는 또한 라캉의 이론을 이용해 에디가 자아를 벗어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상계를 포용하는지 살피고 모성애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는 그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난점들이 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내가 죽어 누어있을 때』를 살핀 로버트 데일 파커(Robert Dale Parker)는 포크너가 “여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위협들에 대한 것보다 남성성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 더 불편함을 느낀다”(feel queasier about the burdens on masculinity than about the more concretely threatening burdens on women)라고 논하며 작품에 대한 페미니즘 비평의 어려움을 밝힌다(74).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페미니스트 비평들은 대체로 에디의 세계가 갖는 전복적 특징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의 체계 안에서 논의해 왔다. 이러한 기존의 경향과 달리 본 논문은 에디의 공간을 서구 전통적 남성성의 공간이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주장한 인륜 공동체로서의 가족과 대조하고 전자가 어떻게 후자를 인정하면서도 해체하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에디의 공간이 어떻게 인륜공동체를 해체하고 여성의 공간인 코라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륜공동체와 에디의 실존적 선택

에디가 속한 20세기 초반 미국 사회는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가 공고화되고 여성성이 억압받는 세계였다. 파울러가 논하듯 “부권의 우선시와 어머니가 속한 세계를 보이지 않게 하는 시도는 『내가 죽어 누어 있을 때』 속 가부장적 문화의 중심이다”(319). 이러한 공고한 가부장적 체계 속에서 에디는 “상징적 남성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목소리로 존재한다(Fowler 319). 그러나 에디의 공간은 독특하고 도전적이며 기존 질서가 전도된 세계이며 도착적이다. 작품의 제목인 『내가 죽어 누어 있을 때』의 ‘나’가 작품 속 죽은 시체로 존재하는 어머니인 에디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에디에 대한 이야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제목에서 ‘lay’는 중의적 의미들을 갖고 있다. ‘lay’를 과거형 동사로 본다면 ‘누워 있었을 때’가 맞지만 현재형 동사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낳고 있다’나 ‘무언가를 계획을 꾸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dying’과 연결시킬 때 ‘죽어 누어있었을 때’도 되지만 ‘내가 죽어 무언가를 낳고 있을 때’나 ‘내가 무언가를 꾸며낼 때’라고도 해석도 가능하다. 즉 작품의 중심에 있는 에디는 죽은 상태로 말을 하고 누워서 전체 인물들의 행동을 꾸며낼 뿐 아니라 이 인물들의 대다수를 낳은 모성을 통한 생명의 주체이기도 하다. 에디라는 몸의 공간에 죽음과 생명은 동시에 존재한다.

에디의 장에서 죽음과 생명과 여성의 공간은 등가를 이룬다. 그 중 죽음의 의미는 작품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 중 하나이다. 에디를 치료하기 위해 왕진을 가던 의사 피바디(Peabody)는 에디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죽음이란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나는 그것이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음이 결국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고 고통 받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회의주의자들은 그것이 끝일뿐이라고 말한다. 반면 근본주의자들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어느 주택이나 마을에서 이사 나가는 단독 세대주나 가족이라는 의미 밖에 없다”라고 독백한다(44). 즉 피바디는 죽음이란 근본주의도 회의주의로도 해결이 안되는 공간의 채움과 비어있음의 문제라고 본다. 죽음은 끝도 시작도 아니고 생명의 사라짐이 아니라 집에 살다가 나가듯 어느 공간에서의 생명의 비위침이 된다. 피바디가 해석하듯이 에디에게 생명과 죽음은 끝도 시작도 아니며 하나의 실존적 공간의 문제

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에디의 독특한 여성성의 공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머물다 떠나는 여성의 공간의 채워짐과 비워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에디의 생사관과 여성관이 서구 정신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고 또 해체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서구 사상 중에서도 헤겔의 『정신현상학』 속 가족과 여성의 문제와 삶과 죽음과 여성관을 작품과 더불어 읽어내려 한다.

에디의 실존적 세계관은 여성의 몸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이 사유는 서구 사상의 가장 중심적 인식체계를 만든 헤겔의 욕망과 삶과 죽음의 변증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해체하고 있다. 헤겔의 여성관은 분명 그 당시 시대상에 맞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여성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은 이러한 편견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헤겔은 남성의 세계인 인간의 법칙, “즉 지상에 군림하는 의식적이며 간접적인 법칙은” 여성의 법칙인 신의 법칙, “즉 지하에 군림하는 무의식적이며 직접적인 법칙에서 발단된 생동하는 운동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논한다(II 37). 모호한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 인간의 법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운영하는 남성들의 세계에 반하여 여성은 신의 법이 주도하는 가정을 지키면서 무의식적으로 보편적 인륜을 실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속 여성의 인륜의 실천에서 자신의 개별성은 인지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한다. 헤겔은 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지니지 못한다고 암시한다.¹⁾ 그러나 헤겔의 가부장적 해석의 이면에는 남성이 개별성과 공동성이 분리된 존재라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개별성과 공동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존재로서 보다 공동체 지향적 존재임을 반증하고 있다.

헤겔의 논의에서 남편인 앤스(Anse)와 에디의 의무에 대한 사유의 차이의 근원을 엿볼 수 있다. 앤스는 겉으로 제퍼슨시에 묻히고 싶다는 에디에 대한 약속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아내의 시체를 빨리 묻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여야 한다는 욕망을 감추고 있다. 이에 비해 에디는 신의 법을 따르듯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의 이유는 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남을 준비를 하는 것 뿐”(the reason for living was to get ready to stay dead a long time)이라는 명령을 실천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다. 앤스가 가부장적인 인간의 법칙, 즉 죽은 자를 묻고 산자들의 가정을 다시 구성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기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면 에디는 죽은자와의 서약의 의무로서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헤겔은 결국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위력은 서로를 배척하며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라고 본다(II 42).²⁾ 헤겔의 논리를 빌어 설명하자면 에디가 기획한 자신의 장례 여행의 목적은 바로 이 지하에 군림하는 죽은 자와 여성과 신의 법칙을 자신의 자녀들과 남편이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 삶은 죽음이라는 긴 신의 법칙의 세계로 가기 위한 긴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삶과 죽음의 중요도는 전도 되었으며 이를 통

1) 헤겔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에 대해 “한 여인으로 어머니인 경우와 아내인 경우와의 관계는 개별성에 바탕을 두고 한편으로는 쾌락과 관계되는 자연적인 면을 지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낱 스러져가는 부정적인 면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것은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는 우연한 관계”라고 보고 “인륜에 기초한 가정에서는 여성과 관계되는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것은 정으로 묶여 있는 ‘이’ 남편도 ‘이’ 아이도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남편 일반 또는 아이 일반”이라고 논한다(II 35).

2) 헤겔은 가족과 시민사회가 각기 대변하는 여성의 신의 법과 남성의 인간의 법은 “양쪽 모두의 무실함을 입증하는 대립관계로 이행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부정의 운동이며 운명을 사로잡는 가공할 영겁의 필연성으로서, 이 필연의 힘이 가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그리고 이 두 위력을 구체화하는 남녀의 자기의식 모두가 움푹 파인 구덩이와도 같이 옥죄어진 심연으로 나뉘고 만나”라고 주장한다(41). 남자와 여자의 대립은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의 대립이며 시민사회와 가족의 대립이다. 헤겔이 보기에 이러한 대립은 의무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남자가 시민사회의 의무를 위해 가족을 떠나거나 가족의 인륜적 목적을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초월해야 한다면 여자는 신의 법과 의무를 위해 자신의 정열을 사용해야 한다.

해 에디는 가족의 중심이 남성중심, 이성중심이 아닌 죽은 자와의 관계를 통한 여성의 법칙이 통하는 곳임을 증명해 내려 한다.

그러나 에디는 앤스의 남성중심 세계를 부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앤스나 사랑보다 오래된 말들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이 앤스 역시 속였다는 것, 그리고 나의 복수는 내가 복수를 하는지 그가 전혀 모르게 되는 복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I realized that I had been tricked by words older than Anse or love, and that the same word had tricked Anse too, and that my revenge would be that he would never know I was taking revenge)라고 고백한다(172). 에디는 가부장적 가족체계가 앤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에디는 이 체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담론과 권력의 체계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에디는 앤스라는 개인만이 아닌 이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불륜을 결심하고 헛필드(Whitfield) 목사와 불륜관계를 통해 주얼(Jewel)을 낳게 된다. 앤스와 결혼하여 갖게 된 남부 오지의 땅은 에디가 “이제 내 피와 살이 된 대지를 들으며”(hearing the land that was now of my blood and flesh)라고 말하듯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살과 비유된다. 에디는 피와 살의 의미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다음과 같이 또한 독백한다.

나는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나는 그 이유(이성)이란 살아있는 자들, 즉 그 무시무시한 피, 대지를 통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붉고 모진 피의 홍수에 대한 의무라고 믿었다. 나는 죄라는 것을 생각 할 때마다 세계의 얼굴에 입혀놓는 옷감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는 단지 그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신중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죄란 그가 만들어낸 죄를 씻어내기 위해 죄를 만든 신에 의해 규정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더욱 지독하다.

I believed that I had found it. I believed that the reason was the duty to the alive, to the terrible blood, the red bitter flood boiling through the land. I would think of sin a I would think of the clothes we both wore in the world's face, of the circumspection necessary because he was he and I was I; the sin the more utter and terrible since he was the instrument ordained by God who created the sin, to sanctify that sin he had created.(274)

에디의 독백에서 모호한 단어는 “the reason”이다. ‘이유’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이 단어의 의미는 ‘이성’이라고 보아도 되며 그럴 경우 에디가 논하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와 팔루스(phallus) 혹은 남성중심주의 언어에 대한 적대감과 상통하게 된다. 에디는 이성과 언어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의무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의무란 사실상 대지에 흐르는 쓰디쓴 붉은 물줄기에 불과한 남성중심적 부계 사회의 근간인 핏줄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에디는 핏줄에 대한 환상처럼 죄악이란 세계의 얼굴에 씌어진 옷감에 불과하며 죄악이 건어진 순간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에디는 헛필드와의 불륜에서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에디는 “죄는 마치 옷과 같아서 모양을 얻기 위해 벗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묘사한다(175). 에디는 세상의 실체가 결국 자신의 실존적 주체성임을 강조한다. 에디는 앤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까지 거부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디의 전도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몰도덕적(amoral)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헤겔의 욕망, 삶, 죽음의 변증법을 살펴보려 한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그 복잡한 체계 속에 인간의 실존적 욕망과 죽음과 삶에 대한 모호한 이론을 내놓았다.Judith Butler)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다루어지는 욕망과 삶과 죽음의 변증법을 논한다. 버틀러가 해석한 헤겔에 따르면 주체는 세계 속 타자 혹은 대상을 욕망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명의 공간을 떠나게 되는 반면 자신의 욕망을 통해 반성적으로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의 대상은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욕망은 대상으로 향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역으로 자신으로 반성적으로 오성으로 파악된 욕망은 대상을 부정하게 된다. 이 이중작용으로 주체와 대상은 이중적 부정으로 바뀌게 된다.³⁾ 버틀러가 해석한 헤겔의 체계 속 욕망의 변증법은 폭력적이고 도착적이며 모순적이다. 욕망은 한편으로 타자의 죽음을 바란다. 타자를 완벽하게 사라지거나 혹은

자신의 내부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보편화되기를 바란다. 반면 타자의 사라짐은 욕망의 끝을 의미하고 주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즉 타자의 죽음은 주체의 생명을 의미하지만 타자의 완벽한 사라짐은 주체의 죽음 역시 의미한다.

욕망의 변증법이 지배하는 가족이라는 가부장적 인륜의 세계에서 생명은 곧 자신의 욕망을 타자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타자화와 타자와의 관계만을 욕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체는 어느 정도 절망과 타자와의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욕망은 “부정을 부정하기”로 나타난다(Butler 38).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 주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죽음이라는 보편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주체는 생존을 위해서 (남편과 같은) 타자의 완벽한 사라짐이 아닌 (아이를 출산하듯) 타자의 무한한 증식을 요구하게 되고 타자의 부정(사라짐)을 부정해야 한다. 욕망의 변증법은 이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타자와 모순적 관계를 끝까지 모호하게 유지시킨다. 에디가 볼 때 이러한 모순적 관계는 가부장사회에서 욕망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남편의 가부장적 체계 속에서 신의 법이라고 명명된 가정과 아이들의 출산과 보호를 위해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과의 모순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이다. 에디는 이 모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기존의 가부장적 담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도 착적이지만 실존적인 ‘사랑의 윤리’를 선보인다.

의사 피바디는 에디의 사랑의 윤리를 읽어낸다. 의사인 피바디는 죽음을 맞이한 에디에게서 여성만이 갖는 사랑과 죽음의 존엄성을 본다. 의사 피바디는 “그것은 이해(오성)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지. 자존심 말이야. 자존심은 우리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가져오고 우리를 수술실들로 데려가고 대지 안에서 다시 한 번 고집스럽고 광폭하게 데려가야 할 비천한 벌거벗음을 감추려는 그 분노에 찬 욕망을 말하는 거라네”(That’s what they mean by the love that passes understanding: that pride, that furious desire to hide that abject nakedness which we bring here with us, carrying with us into operating rooms, carry stubbornly and furiously with us into the earth again)라고 독백한다(46). 피바디는 에디와 같은 여성에게 사랑이란 일반적 ‘오성’(understanding)을 넘어서는 세계라고 본다. 칸트의 논의를 빌리면 오성을 넘어서는 세계는 이율배반의 세계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계이다. 이 세계 속에서 여성의 사랑은 자존심(pride)의 또다른 말이다. 여성에게 사랑으로서의 자존심이란 자신이 수술실에서의 출산을 통해 세상에 데려온, 그리고 죽음으로 다시 대지로 데려가는 비천한 (abject) ‘벌거벗음’을 감추는 것이다.⁴⁾ 욕망의 변증법은 타자화된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과 죽음마저도 벌거벗은 비천함을 용납하고 인내해야만 하게 만든다.

에디의 급진적 ‘사랑’을 통한 인륜의 전도는 남성중심적 세계가 가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형성시키는 오래된 인륜의 체도에 대한 도전이다. 에디는 “자신이 느끼는 생물학적 형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그녀와 앤스와 문화적 맥락이 자신의 몸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분노한다(Parker 76). 에디는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관계를 철저하게 전복시킨다. 그녀에게 가정과 모성이란 불가피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

3) 버틀러는 이러한 상황을 “Experiencing itself as an essential poverty, self-consciousness becomes a vacuum that must consume Life in order to gain some temporary reality for itself. This subject does not sit with its identity as a static nothingness in the midst of being; indeed, it seems unable to bear the stasis of its own negativity. Thus, without intentionally challenging the presumption of ontological exile, this agent sets its own negativity into motion, becoming an agent of nothingness, an actor whose role is to negate. Thematizing the presumed conditions of its own identity, this subject dramatizes its despair. Instead of a dead being, it becomes an agent of death”이라고 묘사한다(37)

4) 벤디언트는 이에 대해 “This nakedness, this dreadful isolation, is already a kind of defeat, a form of abjectness, so that the utmost to be expected from the mind in its continual conflict with the world is simply a capitulation without dishonor: a surrender of everything, if need be, except pride”라고 본다(264).

과하다. 에디는 그러한 이유로 “모성이란 누군가 언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motherhood was invented by someone who had to have a word)라고 선언한다. 에디가 보았을 때 모성에란 그저 말만 많은 이들이 만든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에디는 모성이나 가족이나 헤겔이 가정의 근본이라고 본 신의 법이 요구하는 ‘비천한 벌거벗음’을 인내하지 않으려 한다. 에디는 또한 생과 사의 세계가 죽음과 생명의 변증법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생과 사의 변증법에 묶이는 순간 인간은 끝없이 타자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부정하는 헤겔식 욕망의 변증법 속에 갇히게 된다.

에디는 이것을 벗어나 그것이 신의 법이 지배하는 가정을 해체하고 생과 사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닌 여성으로서의 ‘홀로’ 세우는 이성너머의 이율배반적 윤리를 자존심으로 지켜내려 한다. 에디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따라서 자신의 실존적 공간에서의 홀로 있음이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코라(Cora)역시 그녀를 묘사하면서 “외로운 여자, 자신의 자만심으로 외로워진 여성”이라고 묘사한다(20).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코라의 관점이다. 에디의 외로움은 실존적 외로움이며 그녀는 이 외로움의 선택을 통해 억압적 담론으로 형성된 모성이나 가정의 의미를 해체한다. 에디에게 “살아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고, 주인공으로서의 자신은 이 넓은 땅에서 벌거벗고 소외된 의식으로 홀로 있어야 한다’(Bedient 264). 에디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에디는 자신만의 ‘홀로 세운 생과 사의 변증법을 넘어선 윤리’를 통해 욕망의 변증법에서 벗어나려 한다. 남성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는 에디에게 출산과 죽음에 있어서도 ‘비천한 벌거벗음’만을 강요할 뿐이다. 에디는 헤겔의 인류 공동체(ethical community)로서의 가족의 원칙인 가부장적 도덕률에서 벗어난 ‘전도된 인류의 공간’(inverted ethical space)을 세우려 한다. 이 전도된 인류의 공간은 ‘코라’라고 칭해질 수 있다.

Ⅲ. 여성 주체의 공간으로서의 코라(Chora)

에릭 선퀴스트(Eric Sundquist)는 에디장을 다루면서 “모성, 사랑, 자존심, 죄악, 공포와 같은 단어들은 단지 결여를 채우는 형태들에 불과하고, 막상 그들에 대한 필요가 발생할 때는 성취된 행위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빈 공간을 적절히 채울 수 없다”라고 논한다(원문 이탤릭 296). 에디는 『내가 누어 죽어 있을 때』 전체를 품고 있지만 또한 어떤 인물의 이야기도 그녀의 이야기에 포함될 수 없도록 만드는 빈공간이며 그녀의 몸 역시 그녀의 자궁으로부터 아이들이 생겨났지만 그 아이들 누구도 머물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에디는 언어가 채울 수 없는 결여 그 자체이며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다. 가령 작품에서 에디는 “name until after a while I could see the word as a shape, a vessel...: a significant shape profoundly without life like an empty door frame; and then I would find that I had forgotten the name of the jar. I would think: the shape of my body where I used to be a virgin is in the shape of a and I couldn't think Anse, couldn't become Anse.”라고 한다(173). 여기서 에디는 언어를 일종의 담는 용기로 본다. 이 용기는 생명을 담지 못한다. 하지만 에디는 이 용기 혹은 항아리(jar)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담지 못하던 이 항아리나 담는 그릇과 같은 몸은 빈칸으로 남게 된다고 인식한다. 원문에 “a and” 사이에 비어있는 비어있는 칸은 여성으로서의 에디가 갖는 자신의 ‘이름없음으로서의 이름’이자 생명을 담았지만 이름붙일 수 없는 공간이자 생명을 담지만 생명이 흘러나가고 비어있게 되는 공간을 모두 의미하게 된다. 즉 에디의 한 때 처녀로서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있던 장소는 앤스와 성적 관계와 출산등으로 인하여 빈 공간이 되었지만 반면 이 공간은 앤스의 이름이 “될 수 없는”(couldn't become)자신만의 공간이 된다. 파커가 주장하듯 텍스트 속의 빈칸은 “에디의 젠더에 대한 담론들로 가득차 있다”(76). 그러나 이 공간은 이름지을 수

없는 빈칸의 공간이다. 5)

에디의 빈칸으로 묘사하는 자신의 몸의 공간은 플라톤이 비의적으로 논한 코라와 상통한다. 20세기 이후 여성 주체의 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논해지는 은유가 코라(Chora, Khora)이다. 코라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Timaeus)의 구절에서 인유한다.6) 『티마이오스』에서 코라는 “모든 되기의 용기로서 유모라고 부르는” 어떠한 공간을 지칭한다. 코라는 일정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공간이자 모든 생명의 탄생지이며 유동성의 공간이면서 ‘유모’(webnurse)라는 육아와 여성의 몸의 이미지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공간 혹은 ‘용기’(vessel)로 묘사된다. 코라는 생명이 생성되고 담기지지만 생명이 흘러 나가는 용기이자 육아의 장소로서의 여성의 몸과 여성성을 나타낸다. 코라는 모순과 이율배반과 보충대리의 공간이다.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그의 『이름에 대하여』(On the Name)의 한 장에서 코라에 대해 논한다. 데리다는 “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의 이름이 왔을 때, 그것은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즉 이름의 타자와 좀 더 쉽게 말해 타자, 즉 그 이름이 나타내는 난입을 의미한다”(89)라고 알쏭달쏭하게 설명한다. 데리다는 또한 코라는 감각적이지도 지적이지도 않으면서 제 삼의 종류에 속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도 동시에 이것이자 저것”이며 “참여와 배제의 논리 사이에 있는 교체로서...이름붙일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나타낸다”고 논한다(89). 데리다가 볼 때 코라는 에디의 ‘이름없음으로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모순과 이율배반의 공간으로서 이것과 저것 사이의 지속적 상호부정과 변동 자체이며 이름을 거부하는 이름이다. 데리다가 해석할 때 코라는 지성과 감성의 경계, 이름과 이름없음의 경계, 은유와 실제의 경계를 모두 넘나들며 서로를 모순의 관계로 몰아놓아 이분법을 해체시키는 보충대리(supplement)적 관계 그 자체이다. 그것은 코라가 “모든 결정물들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그가 그중의 어떤 것도 그녀의/그것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기에 가지고 있지만 재산처럼 그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Derrida 99).7)

코라에 대해 페미니스트들 역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중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그녀의 『시적 언어의 다혁명』(Revolution in Poetic Language)에서 플라톤이 논한 코라의 공간을 기호학적 공간(semiotic space)으로 본다. 그녀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코라가 “essentially mobile and extremely provisional articulation constituted by movements and their ephemeral stases”라고 해석한다(25). 크리스테바는 기호학적 언어가 재현의 틀에서 벗어난 발화에서 나왔다고 보고 이러한 특징이 코라를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크리스테바는 코라란 “is not yet a position that represents something for someone(i.e. it is not a sign); nor is it a position that represent someone for another position (i.e. it is

- 5) 여성의 공간에 대해 이리가레이는 그녀의 『성적 차이의 윤리』(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에서 여성의 공간으로서의 ‘장소’(place)를 논한다. 이리가레이는 플라톤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Physics)에 대한 장소가 플라톤의 코라에서처럼 질료도 형식도 없는 장소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소가 만일 ‘사물’(thing)일면 장소 안에 장소가 무한히 들어가야 하기에 사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장소는 사물 ‘안’에 있거나 사물이 장소 ‘안’에 있어야 한다(40). 이리가레이는 이러한 장소의 특징이 성차(sexual difference)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리가레이는 여성성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빈공간(vessel)인 반면 남성성은 이 공간에 담겨야만 하는 존재임에 주목한다. 그래서 여성은 늘 그 자신과 “두 가지를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다. 그녀 자신과 그녀가 용기가 되는 그 무엇, 즉 남자나 아이를 가지게 된다”(41). 그러나 이 여성성으로서의 빈공간은 무언가를 담을 수는 있지만 담겨진 것과 형식과 질료를 공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과 ‘담김’이 존재하는 여성성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여성은, 그녀가 담는 장소가 되는 한에서 절대로 닫힌 공간이 되지 않는다”(51).
- 6) 본 저자는 코라에 대해 『테레사 차학경의 『덕테』에 나타난 기원의 이름들』에서 코라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코라에 대한 부가적 설명은 이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7) 데리다는 철학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헤겔이 철학의 신화에 대한 우위를 논하면서도 신화의 불가피성을 논하는 모순을 추적한다. 데리다는 이 모순 속에서 감각과 지성, 몸과 영혼, 장소를 갖는 것과 장소에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사이의 틈(chasm)에 있는 코라를 발견한다(103).

not yet a signifier either); it is, however, generated in order to attain to this signifying position”이라고 보고 “vocal or kinetic rhythm”이라고 해석한다(26). 따라서 코라란 “modality of significance in which the linguistic sign is not yet articulated as the absence of an object and as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symbolic”이라고 본다(26). 언어가 가진 표상의 질서를 생성하지만 그 자체로는 대상의 부재로 인하여 발화되지 못하는 이 공간은 끝없는 생성의 공간이며 비어있는 기호의 공간이다.

크리스테바의 시적 언어와 기호론적 언어의 연관성은 포크너의 작품, 특히 에디의 비어있는 공간으로서의 몸의 공간과 서사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크리스테바는 이 코라의 공간이 “언어의 획득에 앞서서 존재하는 공간이자 몸과 대상들과 가족이라는 구조의 주인공들 사이의 연결을 지배하는 언어이전의 기능성 상태”라고 본다(27). 코라로서의 이 공간은 언어가 생성되고 행동이 발생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지만 그 자체로는 이름도 없는 빈 공간이다. 그리고 이 비어있음의 잠재성으로 인하여 끝없는 탄생과 새로운 기호들이 생성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테바는 기호적 언어의 공간을 모성과 연결하여 “어머니에 자신의 몸이 기원하게 하고 연결시키는 전-외디푸스 기호적 기능들과 에너지의 발산”의 공간이라고 본다(27). 모성의 몸은 “상징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들을 매개하는 것이며 파괴와 공격성과 죽음의 길에 있는 기호적 코라를 통한 질서의 원칙을 형성시킨다”(27). 따라서 모성의 몸으로도 지칭되는 코라의 공간은 “주체가 생성되고 부정되는”공간이다(28). 크리스테바의 코라는 모성의 공간이고 시적 언어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여성이 공간은 아니다. 전통적인 여성성은 이 공간에서 비어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 남는 것은 빈 공간에 있는 ‘생성과 사멸’을 담아내는 기호적 언어 뿐이다. 크리스테바는 이 공간의 기호적 언어의 예로 말라르메와 같은 시인의 이해하기 힘든 시적 언어의 세계를 언급한다.

에디의 전도된 인륜의 공간으로서의 여성성은 해체의 공간으로서의 코라와 상통한다. 특히 크리스테바의 이론을 통해 볼 때 에디의 언어는 다른 캐릭터들의 언어와 다르면서도 에디의 언어화되기를 거부하는 ‘빈 공간’의 기호적 생성을 통해 다른 캐릭터들의 언어들이 생성된다. 에디의 빈 공간은 살아있는 몸의 공간이고 자궁이지만 생명이 흘러나가고 죽음이 생성되는 공간이기도하다. 따라서 언어는 이 공간을 이름붙일 수 없다. 앤스의 가부장적 인륜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그 이름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에디의 이 ‘빈 공간’으로서의 코라때문이다. 이라가레이가 논하듯 “남성이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언어의 그물망은 그 자신을 몸이 없는 몸이나 살이 없는 타자나 그가 이유와 원천과 물질적이고 생생한 이유를 잃은 법들”의 세계이다(133). 에디는 가부장적 담론으로서의 언어의 세계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보인다. 에디는 언어란 위선의 공간이고 진정한 삶의 태도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남성의 세계에 속한 담론으로서의 언어는 에디가 느끼는 세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에디는 “I knew that fear as invented by someone that had never had the fear; pride, who never had the pride. I knew that it had been, not that they had dirty noses, but that we had to use one another by words like spiders dangling by their mouths from a beam, swinging and twisting and never touching, and that only through the blow of the switch could my blood and their blood flow as one stream”이라고 독백한다(172). 에디에게 남성과 여성, 아이와 어른의 언어란 주둥이에서 실을 뽑아 기둥에 매달려 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공간이다. 언어가 할 수 없는 소통은 오직 몸으로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죽음과 피가 개입된다.

에디의 코라로서의 공간은 그녀에게 가장 무심해 보이는 듀이 델에게 연결된다. 올가는 듀이 델이 “에디의 주임과 장례에 대해 가장 관심이 적은 인물”이라고 평한다(244).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Dewey Dell has no need of Addie because she herself is recreating Addie’s past and discovering that pregnancy is both a state of mind and a physical fact, both word and an action. But unlike Addie, she is determined, if possible to effect their separation”(Olga 244). 듀이 델은 “I feel my body, my bones and

flesh beginning to part and open upon the alone, and the process of oming unalne is terrible”이라고 하며 에디와 마찬가지로 임신이 자신의 ‘홀로있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61-2). 듀이 텔은 또한 에디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세계를 극도로 혐오한다. 에디와 마찬가지로 듀이 텔은 헤겔의 세계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남자 형제들의 누이이지만 듀이 텔은 자연법에 대항한 신의 법을 지키고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 가족의 인륜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안티고네와 같은 비극적 여성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듯 실존적 ‘홀로있음’과 ‘행동’을 강조하고 자신의 주체적 삶을 선택하려 한다. 듀이 텔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아이를 지우고 새로운 생을 꿈꾸는 적극적 여성으로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깨려 한다. 듀이 텔은 자연법과 신의 법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만의 실존의 법에 따라 살려 노력한다.

듀이 텔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에디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이의 출산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too soon too soon too soon)왔다고 되뇌면서 듀이 텔은 시간의 올라미와 모성의 올라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려 한다(120). 그녀에게 형제들은 단지 대상들에 불과하고 형제들 역시 다알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듀이 텔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듀이 텔은 자신이 레이프와의 관계를 통해 갖게 된 아이와 낙태를 생각하며 “That’s what they meant by the womb of time: the agony and the despair of spreading bones, the hard girdle in which lie the ouraged entrails of events”라고 생각한다(121). 듀이 텔은 어머니 에디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코라를 완성한다.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듀이 텔에게 에디는 “I am I and you are you and I know it and you don't know it and you could do so much for me if you just would and if you just would then I could tell you and then nobody would have to know it except you and me and Darf”이라고 말해준다(51). 에디는 듀이 텔에게 자신과 그녀와 서로 별개의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녀와 다알이 듀이 텔의 임신을 알고 있지만 그녀의 삶의 독자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죽어서도 강조한다. 가장 무관심한 관계인 듯 싶지만 듀이 텔과 에디의 어머니와 딸로서의 관계는 여성의 독자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IV. 에디와 코라, 그리고 미래

에디의 장은 규정될 수 없으며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에디 장 자체가 갖는 힘이고 그녀가 대변하는 여성성의 공간인 코라의 힘이다. 코라는 이름없는 이름이고 규정될 수 없는 여성성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어떠한 해석도 품을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에디는 “죄악이 단지 말들의 문제인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역시 말들의 문제들이다”라고 되뇌며 에디의 독백을 마친다(176). 죄가 가부장적 담론체계의 소산이라면 구원역시 그러한 세계의 소산이다. 에디는 구원마저 언어의 차원에서 거부한다. 에디의 시체가 땅 속에 묻혔다고 해도 그녀가 헤겔이 논하듯 보편적 세계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듀이 텔의 삶을 비춰볼 때 그녀의 코라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그녀의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독착적 사랑과 윤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의 증상이라면 그 증상이 지금도 『내가 죽어 누어 있을 때』를 읽는 독자들에게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에디와 에디의 공간으로서의 코라는 유의미할 것이다.

Works Cited

- 헤겔, 게오르크. 『정신현상학』 I, II. 임석진 옮김. 서울: 한길사, 2005.
- Bedient, Calvin. "Pride and Nakedness: As I Lay Dying." *As I Lay Dying*. Ed. Michael Gorra.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Company. 262-275.
- Bleikasten, Andre. *The Ink of Melancholy*. Bloomington: Indiana UP, 1990.
- Brooks, Clenath. William Faulkner: *The Yalnapatawpha County*. New Haven, CT: Yale Up, 1963.
- Butler, Judith. *Subjects of Desire: Hegelian Reflections in Twentieth-Century France*. New York : Columbia UP, 1999.
- Edmond L. Volpe.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 The Novels*. Syracuse, New York: Syracuse UP, 2003.
- Faulkner, William. *As I Lay Dying: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Print.
- Fowler, Doreen. "Matricide and the Mother's Revenge: *As I Lay Dying*." *As I Lay Dying*. Ed. Michael Gorra.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Company. 315-328.
- Howe, Irving . *William Faulkner: A Critical Study*. Chicago: Ivan R. Dee, 1991.
- Irigaray, Luce.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 Gillian C. Gill. Ithaca: Cornell UP:1985.
- _____.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Trans. Carolyn Burk and Gillian C. Gill. Ithaca, New York: Cornell UP: 1984.
- Kristeva, Julia.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Trans. Margaret Waller. New York: Columbia UP, 1984. Print.
- O'Donnell, George Marion. "Faulkner's Mythology." *William Faulkner: Four Decades of Criticism*. Ed. Linda Weslshimer Wagner.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P, 1973. 83-93.
- Parker, Robert Dale. "Sex and Gender, Feminie and Masculine." *Faulkner and Gender*. Ed. Donlad M. Kartiganer and Ann J. Abad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6. 73-96.
- Sundquist, Eric. "Death, Grief, Analogous Form: *As I Lay Dying*." *As I Lay Dying*. Ed. Michael Gorra.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Company. 286-304.
- Vickery, Olga W. "The Dimension of Consciousness." *As I Lay Dying*. Ed. Michael Gorra.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Company. 236-248.
- Warren, Robert Penn. "William Faulkner." *William Faulkner: Four Decades of Criticism*. Ed. Linda Weslshimer Wagner.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P, 1973. 94-108.

하디의『푸른 숲 나무 아래』에 나타난 ‘탈-염세주의’*

- ‘멜스톡 공동체’를 중심으로 -

‘Post-Pessimism’ in Hardy’s *Under the Greenwood Tree*

- Focusing on ‘Mellstock Community’ -

사공 철(경운대학교)

토마스 하디(1840~1928) 소설의 의의 중의 하나는 비극적 세계관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를 염세주의 작가라고 하는 것도 그의 이러한 세계관과 연관이 깊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그를 희극작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 반(反)하여 문학가로서의 하디의 세계관을 ‘탈-염세주의’ 작가라는 관점으로 재조명해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하디의 대부분의 저작들이 자연주의적 인생관을 그의 예술의 기조로 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한 작가의 작품은 그의 영혼의 예술적 총화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이 작품 속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양면적 존재의 미학’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디 자신도 “희극의 다른 면은 비극이요, 비극의 다른 면은 희극”(Florence 215)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런 점에 비추어 그간 논의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하디의 문학에 관한 희극적인 면을 드러내어¹⁾ 그의 작품을 한층 더 “살아있는 총체”(a living whole)²⁾로서 새롭게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하디의 두 번째 소설인 『푸른 숲 나무 아래』(*Under the Greenwood Tree*, 1872)를 다루어 보고자 하며 논지와 관련한 평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디가 서문에서 교회 성가대원들을 “너무 밝게, 심지어 너무 익살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 경박하게”(X XIV)³⁾ 묘사하였던 것을 후회하자, 이에 대해서 단비(Danby, John F)는 오히려 심오한 문학적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칭송하고 있다(91, 93). 세실(Cecil David)과 밀게이트(Millgate Michael)도 하디 작품들을 통틀어 개관할 때 이 작품은 점차 밝고 명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치고는 “가장 결함 없는 소설들 가운데 하나”(Cecil 203, Millgate 50)라고 높이 평가한다. 라이트(Wright David) 역시 이 작품을 하디의 「명량한 사람」(*L'Allegro*)⁴⁾이라고 칭하고 있다(22).

이 소설의 처음 제목은 『멜스톡 성가대』(*The Mellstock Quire*)였다. 그는 이를 셰익스피어의 목가적 희곡,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 담긴 노랫말⁵⁾에서 따와(Squires 109) 『푸른 숲 나무 아래』로

* 본 논제의 ‘탈-염세주의’라는 용어에서 ‘탈’(post)이라는 접두사는 원래 ‘후기의’(after)(Hall 237) 또는 ‘넘어서’(beyond)(Hall 243)라는 의미이나, 본 논문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희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유머’, ‘재치’, ‘익살’, ‘풍자’ 등의 밝고 명량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논한다는 개념에서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 1) 필자는 이러한 접근을 하디 문학에 관한 ‘탈-염세주의’적 접근으로 칭한다.
- 2) 작품의 ‘살아있는 총체’(a living whole)란 한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기존의 귀중한 성과나 사상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으로 결합된 작품의 생명력이다(박익두 14).
- 3) 이하 『푸른 숲 나무아래』(*Under the Greenwood Tree*)(1872)의 본문 내용의 인용은 괄호 속에 페이지만 표기한다.
- 4) 「명량한 사람」(*L'Allegro*)은 밀턴(John Milton)의 명량하고 활기찬 시(詩)이다. 그의 또 다른 침울한 분위기의 시 「우울한 사람」(*Il Penseroso*)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5) 당시에 소설 제목은 노래에서 따오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디의 『일기』에 적고 있다(86).

Under the greenwood tree

푸른 숲 나무 아래

개명하여 부제(*A Rural Painting of the Dutch School*)를 달아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이렇듯 하디를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 작품은 『속된 무리를 떠나서』(*Far from the Madding Crowd*, 1874), 『숲 속의 사람들』(*The Woodlanders*, 1887)과 함께 하디의 ‘세 목가 소설’(Draper 36-49)로 묶이지만, 전자에서는 목가적 상황의 분위기가 아직 온존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의 두 작품은 목가적 전원이 위기에 놓인, 또 그렇게 변모되어가고 있는 당시의 시골 농촌 공동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달리 한다.

『푸른 숲 나무 아래』는 멜스톡 교회 성가대의 현악 연주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젊은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멜스톡 공동체(Mellstock Community)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앞날의 불안한 사회상이 감지되는 조짐들이 일고 있기는 하나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 멜스톡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시종일관 본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며 화목하고 활기에 넘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이러한 분위기에 주목하고 멜스톡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등장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탈염세주의적 요소 살펴보면 이들 주인공의 사랑과 멜스톡 공동체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롭게 보전되어가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하디는 이 작품을 제1부 겨울, 제2부 봄, 제3부 여름, 제4부 가을, 제5부 결론으로 다섯 부로 나누어 계절에 따라 멜스톡 공동체를 마치 한 해 동안의 숲과 자연의 모습이 연속되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의 첫 문장에 충실하게 드러나 있다(3). 멜스톡 공동체의 사람들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나무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해만의 자연 현상은 아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속된 4계절이고 숲이며 나무들이다. 그들은 순환하는 계절에 따라 숲의 외관은 달라져도 ‘나무의 개성마저 없애 버리지는 않고’ 본질은 언제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멜스톡 공동체 마을에, 새로운 문명의 여파가 밀려들어오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구질서를 상징하는 딕 듀이(Dick Dewy)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여주인공 팬시(Fancy)와의 갈등과 로맨스가 겹치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주인공 딕은 멜스톡 교회의 성가대원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는 집안의 자손이다. 그는 전통적인 웨섹스(Wessex)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까만 판지로 만든 신사의 초상화’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그 사회에 굳건히 뿌리박고 살아가는 평범한 토박이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늘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유난히 우뚝 솟아 보였다. 그의 옆모습은 까만 판지(板紙)로 만든 신사의 초상화처럼 흰한 하늘을 배경하여 더욱 돋보였다. 그 초상화는 춤이 낮은 모자 모양과 보통으로 생긴 코, 보통으로 생긴 턱, 보통으로 생긴 목, 보통으로 생긴 어깨를 하고 있었다. (4)

딕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그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여주인공 팬시는 멜스톡 마을에 갓 부임한 여교사로서 첫 등장부터 딕과 대조적이다. 그녀는 ‘인형도 저만큼은 예쁘지 못하다’는 빼어난 미모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관계로 새

Under the greenwood tree
Who loves to lie with me,
And turn his merry note
Unto the sweet bird's throat,
Come thither, Come thither, Come thither:

(Amiens, attending the banished Duke, sings in Act 2, Scene 5, *As You Like It*)

푸른 숲 나무 아래
나와 함께 누워 즐거운 그 소리로,
사랑스러운 새의 노래에
소리 맞추어 노래하고 싶은 사람아,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문화에 동화되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더구나 그녀는 멜스톡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풍금 연주자’로서 ‘전통적인 성가대’를 밀어내게 됨에 따라 공동체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공동체의 ‘시골사람들’(rustics)은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가대원들로서 작품의 이야기 전개에 ‘코러스’(chorus) 역할을 하며, 이들이 보이는 재치와 유머는 작품의 핵심 매력이 되고 있다(Duffin 148). 피니언(Pinon F. B) 역시 유머의 주인공들은 주로 시골사람들이고 그들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시골뜨기(clown)에서 본을 따온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74). 그들은 딕의 아버지 루벤(Reuben)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구수한 익살로 매 순간마다 공동체 마을의 분위기를 밝고 유머러스하게 이끌고 나간다. 크리스마스 새벽 팬시 집 앞에서 새벽 찬송을 부르던 성가대원들이 촛불을 들고 나타난 팬시의 ‘숭고한 모습’을 보고 유머 섞인 찬사를 연발하는 장면이나, 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모자를 바로 잡는’(20-21)행위는 어딘가 어색하며 우스워 보인다.

새벽 찬송을 부르던 딕은 팬시의 환상적인 모습에 가던 길을 되돌아와 팬시의 집 침실 창문 맞은편에서 꿈쩍 않고 서 있다. 첫눈에 팬시에게 반한 딕은 마치 ‘길 잃은 애’(23)처럼 희화화(戲畵化)되고 있다. 새벽 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들 딕을 찾던 아버지 루벤은 아름답고 세련된 팬시를 처음 본 순간 그녀가 이 마을의 신임목사 메이볼드(Maybold)를 ‘손가락으로 목살을 휘감아서 8자로 뱅뱅 꼬아’ 자기 수중에 넣게 될 것이라는 우스꽝스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의 예언은 적중하여 메이볼드는 예배 시에도 신도들이 눈치 챌 정도로 팬시에게 뜨거운 눈길을 보내며 팬시에게 점차 빠져든다.

“아까 그 아가씨 말이야. 그 애기의 생김새 하고 이 짧은 목사의 생김새는 내 생각 같아선 그 애기가 손가락으로 목살을 휘감아서 8자로 뱅뱅 꼬아 버릴 것 같아. 이제 두고 보게나. 그 애기 틀림없이 그럴 테니.” (24)

딕은 이미 사랑에 병들어 간밤에 환영처럼 나타났던 팬시를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가 베이컨을 굽는 가장 현실적인 장면을 바라보며 ‘베이컨이 석쇠 사이에 걸려 있어 마치 어린애 팔에 안긴 고양이’(25)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환영과 관련지어 현실과 환상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희극적인 부조화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샤이너(Shiner)는 크리스마스 날 그의 집 앞에서 성가대원들이 그를 위해 부르는 새벽 찬송가를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만 뒤!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 머리가 쭈셔 죽을 지경인데 조용히 해 달라고”(21) 소리치는 인간미 없는 위인이다. 그는 부유하나 인색한 농부이며 교구위원으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박한 마을사람들을 무시하는 ‘음흉한 웃음’을 보임으로써 그들로부터 소외된다. 샤이너란 그의 이름 자체에서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 서른 댓 쯤 되어 보이는 한 농부이자 교구위원인 샤이너라는 이는 새빨개진 눈과 거친 호흡, 시계 줄 하며 입에는 음흉한 웃음 그러나 진작 웃어 본 적이 없다는 웃음으로 모두의 눈에 나타났다. 그는 제물에 연회에 참석은 했어도 놀랍게도 전날의 행동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었다. (32)

결국 성가대원들의 갈등으로 인한 해체 원인은 팬시를 독차지하려는 샤이너의 극성에 의한 것임을 알고 성가대원 중의 한사람이 “그러고 보면 계집이 제일이고 음악은 둘째란 말이지, 다른 교구위원은 샤이너보다 못하고, 목사는 그 교구위원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군.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잖아.”(62-63)라는 풍자적인 말을 던진다.

페니 부인(Mrs. Penny)의 연애담도 딕 못지않은 희극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 여름 밤 이브’(Mid-summer Eve)는 민속으로 내려오는 한 행사로서 처녀들이 미래의 신랑을 미리 만날 수 있다는 가슴 조이는 밤이다. 그녀 앞에 나타난 청년은 그녀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잘 생긴 청년이 아니고 난쟁이처럼 키도 작고 보잘 것 없는 현재의 남편이었음을 보고 실망했던 일을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패니 부인의 결혼의 에피소드 속에는 희극적인 운명의 아이러니가 깃들여 있다.

“그 때 시계가 열두 번을 쳤어요. 아! 그 때! 저기 오솔길을 걸어오는 사람 구두장수 앞치마에 조그만 그야말로 조그마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문 밖에 보였어요.”

“... 안으로 걸어와서는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고 맙소사... 저는 혼비백산하여 위층으로 달아나버렸어요. 그러나 실은 제가 그 전에 존과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도. 아! 그날 밤! 그날 밤. 올 것은 드디어 오고야 말았어요. 페니가 저한테 와서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미처 어쩔 줄을 모르는 동안 일은 다 치러졌더랬어요.” (37-38)

한편, 셰익스피어 작품의 ‘바보’(fool)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은 리이프(Leaf)이다. 그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며 등장하는데 하디는 그의 멍청하고 바짝 마른 모습을 ‘뼈와 그 위에 걸쳐진 옷만으로 생긴 젊은이’(7)로 비유하고 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외관은 갖추었으나 속은 텅 빈 정신의 부채를 과장한 풍자적인 표현으로 ‘히 - 히 - 예!’(8)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껍이나 익살스럽다. 그는 스스로 “머리통이 텅 비었다”(53)고 하지만 “내일이면 그 자식 생일이거든”(53)이라고 하며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보아 바보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제프리(Geoffrey Day)가 마치 자기를 “내 속이 꼭 시계바늘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까지 다 쳐다보고”(64) 있다고 재치 있게 받아 넘기는 인물이다.

이 밖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덕의 할아버지 윌리엄 듀이(William Dewy)이다. 그는 ‘칠순에 가까운 노인으로서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10) 생활을 하는 멜스톡 공동체의 지도자이다. 윌리엄 노인은 전통적인 성가대에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 “성가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을”(50) 정도로 평생 성가대를 위해 몸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성가대 활동은 물론이고 모든 큰 행사와 조그만 일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살아오면서 터득한 체험적 지혜를 제공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아왔던 탓인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다. 하디는 이처럼 그의 인물됨을 지는 해에 비긴 ‘거대한 그림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희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윌리엄 노인의 눈에는 왕년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불꽃이 다시 튀었고 그것이 낙조의 햇살에 어떤 귀족적인 면모를 자아냈다. 태양은 그에게 적어도 30피트 길이로 동쪽으로 길게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고, 그의 머리 부분은 멀리 떨어진 우람한 고목 떡갈나무 줄기에 아른거리고 있다. (51)

덕의 외할아버지 제임스(James)도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인색할 정도의 검약한 생활을 하지만 마을 행사에는 함께 참여한다. 윌리엄과 제임스는 인격의 개체로서 나름의 특성을 지닌 존재론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고령의 나이를 내세워 권위를 탐하지 않고 늙은이의 욕심이나 고집도 부리지 않는다. 또한 이웃에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항상 밝고 구김살 없게 살아 온 일생이다. 그들의 존재는 이 마을에서 생활하며 활동한 바 있는 여러 선대를 대신함과 동시에 그 선대 조상들을 본받아 뒤따르는 후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 인물이 제프리(Geoffrey Day)와 스팅크스(Spinks)이다. 이들은 야비한 사이너에게 우호적인 속물근성이 몸에 배인 인물이다. 제프리는 팬시의 부친으로 멜스톡 공동체 등장하는 시골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성가대원이 아니다. 그는 로드 웨섹스(Lord Wessex)의 ‘사냥터 관리인’(game keeper)으로서 다른 이웃보다 비교적 여유 있게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그는 사이너의 외모에 현혹되어 딸의 배필로 삼아 자기의 계층을 뛰어 넘게 하려는 내면적 욕망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보기 드문 인물이야. 입이 무겁단 말이야”(63)라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런 분위기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혜로운 인물로 보인다.

스핑크스(Spinks)는 성가대원으로서 야간학교에 잠시 다닌 것을 빙자하여 유식한 체하는 인물이다. 그 역시 딸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자기들 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덕의 청혼을 거절하고 물질적으로는 풍부하나 인간적으로는 속물인 샤이너를 사위로 삼으려 하지만 그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나를 알아낼 사람은 없다. “그 놈의 입은 무거워도 천근쯤 될 거야. 한 번 입을 봉하기만 하면 자식 어떤 일이든 무가내하(無可奈何)거든”(63-64)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의 과묵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성품과는 달리 그의 코는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뒤로 치켜진 들창코는 너무나 우스워 보인다. 해가 ‘그의 얼굴을 비칠 때에는 그의 머릿속까지 속속들이 드러나 보인다’(67)고 하니 보이지 않는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 더욱 아이러니하다.

작품에 양념 같은 인물은 여성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덕의 아버지 루벤이다. 그는 아들 덕에게 충고하기를 결혼할 가망이 없는 여자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통속적인 재치는 우리 속담에 소금이다”(Firor 211)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들 부자(父子)가 나눈 대화는 평범한 속담에서 맞볼 수 있는 구수한 재치가 담겨있다. 여성은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니 결혼할 결심이 섰으면 아무나 최초로 만난 여성과 결혼하라고 권하는 아버지의 말에 대한 아들 덕의 답변에서 희극적인 아이러니가 들어 있다.

“도대체 너 같은 젊은 청년이 아, 집이 없나, 부모가 없나, 배운 것도 있겠다. 그런데 뭣이 또 부족해서 계집아이 쫓다니만 따라다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이다”.

“아버지도 그랬는걸요.” (76)

“자아식이 한방 놓는데 그래.” (77)

덕과 팬시의 사랑이 가장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장(章)은 “밤 따러 가기”(101)이다. 덕은 모처럼 쉬는 날이 팬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희망에 부풀어 밤 따러 가지고 그녀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롱퍼들(Longpuddle)의 젊은이들에게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덕에게는 관심도 없는 옷을 고치는데 열중한다. 그녀가 싹둑싹둑 가위질하며 옷을 고치는 동안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장난치다가 그만 꽃병을 뒤엎지만 덕은 옆질러진 꽃병의 물로 영국 지도를 그린다. 덕의 이런 행위는 깨어진 분위기를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행위로서 이는 하디 특유의 ‘장면 전환’ 묘사이다.

시계가 다섯 시를 쳤다. 여전히 가위와 바늘은 놀고 있었다. 파리를 죽여야겠다. 지팡이 꺾질을 흘랑 벗겨서 이제 못쓰게 됐다. 설거지 하는 곳에 흘린 던져버렸다. 풍금소리를 요란스럽게 내었다. 그런데 어쩌다 화병을 옆질러 버렸다. 물이 탁자 위에서 마루로 마구 흘러내려서 호수처럼 되어버렸다. 이 물은 그는 다시 발로 문질러 마침내 영국 지도를 그려놓았다. (102)

덕은 팬시를 기다리다 지쳐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루벤의 찡그리는 얼굴과 꼭 같다. 머리와 얼굴이고 그 다음은 옷과 모자고 그 다음은 아마 나겠지!”(103)라고 말한다. 이는 덕이 내심으로는 팬시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반어적인 표출이다. 그럼에도 덕은 사랑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그녀의 태도에 분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 밤을 따러 간다. 숲 속에서 햇김에 정신없이 밤을 따는 덕의 모습을 ‘노예선의 노예’로 작가는 과장하여 희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날 오후만큼 덕이 정신없이 밤을 따는 일은 전후후무한 일이었다. 그는 마치 노예선(奴隸船)의 노예처럼 일했다.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흘렀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밤을 따다. 마침내 밤의 나뭇가

지와 이들을 살찌게 만든 나뭇잎들과의 구분을 짓지 못할 만큼 어두워지자 그는 밤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103-104)

곧 돌아온다고 나간 덕이 나타나지 않자 팬시는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다. 그녀는 이제 그가 그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싸여 미친 듯이 울면서 그를 찾아 헤맨다. 마침내 가득히 떠난 밤 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덕을 발견하고 팬시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한다. 그녀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하디는 ‘연애사에서 처음 보는’(104) 일이라고 해학적인 과장법을 써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 헤맸던 경위와 또 그가 자기를 버리거나 앓을까하고 불안 해 했던 심정을 고백하고 열렬히 그를 사랑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지금까지 울분에 차있던 덕의 마음은 급선회하여 이제는 ‘팬시냐 아니면 죽음이나’라는 상황으로 돌변한다. 그러한 덕의 충직한 마음씨를 하디는 다음과 같이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

덕이 그의 사랑의 해방을 즉각적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야 다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열렬한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어떤 아름다운 여자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며 이날 이때까지 정말 팬씨 때문에 속도 어지간히 상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영원토록 모든 것이 팬씨나 죽음이나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굳게 맹세했다. (105)

팬시는 비오는 날 무료하게 창가를 내다보다가 우연히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함뱍 맞고 다가오는 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애인 덕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절하고 보기 딱한’ 덕을 보면서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난 덕이 좋아. 그리고 사랑하고”(124) 있다고 중얼거리는 말은 진정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극적인 표현으로 읽힌다. “덕이 사라진 후”(124)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우산을 쓰고 가까이 다가오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세련되고 우아한 신임목사 메이볼드씨이다. 그는 외지에서 새로 부임한 인물로 팬시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팬시에 대한 연모의 감정에 억제하지 못하고 ‘아내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125) 팬시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메이볼드가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줄 달콤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청혼을 해오자 덕만을 사랑하겠다는 팬시의 마음은 흔들린다. 팬시는 덕과 약혼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네”(126)하고 승낙해 버린다. 그러나 이성을 회복한 그녀는 밤새도록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튿날 청혼 승낙을 철회하는 편지를 메이볼드에게 보내게 된다. 이러한 그녀를 행위를 두고 스투어트(Stewart)는 “그녀의 요부 같은 행위는 정직함을 추방할 정도는 결코 아니며, 사람이면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는 저지룰 수 있다”(61)는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행위로 보고 있다.

팬시는 ‘야망과 허영심 때문’(130)에 한 순간의 경솔하고 이기적인 여인이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후 곧 굴욕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며 책임감을 느끼는 더욱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현명해진 팬시는 자기보다 우월한 부나, 교양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메이볼드의 청혼을 물리칠 수 있었고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지만 믿음직한 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리하여 먹구름에 쌓여 자칫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덕과 팬시와의 애정관계가 해피엔딩을 가져오게 된다. 외부 유입자나 다름없는 팬시가 사회적 신분이나 명망에서 덕을 능가하며 생활의 안전도 보장해주는 목사를 외면하고 토박이 덕을 남편으로 삼는 행위는 구질서를 대표하는 덕과 신질서를 대표하는 팬시의 결합으로써 두 세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고 온 마을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의 구실을 한다. 두 주인공들의 결혼식이 거행된 계절도 자연계의 “눈부신 잎사귀로 새 단장을 한”(133) 무르익은 봄날이다. 이처럼 신·구질서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은 이미 이 작품 초두에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며 됴으로써 예견되었다(18).

서로 상반되는 질서를 대표하는 두 주인공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일구

어 낸 결혼식 날 벌이는 동네잔치의 축제는 작품 전체의 주제와 밀착되어 있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이 소설의 절정으로서 멜스톡 공동체를 다시 한 번 환하게 드높여 비취 올리는 불꽃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 이렇듯 신·구 질서 간에 조화를 이룩해 내는 팬시와 덕의 결혼은 방해나 좌절 요인이 되는 징후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무난히 극복되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멜스톡 공동체의 변화를, 또 변화의 조짐을 야기하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아야 옳다. 우선 팬시가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와 간곡한 만류를 이겨내면서 덕을 지켜낼 때 그녀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또 아버지가 덕을 거절하도록 딸에게 강요할 때 잿빛 구름이 낀 하늘이 딸의 근심과 슬픔을 에둘러 나타내지만 그림자는 재빨리 스쳐가고 이내 밝아지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덕이 팬시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청하는 장면에서 올빼미에게 잡히는 작은 새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들린다. 이것은 두 젊은이의 장차 결혼 생활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승낙이 그 자리에서는 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의 결혼 결정을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하는 크레이머(Kramer)는 순간적인 선택의 갈등을 겪긴 하였으며 결국 덕과 결혼하는 것은 기쁨에 넘치는 인간적인 극복의 흔쾌한 결과이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려는 결의가 담겨 있어 밝고 명랑한 희극적 분위기가 훌륭하게 지탱 되는(45) 것으로 읽고 있다. 피니언도 덕의 장래가 위협을 받는다거나 팬시가 남편 몰래 부정한 것을 할 것으로 믿도록 다시 말하면 도덕적 상처로 말미암아 신뢰감의 약화 내지는 불화의 원인을 배태한 불완전한 결합으로 작품의 비극을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며 입을 것을 중용하였다(137).

작가가 서문에서 “명랑하게”, 그리고 “익살스럽게” 작품을 꾸렸다고 언급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메이볼드의 청혼에 순간적으로 오판을 한 것은 선택의 저울질이라는 인간적 갈등의 표출이다. 그러나 그녀는 곧 지혜롭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성실성이 있는 정숙한 여인이다. 또한 덕은 당당한 남편, 의연한 가장으로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것으로 다듬어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새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마차 위에 앉아 상호 신뢰감에 대한 약속을 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146).

사람은 기억을 정확하게 잘하여 즐거울 수 있는 반면에 망각을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순도의 완전성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증류수에는 유기물조차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결코 증류수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의 삶은 “오늘부터”가 중요하다. 결혼식 후에 귀가하면서 듣는 나이팅게일의 그 행복스러운 낭만적인 노래 소리는 그들의 장래를 축하하는 멜로디 이외에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그 노래 소리에 대한 해석은 페니 부인이 생활 체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작가가 인용한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시구의 내용과 분위기로 화답하면서 이들 신혼부부의 생활 터전인 멜스톡 공동체는 밝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전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IV

지금까지『푸른 숲 나무 아래』에 나타난 두 주인공을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의 유머, 재치, 익살 등의 희극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물결이 앞 다투어 압박을 가해오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 같이 밝고 명랑한 삶의 분위기를 여유롭게 시종 견지되어 읽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 같이 구질서와 신질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변화를 지연 내지는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있는 까닭은 첫째로 자연환경을 대하는 주민들의 품성 및 생활태도에 있다. 네 계절을 소설의 각 부의 제

목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변화 하는 생활 배경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삶은 자연과 인간이 혼용되어 숨결이 고르고 안정되어 있다. 또한 이곳의 자연은 주민들에게 결코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이다. 이런 환경과 호흡하며 주민들은 순박하고 솔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나 밝고 명량하며 쾌활하여 서로 상부상조를 전통으로 삼아 화합하는 생활태도를 지켜 나간다. 전원공동체이지만 농부나 기능 보유의 장인과 운송업 등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가 등장한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교회 성가대를 통하여 개별적 삶과 품성은 물론이고 집단 공동체가 지켜내는 전래의 풍속과 전통을 보여준다. 그들은 유연하여 무리를 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가 체질화되어 있어 기다림을 아는 여유가 있다. 성가대 해체 문제를 처리하는 구성원의 슬기로운 대응은 그 한 예가 된다. 두 번째로, 메이블드 목사의 유연한 처신도 멜스톡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한 몫을 한다. 펜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나 실연에도 무리함이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 두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천박한 기질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없이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인물 군에 속하는 주민들은 “변화할 수 있는” 외부 유입자들을 마찰 없이 부드럽게 포용함으로써 멜스톡 전원공동체답게 지탱될 수 있게 한다. 펜시나 메이블드 목사는 아무리 외부 유입자들이 온유하고 이해심이 있는 성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적대시하며 강하게 거부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부딪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샐리너는 스스로 외부 유입자로 취급받기를 자초하며 이를 받아내어 희석시키고 있다. 리이프 또한 자칭 머리가 모자란다고 하며 유머와 재치 있는 말로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거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질서의 상징인 딕과 신질서의 상징인 여주인공 펜시가 행복한 결말로 결합함으로써 신 . 구 시대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볼 수 있다. 피상적인 관점으로는 구질서를 상징하는 성가대가 이미 9개월 전에 해체되었으므로 전통의 패배로 보기 쉬우나 실은 구질서가 신질서에의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신질서가 전통에 양보함으로써 결국 구질서를 상징하는 멜스톡의 전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딕은 유별나게 애항심이나 고향에 대한 사명의식을 의도적으로 깨우치거나 소유한 인물은 아니지만 가업을 전승하여 발전시킬 계획을 가졌고, 순수한 사랑의 열정만으로 교육 수준과 사회적 입지가 자신보다 높은 펜시에게 구애한다. 펜시는 충분한 자질과 교육, 일을 감당해 낼 능력의 소유자이면서도 정숙하고 온화하며 겸손하다. 그녀는 부유한 샐리너를 마다하며 교육정도와 사회적 입지 높은 메이블드도 외면한다. 그녀가 딕의 연인으로 또 공동체 변화의 상징인 풍금 연주자로 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것은 멜스톡 공동체에 관용, 유머, 사랑 등이 아직도 지배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푸른 숲 나무 아래』는 비극은 차치하고 비극의 김새조차 끼어들지 못하는 작품으로 읽힌다. 작품의 무대인 멜스톡은 초원과 숲이 있고 농지와 사냥터가 있는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터전에 주인공 딕과 펜시의 사랑이 활짝 피어났다. 그 주변 인물 또한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하디 소설의 저 넘어 영역 즉 아직은 무거운 철학과 어두운 우주관이 어른가리지 않는 밝고 명량한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이런 영역이 있기에 하디는 결코 염세적 인생관을 지닌 작가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Works Cited

- 박익두. 『多樣을 위한 變貌: Hawthorne의 예술적 原理와 實際』. 서울 : 한신문화사, 1982.
- Cecil, David. *Hardy the Novelist An Essay in Criticism*. Mamaroneck, N.Y.: Appel, rpt., 1972.
- Danby, John F. “The Individual and Universal.” *Thomas Hardy Three Pastoral Novels*. Ed. R P Draper
London: Macmillan, 1987. 89-97.
- Draper, Ronald. Introduction. “Casebook: Thomas Hardy: Three Pastoral Novels.” *Thomas Hardy Journal* (1)
1988: 36-49.
- Duffin, H.C. *Thomas Hardy: A Study of Wessex Novels, the Poems and the Dynasts*.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64.
- Firor, Ruth A. *Folkways. in Thomas Hardy*. New York: A. S. Barnes & Company, Inc. 1962.
- Hardy, Thomas. *Under the Greenwood Tree* London: Wordsworth Classics, 2004.
- Hardy, Florence E. *The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62.
- Hall, Stuart. *When was 'The Post-Colonial'?, Thinking at the Limit*: 1996.
- Millgate, Michael. *Thomas Hardy: His Career as a Novelist*. London: Bodley Head, 1971.
- Kramer, Dale.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 London. Macmillan, 1975.
- Pinion, F. B. *Thomas Hardy: Act and Thought*.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1977.
- Squires, Michael. *The Pastoral Novel: Studies in George Eliot, Thomas Hardy, and D. H. Lawrence*.
Charl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1975.
- Stewart, J. I. M. *Thomas Hardy*. London: Allen Lane Allen, 1971.
- Wright, David. “Introduction.” *Under the Greenwood Tre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8.

영문학 분과 2 (206호)

조직위원장: 권영탁, 한광석, 박선화 / 부위원장: 성기서, 양재용, 김대중 / 조직위원: 채수경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00 ~ 1:40	고득임	한림성심대	흑인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토니 모리슨의 『솔라』	정은숙(중앙대) 송종민(백석대)	조일현
1:40 ~ 2:20	이선희	강원대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실현과 사랑의 힘	유건상(강원대) 이영애(한라대)	
2:20 ~ 3:00	김연규	강릉원주대	『리라 아포스톨리카』를 통해서 본 존 헨리 뉴먼의 소책자시학	신원철(강원대) 장철우(강원대)	
3:00 ~ 3:30	휴식				
3:30 ~ 4:10	김효실	강원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짐의 행동양상 연구	박용준(강원대) 박근영(강릉원주대)	채수경 (강릉 원주대)
4:10 ~ 4:50	심진호	신라대	월트 휘트먼과 추의 미학	양재용(강원대) 황은수(강원대)	
5:00 ~ 5:20	지역 총회(강원: 304호 / 충청: 001호)				
5:20 ~ 6:00	전체 총회(001호 대강당)				

흑인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토니 모리슨의 『술라』

고득임(한림성심대)

I. 서론

“나는 모든 훌륭한 예술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수한 문학작품과 가장 탁월한 사상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Childress 3)고 말할 정도로 모리슨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가이다. 잔 퍼먼(Jan Furman) 역시 그녀를 “예술과 정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예술지상주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작가”(4)라고 평한다. 이러한 모리슨의 활동에 대해 바바라 크리스찬(Barbara Christian)은 “모든 흑인 여성들에게 부과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박하고자하는 의도적인 목적”(173)을 가진 작가로서 그녀가 미국 흑인 여성들의 얼굴을 변화시켜왔다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모리슨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흑인 여성 작가들은 흑인 여성들이 그들 자신만의 힘찬 목소리와 기존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저항하기 위한 힘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들을 만들어 낸다”(Reid 315).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리슨의 두 번째 소설인 『술라』(Sula, 1973)의 여성 주인공 술라(Sula Peace)이다.

모리슨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모성성과 흑인 정체성 그리고 흑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미국의 남성중심적 흑인운동과 중산계층의 백인 여성중심의 여성해방운동에 소외감을 느낀 흑인 여성 운동가들이 주창한 흑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술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흑인 가모장

미국의 흑인 페미니즘은 단순히 검은 얼굴을 한 백인 페미니즘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이 아프리카인도 미국인도 아닌 것처럼, 미국의 흑인 페미니즘 또한 그러하다¹⁾. 미국의 흑인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흑인으로서, 그리고 하층 계급으로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무쇠술과 주전자’²⁾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미국 흑인 여성에 대한 억압을 페트리샤 힐 콜린즈(Patricia Hill Collins)

1) 흑인 페미니즘에 대해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문」(“A Black Feminist Statement”, 1977)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인종 억압, 성 억압, 이성애 중심주의, 계급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한 억압체계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체 통합적인 분석 및 실천의 계발을 과제로 삼고 있다.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억압이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한다. 흑인 여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유색인 여성이 겪는 억압에 맞서 싸우는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을 흑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CR Collective e¹⁾ 271)

2) 성적으로는 물론이고 인종적으로도 차별 받아야했던 흑인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서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는 “여성권리대회”(women's rights convention)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저 남자 분은 여성이 마차에 탈 때에는 도움이 필요하며, 도랑을 건널 때엔 남자가 들어 올려 주어야 하고, 어디서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마차에 올라타거나 진흙 웅덩이를 건널 때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디. 그러면 저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 팔을 보십시오! 저는 쟁기를 끌었고, 씨앗을 심었으며, 그것들을 거두어 공간에 쌓았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를 앞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남성만큼 일 할 수 있고, 충분한 음식이 있을 때 남자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첫째, 미국 자본주의의 필수였던 흑인 여성의 노동착취는 경제적 억압의 차원이며, 둘째, 정치적 차원에서 미국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에게는 통상적으로 허용되었던 권리와 특권을 부여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노예 제도 시기에 만들어진 흑인 여성에 대한 통제적 이미지(controlling image)는 흑인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주장한다(6-7). 흑인 여성에 대한 인종적이며 성적인 억압이 사회적, 정치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미국에서 흑인 남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흑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으며, 수년간 그녀들은 흑인 남성들의 격분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녀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불편한 의무로 여겼을 정도”(Morrison, *Black* 24)로 가정에서도 그녀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다층적인 모순, 다시 말해 “상호 교차성”(intersectionality, Crenshaw 140)³⁾ 속에 있었던 흑인 여성들의 해방운동은 백인 페미니즘보다 한층 더 복잡한 사고와 운동을 필요로 했다.

콜린즈는 흑인 여성에 대해 미국 백인 사회가 조작한 이미지인 흑인 유모(mammy), 흑인 가모장(matriach),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는 어머니(welfare mother), 후치(hoochie) 혹은 창녀, 중산층 흑인 숙녀(black lady)와 같은 정형화된 통제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것은 흑인 페미니즘 사상의 핵심 주제(76)라고 강조한다. 이 중 『술라』에는 흑인 가모장의 이미지와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그리고 제제벨(jezebel)과 같은 창녀의 통제적 이미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 주인공 술라의 분투가 엿보인다.

첫 번째로 흑인 가모장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흑인 가모장이란 명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흑인의 민권운동이 상당히 발흥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게다가 흑인 여성이 여자답지 못한 가모장으로 공공연히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여성운동이 미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진전시키고 있던 때와 동일한 시기였다(Gilkes 296). 흑인 여성을 여성답지 못하고 너무 억센 여자라고 이름 붙이면 흑인 여성의 자기주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흑인 가모장의 이미지는 남성들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관성을 가진다.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흑인 남성들은 생산 경제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흑인 여성들은 그녀의 남편들이 얻을 수 없었거나 그들이 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모든 일을 했다. 그녀들은 남성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며 숙녀도 아니며 또한 어떤 것도 아니었기에 그녀들이 기댈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녀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이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녀들을 남성을 거세하는 흑인 가모장으로 폄하하게 된다⁴⁾. 『술라』 속 바텀 공동체의 남자들 또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성이 아닌란 말입니까? (Loewenberg and Bogin 235)

3) 크렌쇼는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차로에 비유한다. .

“차가 네 방향에서 모두 오고 가는 교차로를 떠올려보자.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별은 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온 차에 인해서든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때로는 모든 방향에서 온 여러 자동차에 동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교차점에서 있는 흑인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 피해는 성차별 수도 있고 인종 차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 . . 흑인 여성은 때로 백인 여성과 유사한 차별을 경험하고, 때로는 흑인 남성과 유사할 차별을 겪는다. 또 한편으로는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이 결합된 형태의 이중적 차별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흑인 여성은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합이 아닌, 흑인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겪기도 한다.” (140)

4) 사실 미국의 건국 이래 흑인 가모장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가장이란 한 가정의 경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위치이다. 그리고 미국 흑인 여성들은 가모장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정치적인 힘을 가져본 적이 없다(hooks 80). 그러므로 흑인 가모장이라는 꼬리표는 독립적이며 강한 생활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을 폄하하기 위해 가부장 사회가 만든 왜곡된 이미지 일뿐이다.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마을 남자들은 길을 따라 쪽 줄지어 있는 엘미라 극장, 아이린 미용실, 당구장 그리고 방법용 창살 앞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문틀 위, 현관 입구의 계단, 상자 위나 부서진 의자 위에 앉아서 입맛을 다시거나 재미 거리를 찾고 있었다. (Sula 49)

불행히도 경제력과 자존감을 상실한 흑인 가정들은 그들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좌절감을 가족들을 향한 폭력으로 대체하거나, 에바의 남편 보이보이(Boyboy)처럼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와 같은 흑인 남성들을 향한 모리슨의 질책은 그들의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배신자인 ‘유다’를 의미하는 주드(Jude), ‘순해빠진’ 그린(Green), ‘어린애 같은’ 보이보이(Boy-Boy), ‘걱정스러울 정도로 체구가 작은’ 치킨 리틀(Chicken Little), ‘이름이 없는’ 듀이들(Deweys)처럼 『술라』 속 남성 인물들은 유약한 의미의 이름을 가졌거나 아예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모리슨은 부인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흑인 가정들과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남성들”(6)을 비난하고 그들을 소아화시킴으로서 그들이 경제적 의존이라는 덮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이다(Reddy 34). 작품에서 술라의 할머니인 에바(Eva Peace)는 대표적인 흑인 가모장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어린 세 아이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을 양육했으며, 그녀 혼자 힘으로 바텀 마을에서 유일하게 3층 집을 소유했다. 그녀는 고아인 듀이들은 물론이고 마을의 부랑자인 타르 베이비(Tar Baby)를 그녀의 집에서 돌보기를 자처하는 인간애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사실의 이면에는 그녀의 강한 통제성이 숨겨져 있다. 에바는 듀이들의 성장을 4피트에서 멈추게 할 만큼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의식을 가진 여성이다. 더욱이 그녀는 이 소년들의 이름을 따로 구분하여 지어주지 않고 그저 “듀이들”(deweys)이라고 통칭한다. 소년들의 개성에 대한 에바의 이해 부족과 공감의 결여(Gillespie and Kubitschek 36)가 드러난 부분이다. 이러한 억압적 제어의 결과로 이 소년들의 성장은 정지되었고, 화장실 사용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된다.

남성을 거세하는 가모장의 이미지는 에바가 자신의 아들 플럼(Plum Peace)을 살해하는 것으로 극에 달한다. 전쟁터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매일 술에 취해 있거나 약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에바는 어느 날 자신의 손으로 플럼의 방에 불을 지르고 아들을 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 에바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 그 아인 다시 내 자궁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 했어... 그 애가 다시 기어들어갈 수 있었을는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었어. 내 자궁에는 그 녀석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말이지. 그런데도 그 아인 다시 기어들어오려고만 했지. 속수무책으로 어린애 같은 생각만 했고, 어린아이 같은 꿈을 꾸면서 바지를 다시 더럽히면서도 항상 웃고 있었지. 내 가슴속에는 충분한 장소가 있었어. 하지만 자궁 속은 아니었어. 더 이상의 공간이 없었지. 내가 한 번 그 아이를 낳았지. 하지만 그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아이는 다 자란 큰 어른이었어. 아무리 하느님께 자비를 구해도, 난 그 애를 두 번 낳을 수는 없었어.”

“... 그러나 다 큰 어른이 더 이상 엄마 뱃속에 뽕뽕 싸인 아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랬다면 그는 질식했을 거야. 나를 떠나서 그 녀석이 남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하지만 그 앤 그러려고 하지를 않았기에 나는 그 앨 막아야만 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자궁 속에서 으깨지지 않고 남자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지, 남자답게 말이야.” (Sula 71-72)

삶의 의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마약쟁이가 되어버린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아이를 남자답게 죽게 하는 방법뿐이었다고 답하는 에바의 도를 넘는 행위는 “그녀를 불쾌하게 만드는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거한 것”(Christian 160)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Ⅲ.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두 번째 통제적 이미지인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법적인 자격을 갖춘 가난한 노동계급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본질적으로 복지수당 어머니 이미지는 노예제시기에 만들어진 “번식여성”(breeder woman, Collins 86) 이미지의 현대판이다. 이 이미지는 흑인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변화중인 정치경제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한다. 노예제시기에 번식여성 이미지는 흑인 여성을 백인 여성보다 아이를 더 잘 낳는 존재로 묘사했다. 이 이미지는 흑인 여성은 동물처럼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는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흑인 여성 노예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노예주 남성이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노예주들은 노예 여성이 ‘번식하기’를 원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귀중한 자산, 즉 또 한명의 노동력을 의미했으며, 또한 딸을 낳을 경우에는 장차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2차 대전 이후 정치경제에서 흑인은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권리를 얻고자 투쟁했다. 그 결과 흑인은 사회보장, 실업수당, 학교급식 프로그램, 고등교육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차별철폐조항의 적극적 조치, 보육, 최저임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보호를 성공적으로 획득했다(Collins 86). 하지만 제조업과 농업분야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담당했던 단순한 업무들은 기계화와 분업화로 대체되었고 실직한 그들을 위해 지급되는 돈에 대해 백인 엘리트들은 부담을 느꼈으며 마침내 이들은 흑인 여성들을 복지수당 어머니의 이미지로 정형화한다. 가모장처럼 복지수당 어머니 또한 나쁜 어머니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가모장과는 달리 복지수당 어머니는 공격적이지는 않다. 가모장이 집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사실은 그 자녀들이 불충분하게 사회화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복지수당 어머니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복지수당이나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나쁜 가치를 가르치는 어머니로 묘사된다. 복지수당 어머니 이미지는 실패한 어머니의 또 다른 유형, 즉 ‘세상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를 의미한다(Collins 87).

흑인 여성 소설에서 나오는 어머니들은 강인하고 헌신적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따뜻하게 그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Wade-Gayles 10). 『술라』에서 역시 한나(Hanna Peace)는 “우리를 한 번이라고 사랑한 적이 있나요? 엄마는?”(Sula 67)이라고 에바에게 묻는다. 그러자 에바는 격노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니,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았는데”(Sula 69)라고 대답한다. 흑인 어머니에게는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상호교차적인 여러 억압 속에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무가 너무나 막중해서, 자녀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나 인내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Collins, 2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는 자녀에게는 관심도 없는 그저 게으르고 올바르지 못한 부정적 이미지로 그녀들을 왜곡시켜버렸다.

가모장의 이미지와 함께 에바는 복지수당을 어머니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경제적 곤궁을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3년 만에 의족을 한 채 목발을 짚고 마을에 도착한 에바는 아이를 돌봐준 이웃집 여성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었고 새로 집도 지었다. 당시 마을에는 에바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철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추측성 소문이 돌았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 않았으나 에바는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수당을 받고 있었다.

Ⅳ. 제제벨, 창녀 혹은 후치

마지막 통제적 이미지는 제제벨, 창녀 혹은 후치인데, 이 이미지는 흑인 여성을 둘러싼 통제적 이미지 결합체의 심장부를 차지한다. 제제벨의 이미지의 기능은 모든 흑인 여성을 성적으로 공격적인

여성의 범주에 집어넣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이미지는 흑인 여성 노예들이 입을 모아 증언한 대로,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 노예에게 가한 공공연하고 널리 퍼진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다(White 10). 이성애를 규범으로 설정하는 틀에서 과거의 제제벨과 이것의 현대판인 후치는 일련의 경계를 표식한다. 이성애 자체는 남성과 여성 섹슈얼리티,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한 성적 표현을 인식하는데 핵심축이 되는 남성과 여성 젠더 역할을 나란히 병치하는 이항적 사유를 통해서 구성된다. 남성은 능동적이다.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 미국사회에서 이것은 인종화 된다. 즉, 백인 남성은 능동적이다. 백인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 흑인과 여러 다른 인종화 된 집단은 이렇게 규정된 정상성의 외부에 위치하며 동시에 그 경계를 표식 한다. 젠더에 따라 다르고 백인과 이성애가 정상적 규범이 되는 맥락에서 제제벨이나 후치는 일탈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를 인종화하고 젠더화한 상징이 된다. 정상적인 여성 이성애는 진정한 백인 여성성 신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반면, 일탈적인 여성 이성애는 흑인 여성성과 연관되며 ‘섹시한 흑인 여성’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로 상징된다. 그러나 제제벨은 ‘이쁜이’일 수는 있지만,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홍분한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제제벨이나 후치는 부적절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을 지닌 여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는 쉽사리 ‘이상한 사람’(Collins 91)으로 간주된다. 술라가 바로 이런 인물이다.

술라는 남성이 부재한 가정에서 할머니인 에바와 어머니 한나를 통해 성을 배우게 된다. 에바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남자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항상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있는”(Sula 31) 그녀의 의족 다리를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웃고, 장기놀이를 하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남성들을 향한 한나의 사랑 역시 어떤 속임수도 존재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이었다(Nigro 726). 한나는 자신의 침대로 바텀의 남자들을 끌어들었고 그들과 즐거운 정사를 나눴다. 그녀의 사랑은 “달콤했고 천박했으며, 감춤이 없었다”(Sula 42). 남편이 죽은 후 한나가 원한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극적인 일들이었으며, 남편의 친구이거나 이웃집 남편들과의 관계는 그 일들 중의 하나였다. 술라는 어머니가 그토록 쉽게 남자들과 식료품 저장실에 들어갔다 들어갈 때와 같거나 아님 더 행복해진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섹스란 즐거운 것이며 빈번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Sula 44). 공동체의 다른 여성들과 달리 한나는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집착하거나 어떠한 열정 혹은 질투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와 관계한 남성들 역시 한나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녀와 관계했던 어떤 남성도 그녀에 대한 추문을 결코 퍼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여자였으며, 게다가 뛰어난 아름다웠고 자태 또한 야릇하게 우아해서 남자들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나 그들의 아내들이 흘릴지 모를 온갖 비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었다”(Sula 44-45).

엄마에게 배운대로 술라 역시 구속적이지 않은 자유롭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한나와 달리 술라에게 성관계는 단지 즐거움과 유희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 행위는 “그녀가 찾고 있는 비참함과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며”(Sula 122), 내면에 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렇기에 술라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대상과 잦은 성교가 잦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관계가 끝난 후에 그녀는 전보다 더 큰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이 감정을 피하고자 그녀는 다시 다른 상대를 찾았고 그녀의 남성 편력은 악순환 되었다. 그리고 술라의 분별없는 성생활은 공동체로부터 그녀를 축출되게 만들었고, 멸시와 혐오라는 틀로 그녀를 고정시킨다. 분명 마을 기혼남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술라와 한나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모녀를 향한 남성들의 태도는 매우 상반적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다시 받아주었던 한나는 남성들에게 보호 받았던 반면, 한 번만 이용되고 내쳐진 현실에 자존심이 상한 마을 남자들은 과거 한나와 자신들의 헤븐 처신은 까맣게 잊은 채 술라를 “화냥년”(Sula 112)라고 불렀다. 또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백인 남성과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술라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절대 씻어낼 수 없는 더러움'이란 "최종적인 꼬리표를 달아주고,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 또한 남자들이었다"(Sula 112).

술라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의 진원에는 남성들이 있었다. 이제껏 여성의 성적 기쁨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오랫동안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으며, 그들의 방식대로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흑인 남성들은 백인 여성들과의 관계를 기꺼이 응했음에도 그들 중심의 전통적 권한에 도전하는 술라를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주체적 성의식이 그들에게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이며 일탈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어할 수 없으며, 제어될 수도 없는' 술라의 무한한 에너지에 남성중심 가부장 사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되었고, 자유로운 자아를 추구하는 술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억압적 사회 공동체로부터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술라는 그들로부터 소외되고 분열 되어 더욱 그녀 속으로 몰입하게 된다(167-68). 마침내 술라의 고립은 "파괴적 자아몰입"(Christian 175)에 이르게 되는데, 모리슨은 이러한 술라의 탐닉 상황을 '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예술가'에 비유한다.

어떤 면에선, 그녀의 이질성, 그녀의 천진무구함, 그녀와 동등한 다른 반쪽에 대한 열망은 게으른 상상의 결과였다. 술라가 그림을 그렸거나, 조각을 했거나, 춤의 분야를 알았다거나, 아니면 현악기를 연주했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이 엄청난 호기심을, 그리고 은유에 대한 그녀의 재능을 사로잡을 무언가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을 가져다줄 활동을 위해 불안감과 집착을 번덕과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런 예술적 형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술가처럼 그녀는 위협해졌다. (Sula 121)

술라의 예술은 자기 창조의 힘이기에 그녀 자신이 그녀의 예술작품이며 술라의 '이질성'은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창조성의 결과"(Bryant 737)이기도 하다. 메달리온의 외톨이였던 술라는 자신의 에너지와 창조성을 위한 출로조차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에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탐구에서 그녀 자신을 파괴하고 만다(Nigro 730). 흑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진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당시의 환경 또한 술라의 내면적 욕구인 창조성을 표현할 출구를 막아버렸다. 큰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육아와 가사를 제외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술라가 가진 창조성의 빛은 자신의 무력함과 사회의 불평등 속에 점점 잦아들고 끝내는 꺼져버리고 만다.

V. 결 론

모리슨은 술라를 "새로운 세상의 흑인 여성"(Morrison, *Unspeakable* 153)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되기 위해 술라는 미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흑인 여성에 대한 통제적 이미지를 극복해야만 한다. 때문에 가모장과 복지수당 어머니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에바에게 술라는 저항한다. 강한 통제력과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연금을 받는 그녀와 함께 공존하길 술라는 거부한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버린 술라를 "바퀴벌레"(Sula 112) 같은 년이라고 욕한다. 하지만 그것은 에바가 결혼과 출산과 같은 전통적이며 평범한 여자의 일생을 술라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술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며, 그녀 자신을 만들고 싶어했다"(Sula 92). 허나 마리 니그로(Marie Nigro)의 강조처럼 '자신 스스로를 만들고 싶다'는 술라의 탐색은 이 전에 어느 누구도 밟아본 적 없는 길이며, 그녀를 도와줄 어떤 도구도, 어떤 이정표도 없는(734) 것이기에 그녀를 힘들고 외롭게 만든다. 그렇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술라가 주변에 있을 때면 불편함을 느낀다. 공동체의 유부남도 부족해서 백인 남성과 관계를 하는 술라를 '화냥년'이고 부르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장본인으로 몰아 세운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시달리는 것은 성적인 욕구불만이 아니다. 사회적인

욕구들이다'(Joreen⁵⁾ 2).

이제껏 살펴본 솔라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조린(Joreen)이 주장하는 ‘드센 년’⁶⁾의 전형으로 보여진다. 솔라는 “독립적이며 고집이 보통대기가 아니어서 까다롭고, 능수능란하며 매사에 자기중심적이다. 의욕이 넘치고 성취욕도 강하며,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데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야심만만하고, 더프하고 대담하고 선머슴 같으며 활기 넘치고 성격이 불같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녀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솔라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통해서만 정체성을 추구한다. 그녀는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다”(1).

이 사회는 남성을 인간으로, 여성은 남성이 아닌 무언가로 정의 내렸다. 즉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할 것을, 존경을 바칠 것을, 복종할 것을 약속해야 했다. 그 대가로 그녀들이 얻은 것은 기껏해야 그림자 같은 삶이었다. 솔라와 같은 여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든 봉사하거나 존경을 바치거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지, 그림자 같은 삶이 아니다. 그들은 여성이자 인간이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사회적 모순덩어리로 만든다. 그리하여 솔라는 끝까지 공동체의 구세대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남성의 부속물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벽에 제 머리를 박고 말겠다’는 의지로 모든 의욕을 잃고 홀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5) Joreen은 페미니스트이며 정치학자인 Jo Freeman의 필명이다.

6) 조린은 「드센 년선언문」(“The BITCH Manifesto”, 1969)에서 드센 년을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을 대하는 부정적인 낙인이 아닌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한우리 74).

Works Cited

- Childress, Alice. "Conversation with Alice Childress and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Mississippi UP, 1994. 3-9.
- Bryant, Cedric Gael. "The Orderliness of Disorder: Madness and Evil in Toni Morrison's *Sula*"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4.4 (1990): 731-45.
-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1985.
- Collective, Combahee River. "A Black Feminist Statement." *Women's Studies Quarterly* 42.3/4 (2014): 271-280.
- Collins, Patricia Hill.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2000.
- Crenshaw, Kimberle.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 (1989): 139-67.
- Furman, Jan. *Toni Morrison's Fiction*. Columbia: South Carolina UP, 2014.
- Gillespie, Diane and Missy Dehn Kubitschek. "Who Cares? Women-centered Psychology in *Sula*."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4.1 (1990): 21-48.
- hooks, bell. *Ain't I a Woman: Black Women and Feminism*. New York: Routledge, 2015.
- Morrison, Toni. Rpt. *Sula*. New York: Alfred A. Knopf, 1994.
- _____.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3.
- _____. "Unspeakable Things Unspoken: The Afro-American Presence in American Literature."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Ed. Grethe B. Peterson. Michigan: Michigan UP, 1988. 123-63.
- _____. "What the Black Woman Thinks about Women's Lib." *What Moves at the Margin: Selected Nonfiction*. Eds. Toni Morrison and Carolyn C. Denard. Jackson: Mississippi UP, 2008. 18-30.
- Joreen. "The Bitch Manifesto." Pittsburgh: Know Inc. 1969. 1-7. Web. 14 Sep 2017 <http://library.duke.edu/digitalcollections/wlmpc_wlmms01012/>.
- Reddy, Maureen T. "The Triple Plot and Center of *Sula*."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2.1 (1988): 29-45.
- Reid, E. Shelly. "Beyond Morrison and Walker." *African American Review* 34.2 (2000): 313-28.
- Nigro, Marie. "In Search of Self: Frustration and Denial in Toni Morrison's *Sula*" *Journal of Black Studies* 28.6 (1998): 724-37.
- White, Deborah Gray. *Ar'n't I a Woman? Female Slaves in the Plantation South*. New York: W.W. Norton, 1985.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실현과 사랑의 힘

이선희(강원대학교)

I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방의 노래로, 인간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와 행복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킹-힐(Desmond King-Hele)은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그러한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셸리로 하여금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를 쓰게 한 동기라고 말한다(202). 셸리의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아이스킬러스(Aeschylus)의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Bound*)의 결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가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말한다면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그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

셸리의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아이스킬러스 신화의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셸리는 아이스킬러스의 프로메테우스를 자신만의 프로메테우스로 새롭게 창조해낸다. 아이스킬러스의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에게 비밀을 말해 준 댓가로 사슬에서 풀려나지만 셸리의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 셸리는 비밀을 말하고 풀려나는 프로메테우스를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나약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에서 자신의 프로메테우스를 사탄의 영웅적인 용기를 지닌 “타이탄 프로메테우스”(Titan Prometheus)로 창조해 전능한 힘에 대항하는 강한 결말을 이끌어 낸다.

주피터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예측시키고 상상력과 잠재력을 억압시키는 모든 형태의 독재적인 권위를 나타낸다. 주피터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나 프로메테우스는 끝까지 주피터에게 저항한다. 캐머런(Kenneth N. Cameron)은 이러한 셸리의 프로메테우스를 “반역의 거대한 상징”(a titanic symbol of rebellion)이라고 말한다(477). 프로메테우스는 저항정신의 원형으로 셸리의 저항정신을 잘 나타내 준다하겠다. 킹-힐은 프로메테우스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셸리의 대리인으로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173). 주피터가 인간 세상의 폭군적인 통치자로 인간의 악한 마음을 나타낸다면 프로메테우스는 세상의 억압에 저항하는 존재로 인간의 선한 마음을 나타낸다.

셸리는 속박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방되어 가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의 악을 척결하는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제도적인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속에 있던 주피터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면의 개혁에 있음을 보여준다. 내면의 변화 없이 제도적인 개혁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셸리는 인간에게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은 인간이 꾸준하게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발전을 꾀한다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가 서문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도덕적이고 지적인 본성의 완벽한 전형”(the type of the highest perfection of moral and intellectual nature 983)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해방은 그의

도덕적인 본성을 회복시켜 나감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개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개혁과 더불어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은 아시아라는 여성의 사랑에 의해서이다. 셸리의 이상사회를 이루는데 여성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역할을 한다. 프로메테우스의 도덕적인 발전은 아시아에 의해 완성되고 비로소 그는 사슬에서 풀려나게 된다. 레이먼(Donald H. Reiman)은 아시아의 사랑이 삶을 회복시키는 통합하는 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598). 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악에 저항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의지와 내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로 대변되는 ‘사랑’의 힘이다. 무엇보다도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에는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셸리의 의지와 비전이 잘 나타나 있다.

II

인디언 코카서스(Indian Caucasus) 산 절벽에 “증오로 눈먼”(eyeless in hate 1.8)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당한 채 추위에 살을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차츰 다가오는 빙하가 나를 찌른다 / 달도 얼려 버리는 수정 창으로, 빛나는 쇠사슬은 / 극심한 냉기로 내 뺏속까지 파고 든다”(The crawling glaciers pierce me with the spears / Of their moon-freezing crystals, the bright chains / Eat with their burning cold into my bones. 1.31-33). 달을 “얼게” 하는 추위와 쇠사슬에 얼어붙은 수증기가 “반짝이는” 이미지를 냉기에 의한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한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주피터에 대한 저주와 증오에 가득 찬 프로메테우스는 폭정을 하는 주피터와 다를 바 없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러한 증오는 인간 마음에서 도덕적인 의지가 패배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타락한 인간 정신 즉 주피터처럼 악한 상태를 나타낸다.

프로메테우스의 극심한 고통은 연인 아시아에 대한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 “나는 한 때 거닐었지 / 아시아와 함께, 그녀의 사랑스런 눈으로부터 생명을 마시면서”(I wandered once / With Asia, drinking life from her loved eyes; 1.122-23). 사랑하는 연인들은 주피터에 의해 “그대는 멀리 있구나, 아시아여!”(thou art far, Asia! 1.808) 서로 강제로 떨어져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시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게 된다. 그는 “나는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희망이 헛되다고 말했다”(I said all hope was vain but love. 1.824)라고 하는데 ‘사랑’이 모든 가치를 뛰어 넘어 세상을 억압으로부터 구해내는 열쇠가 된다. 킹-힐(Desmond King-Hele)은 프로메테우스가 고통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에 대한 그 자신의 긍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그의 사랑에 의해서라고 말한다(176).

‘사랑’의 마음은 주피터에 대한 증오로 차 있던 프로메테우스의 내면에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결박한 적대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고통을 통해 프로메테우스는 증오나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과 절망만을 남겨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연민의 마음은 주피터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철회로 이어진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저주로 인한 여과가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I wish no living thing to suffer pain. 1.305)며 저주를 철회한다.

프로메테우스의 ‘저주 철회’는 주피터의 몰락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자기중심적인 ‘증오’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연민으로의 전환은 용서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 베이커(Carlos Baker)는 프로메테우스가 증오심과 복수심을 거두게 될 때 비로소 고통과 두려움

이 사라지게 되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14). 증오나 복수와 같은 마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사랑이나 연민과 같은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지만 주피터가 통치하는 세상은 악에 빠지고 인류는 고통을 당한다. 주피터의 권력은 “전능한”(omnipotent 1.272) 힘을 행사하는데 이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라고 프로메테우스가 준 “힘”(power 1.273)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힘만 행사하는 주피터의 전능함은 인간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오직 ‘인간을 자유롭게 하라.’는 조건 하나만 걸고
너를 천국의 지배권을 그에게 돌려 주었어요.
신기도 사랑도 법도 모르고; 전능하지만
친구도 없이 통치했어요;
이제 주피터가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인류에게
처음에는 기근이, 그 다음엔 투쟁이 그리고 질병이,
갈등과 상처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죽음이
쏟아져 내렸으니까요.

And with this law alone: “Let man be free,”
Clothed him with the dominion of wide Heaven.
To know nor faith nor love nor law, to be
Omnipotent but friendless, is to reign;
And Jove now reigned; for on the race of man
First famine and then toil and then disease,
Strife, wounds, and ghastly death unseen before,
Fell; (2.4.43-52)

주피터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도리어 주피터의 “사악한 마음들은 / 선한 것을 그들의 자신의 본성으로 바꾸어”(Evil minds / change good to their own nature. 1.380-81) 버리며 전능한 힘을 행사한다. 악은 선한 것도 악으로 바꾸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뿌리 또한 깊다. 웹(Webb)은 주피터가 다스리는 세상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목표로 전파되었지만 특권층과 연루되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기독교를 의미한다고 말한다(217). 주피터는 자신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고 “인류의 압제자”(Oppressor of mankind)가 되어 폭정을 한다. 주피터는 전능한 힘을 가진 지배자가 되었지만 친구도 없이 아무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주피터가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주피터는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했다. “우리의 전능한 폭군은 너의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 창백해졌다, 그의 천둥으로 그대를 이곳에 묶을 때까지”(our almighty Tyrant with fierce dread / Grew pale, until his thunder chained thee here. 1.161-62). 쇠사슬에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의 폭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폭군 주피터의 지배가 언젠가는 끝나리라는 것을 안다. “피에 입맞춤 할 것이다 / 그[프로메테우스]의 창백한 발로부터”(kiss the blood / From his pale feet 1.50-51) 흘러내리는 피에 주피터가 입맞춤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을 보고 압제자의 지배가 끝나고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을 확신한다. “날개 없이 기어오는 시간들, 그 중 어떤 하나가 / - 가지 않으려는 희생자를 검은 사제가 끌어당기듯 / 그대를 끌어내릴 것이요, 잔인한 왕이여”(The wingless, crawling hours, one among whom /

1) 주피터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압제자인 동시에 세상에서 지배적으로 보이는 것의 화신이며 주로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영역을 넘나든다. 해석이 어느 범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주피터에게서는 ‘악’이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Butter 266).

- As some dark Priest hales the reluctant victim / Shall drag thee, cruel King. 1.48-50). ‘기어 온다’는 표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곧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기어오는 시간이라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 시간이 낮과 밤을 바꾸는 힘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메테우스는 “고통 받는 인간에게 힘이 되고 구원자”(the saviour and the strength of suffering man 1.817)가 되고자 한다. 개혁에 대한 희망은 프로메테우스가 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에는 상반하는 감정이 있다. 주피터가 몰락하리라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나는 슬픔에 잠겨서 말한다 / 기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I speak in grief / Not exultation, 1.56-57)며 주피터의 몰락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만 이내 기쁜 감정을 부정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의 몰락이 기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감정이 도덕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도 느낀다. 복수를 하려는 마음과 새롭게 생겨난 동정심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내 증오에서 연민으로의 내면 변화가 일어난다. 레이먼은 프로메테우스의 변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말한다(82). 프로메테우스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은 인간정신에 대한 셸리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프로메테우스의 내면의 변화는 아시아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가 해방되기를 기다리지만 하다가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여정을 시작한다. 아시아는 “따르라! 따르라!”(Follow! Follow! 2.1.13)는 에코(eco)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골짜기에서 나와 여정 길에 나서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브람스(M. H. Abrams)는 아시아의 여정을 “자기 교육적인 여행”(self-educative journey)이라고 말한다(*Natural Supernaturalism* 304). 여정을 통해 아시아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고 결국은 프로메테우스의 해방을 이루어 내기 때문이다. 리튼(Angela Leighton)은 세상을 해방시키는 사람은 프로메테우스라기보다 오히려 아시아라고 말한다(100). 리튼의 말은 여성의 역할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콕스(Philip Cox)도 프로메테우스가 수동적으로 묘사되고 수동적이던 아시아가 능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남성적인 힘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한다(143). 여기에서 ‘남성적인 힘’이란 수동적인 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힘을 말한다. 아시아는 세상을 바꾸고자 행동하는 여성이다. 셸리는 아시아를 통해 세상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행동하는 여성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

셸리에게 ‘여성’은 이상사회 실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여성 아시아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동력이 되는 여성의 권력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세상 개혁에 참여하는 여성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의 권력의지가 작동한 것으로 혁명적인 행동을 불러오는 정치적인 존재가 된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공적인 정치 영역 안에서의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젠더 정치학 22).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행동 양상을 정치라고 본다면 아시아의 행동은 ‘의견 표출’ 행위이므로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의 탐색 여정은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권력의지의 작용으로 시작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아시아의 의지 속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사랑’을 나타내는 아시아는 아프로디테적인 속성을 갖는다. 아프로디테가 바다탄생을 겪고 최초로 해안을 따라 걸을 때 아프로디테의 발이 닿는 곳마다 “꽃들이 피고 풀이 싹트는 것”(Abrams *English Romantic Poets* 391)처럼 아시아의 “발자국은 세상을 채운다 / 사랑으로”(footsteps pave the world/ With loveliness 1.1.68-9) 세상을 가득 채운다. 아프로디테적인 속성은 꽃들을 피어나게도 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사랑을 나타낸다. 캐머런은 셸리가 아시아를 아프로디테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은 셸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통합적이고 생명을 재생시키는 우주적인 힘을 아프로디테가 구현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Natural Supernaturalism 301). 아프로디테의 이미지는 아시아가 프로메테우스에게 갈 때 타는 “진홍빛 불로 장식된 아이보리 조가비”(An ivory shell inlaid with crimson fire, 2.4.155)에도 나타나 있다.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가기 전에 데모고르곤(Demogorgon)²⁾의 동굴을 찾아간다. 데모고르곤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필연성”(Necessity)을 나타낸다. ‘필연성’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제하거나 도덕 속에서 작용하는 피할 수 없는 힘으로 “운명”(Fate)과 같은 개념이다. 케머런(Kennith Neill Cameron)은 데모고르곤을 “운명의 주인”(513)이라고 말하는데 이 운명은 “강력한 법”(mighty law 2.2.43)이 되어 세상에 변화와 혁명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혁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시아가 ‘필연성’을 나타내는 데모고르곤을 만나야 한다.

“필연성”(Necessity)은 데모고르곤의 동굴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으로 묘사된다.

나는 권좌를 채우는
엄청난 어둠을 본다. 어둠의 광선은
주위에 빛을 발하고 있다. 자오선에 있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
볼 수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사지도
형태도-윤곽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임을 느낀다.

I see mighty Darkness
Filling the seat of power; and rays of gloom
Dart round, as light from the meridian Sun,
Ungazed upon and shapeless- neither limb
Nor form- nor outline; yet we feel it is
A living Spirit. (2.4.3-8)

이 ‘어둠’에서 나오는 빛은 한낮의 태양 못지않게 강한 빛을 발하는데 데모고르곤에게서 나오기 있다. 데모고르곤은 아무런 형체가 없어 볼 수 없지만 살아있는 영혼이므로 느낄 수는 있다. 데모고르곤의 존재가 ‘어둠’으로 묘사된 것은 객관적인 실체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태양 없이도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빛’은 사물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진리란 빛에 의해 포착 될 수 없는 것으로 ‘어둠’은 진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에 대한 탐색은 데모고르곤과 아시아의 대화로 연결된다.

동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와 데모고르곤의 대화는 플라톤적인 회상(Platonic Recollection)을 연상시킨다. ‘회상’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누구나 경험적인 인식을 초월한 선천적인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아시아는 의식 심층 깊이 탐험해 들어가는 데 포틀(F. A. Pottle)은 선악의 기원에 대해 물어보는 아시아를 “열정적인 이론가”(138)라고 말한다. 우주의 근원에 대한 대화는 아시아의 의식을 일깨워 악의 근원이 주피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는 “형상이 없는 진리”에 “형상”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시아는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내적 각성을 하게 된다.

2) 주피터, 프로메테우스, 아시아 등의 인물들이 신화에서 원용한 것인데 반해 데모고르곤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데모고르곤은 다른 등장인물과 차별화되는 이질적인 존재인데 ‘데모고르곤’이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의 *demios*와 ‘두려움’을 뜻하는 *gorgone*의 합성어라는 슈레(E. Schure)의 견해와(Zillman 313)와 세상의 창조자인 데미오르고스(Demiourgos) 혹은 데미오고르곤(Demiourgon)이 와전되어 굳어진 것이라는 브레일스포드(H. N. Brailsford)의 견해이다(228). 그런가 하면 하이어트(G. Highet)는 그 이름에 무시무시한 괴물은 고르곤(Gorgon)과 천상의 장인인 데미오르고스의 이미지가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678). 그러나 플라톤 이래로 그 이름은 그 의미가 변질되어 깊은 심연에 거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으로서 너무 무서워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성격의 신비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Hungerford 177).

내적 각성을 한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에게로 가는 길 눈 덮인 산꼭대기의 구름 사이에서 변신을 한다. 변신을 한 아시아의 아름다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휘’는 아시아가 ‘이데아’ 혹은 ‘진리’ 그 자체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나는 감히 언니를 쳐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느껴요. 나는 견딜 수가 없네요
언니의 아름다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뭔가 좋은 변화가
본성 속에서 작용하여
언니 존재의 베일을 벗겼어요.

I dare not look on thee;
I feel, but see thee not. I scarce endure
The radiance of thy beauty. Some good change
Is working in the elements which suffer
Thy presence thus unveiled. (2.5.16-20)

아시아의 변신은 그녀의 정신 내에 있는 이데아가 확산되어 자신의 외양에 반영된 것이다. 빛의 이미지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태양의 비유를 상기시키는데 플라톤은 태양을 “가장 빛나는 최고의 존재”(the brightest and best of being) 즉 “선”(the Good)이라고 규정한다(270). 빛을 뿜어내는 아시아는 이미 선의 이데아를 내면화했음을 의미한다. 베일을 벗은 아시아는 정신적인 본질 즉 진정한 정체(identity)인 사랑의 회복을 나타낸다. 퍼킨스(David Perkins)는 아시아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셸리가 플라톤적인 영원을 회구하여 초월적인 실재를 빛의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주장한다(130). 최고의 미가 현현한 존재로 변한 아시아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표상이다. 사랑의 화신인 아시아는 주피터로 대변되는 억압적인 권위를 타파하고 전 존재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갖게 되었다. 우드먼(Ross Woodman)은 아시아를 단순히 사랑의 화신으로만 보지 않고 속박되어 있는 의식을 해방시키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는 뮤즈라고도 한다(239).

사랑의 빛은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으로 이제 여성 아시아는 남성 인 프로메테우스를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 사랑은 “빛처럼 일반적”(common as light 2.5.40)이게 되어 얼어붙었던 계곡에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세상은 아시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아시아의 존재는 ‘생명’(Life 2.5.48), ‘빛’(Light 2.5.54), ‘등불’(Lamp 2.5.66) 등의 이미지로 악한 세상에 희망이 된다.

주피터는 하늘나라 권좌에 앉아 한 “인간의 영혼”(the soul of man 3.1.5)이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것을 불안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다.
모두가 나에게 굴복해왔다; 인간의 영혼
하나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불같은 비난과 의심, 그리고 슬픔과 내키지 않는 기도로
하늘을 향해 타오른다,
반기를 들고, 우리의 옛 왕국을 불안하게 한다.

henceforth I am omnipotent.
All else had been subdued to me; alone
The soul of man, like unextinguished fire
Yet burns towards heaven with fierce reproach, and doubt,
And lamentation, and reluctant prayer,
Hurling up insurrection, which might make
Our antique empire insecure. (3.1.3-9)

주피터는 한 인간이 하늘을 향해 도전해 오는 것을 알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려

왔다, / 데모고르곤의 텅 빈 권좌”(Who waits but till the destined hour arrive, / Bearing from Demogorgon’s vacant throne 3.1.20-21)로부터 주피터 몰락의 시간을 기다려 온 사람은 “운명의 아이”(That fatal child 301.19)로 데모고르곤을 말한다. 위협에 직면한 주피터는 자신이 타이탄(Titan)이나 기가스(Giant)를 다루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데모고르곤을 번개로 치고 지하에 감금하려고 한다. “보기 싫은 천재여! / 저 아래 거인들의 감옥으로 / 내가 그대를 짓밟아 넣으리라!”(Detested prodigy! / Even thus beneath the deep Titanian prisons / I trample thee! 3.1.61-63). 주피터는 분투하나 자신의 힘이 무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가라앉는다 / 아찔하게 아래로, 영원히, 영원히, 아래로”(I sink / Dizzily down, ever, for ever, down. 3.1.80-81). 데모고르곤은 주피터가 직면하게 될 필연성으로 자신의 아버지 주피터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여 주피터를 권좌로부터 끌어내린다.

주피터가 “어두운 허공”(dark void 3.2.10)으로 가라앉고 압제가 사라진 세상은 모든 속박이 풀렸다.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Hercules)에 의해 풀려나 연인 아시아와 재결합을 한다. 아브람스는 주피터의 몰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재결합을 완전한 인간성의 통합이라고 말한다(305). 프로메테우스가 매달려 있던 황량한 절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유토피아적인 장소로 변한다. 셸리는 억압에서 풀려나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자유’와 ‘사랑’이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I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가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셸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혁명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또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았으므로 인간이 도덕적인 선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그 잠재 가능성은 발휘되어 세상의 악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셸리는 혁명에 필요한 가치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고통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연인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사랑’은 변화하고 소멸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영원한 가치로 셸리에게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것으로 삶을 회복시키고 통합하는 힘이다. 글래든(Gladden)은 셸리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이상 세계로 향한 희망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122). 인간이 사랑을 회복하여 도덕성을 강화시키면 선한 인간이 되어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셸리의 부인 메리는 삶을 회복시키고 통합하는 힘인 사랑이 아시아에게 구현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시아는 비너스이며 자연이기도 하였다. 인류의 은인[프로메테우스]이 해방되자, 자연은 그녀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인류의 상징인 그녀의 남편과 완벽하고 행복한 결합을 한다.

Asia was the same as Venus and Nature. When the benefactor of mankind is liberated, Nature resumes the beauty of her prime, and is united to her husband, the emblem of the human race, in perfect and happy union. (Abrams 306)

셸리는 인간들이 사랑의 힘으로 도덕적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상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혁명과 이상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폭력이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중요함을 프로메테우스와 아시아의 재결합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외. 『젠더 정치학』. 파주: 한울, 2015.
- 플라톤. 『국가 ■ 政體』. 박종현 역주. 파주: 서광사, 2003.
- 케이트 밀레. 『성 정치학』. 김전유경 옮김. 서울: 이후, 2009.
- Abrams, Meyer Howard. *Natural Supernaturalism: Tradition and Revolution in Romantic Literature*. New York: Norton, 1971.
- _____.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Oxford UP, 1977.
- Baker, Carlos. “The Necessity of Love: Alastor and the Epipsyche,” *Shelle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idenour, George M. New Jersey: Prentice Hall, 1965.
- Cameron, Kenneth Neill. *Shelley: The Golden Year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1974.
- Gladden, Samuel Lyndon. *Shelley's Textual Seductions: Plotting Utopia in the Erotic and Political Works*. New York: Routledge, 2002.
- Cox, Philip. *Gender, Genre and the Romantic Poets*. Manchester: Manchester UP, 1996.
- King-Hele, Desmond. *Shelley: His Thought and Work*. London: Macmillan, 1984.
- Leighton, Angela. *Shelley and the Sublime*. Cambridge: Cambridge UP, 1980.
- Perkins, David.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ey, and Keats*. Cambridge: Harvard UP, 1959.
- Pottle, Frederick A. “The Role of Asia in the Dramatic Action of Shelley's *Prometheus Unbound*.” Percy Bysshe Shelley.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5.
- Prescott, Frederick Clarke. *The Poetic Mind*. New York: Macmillan, 1922.
- Reiman, Donald H. *Percy Bysshe Shelley*.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1969.
- Shelley, Percy Bysshe.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56.
- _____. *The Letters of Percy Bysshe Shelley*. Vol. I, II. ed. Frederick L. Jones. Oxford: Clarendon Press, 1964.
- Wasserman, Earl R. “‘*Prometheus Unbound*’: The premises and the Mythic Mode.”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5.
- Woodman, Ross. “The Androgyne in *Prometheus Unbound*,” *Studies in Romanticism*. Sir 20, 1981.

『리라 아포스톨리카』를 통해서 본 존 헨리 뉴먼의 소책자시학

김연규(강릉원주대학교)

1. 서론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은 키블(John Keble) 등과 함께 1830-40년대 영국 옥스퍼드운동(Oxford Movement)을 주도한 인물이다. 운동의 주요 사상과 강령이 「시대를 위한 소책자」(“Tracts for the Times” 이하 소책자라 함)의 발행을 통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소책자주의(Tractarianism)라는 별칭을 얻는다. 소책자시인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키블이다. 키블은 소책자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827년 시집 『그리스도인의 한 해』(*The Christian Year*)를 출판해 동시대에 대단한 인기를 누린다. 또한 낭만적 시풍에 신앙심을 더해 소책자시학의 특성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책자시학의 정수는 1836년 출판된 『리라 아포스톨리카』(*Lyra Apostolica*, 이하 『리라』라 함)이다. 이 책이 키블의 시집을 제치고 “처음이자 몇 안 되는 진정한 소책자시집의 하나”(Tennyson 114)로 꼽히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리라』가 옥스퍼드운동 그 자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옥스퍼드운동을 촉발시킨 원인이 된 자유주의와 교회 국가 종속주의”(Thirlwall 79)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옥스퍼드운동을 주도한 6인의 공동시집이므로 특정 개인이 아니라 소책자인 전체의 사상적, 문학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이자 본 논문이 가장 주목하는 함의는 운동을 주도한 뉴먼의 사상과 신학적 견해가 시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이다.

뉴먼의 역할은 “전체 운동이 뉴먼과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Tennyson 7)고 할 만큼 옥스퍼드운동에 절대적이다. 이는 『리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애초에 『리라』에 수록된 모든 시는 “현재 어떤 면에서 잊히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진실을 회상하고 추천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겸손한 희망”(Lyra A3)에 따라 『브리티시 매거진』(*British Magazine*)에 무기명으로 기고된 것이다.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시운동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브리티시 매거진』에 게재했던 시를 모아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위에 적힌 소책자시의 목적을 『리라』에 밝힌 장본인이 뉴먼이다. 잡지에 게재된 시 중에서 179편을 골라 44개의 소제목아래 나누어 편집한 사람도 뉴먼이다.

이처럼 소책자시학의 정수인 『리라』가 뉴먼의 사상적 특성과 신학적 구도에서 분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먼의 소책자시는 그간 합당한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현재 영문학 연구에서 뉴먼을 언급하는 맥락은 빅토리아시대 후기 시인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이 경우에도 시인이나 문학가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로마가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전기적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뉴먼의 시를 연구해야할 필요성 또한 매우 분명하게 존재한다. 뉴먼은 그 자체로 19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며, 19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요 목격자이자 논평자이다. 그의 시는 또 다른 형태의 시대를 반영하는 창이다. 본 논문은 뉴먼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뉴먼의 문학사적 영향력을 재고하고 나아가 빅토리아시대 종교시 전통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

2. 소책자시학의 낭만성과 뉴먼의 반낭만주의(Anti-Romanticism)

소책자주의가 낭만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분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역사가들은 몇몇 연구

에서 문학의 낭만주의가 소책자인들에게 미친 직접적 영향을 추적해왔고 이를 통해 옥스퍼드운동이 광범위한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흐름의 한 부분임을 증명해왔다'(Bright 385). 소책자시인은 낭만주의 시인 중 특히 워즈워스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소책자시의 자연은 주로 워즈워스의 자연관 아래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키블의 『그리스도인의 한 해』 또한 “자연과 인간을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신성한 의미로 채워진, 생기 넘치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전체”(Prickett 104)로써의 워즈워스식 세계를 구현한다.

하지만 뉴먼은 자연에 대해 키블과 다른 관점을 보인다. 다음은 『리라』의 제11번째 섹션인 「허영 중의 허영」(“Vanity of Vanities”)의 두 번째 「만사의 헛됨」(“Nothingness of Matter” 49-50)으로 뉴먼이 워즈워스 혹은 키블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머물러있습니까, 풍부한 가을의 빛에
봄철이나 겨울철의 사교 무리에?
화롯가에 있는 밤들은 긴 시간이고,
갈색 가을은 신선한 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그대에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어?
그것의 재능은 그대를 먹이지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는 재빨리 지나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인 없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화염과 폭풍, 흔들리는 대지,
지상의 즐거움과 공포, 어느 것 하나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오로지 고요한 신성의 목소리가 내는
소리를 들어야 만 합니다.

Why dwell on rich autumnal lights,
Spring-time, or winter's social ring ?
Long days are fire-side nights,
Brown autumn is fresh spring.

Then what this world to thee, my heart ?
Its gifts nor feed thee nor can bless ;
Thou hast no owner's part
In all its fleetingness.

The flame, the storm, the quaking ground,
Earth's joy, earth's terror, nought is thine
Thou must but hear the sound
Of the still voice divine. (Lyra 49-50)

이 시는 전체 8연으로, 인용된 부분은 제5연부터 제7연까지이다. 제1연은 “어린 시절, 내가 열렬한 눈으로/ 계절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았을 때”(In childhood, when with eager eyes/ The season-measured year I viewed)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제2연에서는 “봄이 천상을 노래하고, 여름날 꽃들은”(Spring sang of heaven; the summer-flowers) “시들지 않는다”(did not fade)고 노래한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연을 통해 영원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제1-2연의 시도는 워즈워스식의 낭만적 회상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제3연에서 봄과 가을은 영원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왔다 가는, 네 개의 짧은 삶”(came and went, the short-lived four)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연은 현재의 뉴먼에게 어떤 영적 위안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시간은 영원한 빛과 병렬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일 뿐이다.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처럼 “재빨리 지나가는” 것들이기에, 지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지상의 즐거움”도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지상의 세계는 “즐거움”과 “노래” 혹은 “꽃”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화염”과 “폭풍” 그리고 지진의 “공포”도 존재하는 곳이다. 뉴먼의 자연관은 키블이 “자연을 신의 유비(analogy)”(Tennyson 67)라고 인식함으로써 “편재하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신의 상징”(Prickett 107)으로 구현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뉴먼의 자연은 오히려 19세기 중반에 일반적이었던 사실주의적 자연관과 유사하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실증주의적 사고의 성숙이 자연으로부터 이전 시대의 낭만성을 제거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뉴먼의 사실주의적 자연관은 동시대의 선진적 사고를 인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의 생각인, 동시대 사상이 세계의 영성을 해치고 오염시킨다는 부정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뉴먼은 자연에서 신성을 찾는 낭만주의적 시도를 경계한다. “그리고 범신론적 정신, 즉 아름다움과 상상력과 철학의 종교, 지적인 제한과 도덕적 제한이 없는 종교적 사색과 자기탐닉의 만연으로 진행되는 다른 방향의 현상과 공포스럽게도 일치한다. 범신론은 . . . 거대한 속임수이다”(Discussions 148)라고 말한다. 뉴먼의 이런 모습은 소책자시인 대부분이 워즈워스의 자연관에서 범신론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과 분명하게 차별된다.

그 결과 뉴먼의 시에서 자연은 배제된다. 대신에 그 자리에 뉴먼은 자신의 자의식을 얹는다. 제6연에서 보면 화자가 이제껏 대화를 나눈 “그대”가 신과 같은 절대자 혹은 뉴먼이 상정한 일반인 독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임이 드러난다. 이는 마치 약 40년 후 홉킨스가 “나의 마음이어,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나의 마음이어”(My heart, where have we been? | What have we seen, my mind?, Hopkins 189)라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세계에서는 보이는 물질세계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만이 존재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뉴먼의 자아는 고립되어 있다. 아래의 시는 「멜기세덱」(“Melchizedek”)으로, 구약성경의 인물을 빌어 고립이 중첩된 자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그들에게는 친구의 목소리도 상쾌한 경치도
 주지 못한다, 슬픈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그렇지, 빛과 즐거움으로 양증맞게 차려 입은
 풍성한 대지는, 호응하는 미소와
 고양된 황홀감을 요구하며 더한 압박감만 주니.
 마음이 병든 그들은 장막 너머로 날아가
 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의 존재를 찾으리.

Thrice blest are they who feel their loneliness ;
 To whom nor voice of friend nor pleasant scene
 Brings that on which the saddened heart can lean ;
 Yea, the rich earth, garbed in its daintiest dress
 Of light and joy, doth but the more oppress,
 Claiming responsive smiles and rapture high:
 Till, sick at heart, beyond the veil they fly,
 Seeking His presence, who alone can bless. (Lyra 51)

소책자시인이 성경 속의 인물과 성경의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신앙의 진정성과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먼이 “멜기세덱”의 삶에 부합하는 정서를 “외로움”으로 상정하는 것은 유달라 보인다. 시적화자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목소리”를 내지만 진실로 영적교감을 나누지 못한다. 또한 자연은 “빛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풍성하지만 시적화자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 위안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홀로 “풍성한” 자연은 뻔뻔스럽게도, 과거의 낭만주의

시가 흔히 그랬던 것처럼, “호응하는 미소와 고양된 황홀감”을 요구한다. 화자는 자연에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한 압박감”만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의 존재”는 “장막 너머”에 있다. 신은 장막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고, 시인은 동료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3. 뉴먼의 빅토리아시대의 자의식과 의지

크라머(Lawrence Kramer)에 따르면 “낭만적 변증법”은 “빛나는 풍부함으로써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자아가 상상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같은 “보상은 물론 빅토리아시대인의 시에서도 핵심”(316)이 된다. 따라서 그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보충할지는 시인 개개인의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이 된다. 키블이 신앙과 자연을 합치시킨 것이 그 예이다. 반면 뉴먼은 자연에서 공감적 위안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에통합과 애도 그리고 비탄”(Apologia 217)만을 느낀다. 그리고 “전 존재”로서 존재하는 자신의 자아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자신의 “양심과 정신에” “선명하게” 들리는 신성한 “목소리”에 의지하고자 한다(Apologia 216).

다음 시는 뉴먼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자아의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신과 조우하려는 결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끌어주소서, 친절한 빛이여, 에워싼 어둠 가운데서,
 저를 그대에게로 이끌어주소서 !
 밤은 어둡고, 저는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소서 !
 당신께로 저의 발길을 붙들어 주소서 ! 저는 저 먼 곳을
 보고자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

저는 이제껏 그러지 못했고, 당신께 저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시다.
 저는 저의 길을 선택하여 보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에게 저를 이끌어주소서 !
 저는 화려한 나날을 사랑했었지요, 두려워하면서도,
 오만함이 제 의지를 지배토록 두었지요. 지난날은 기억치 않으렵니다.

그토록 오래 당신의 힘이 저를 축복해주셨듯이, 틀림없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주시겠지요,
 황야너머, 소택지너머, 바위산과 채벽너머로, 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아침이 와, 제가 오래 전에 사랑했고 한동안
 잃어버렸던 저 천사들의 얼굴이 미소 짓지요.

LEAD, Kindly Light, amid the encircling gloom,
 Lead Thou me on !
 The night is dark, and I am far from home—
 Lead Thou me on !
 Keep Thou my feet; I do not ask to see
 The distant scene,—one step enough for me.

I was not ever thus, nor prayed that Thou
 Shouldst lead me on.
 I loved to choose and see my path ; but now,
 Lead Thou me on !

I loved the garish day, and, spite of fears,
Pride ruled my will: remember not past years.

So long Thy power hath blest me, sure it still
Will lead me on,
O'er moor and fen, o'er crag and torrent, till
The night is gone ;
And with the morn those Angel faces smile
Which I have loved long since, and lost awhile. (*Lyra* 28-29)

이 시는 「어둠 속에 빛」(“Light in the Darkness”)으로, 뉴먼 스스로 “그때 이후로 널리 알려졌다”(Apologia 50)고 했을 만큼 동시대의 사랑받은 시이며, 오늘날 비평이 “모든 소책자시 중에서 가장 힘 있는”(James & James 166) 시라고 평가하는 시이다. 하지만 시의 외양은 지나칠 만큼 단순하다. 이 때문에 뉴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뉴먼의 현재 상태이다. 뉴먼은 현재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롭고, “밤은 어둡고” 깊어 언제 아침이 올지 모른다. 이 같은 묘사는 일차적으로 시를 쓰고 있는 실제 시간과 공간을 암시한다. 당시 뉴먼은 이탈리아를 여행 중이었는데 “며칠을 앓아누울” 만큼 “여행의 피로는 매우 심각했다”(Apologia 50). 더구나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배 위에서 밤을 맞았다. 극도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뉴먼이 초자연적 신에게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청하는 모습은 보통 인간과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2연을 통해서 “에워싼 어둠”과 “밤” 그리고 “집”이 좀 더 심오한 영적, 종교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2연은 뉴먼의 과거 상태로, 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현재의 반대이다. 과거의 그는 신에게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눈으로 직접 확인(see)하기를 원했었다. 뉴먼은 스스로 선택하고 확인하던 과거의 그 때를 현란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화려한 나날”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신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자신의 “의지”(my will)를 믿었던 시절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그는 그러한 “지나간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겸손하게 신의 구원을 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영적 여정에서 이 같은 의지의 투항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시대의 맥락에서 의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빅토리아시대는 개인의 자의식과 개성을 무엇보다 중시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지가 “자아감의 핵심”(Campbell 19)으로 자리 잡은 때이다. 뉴먼이 제2연에서 보여준 자아의 포기 또한 빅토리아시대에 보편적이었던 자의식의 한 가지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범위를 좀 더 좁혀, 소책자시학에 비추어 분석한다면 뉴먼의 자아의 포기는 자제(Reserve)라고 부를 수 있다. 자제란 유비와 함께 “소책자시학의 스타일을 통제”(Starcevic 137)하는 미학적 원칙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향”(Poston 408)을 말한다. 뉴먼의 시가 외향적으로 단조로워 보이는 이유는 이를 미학적 원칙으로 수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뉴먼의 “자제”는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한발 더 나간다. 그는 종교적 자아주장의 과도함이 종교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종교적 여정에서 자아주장을 억제하기로 결정한다. 「어둠 속에 빛」의 첫 행에서부터 제2연까지 반복되는 “이끌어주소서”는 뉴먼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의지, 자기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신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피하려는 노력이다.

그렇다고 자아의 문제가 뉴먼의 내부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아를 억제하겠다는 선택 또한 자의식을 기초로 하는 의지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뉴먼에 따르면 자아는 자기의 주관성을 극복할 수 없다. 주관성은 자아의 필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한 종교는 개개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 개개인의 “각각의 마음이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Tract 73)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앙을 이처럼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일로 간주하는 것은 동시대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먼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의도

적으로 배제시키고, “오로지 두 개의 절대적으로 빛나는 자기 증명적 존재인 나 자신과 나의 창조주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Apologia 25) 만을 남겨두는 것을 당연시한다. 시의 제1연에서 “에워싼 어둠”이라는 배경은 어둠과 바다라는 시공간을 통해 세계의 모든 존재를 효율적으로 삭제시키고 뉴먼의 자아와 그를 이끌어 줄 한줄기 “빛” 만을 남기는데 매우 효율적인 기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뉴먼은 범신론의 위협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유아론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간의 주관적 속성은 지나친 고립을 통해 경계 없는 자아탐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서 뉴먼은 역설적이지만 또 다시 자아를 들여다본다. 이 때문에 뉴먼에게 “자아-인식은 실제로 모든 종교적 지식의 뿌리”(Sermons 41)이다. 그에게 자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거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뉴먼은 낭만주의 선배시인들과 대부분의 소책자시인들에게 가능했던 자아의 가벼운 초월을 이룩하지 못한다. 초월하지도, 신에게 양도하지도 못한 자아는 그의 내부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

반면에 그를 이끌어줄 “빛”은 저 멀리 있거나 심지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를 여는 첫 행의 “친절한 빛”이 나의 앞이 아니라 “에워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어둠은 빛을 더욱 밝게 비추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도 않다. “빛”은 “친절”하다고 할 만큼 충분하게 뉴먼의 앞을 비춰주지 않는다. 이 사실은 제1연의 “저는 저 먼 곳을/ 보고자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에서 “저 먼 곳”이 아니라 겨우 “한 걸음” 앞만을 비춰주기를 요청(ask)하는데서 분명해진다. 실제로 “빛”은 어둠 속에 묻혀 잘 보이지도 않으며, 한 걸음 앞을 비출 만큼 밝지도 않고, 더구나 “저 먼 곳”에 있다. 뉴먼과 “빛” 사이의 거리가 언제쯤 좁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뉴먼은 “빛”에게 가까이 오기를 요청하지도 않고, 자아의 상상적 힘에 의해 낭만적 초월을 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한 걸음” 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함을 선택한다. 잘 보이지도 않는 신을 꾸준히 쫓아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결국에는 신이 어둠을 “황야너머, 소택지너머, 바위산과 채벽너머”까지 쫓아내줄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한다.

4. 결론

빅토리아시대의 자아는 종종 자연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심지어 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뉴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자연은 영성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동료인간조차도 그의 고립된 자아를 위로하지 않는다. 신은 멀리 있고, 자아의 상상적 힘은 그 거리를 좁힐 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뉴먼이 선택한 ‘천천히 한 걸음씩 전진하기’는 신속하지 않지만 매우 구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목상하고 행동하는 동물이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에 의해 영향”(Grammar 59) 받기 때문이다. 뉴먼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동시대의 실증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둠 속에 빛」에서처럼 자아의 힘을 믿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또한 빅토리아시대 초기에 존재하던, 새로운 변영의 시대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독과 소외 속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홉킨스식의 빅토리아시대 후기 종교시와는 완연하게 다른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먼의 시는 동시대 누구보다도 먼저 ‘먼 곳에 있는 신과 고립된 자아의 만남’이라는 빅토리아시대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식 또한 고립된 자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한다. 이는 빅토리아시대 시문학사 부분에서 충분히 주목받아 마땅한 의의이다.

참고문헌

- Bright, Michael H. English Literary Romanticism and the Oxford Movemen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0.3. (1979): 385-404.
- Campbell, Matthew. *Rhythm and Will in Victorian Poetry*. Cambridge: Cambridge UP, 1999.
- Hopkins, Gerard Manley. *The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 Ed. William Henry Gardner and Norman H. Mackenzie. London: Oxford UP, 1967.
- Kramer, Lawrence. The "Intimations" Ode and Victorian Romanticism. *Victorian Poetry*. 18.4 (1980): 315-336.
- James, M. C. James & James, Michael F. *Keble and Newman: Tractarian Poets*. *The Downside Review*. 432. (2005): 157-169.
- Newman, John Henry. *An Essay in Aid of a Grammar of Assent*. 1870. Victoria: Leopold Classic Library, 2015. Reissued. [Grammar라 함]
- _____. *Apologia Pro Vita Sua*. Ed. Ian Ker. London: Penguin Books, 1994. [Apologia라 함]
- _____. *Discussions and Arguments*. 1907. London: Aeterna Press, 2015. Reissued. [Discussions라 함]
- _____. *Lyra Apostolica*. 1836. London: Forgotten Books, 2015. Reissued. [Lyra라 함]
- _____. *Selected Sermons*. Ed. Ian Ker. New York: Paulist Press, 1994. [Selected라 함]
- _____. On the Introduction of Rationalistic Principles into Revealed Religion. *Tracts for the Times*. NO. 73. [Tract라 함] <https://www.newmanreader.org/>
- Poston, Lawrence. Newman's Tractarian Homiletics. *The Anglican Theological Review*. 87.3. (2005): 399-421.
- Prickett, Stephen. *Romanticism and Religion: The Tradition of Coleridge and Wordsworth in the Victorian Church*. Cambridge: Cambridge UP, 1976.
- Starcevic, Mirko. John Henry Newman and the Oxford Movement: a Poet of the Church. *Literature*. 12.2 (2015): 129-145.
- Tennyson, Gorg B. *Victorian Devotional Poetry: Tractarian Mode*. London: Harvard UP, 1981.
- Thirlwall, John C. John Henry Newman: His Poetry and Conversion. *Dublin Review*. 242. (1968): 75-88.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짐의 행동양상 연구

김효실(강원대)

I. 서론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¹⁾의 헉(Huck)은 그의 친구 톰(Tom)과 함께 자유(freedom), 활기(vigor), 그리고 견고한 동지애(solid comradeship)를 상징하며 미국문학의 한 획을 긋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처럼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인물들로서 미국의 자아이며, 미국문화 그 자체이다(Lester 199). 이 소년들의 모험에서 뿔어져 나오는 신비와 흥미는 신세계를 향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고무된 미국인들의 의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인종문제를 유머와 풍자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한 점은 이 소설이 많은 미국인들 마음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미국에서 출판된 1885년에 미국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 책을 비치하는 것을 금했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Boston Transcript*)지는 콘코드 대중 도서관(The Concord Public Library) 위원회가 이 소설을 조악하다는 이유로 도서 목록에서 배제했다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Leonard 2 재인용).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비종교적이며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검둥이'(nigger)이란 단어의 빈번한 사용과 노예 짐(Jim)을 포함한 다른 흑인 등장인물들을 평가 절하하는 과도한 묘사 때문에 인종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점차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각각 “미국의 현대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비롯되었다.”(Hemingway 23)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문학인들의 할아버지다.”(Sutherland 170)라고 말하면서 트웨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필립 부처(Philip Butcher)는 「국가 채무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할부금」("Mark Twain's Installment on the National Debt," 55)에서 랄프 엘리슨(Ralph Ellison)은 「농담으로 바꾸어 멩에를 풀다」("Change the Joke and Slip the Yoke," 48-9)에서 백인의 한 사람인 트웨인이 흑인들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거세한 백인들의 카르텔(cartel)을 깨고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준거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않은 남부사람들의 대변자인 백인 소년 헉과 흑인 노예 짐은 인종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비도덕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트웨인이 집사로 고용한 흑인을 모델로 한 짐이²⁾ 보여주는 재치와 통찰력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본 논문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짐’

1)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은 1884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그 다음해 1885년에 미국에서 출판된다. 이하 이 소설의 인용문의 표시는 AHF로 축약한다. 또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은 헉(Huck)이라 축약하여 지칭한다.

2) [https://en.wikipedia.org/wiki/Jim_\(Huckleberry_Finn\)#cite_note-Times-1](https://en.wikipedia.org/wiki/Jim_(Huckleberry_Finn)#cite_note-Times-1)
일부 비평가들은 트웨인의 집사였던 조지 그리핀(George Griffin)이 짐의 모델이라고 언급한다. 이외에도 트웨인이 그의 자서전에서 노예인 영클 다니엘(Uncle Daniel)과 소작인인 존 루이스(John Lewis)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도 영감을 받아 트웨인이 짐이란 인물을 창조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https://www.cliffsnotes.com/literature/a/the-adventures-of-huckleberry-finn/character-analysis/jim>)

의 행동에서 드러난 메시지가 인종담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복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조차도 “흑인이 열등하다.”는 요지부동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Eiselein 53) 당시에 흑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중심에는 트웨인의 작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있었다. 이 소설이 쓰여 질 당시인 1876년경에는 ‘노예해방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주에서는 흑인법(Black Codes)이나 이와 유사한 법령들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었다³⁾. 남북전쟁으로 대농장을 소유했던 지배계층들의 경제적 손실은 흑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이어졌고 흑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적·육체적인 핍박을 견뎌내야 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남북전쟁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쟁이후에 흑인을 향한 백인들의 도를 넘는 만행을 바라본 트웨인은, 조상의 죄로 늘 죄책감을 느꼈던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처럼 백인의 한사람으로서 흑인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Bradley 309)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담아낸다(Spiller 609).

‘인종담론’이란 단순히 인종의 육체적 특징이나 생활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종’이란 육체적

3)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의 수가 백인 정착민보다 넘는다. 이 무렵에는 흑인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며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점차 흑인과 백인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분위기가 일었고, 결국 18세기 초에 백인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노예법’(slave codes)이 통과되면서 노예제도가 합법화된다. 그러나 외국 이민자 유입이 잦은 북부 주에서는 1780년에서 1804년 사이에 노예제를 폐지했으나, 노예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은 남부는 노예제도를 지지하면서 북부와 심각한 갈등상태에 놓인다. 1808년경에는 노예수입을 불법으로 정하지만 1820년에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미주리(Missouri)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메인(Maine)을 동시에 연방에 가입시키면서 성사된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으로 인해 노예주와 자유주의 갈등은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19세기 초 노예는 인간이고 재산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이 주축이 된 노예해방운동을 시작으로 1842년에는 연방 대법원은 도망 노예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Laws)’을 각 주가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이후 도망 노예를 붙잡아 돌려보내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여러 북부 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공화당은 1860년에 링컨(Abraham Lincoln)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나, 민주당은 남부 지구당과 북부 지구당으로 분열된다. 링컨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남부는 연방탈퇴를 준비하면서 1861년에 남부연합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된다. 1862년 9월 22일, 북군이 앤티탐 전투(Battle of Antietam)에서 승리한 후, 1863년 1월 1일에 ‘노예해방령’(Emancipation Proclamation)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이 선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1865년에서 1866년 초에 남부 전역의 주 의회는 흑인들이 흥룡(興隆)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백인들의 공포심이 반영된 ‘흑인 단속법’(Black Codes)을 제정한다. 이 법령은 흑인에게 주류의 제조·판매·구입 및 무기소지 권한을 금지 시켰으며 지역 관리인들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도는 흑인 부랑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벌금 납부를 위해 고용살이를 보낼 수 있다. 또한 흑인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하인 외에는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철저히 흑인들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흑인을 향한 백인들의 차별과 증오는 더욱 심해져 지하저항조직인 KKK(Ku Klux Klan)단 같은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어 흑인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가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확립하려 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인종분리를 제도화시킨 짐 크로우(Jim Crow)법안을 만들어 흑인과 백인은 같은 철도 칸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음식점이나 병원 출입을 엄격히 금하는 등 노예해방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이 제도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와 남부 앨라배마(Alabama)주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사는 평범한 흑인들은 비폭력저항운동으로 맞선다. 1955년에 당시 26세였던 킹 목사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인종차별에 항거하기 위한 운동인 ‘버스 보이콧’(Bus Boycott)은 무려 381일간 지속되었으며 인종분리법의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예해방령’이 선포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1963년 링컨대통령 동상 앞에서 킹 목사가 연설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는 백인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흑인들의 폭발적인 울분을 담고 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나 흑인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차이에 기저를 둔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종’이란 말은 인구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열등한 위치로 전락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Smith 104). 이러한 전략은 반복적으로 최면을 걸듯이 백인들의 무의식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흑인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에 흑인의 열등성은 모든 분야에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현상은 몇 세기 동안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유럽의 계몽주의 사유를 정치철학으로 삼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그의 저서 『버지니아에 관한 주석』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1781)에서 흑인들을 폄하하여 글을 기록한 일면만 보아도 당시 흑인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흑인들은) 최소한 용감하고, 더 대담하다(백인들과 비교했을 때). 하지만 이러한 기질은 그들이 미리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런 결핍은 위험이 닥쳐올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은 그들의 여자들에게 더 열렬하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부드럽고 섬세한 감수성과 감각이 섞인 것이기 보다는 여자들에게 갖는 간절한 욕정처럼 보인다. 그들의 슬픔은 일시적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자비 아니면 진노로 생명을 주셨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수한 고통들을 보다 적게 느끼고 더 빨리 그들에게서 잊혀 진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활양식은 주의 깊은 사고보다는 감각적인 것에 더 관련된 듯 보인다. 기분전환으로 멍해지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잠자는 그들의 기질은 이런 현상 탓으로 돌려야만 한다.

They(blacks) are at least as brave, and more adventuresome(compared with whites). But this may perhaps proceed from a want of forethought, which prevents their seeing a danger till it be present. . . . They are more ardent after their female: but love seems with them to be more an eager desire, than a tender delicate mixture of sentiment and sensation. Their griefs are transient. Those numberless afflictions, which render it doubtful whether heaven has given life to us in mercy or in wrath, are less felt, and sooner forgotten with them. In general, their existence appears to participate more of sensation than reflection. To this must be ascribed their disposition to sleep when abstracted from their diversion, and unemployed in labor. (187-8)

‘노예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781년에 인권을 중요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토대로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세웠던 제퍼슨이 흑인의 기질을 열등하다고 기술한 사실은 당시 백인들이 흑인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써 식민지 책략을 이끈 백인 우월주의의 진상을 드러낸다. 정확히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세기 후, 트웨인이 집필을 시작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국이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흑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규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전통적 서술 형태를 거부한 이 소설은 당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미국사회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위선적인 백인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도록 이끈다.

흑인의 열등성에 관한 제퍼슨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예제도는 백인들과 구별되는 흑인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열등한 특징들을 주장함으로써 기능하여 구미인(Euro-American)의 지배를 수월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Rush 19). 트웨인은 짐의 지혜와 따뜻한 인간성을 부각시켜 백인들의 골수에 깊숙이 뿌리박혀있는 부조리한 사상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흑인의 열등성을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의견이 터무니없는 허구임을 파헤치기 위해 작가는 ‘검둥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⁴⁾ 짐은 분명히 ‘검둥이’이

4) 트웨인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시기에는 ‘검둥이’란 말은 모욕적이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로 인식되고 있었다¹⁾. 스투와트 버그 플렉스너(Stuart Berg Flexner)에 따르면 ‘Negro’는 일반적으로 약 1825까지 ‘nigger’로 불리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노예폐지론자들이 이 용어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한다(57). 이들은 ‘유색인’(colored person)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토마스 웬트워스 히긴슨(Thomas Whentworth Higginson)은 『흑인연대에서의 군대생활』 (*Army Life in a Black Regiment*)에서 ‘검둥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한탄하였다(28).

라는 무례한 말로 호명되기에는 타고난 미덕을 겸비한 인물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호칭이 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트웨인은 인종담론이 자연을 토대로 인간을 분류하는 순수한 개념이 아니라 일부집단이 지어낸 관념의 소산(所産)임을 깨닫는다. 특히 ‘검둥이’란 말은 유럽에서 건너온 미국의 개척자들이 자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민족을 열등한 존재로 지칭하고 그들이 우매하다고 날조하여 흑인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미국 사회를 진지하게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트웨인은 인종담론이 구미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열등한 존재로서 “검둥이”를 받아들이는 고정관념 체계 전개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s a serious critic of American society, Twain recognized that racial discourse depends upon the deployment of a system of stereotypes which constitute "the Negro" 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nd inferior to Euro-Americans. (Smith 108)

이 소설 2장에서 짐을 지칭하는 ‘미스 왓슨의 큰 검둥이’(Miss Watson's big nigger, named Jim. . . AHF, 65)에서 표현된 ‘검둥이’는 노예라는 뜻을 넘어 재산의 일부이며 생활용품과 같은 의미를 담아냄으로서 더욱 흑인들의 비참한 처지가 울곧이 드러난다. 혁이 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낼 때 오고간 다음의 대화에서 흑인을 인간이 아닌 그저 물건으로 취급하는 혁과 샐리 아줌마(Aunt Sally)의 무정함은 더욱 절정을 이룬다.

"Good gracious! anybody hurt?"
 "No'm. Killed a nigger."
 "Well, it's lucky; because sometimes people do get hurt."

“어머나! 죽은 사람은 없니?”
 “아니요. 검둥이 하나 죽었을 뿐인데요.”
 “다행이구나; 때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AHF, 408)

트웨인은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백인의 시선을 여과 없이 반영한다. 그는 거침없이 짐을 ‘검둥이’라고 부르며 짐이 사투리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의 우매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짐의 행동이나 말을 살펴보면 그가 우수한 통찰력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제2장에서 자신을 놀려먹는 백인 악동들의 장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재담꾼으로서의 역량이 돋보인다. 짐이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든 사이 톰은 짐의 모자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는데 그 일을 마녀가 했다고 꾸며낸다. 짐은 이야기를 점점 과장시켜 자신이 마법에 걸려 마녀를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말하며, 톰이 양초를 몰래 가져가면서 놓아둔 5센트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며 악마가 직접 준 거라고 자랑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온다. 짐의 명망이 높아져가는 과정을 지켜본 혁은 “하인이 되기에 짐은 매우 많이 망가졌다. . . .”(Jim was most ruined for a servant, . . . AHF, 69)라고 말한다.

주목할 점은 톰이 골려주기 위한 장난을 짐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짐의 이러한 행동은 제퍼슨이 일컫는 ‘검둥이’의 자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짐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지금까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 간다. 이런 의미에서 검둥이인 짐의 역할은 ‘검둥이’의 근본적인 정의를 전복시킨다. 인종담론에서 항상 객체로 있어야 하는 ‘검둥이’가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트웨인은 짐의 특별한 행동에 집중을 유도하면서 인종의 본질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미신과 연루

된 또 다른 사건은 제4장에서 짐이 혁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 황소의 위통에서 꺼낸 털공(hair-ball)을 사용했을 때이다. 이 장면은 마치 쉽게 속아 넘어가는 14살짜리 백인 소년의 무지를 동조하여 같이 재미있게 놀아주려는 검둥이의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짐의 행동은 백인들의 인종담론이 허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짐이 이 털공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의 달변이 예언의 기능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다. 짐이 봐준 혁의 미래에 대한 ‘점’은 미묘한 술책으로 이루어진 교환이었다. 짐은 점을 봐주는 대가로 돈을 원하지만 혁은 공짜로 점을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짐이 털공은 돈을 받지 않으면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혁은 가짜 돈 25센트로 흥정을 한다. 짐은 혁의 공모에 휘말린 척 반응하면서 25센트를 위조할 수 방법을 설명한다. 위조한 돈 25센트를 받은 짐은 그만의 영민한 연금술로 가짜 돈 25센트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을 짜낸다. 이 과정에서 짐은 ‘검둥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 한 번 와해시킨다. 그는 백인 소년이 원하는 것을 무료로 베풀면서 혁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관례적인 “검둥이”처럼 인식 될 수 있으나 짐은 백인인 혁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만드는 풍부한 기략을 보여주면서 ‘검둥이’의 1차원적인 개념과는 동떨어진 사람임을 입증한다.

혁의 아버지의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짐이 세계를 마니교적인 우주로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빛과 어둠, 백과 흑이 권력을 놓고 경쟁이 팽팽한 우주에서 꾀는 하얀 천사와 까만 천사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결국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짐의 충고에 따라 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De bes' way is to res' easy en let de ole man take his own way.” *AHF*, 87). 짐의 이러한 발언에는 흑인 노예인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짐은 미국에서 검은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의지와 본인의 의지 사이에 비참하게 놓인 자신의 운명이 그저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간접적으로 내비추고 있다.

짐이 인간에 대한 통찰력과 섬세한 관찰자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드러난다. 짐의 총명함은 다시 한 번 14장에서 부상한다. 솔로몬에 관한 논쟁에서 짐은 혁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이 후궁들과 50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둔 솔로몬을 예리하게 비난하는 것이다. 만약 솔로몬이 아이가 한 둘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 짐의 주장이다. 짐은 어리석은 듯 보이나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혜안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 있게 표현한다.

이어지는 언어에 대한 논쟁에서도 짐은 삼단논법과 유사한 논리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짐이 국가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지만 그의 추론은 지각력과 구조력을 갖추었다. 혁이 각 나라의 언어의 차이를 동물과 사람의 언어로 비교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지만 짐은 혁의 주장에서 모순을 짚어낸다.

“그렇담, 고양이도 사람처럼 말한 까닭이 없잖아요. 소는 사람이예요? 아니면 고양이에요?”
 “양쪽 다 아니지.”
 “그렇담, 고양이는 사람이나 소처럼 말할 까닭이 없잖아요. 프랑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건 그렇군.”
 “그럼 됐네요! 그런데, 대체 왜 프랑스 사람들은 사람처럼 말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대답해 보라고요!”
 그 이상 애길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난 깨달았어. 검둥이한테 토론하는 법을 가르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만두었지.

"Well, den, dey anit no sense in a cat talkin' like a man. Is a cow a man?—er is a cow a cat?"
 "No, she ain't either of them."
 "Well, den, she ain' got no business to talk like either one er the yuther of 'em. Is a Frenchman a man?"
 "Yes."

"Well, den! Dad blame it, why doan' he talk like a man? You answer me dat!"

I see it warn't no use wasting words—you can't learn a nigger to argue. So I quit. (AHF, 187)

짐은 동물과 사람의 언어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 간의 언어가 틀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혁이 제시한 실례의 범주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냄으로써 짐의 분석력은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트웨인은 짐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습적인 지식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이는 지적이고 섬세한 짐을 쓸모없는 인종담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보여줌으로써 인종담론이 오직 피부색을 지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백인들은 흑인이 열등하다는 인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장면은 혁이 도덕적 양심을 따르면서 짐의 인간애와 지혜를 인정하나 자신도 모르게 짐을 폄하한다. 혁이 짐의 통찰력을 수궁하고 있음에도 검둥이를 무시하는 반응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표현은 혁이 짐보다는 항상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짐이 타당한 논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 수 없다는 억지 표현으로 간주된다. 혁의 언급은 마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지배의 용이성을 위해 흑인이 열등하다는 것을 애써 최면을 거는 것처럼 들린다. 이러한 자기최면은 어느새 그들의 의식으로 파고들어가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습속을 어린 톰이 놀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톰이 표면적으로는 모험심이 강하고 유쾌한 장난꾸러기 소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그는 짐의 자유를 갈취한 방해꾼이다(Mensh 89). 톰의 행동은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인습과 낭만적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의 어린애다운 장난에도 불구하고 톰은 체면을 중시하는 그랭거포드(Grangerfords)와 셰퍼드슨(Shepherdsons)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하다(Hoffman 327-8). 톰이 짐을 흠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할 때 혁의 놀라는 반응(AHF, 416)은 백인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반문으로 해석된다. 혁은 무엇을 흠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존경받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일이지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백인 소년인 톰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트웨인의 반전의 메시지가 숨어있다. 톰은 이미 왓슨 아주머니(Miss Watson)의 유언으로 짐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AHF, 519) 그 사실을 담보로 '죄수'(짐)를 구하기 위해 잔인하고 익살맞은 계획을 진행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톰은 짐과 혁을 모두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모험심을 충족하기 위해 짐을 이용해 위험한 놀이를 계속해 이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톰은 총을 맞는다. 짐은 자신이 붙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혁이 의사를 부르러 가는 동안 톰을 옆에서 지키겠다고 자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련님(혁). 저는 의사가 오기 전엔 이곳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않을 거예요. 설령 40년이 걸린다고 해도 안 떠날 거예요."

"... No, sah—I doan' budge a step out'n dis place, 'dout a doctor, not if it's forty year!" (AHF, 496)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위험한 장난을 불사하는 백인 소년 톰과는 달리 흑인 짐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면서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다.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동안 짐은 헌신적으로 톰을 간호한다. 도망노예를 엄중하게 처벌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짐의 행동은 상품으로 취급되는 '노예'에게서는 기대될 수 없는 고결성을 지닌 것이다. 흑인 노예를 장난삼아 놀려먹은 톰을 신실한 동료애로 지켜내는 짐과 도망한 노예를 잔인하고 비열하게 응징하려는 백인의 인격이(AHF, 509-10) 상반되면서 더 이상 하얀 피부가 덕행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흑인이 열등하다는 인종담론을 전복시킨다.

마지막 장에서 죄수놀이 대가로 톰이 40불을 짐에게 지불하는 모습은 마치 노예를 함부로 학대해

도 되는 노예소유자처럼 백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돈으로 잘못을 만회하려는 부조리한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 남북전쟁시점 전후의 미국 사회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외치는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는 학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톰과 비슷한 성인들이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인종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번지르르한 명분인 ‘인종주의 의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다.

V. 결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종담론의 진실을 가려내어 자유와 평등이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은 남북전쟁 이전 남부사회에 뿌리깊이 침투해 있는 흑인이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을 익살스럽게 풍자하면서 악을 조장하는 비도덕적 통념을 고발한다.

트웨인은 흑인에 대한 공격적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표면적으로는 흑인을 상품으로 취급한 남부의 일반적인 관습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흑인이 열등하다는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흑인을 지배하려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음모는 죄의식 없이 흑인의 생명을 빼앗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이러한 행위는 독립선언문의 골자인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트웨인은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지배적 인종담론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통찰력과 인간애를 겸비한 흑인 노예 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끔씩 백인우월주의 습성들을 내비치는 헉,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배어있는 톰의 행동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흑인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철회시키는데 일조한다. 사회의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습을 탈피하여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천이성⁵⁾의 필요성을 강조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아직까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현시대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필독서라 할 수 있겠다.

5)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하고 의지 행위를 규정하는 이성.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능력을 이른다.

참고문헌

- Bradley, Sculley., and Richmond Croom Beatty, E. Hudson Long, George Perkins. 1981.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New York: Random House.
- Butcher, Philip. (ed). 1969. "Mark Twain's Installment on the National Debt," *Southern Literary Journal* I. Spring.
- Eiselein, Gregory. 1996. *Literature and Humanitarian Reform in the Civil War Era*.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P.
- Ellison, Ralph. 1964. "Change the Joke and Slip the Yoke," *Shadow and Act*, New York: Random House.
- Feagin, Joe R. 2006. "Foreword," *Huck Finn's "Hidden" Lessons*. written by Sharon E. Rush. U.S.A.: Rowman & Littlefield. pp. xiii.
- Flexner, Stuart Berg. 1976. *I Hear America Talk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bold. pp. 57.
- Hemingway, Ernest. 1998. *Green Hills of Africa*. New York: Scribner Classics.
- Higginson, Thomas Whentworth. 1962. *Army Life in a Black Regiment*. Boston: Beacon. pp. 28.
- Hoffman, Daniel. 1961. *Form and Fable in American Fiction*. New York: Oxford UP. pp. 327-8.
- Leonard, James S. & Tenney, Thomas A. (ed). 1992. "The Controversy over Huckleberry Finn," *Satire or Evasion: Black Perspectives on Huckleberry Finn*. edited by James S. Leonard, Thomas A. Tenney, and Thadious M. Davis. Durham and London: Duke UP. pp. 2.
- Lester, Julius. 1992. "Morality and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Satire or Evasion: Black Perspectives on Huckleberry Finn*. edited by James S. Leonard, Thomas A. Tenney, and Thadious M. Davis. Durham and London: Duke UP. pp. 199.
- Mensh, Elaine & Mensh, Harry. 2000. *Black White & Huckleberry Finn: Re-imagining the American Dream*. Tuscaloosa and London: Alabama UP. pp. 89-90.
- Pettit, Arthur G. 1971. "Mark Twain and the Negro, 1867-1869" *Journal of Negro History* 56. Apr. pp. 88-96.
- Rush, Sharon. 2006. "Twain and the Color Line," *Huck Finn's "Hidden" Lessons*. written by Sharon E. Rush. U.S.A.: Rowman & Littlefield. pp. 19.
- Smith, David L. 1992. "Huck, Jim and American Racial," *Satire or Evasion: Black Perspectives on Huckleberry Finn*. edited by James S. Leonard, Thomas A. Tenney, and Thadious M. Davis. Durham and London: Duke UP.
- Spiller, Robert E., and Willard Thorp, Thomas H. Johnson, Henry Seidel Canby, Richard M. Ludwig. William M. Gibson. 1978.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Sutherland, John. 2011. *Lives of the Novelists: A History of Fiction in 294 Lives*. London: Profilebooks.
- Twain, Mark. 2009.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서울: Shinasa.

윌트 휘트먼과 추의 미학

심진호(신라대학교)

I

그의 대표시집 『풀잎』(*Leaves of Grass*)을 통해 휘트먼은 지속적으로 상스러움, 외설, 수음, 동성애, 역겨움, 섬뜩함 등을 망라하는 미의 대립개념이자 반미적인 표현, 즉 추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휘트먼이 『풀잎』에서 그때까지 억압되어 왔고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추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1855년 발표한 시집 『풀잎』 초판본에 수록된 대표시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시인은 ‘창녀들, 불구자들, 병자들, 낙담한 자들, 도둑들, 난쟁이들’ 등 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식욕,” “성교”(LG 53) 등의 감각적 쾌락을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풀에서 자라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오물에 맡긴다”(I bequeath myself to the dirt to grow from the grass I love)(LG 89)라며 추한 것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표상인 “오물”이야말로 자신에게 시적 영감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타고난 순간」(“*Native Moments*”)이라는 시에서도 시인은 “나는 내 애인으로 창녀들을 택한다”(I take for my love some prostitute)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며 자신에게 “음탕하고 저속한 삶”(life coarse and rank)(LG 109) 달라고 간청한다. 나아가 그는 “모든 대륙은 반복해서 역겨운 죽은 것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가?”(Is not every continent work'd over and over with sour dead?)(LG 368)라며 썩어가는 시체까지 자신의 시적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휘트먼이 살았던 당대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육체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정신의 고양을 최고의 미덕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풀잎』에 넘쳐나는 추와 관련된 존재들은 당대 사회에서 충격과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이는 『모무스』(*Momus*)라는 당대의 만화 신문에서 한 비평가가 휘트먼을 “시대의 가장 더러운 짐승”(96)으로 혹평했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하지만 휘트먼은 “외설적인 목소리들이 나로 인해 맑아지고 아름답게 변모된다”(Voices indecent by me clarified and transfigur'd)(LG 53)라며 추한 언어는 선과 악, 미와 추, 자연과 문명 등 이분법적 사유의 경계를 희석시키는 초월적 시로 승화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추’의 개념과 관련해 헤겔의 계승자라 불리는 독일의 철학자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는 1853년에 출간한 저서 『추의 미학』(*Aesthetics of Ugliness*)을 통해 최초로 추와 도덕적 악 사이의 유추를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그는 추의 다양한 현상들을 구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추가 미의 반대 혹은 부정적 실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위고(Victor Hugo)는 추를 미와 동등한 미적 범주로 간주하면서 추의 예술적 가능성을 옹호한다. 위고 이후 현재까지 “추는 미와 대등한 관점에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제2매 64)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2007년 발표한 저서 『추한 것에 대해』(*On Ugliness*)에서 “추를 미의 반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를 조화나 비례, 완전무결함으로 이해되는 미의 반대라고 말할 수 없다”(16)라고 말한 이탈리아 사상가 에코(Umberto Eco)의 주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에코는 “불쾌함, 끔찍함, 소름끼침, 역겨움, 그로테스크함, 혐오스러움, 징그러움, 밋살스러움, 꿀불건, 추잡함, 더러움, 음란함, 겁남, 무서움, 비열함, 오싹함, 으스스함, 악몽 같음, 지긋지긋함, 욕지기남, 악취 남, 야비함, 볼품없음, 싫음,

피곤함, 화남, 일그러짐, 기형” 등이 있으며 또한 “믿을 수 없는 것, 환상적인 것, 마법 같은 것, 송고한 것 등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할당된 영역에서도 추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6)고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풀잎』을 관통하는 핵심 모티브인 ‘추’를 새로운 미의 모델로 간주한 휘트먼의 혁명적 시각은 당대의 미국 예술가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현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추’는 일평생 시인에게 강렬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그의 친구 트로벨(Horace Traubel)에게 쓴 편지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 “나는 아름다운 말보다 추한 말을 더 좋아한다 . . . 그대가 자주 발견하는 추한 말은 더욱 즉각적으로 그것의 목적을 추진시킨다”(I prefer the ugly to the beautiful words . . . ugly words you’ll often find drive more immediately to their purpose)(Traubel 4: 220). 이와 같은 ‘추’에 대한 휘트먼의 비전은 시대를 앞선 것으로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에서부터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터부시되어왔던 오물, 쓰레기, 썩은 대상은 물론 피, 배설물, 늪과 병든 육체, 변형되고 절단된 신체 등을 망라하는 ‘추’는 끊임없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는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정의한 ‘애브젝트’(abject)와 상통한다. 요컨대 ‘애브젝트’는 근본적으로 정체성의 본질주의적인 형식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주체에게 더럽고 천하며 역겨움을 주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레기나, 오물, 배설물, 엉켜 붙은 상처의 피고름, 썩은 음식물, 시체, 어머니의 육체 등(Kristeva 1-4)이 그 대표적 예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아름다운 말보다 추한 말을 더 좋아한다”는 휘트먼의 비전은 “추는 미보다 더욱 창의적이다”(Ugliness is more inventive than Beauty)(Interview n.p.)라는 에코의 주장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시인에게 영감을 자극하고 있는 ‘추’의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휘트먼과 추의 미학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대개 『풀잎』에 충만해있는 다른 주제인 죽음, 전쟁, 섹슈얼리티, 동성애 등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는 『풀잎』을 관통하는 핵심 모티브인 ‘추’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지엽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에 대한 휘트먼의 비전이 시대를 앞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 및 현대 애브젝트 미술(Abject Art)과도 긴밀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나 자신의 노래」를 통해 휘트먼은 자신의 시적 목표는 당대 빅토리아 시대 사회에서 엄격하게 금기시된 “금지된 목소리,” “베일을 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라 천명한다. “나를 통하여 금지된 목소리가, / 성과 욕정의 목소리가, 베일을 쓴 목소리가 그리고 나는 그 베일을 벗긴다”(Through me forbidden voices, / Voices of sexes and lusts, voices veil'd and I remove the veil)(LG 53). 이처럼 『풀잎』에서 청교도주의라는 엄격한 도덕주의의 베일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도취, 추함, 광란 등을 표상하는 디오니소스적(Dionysian)인 것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시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1860년에 발표한 초기 시집 『아담의 자녀들』(Children of Adam)에 수록된 시 「타고난 순간」(“Native Moments”)은 그 대표적 예다. 이 시에서 휘트먼은 창녀, 무법자, 일자무식꾼 등을 망라한 사회적 낙오자, 즉 추한 사람들의 “외설적인 외침”에 남다른 매혹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추한 행위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나는 분방한 쾌락을 믿는 자이고, 나는 젊은이들의 한밤의
난잡한 연회에도 참석한다,

춤추는 자와 함께 춤추고, 마시는 자와 함께 마신다,
 메아리는 우리의 외설적인 외침을 따라 울리고,
 나는 내 애인으로 창녀들을 택하고—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로
 좀 모자라는 사람을 골라낸다,
 그는 무법적이고 무례하고 무식하며—그가 행한 행위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그만 두어야지—왜 내가 스스로 동료들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겠는가?
 오, 그대들, 소외당하는 이여! 나만은 그대를 멀리하지 않으리,
 나는 그대들 한가운데로 뛰어가—그대들의 시인이 되리라,
 나는 다른 누구에게보다 그대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리라.

I am for those who believe in loose delights, I share
 the midnight orgies of young men,
 I dance with the dancers, and drink with the drinkers,
 The echoes ring with our indecent calls,
 I take for my love some prostitute—I pick out some low person
 for my dearest friend,
 He shall be lawless, rude, illiterate—he shall be one condemn'd
 by others for deeds done,
 I will play a part no longer—Why should I exile myself
 from my companions?
 O you shunn'd persons! I at least do not shun you,
 I come forthwith in your midst—I will be your poet,
 I will be more to you than to any of the rest. (*LG Facsimile 311*)

“난잡한 연회”에 참가하여 “창녀,” “무법자” 등과 어울려 “분방한 쾌락”을 즐기는 시인은 질서, 이성,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아폴론적 세계관과 대립되는 도발적이며 추악한 면모를 스스로없이 드러낸다. 이렇게 휘트먼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외설적인 외침”을 내뿜으면서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자 “그들의 시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변함없이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미국 입문서』(*An American Primer*)라는 산문에서 시인은 “싸우는 사람,” “도박꾼,” “도둑,” “창녀” 등 사회 하층민들이 내뿜는 거친 속어야말로 자신이 지향하는 시적 목표에 부합하는 “강력한 말”이라고 역설한다.

Many of the slang words among fighting men, gamblers, thieves, prostitutes, are powerful words. These words ought to be collected—the bad words as well as the good.—Many of these bad words are fine . . . Also words to describe all American peculiarities,—the splendid and rugged characters that are forming among these states, or are already formed—in the cities, the firemen of Mannahatta, and the target excursionist and Bowery boy—the Boston truckman—the Philadelphian. (736)

휘트먼이 사회 하층민들의 거친 속어로 대표되는 “추한 말”을 선호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풀잎』에 두드러진 인간의 몸에 관련된 표현 역시 저속하고 혐오스러우며 반미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대표적인 체액(bodily fluid)으로 표상되는 피를 모티브로 삼은 시에서 뚜렷이 찾을 수 있다. 「뚝뚝 떨어지는 방울」(“Trickle Drops”)이라는 시는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부르는 “모든 노래”와 “모든 말”이 ‘에브젝트’를 대표하는 표상인 피로 흠뻑 “얼룩지게 하여라”(stain)라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뚝뚝 떨어지는 방울! 내 푸른 정맥이 떠나간다!
 오, 내게서 떨어지는 물방울, 뚝뚝, 천천히 떨어진다.
 내게서 떨어지는 맑은 핏방울들,

갇힌 그대를 풀어주려다 생긴 상처에서,
 내 얼굴에서, 내 이마와 입술에서,
 내 가슴에서, 감춰진 나의 내부에서부터 앞으로 꼭 밀려나오는
 빨간 방울들, 고백의 방울이여,
 페이지마다 얼룩져라,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얼룩지게 하여라, 피의 방울이여,
 그들이 네 진홍의 열정을 알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반짝이게 하라.
 모두들 부끄러워하게 네 스스로 그들을 흠뻑 적시고 적셔라.
 내가 이미 썼거나 앞으로 쓰게 될 모든 것 위에 붉게 타올라라, 핏방울이여,
 네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라, 붉어진 방울이여.

Trickle drops! my blue veins leaving!
 O drops of me! trickle, slow drops,
 Candid from me falling, drip, bleeding drops,
 From wounds made to free you whence you were prison'd,
 From my face, from my forehead and lips,
 From my breast, from within where I was conceal'd, press forth
 red drops, confession drops,
 Stain every page, stain every song I sing, every word I say, bloody drops,
 Let them know your scarlet heat, let them glisten,
 Saturate them with yourself all ashamed and wet,
 Glow upon all I have written or shall write, bleeding drops,
 Let it all be seen in your light, blushing drops. (LG 125)

화자는 「나를 기다리는 여인」(“A Woman Waits for Me”), 「자발적 나」(“Spontaneous Me”) 등의 시에서 처럼 자신의 몸에 억압되어 있는 체액으로서 “핏방울”의 분출을 열망하고 있다. 의인화 된 “핏방울”을 “고백의 방울”이라고 말한 것은 언어와 몸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역설한 휘트먼의 시적 욕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는 곧 ‘언어의 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휘트먼의 시작(poetic writing)은 “문학적 선례로부터 인공적으로 증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Smedley 85) 체화된 언어인 것이다. 이것은 당대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는 기계인 인쇄기(printing press)에서 연유한 “꼭 밀어 넣다”(press)라는 동사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휘트먼이 『풀잎』에서 즐겨 사용한 단어 “press”는 그가 강조했던 “과학과 현대”(Specimen Days 245)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외설적인 외침”을 함축하고 있는 “강력한 말”이다. 무엇보다 노골적인 성행위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동사 “꼭 밀어 넣다”는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섹슈얼리티가 아닌 혐오스럽고, 음란하며 동시에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나를 기다리는 여인」에서도 시인은 “나는 느리게 저속한 근육을 꼭 밀어 넣는다”(I press with slow rude muscle)(LG 102)라며 “press”를 사용하여 더욱 저속하고 추악하게 성행위를 묘사한다. 중요한 점은 『풀잎』에서 자주 발견되는 “꼭 밀어 넣다”는 강압적 접촉과 인쇄기의 기계적 작동을 동시에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상처뿐만 아니라 치유”(Smedley 87)를 암시하는 다의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 “추한 말”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꼭 떨어지는 방울」은 인간의 몸과 기계의 융합 및 애브젝트를 모티브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창출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이나 현대 ‘애브젝트 미술’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19세기 당대의 주요 작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북전쟁(Civil War) 기간 중군 간호사(wound-dresser)로 참전하여 전쟁의 실상을 몸소 체험한 휘트먼에게 있어 전쟁은 일평생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다. 이는 『북소리』(Drum-Taps),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며』(Memories of President Lincoln) 등의 시집 외에도 『전쟁 기간의 비망록』(Memoranda During the War)이라는 산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시와 산문을 통해 격렬한 전투 그 자체보다는 부풀어 오른 시체들, 사지가 절단된 병사들, 중상자들을 치료하는 야전 병원에서의 일상 등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뒤편으로써 휘트먼은 전쟁의 가장 추악한 측면, 즉 “간과된 디테일에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는 글쓰기를 시작했다”(Folsom 120)는 사실이다. 이는 『복소리』에 수록된 시 「상처를 치료하는 자」(“The Wound-Dresser”)를 통해 뚜렷이 입증된다. 이 시에서 남북전쟁에 종군 간호사로 참전했던 시적 화자인 노병은 전투의 여파로 발생한 처참한 부상병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회상한다. “붕대, 물, 그리고 스펀지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화자와 그를 뒤따르는 수행 간호사 옆에는 “수술쟁반”과 “이내 엉긴 헝겊과 피로 가득 차게 되는 / 폐기물통”(a refuse pail / Soon to be fill'd with clotted rags and blood)(LG 310)이 있다. 군의관, 간호사, 부상병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분주한 야전병원의 모습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리에게 공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소름끼치고, 역겹고, 악취 나고, 섬뜩한 느낌을 준다. 나아가 화자는 총상으로 인한 부상병들의 망가지고 절단된 신체를 치료하면서 체험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너무나 구역질나고, 너무나 불쾌하다”라고 고백한다.

팔이 절단되고 남은 부분에, 손이 절단되고 남은 부분에
 나는 엉겨 붙은 붕대용 천을 벗기고, 썩은 딱지를 떼어내고, 고름과 피를
 씻어내고,
 다시 그의 베개를 받쳐주자 그 기병은 구부러진 목을 숙이더니 이내 옆으로
 머리를 떨군다,
 그의 눈들은 잠겨있고 얼굴은 창백한데, 피로 점철된 그의 남은 몸을 차마
 보지 못하는구나,

바깥에서부터 깊숙이, 깊숙이 상처를 치료한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완전히 야위어 버리고 쇠약해진 골격을 보게 되고,
 황청색이 도는 안색을 보게 된다.

나는 관통된 어깨를 치료하고, 총상을 입은 발을 치료하고,
 영혼을 잡아 먹으면서 썩으면서 악취가 나는 괴저(壞疽)에 걸린 병사를 씻는데,
 너무나 구역질나고, 너무나 불쾌하다,
 수행 간호사가 내 뒤 옆에 서서 수술용 쟁반과 들통을 들고 있는 동안.

From the stump of the arm, the amputated hand,
 I undo the clotted lint, remove the slough, wash off the matter and blood,
 Back on his pillow the soldier bends with curv'd neck and side falling head,
 His eyes are closed, his face is pale, he dares not look on the bloody stump,
 And has not yet look'd on it.

I dress a wound in the side, deep, deep,
 But a day or two more, for see the frame all wasted and sinking,
 And the yellow-blue countenance see.

I dress the perforated shoulder, the foot with the bullet-wound,
 Cleanse the one with a gnawing and putrid gangrene, so sickening,
 so offensive,
 While the attendant stands behind aside me holding the tray and pail. (LG 310-11)

「상처를 치료하는 자」에서 볼 수 있듯이 부상병들의 비명, 소음, 역겨운 냄새, “고름과 피” 등으로 가득한 이수라장 같은 야전병원은 반미적인 실체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기에 추함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전투의 여파로 야기된 망가지고 질병에 걸린 신체를 지닌 부상병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군의관과 간호사들의 모습을 그려낸 야전병원의 실상이야말로 바로 ‘추’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휘트먼은 전쟁과 전투의 여파를 통해 ‘추’의 정수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강렬한

추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전쟁을 모티브로 한 시를 발표했다. 「나 자신의 노래」의 36번째 섹션은 그 대표적 예다. 여기서 시인은 미국독립전쟁(the Revolutionary War) 기간에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 전투를 묘사하면서 밤바다를 배경으로 함선 위에 넘쳐나는 병사들의 비명, 신음, 피, 역한 냄새, 시체들 등 역겹고 섬뜩한 실체, 즉 추함으로 가득한 실체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형체 없는 시체 더미와 남겨진 시체들, 돛과 둥근 목재 위에
 흩어진 살점들,
 끈을 자르고 용마루를 아래로 매달기, 위안하는 파도의 경미한 충격,
 검고 무감각한 대포들, 탄약 꾸러미와 역한 냄새,
 머리 위로 몇 개의 큰 별들이 조용하고 슬프게 빛나고,
 해풍의 미묘한 쿵쿵거림, 사초(莎草)와 해안 들판의 냄새,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죽음의 메시지,
 의사의 칼과 그의 톱니가 내는 값아 대는 소리,
 색색대는 소리, 허 차는 소리, 떨어지는 피를 닦는 소리, 짧고도 거친
 비명, 길고도 흐릿한 차츰 찾아드는 신음,
 이것들 그러한 것들, 이것들 돌이킬 수 없는 것들.

Formless stacks of bodies and bodies by themselves, dabs of flesh
 upon the masts and spars,
 Cut of cordage, dangle of rigging, slight shock of the soothe of waves,
 Black and impassive guns, litter of powder-parcels, strong scent,
 A few large stars overhead, silent and mournful shining,
 Delicate sniffs of sea-breeze, smells of sedgy grass and fields by the
 shore, death-messages given in charge to survivors,
 The hiss of the surgeon's knife, the gnawing teeth of his saw,
 Wheeze, cluck, swash of falling blood, short wild scream, and long,
 dull, tapering groan,
 These so, these irretrievable. (LG 71)

“형체 없는 시체 더미,” “흩어진 살점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구도 『북소리』에 수록된 대부분의 전쟁 시들과 마찬가지로 전투의 여파로 야기된 처참한 리얼리티로 가득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휘트먼은 당대의 작가들이 “전쟁의 거친 폭풍”을 묘사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전쟁의 거친 폭풍을 사진 찍으려 하는”(Traubel 2: 53) 사진작가처럼 전쟁의 진실을 리얼리티로 충만한 사실적 이미지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시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준 뒤에 이어지는 행에서 화자는 “경미한 충격,” “역한 냄새,” “값아대는 소리” “거친 비명,” “신음” 등 다른 감각을 부각시키면서 전투의 실상을 더욱 소름끼치게 증폭시킨다. 다시 말해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이 서로 넘나들으로써 단순한 사실적 형상화를 뛰어넘어 더욱 기괴하고 섬뜩한 이미지, 즉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있다. 특히 치료를 위해 부상병들의 팔다리를 절단하는 “의사의 칼과 그의 톱니가 내는 값아 대는 소리”는 우리를 더욱 전율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 따라서 이 시구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는 사실주의를 뛰어넘어 그로테스크를 핵심요소로 삼는 아방가르드 예술인 초현실주의(Surrealism)에 부합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휘트먼이 “19세기 유일한 초현실주의 미국 시”(LG 424)를 쓴 시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III

1871년에 발표한 『민주주의의 조망』(Democratic Vistas)이라는 산문에서 휘트먼은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고 병든 미국 도시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맨해튼을 ‘고모라’(Gomorrah)에 비유하면서 가계, 교

회, 극장, 사무실 책상 등 도처에서 “경박함과 상스러움, 저속한 교활함, 간통이 만연해 있다”(14)고 본다. 더욱이 그는 “그로테스크함, 기형, 유령”으로 가득한 미국의 대도시를 “거대하고 메마른 사하라”로 간주하며 도시의 추한 실체를 직시한다.

Are there perfect women, to match the generous material luxuriance? Is there a pervading atmosphere of beautiful manners? . . . Confess that to severe eyes, using the moral microscope upon humanity, a sort of vast and dry Sahara appears, these cities, crowded with petty grotesques, malformations, phantoms, playing meaningless antics. Confess that everywhere, in shop, street, church, theatre, barroom, official chair, are pervading flippancy and vulgarity, low cunning, infidelity—everywhere the youth puny, impudent, foppish, prematurely ripe—everywhere an abnormal libidinousness, unhealthy forms, male, female, painted, padded, dyed, chignon'd, muddy complexions, bad blood . . .
(*Democratic Vistas* 14)

이 인용문에서 형상화되는 도시 이미지는 아름답고 고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어둡고 퇴폐적이며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고 있기에 ‘추’를 핵심요소로 삼으며 대상의 표면 내부 상태를 탐구했던 아방가르드 미술인 표현주의(Expressionism) 이미지와 상응한다. 말하자면 “거대하고 메마른 사하라” 맨해튼과 그 속에 살아가는 대중들은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나 앙소르(James Ensor)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반미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풍긴다. 요컨대 휘트먼은 변화한 맨해튼의 대중들의 모습에서 대도시 이면에 감춰진 “그로테스크, 기형과 유령”이라는 추를 간파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조망』에서 드러나는 맨해튼의 추한 이면은 『풀잎』을 통해 아름답고 웅장하고 숭고한 “나의 도시”로 시인이 찬양하는 “매나하타”(Mannahatta)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의 언어는 장식과 심미화의 언어이며 그 속에서 맨해튼의 지저분한 일상은 ‘매나하타’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변형된다”(82)라는 캣사로스(Laure Goldstein Katsaros)는 지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풀잎』에서는 도시의 추한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에 휘트먼은 맹목적 도시 숭배자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풀잎』을 통해서도 그는 암시적으로 “그로테스크함”과 “유령”으로 넘쳐나는 맨해튼의 일상을 추의 미학으로 형상화한다. 「찬란하고 고요한 태양을 내게 다오」(“Give Me the Splendid Silent Sun”)라는 시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생활을 동경하면서 “원초적인 건강”을 가져다주는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를 표명한다. 하지만 시인은 후반부에서 “보도를 따라 오가는 끊임없고 무한한 이 유령들,” “끝없이 시끄러운 합창소리,” “부상병들의 모습” 등 소음과 광란 그리고 혼돈의 도가니를 연상시키는 맨해튼의 풍경에 자신이 매료되었음을 보여준다.

내게 병사들이 행진하는 브로드웨이를 다오—내게 트럼펫 소리와 북소리를 다오!
(중대나 연대로 행진하는 병사들—상기된 얼굴로 무모하게 앞서나가는 병사들,
복무 마치고, 수가 줄어든 행렬로 돌아오는, 젊지만, 아주 늙고 지친 얼굴로,
만물을 외면한 채, 행진하며 돌아오는 병사들을),

.....
짐을 높이 실은 군용 마차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전쟁터로 향하는 밀집한 군단을,
힘찬 목소리, 열정으로 끝없이 물밀듯이 행진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지금처럼 북을 치며, 힘차게 고동치는 맨해튼의 거리들을,
끝없이 시끄러운 합창소리, 소총들의 부스럭거리고 철커덕하는 소리를,
(부상병들의 모습까지도)

격렬하게 음악으로 합창하는 맨해튼의 군중들을!
맨해튼의 얼굴들과 눈들을 영원히 내게 다오.

Give me Broadway, with the soldiers marching—give me the sound of the trumpets and drums!
(The soldiers in companies or regiments—some, starting away, flush'd and reckless;
Some, their time up, returning, with thinn'd ranks—young, yet very old,
worn, marching, noticing nothing;)

.....
 The dense brigade, bound for the war, with high piled military wagons following;
 People, endless, streaming, with strong voices, passions, pageants,
 Manhattan streets, with their powerful throbs, with the beating drums, as now.
 The endless and noisy chorus, the rustle and clank of muskets, (even the sight of the wounded),
 Manhattan crowds, with their turbulent musical chorus!
 Manhattan faces and eyes forever for me. (LG 313-14)

시인은 남북전쟁 기간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과 군용마차 그리고 당대의 기계 테크놀로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소총들”이 내는 “부스럭거리고 철컹컹하는 소리” 등이 “격렬하게 음악으로 합창하는 군중들”과 서로 맞물려 시끄럽고 불쾌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탁월하게 형상화한다. 특히 마지막 행은 맨해튼 군중들을 탈신체화된 맨해튼의 “얼굴들”과 “눈들”로 변형하고 축소시킴으로써 형태의 극단적 과장, 변형, 왜곡 등을 통해 이질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려 했던 아방가르드 미술의 스타일과 상관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스윗(Timothy Sweet)은 이 시구에 묘사된 도시의 경험이 “정상적인 신체의 경계를 와해시킨다”라며 “분명한 개인이라는 그들의 지위에서 분리된 도시 거주민들은 거리에서 고통치는 그로테스크한 신체로 구성된다”(61)라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구는 속도, 군중, 전쟁, 그리고 기계 테크놀로지를 열렬하게 찬양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중 관객을 목표로 한 20세기 최초의 문화적 운동”(Tisdall 7)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방가르드 문예사조인 미래주의(Futurism)에 상응한다.

무엇보다 미래주의의 창시자인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Filippo Marinetti)는 “우리는 어디에서든 발견되는 대로 엄숙함을 살해하면서 용감하게 문학에서 추한 것이 될 것이다”(Eco 370 재인용)라며 미래주의 문학에서 ‘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더욱이 마리네티를 비롯하여 많은 미래주의 화가들이 휘트먼을 시대를 앞선 ‘선구적 미래주의자’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휘트먼과 그의 시에 내재된 ‘현대성’을 인식할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야성적 포효’(barbaric yawp)는 결코 들리지 않았다”(269-71)는 리치알디(Caterina Ricciardi)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 나아가 에코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운동이 탄생시킨 작품들에서 ‘추’의 사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하며 미래주의, 표현주의, 다다주의 등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추’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강조한다.

맨 먼저 터져 나온 미래주의 선언은 경주용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Victory of Samothrace)보다 아름답다고 천명했으며, 속도, 전쟁, 따귀와 주먹질에 환호했다. 이들은 달빛, 박물관, 도서관에 맞서 싸웠고 과감하게 추를 생산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웠다. . . . 미래주의가 추의 고의적인 도발이었다면, 독일 표현주의는 추의 사회적 병리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리파(Die Bruke)가 결성된 해인 1906년부터 나치즘이 성장하던 시기까지 키르히너, 에밀 놀데, 코코슈카, 에곤 실레, 게오르그 그로스, 오토 딕스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할 만큼 집요하게, 초체하고 불쾌한 얼굴들을 묘사했다. . . . 다다 운동에서 추의 매력은 그로테스크에 대한 호소를 통해 등장했다. 뒤상은 『모나리자』에 도발적으로 콧수염을 그려 넣는가 하면, 소변기를 예술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레디메이드(ready-made) 시학을 선보였다. (Eco 368-69)

이렇듯 『풀잎』에는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여 ‘추’를 핵심 모티브로 삼은 아방가르드 미술이 지향하는 새로운 이미지에 상응하는 시가 충만해 있다. 19세기 당대에 팽배했던 인습적 금기로서의 ‘추’를 전면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미의 모델로 받아들인 휘트먼의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사유는 20세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러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Works Cited

- 김충남. 『추와 문학』. 서울: 동문선, 2010.
- 심진호. 『윌트 휘트먼과 융합적 상상력』.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5.
- 제어매. 「추의 역사」. 『추와 문학』. 동문선 (2010): 45-70.
- Bloom, Harold. *Modern Critical Views: Walt Whitman*.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 2003. 1-22.
- Buleu, Maria-Alexandra. “Ugliness in the Avant-garde: German Expressionism and Italian Futurism.” *Philosophy Series* 62.2 (2013): 75-89.
- Dowling, Linda. *Language and Decadence in the Victorian Fin de Siècle*. New Jersey: Princeton UP, 1986.
- Eco, Umberto. “Culture: Umberto Eco.” *Interview*. Web. 25 September, 2017. <http://www.interviewmagazine.com/culture/umberto-eco/>
- _____. *On Ugliness*. Trans. Alistair McEwen. New York: Rizzoli, 2007.
- Folsom, Ed. *Walt Whitman's Native Representations*. New York: Cambridge UP, 1994.
- Henderson, Gretchen E. *Ugliness A Cultural History*. London: Reaktion Book, 2015.
- Katsaros, Laure Goldstein. “A Kaleidoscope in the Midst of the Crowd: Poetry and the City in Walt Whitman's *Leaves of Grass* and Charles Baudelaire's *Petis Poèmes en Prose*.” Diss. Yale University, 2003.
-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New York: Columbia UP, 1982.
- Ricciardi, Caterina. “Walt Whitman and the Futurist Muse.” *Utopia in the Present Tense: Walt Whitman and the Language of the New World*. Ed. Marina Camboni. Roma: Il Calamo, 1994. 265-284.
- Rosenkranz, Karl. *Aesthetics of Ugliness: A Critical Edition*. Trans. Andrei Pop and Mechtild Widrich.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5.
- Smedley, Christine. “Dirty Language: Abjection and Experimental Writing in Walt Whitman, James Joyce and Mina Loy.” Diss. U of California, 2007.
- Sweet, Timothy. *Traces of War: Poetry, Photography, and the Crisis of the Un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0.
- Tisdall, Caroline and Anzelo Bozzolla. *Futurism*.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 Traubel, Horace. *With Walt Whitman in Camden*. vol. 2. New York: Mitchell Kennerley, 1915.
- _____. *With Walt Whitman in Camden*. vol. 4. Ed. Sculley Bradley.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53.
- Whitman, Walt. *An American Primer*. Ed. Horace Traubel. San Francisco: City Light Books, 1970.
- _____. *Democratic Vistas*. Charleston, SC: BiblioBazaar, 2009.
- _____. *Leaves of Grass, 1860: The 150th Anniversary Facsimile Edition*. Ed. Jason Stacy. Iowa City: U of Iowa P, 2009.
- _____. *Leaves of Grass*. Eds. Sculley Bradley and Harold Blodget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3.
- _____. *Specimen Days and Collec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5.

영어학 분과 1 (302호)

조직위원장: 이두원, 정원돈 / 조직위원: 조남호, 엄병호, 권종일, 이제원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40 ~ 2:20	신성균	강원대	영어사의 영어교육 적용	장은영 (강원대)	김경열 (강원대)
2:20 ~ 3:00	이기석	제주대	Reflections on the Acoustic Feature[grave]	박창범 (서원대)	
3:00 ~ 3:30	휴 식				
3:30 ~ 4:10	이두원	한국 교통대	Idiomatic Passivization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양희익 (한국교통대)	강남길 (극동대)
4:10 ~ 4:50	이정선	강원대	A Contrastive Study on the Polysemy Structure of the Preposition <i>over</i> and the Prefix <i>over</i>	이두원 (한국교통대)	
5:00 ~ 5:20	지역 총회(강원: 304호 / 충청: 001호)				
5:20 ~ 6:00	전체 총회(001호 대강당)				

영어사의 영어교육 적용

신성균(강원대학교)

1. 서론

영어사를 연구하는 이유로는 Algeo and Pyles (2004), Algeo (2010)가 지적한 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영어사를 연구하면 영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서는 영어는 인간에게 독특한 언어의 한 종류이므로 영어사는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현대 영어의 많은 불규칙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인 *man-men*, *goose-geese*, 그리고 *ox-oxen*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men*은 원래 *manniz*에서 왔는데 *i*음의 영향으로 *a*가 *e*로 변한 후 *-iz*가 탈락되어서 현재의 불규칙적인 명사가 되었다(*geese*도 유사함.) *oxen*의 불규칙 형은 고대영어에서 근세영어까지 자주 나타난 *n*어간의 잔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withstand*의 현재의 의미는 고대영어 *with*에서 현대영어 *with* 뿐만 아니라 *against*의 뜻도 있었는데 이러한 뜻의 *with*가 *stand*와 결합하여 *저항하다*, *거역하다*, *대적하다*, *내성이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진 *withstand*의 단어가 된 것으로 설명이 되고, 같은 *with(against)*의 의미와 결합한 단어로써 *제거하다*, *철수하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withdraw*, *말리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주지 않다* 등의 의미를 지닌 *withhold*가 있다. *머리를 빗지 않은*의 의미인 *unkempt*는 *un(c=k)cembed* (OE *cemban* > *comb* + *jan*(verbal suffix)에서 어미의 *e*의 탈락으로 *d*가 *t*가 되고 이 *t*는 앞의 유성자음 *b*를 무성자음화 시켜 원 명사형 *c(k)omb*와는 상당히 형태가 달라진 현재의 단어가 된 것이다. *won't*는 *will*의 부정형인데 *will+not*은 *win't*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고대영어에서 초기 근세영어까지 *will*의 변이형 *woll*이 있어서 서로 교환되어 쓰였는데 현대영어에 이르러서는 긍정형은 *will*, 부정형은 *woll+not*이 결합하여 현대영어의 *won't*가 된 것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또한 *don't*의 발음도 *dount*이지 *dunt*가 아니라는 것도 *won't*에 유추되어 현재의 발음이 되었다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사의 지식은 초기 영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John Keats는 그의 시 *The Eve of St. Agnes*에서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예배당의 무덤 위의 조각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e sculptur'd dead, on each side, seemed to freeze,
Emprison'd in black, purgatorial rails.

여기에서 Keats가 *rails*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을 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철도 등에 의해서 *rails*를 동상을 둘러싼 철 울타리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rails*는 고대영어 *garments*(의상)에서 온 것으로 조각상이 입고 있는 수의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시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Chaucer의 *Canterbury Tales*의 서문에서 이상적인 기사를 묘사하면서 *His hors weren gode*라고 했을 때 여기서 *hors*가 단수인가 복수인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사에서 고대-중세 영어를 연구해보면 그 당시에 *horse*는 현대영어의 *deer*나 *sheep*과 같이 단-복수가 동일한 명사이어서

여기에서도 복수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의 지식은 초기 영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기 근세 영어의 예를 들면 Shakespeare는 그의 작품에서 *thou*와 *ye*를 불어의 *tu-vous*, 독일어의 *du-Sie*와 같이 사용해서 *thou*와 *ye*를 둘 다 단수로 사용하지만 *thou*는 친밀성, 하대 등을 나타내고 *ye*는 거리감, 존경 등을 나타낼 때 등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을 때 Hamlet등의 Shakespeare의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영어도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예의를 중요시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

2. 본론

영어는 시대별로 고대, 중세, 초기 근세영어, 현대영어 4시대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4 시대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이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어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의 변화는 조금씩 서서히 일어나서 그것이 쌓여서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역사 언어학자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사에서 영어를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 외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서 구분한다. 따라서 고대 영어시대의 출발점(A.D. 450)은 Anglo-Saxon족의 영국 침략(A.D. 449)사건에 근거해서 구분한다. 중세영어는 (A.D. 1100) 노르만디의 William공작에 인도된 불어를 사용하는 노르만족들의 영국 정복(A.D. 1066) 사건에 근거해서 구분된다. 그리고 초기 근세 영어는 인쇄술의 도입(1476)등으로 인한 변화에 근거하여 A.D. 1500-1800을 초기 근세 영어시대로 나눈다.

영어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각 시대별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각 시대영어의 특징과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영어는 Alfred 대왕 (A.D. 871-899)이나 혹은 Alfric (A.D. 995-1020)에 의해서 대표되고, 중세영어는 Geoffrey Chaucer (A. D. 1340-1400), 초기 근세 영어는 William Shakespeare (1564-1616)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

영어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데 대표 작가들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각 시대별로 이루어진 성경 번역본이다. 각 시대별의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번역본들을 비교함으로써 영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영어시대에 나타난 번역본은 Anglo-Saxon 번역본(A.D. 735)인데 직역이라기보다는 쉽게 풀어쓴 의역의 방법을 택했고 신구약 66권 모두가 번역된 것이 아니고 4복음서, 모세오경들 일부가 번역되었다. 중세 영어시대의 번역본으로는 Wycliffe 번역본(1389)이 있는데 Wycliffe 본인이나 추종자들에 의한 것으로 신구약 모두가 완역되었다. 초기 근세 영어시대의 것으로는 James왕의 주도하에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King James 번역본 (A.D. 1611)이 있다.

영어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의미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언어 변화가 규칙의 첨가, 삭제 등의 규칙의 변화(changes of rules)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최근의 생성 문법에서 주장하는 매개 변형

1)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칭어를 가진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윗사람에게도 *you*, 아랫사람에게도 *you*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식한 언어라고 하는데, 영어사의 관점에서 보면 밑에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던 *thou*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you*는 존칭어로 쓰이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면 영어도 역시 예의를 중요시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영어의 예를 들면, *Open the door, Open the door, please, Will you open the door, please?, Would you open the door?, Could you open the door?*의 예의를 갖춘 같은 의미의 여러 종류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의 재고정(resetting of parameters)이냐는 문제이다. 이는 같은 영어 변화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2)

본 논고에서는 현대 영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어사의 중요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고대 영어에서 중세영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비강세 음절의 모음의 평준화이다(leveling of unstressed vowels). 이는 비강세 음절의 모음들이 철자는 e로 통일되고 발음은 ə(schwa)로 된 것이다. 이러한 수평화는 갑자기 중세 영어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게르만 어족의 특징인 첫음절 강세화로 마지막 음절은 약화되기 시작한 결과로 수평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대영어의 작품인 Beowulf (ca. A.D. 1000)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 비강세 모음의 수평화가 영어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고대 영어는 다른 인구어족의 언어와 같은 굴절 어미에 의하여 성, 수, 격, 등의 중요한 문법 관계를 나타냈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여성형 명사에서 단수 주격은 -e이고 복수형에서는 주격, 속격, 대격은 -a, -um 인데 이 모든 것이 -e로 통일되어 단/복수, 격의 구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수평화는 현대 영어에서까지 남아있는 영어 구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deep, loud, slow* 등은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대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부사 어미 -ly를 첨가하여 형용사와 형태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강세 모음의 평준화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고대 영어에서는 형용사에 부사 어미 -e를 첨가하여 부사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dēp, lūd*의 부사는 각각 *dēpe*와 *lūde*가 된다. 그런데 수평화의 결과인 -e가 상실됨으로써 형용사와 부사가 동형이 된 것이다.⁵⁾

비강세 모음의 수평화로 설명이 되는 또 다른 것이 a-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이다. 왜 a-로 시작되는 단어들 (e.g. *aboard, away, alive, asleep*)이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관찰력이 있는 독자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어원을 고대 영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on-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영어에서는 n앞에서 a와 o가 서로 교환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on>an>a 과정을 거쳐 on-이 현대 a-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영어 *alive*는 *on life, asleep*은 *on sleep*로 이해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평화는 영어 통사 구문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문장 요소들의 상호 관계 성, 수, 격을 나타내는 굴절어미가 수평화 탈락됨에 따라 어미에 의한 격 표시 대신에 어순과 전치사 등의 기능어에 의해서 표시가 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대 영어에서 *Se hund bāt pæt mægden* 'The dog bit the maiden'는 *pæt mægden bāt se hund* 'the maigen bit the dog nom.'로 바꿔 놓아도 문장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se hund*에는 주격이라는 격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중세 영어 14세기 이후에 이르게 되면 현대 영어와 같이 어순에 의해서 주격, 목적격이 결정되어 어순을 바꾸면 문장의 의미도 따라서 달라진다.⁶⁾

수평화가 현대 영어 학습과 관련된 것은 파생어 관계에 있어서 강세의 위치가 바뀌면 강세가 없는 모음은 수평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비강세 모음 ə(schwa)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 Lightfoot (1992)을 참조하시오.

3) Pyles and Algeo (1993:150)에 의하면 a, e, o, u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4) 후에 수평화는 더 발전되어 -e[a]가 아주 탈락하게 된다. 현대영어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자가 변화되지 않지만 비강세 모음은 ə(schwa)가 되는 경향이 있다.

5) 의미가 은유나 추상적일 때는 -ly를 첨가한다. He plunged deep into the ocean vs. he thought deeply about religious matters. "Drive slow" vs. "He proceeded slowly."

6) Mossé (1975:122)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SVO, SOV, VSO, VOS, OSV, OVS 등의 6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대로 14세기 이후에는 어순이 SVO로 고정된다.

activate-ion [æktəveɪʃən] active-ate [æktəveɪt] act-ive [æktəv]
 crime[kraɪm] criminal[krɪmɪnəl]

위의 파생어 관계에서 강세를 받으면 모음이 원래대로 발음 되지만, 강세가 없으면 모음이 ə(schwa)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수평화가 현대영어에서도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근세 영어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대모음전이(the Great Vowel Shift)인 것이다. 이는 장모음에서만 나타난 음운현상인데 먼저 고모음인 i, u가 각각 ai, au로 변한다. 결과로 고모음이 없어지자 음운 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에 의하여 음운의 빈 공간이 그 다음 모음인 é, ô가 각각 i, u로 변화되어 메우게 된다. 연이어 æ- ɔ:-는 각각 ē, ô가 되어 모든 장모음들이 대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초기 근세 영어시대에 William Caxton에 의하여 인쇄술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1476). 인쇄술의 도입 이전까지는 철자가 고정되지 않아 발음이 변함에 따라 철자도 따라서 고쳐 쓰는 방식이었는데 인쇄술의 도입은 철자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대모음전이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인쇄술이 도입된 이후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철자와 발음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feet*는 철자대로 ē로 발음되지 않고 i:로 발음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발음에 일치되는 철자로 여러 번에 개혁이 있어왔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7) 이러한 대모음 전이를 알게 되면 인도 유럽어와 비교할 때 영어의 발음이 철자에서 추측하기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가 이해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ride*의 i는 대부분의 언어에서와는 달리 영어는 ai로 발음되고 *food*는 ou-가 아니라 u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8)

지금까지는 주요한 음운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통사변화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통사적 변화로는 고대, 중세 영어는 주어가 비교적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는 공주어 언어인데 반하여 근세 영어 이후에는 특별한 일기체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공주어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주어 언어나 비공주어 언어이냐는 전문적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와 같이 주어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는 언어는 공주어 언어이고, 영어 불어같이 그렇지 않은 언어는 비공주어 언어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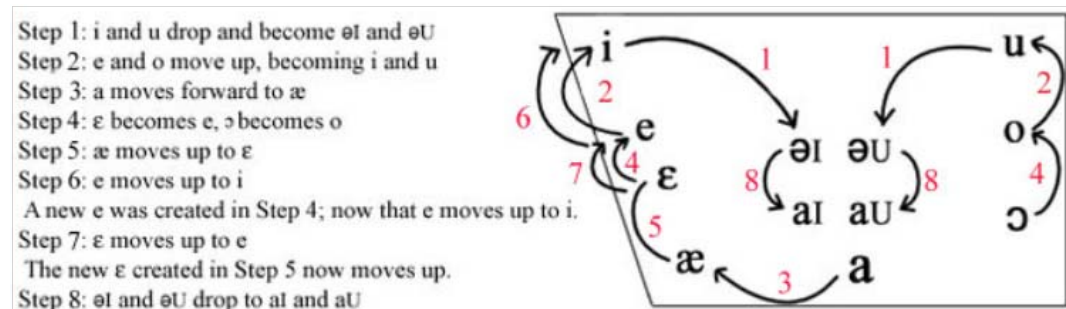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를 언어 변화가 매개변항 재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공주어인

7) 사실 철자와 발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어느 언어에서나 불가능하다. 이는 실제 발음은 음운 규칙이 적용된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글에서 ‘신라’는 ‘실라’로 발음된다.

8) 대모음전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ī as in ride → aī → aī
- ū as in house → aū → au
- ē as in feet → ī
- ō as in boot → ū
- ε- as in great → ē
- ɔ- as in boat → ō

Copyright © Melinda J. Menzer 2000



고대영어에서 중세 영어를 거쳐 비공주어인 현대 영어로 공주어 매개 변항이 재고정 되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로 고대영어에서는 다른 공주어 언어와 같이 주어 *there, it* 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사에 주어 가 없는 비인칭 구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통사적 변화의 또 다른 주요한 변화로는 어순의 변화일 것이다. 고대 영어에서는 종속절에서 동사가 절 마지막에 나타나지만, 주절에서는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난다.⁹⁾ 이것은 고대영어와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볼 때 SOV이었는데 매개변항 재고정으로 13세기 혹은 14세기 중세 영어시대에 SVO로 바뀌게 된 것이다.¹⁰⁾ 이러한 어순의 고정은 영어에도 변화를 미치게 되었는데 문두에 나오는 단어는 문법적인 격에 관계없이 주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Whom are you looking for?*가 자연스러운 문장이었다. *whom*이 전치사 *for*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는 전치사, 동사의 목적어 등에 관계없이 *whom* 대신에 *who*가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고정된 SVO 어순 때문이다. 이 어순 때문에 문두의 요소는 주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¹¹⁾

현대 영어에서 아직도 구별되어 쓰고 있는 *Get* 수동태와 *Be* 수동태의 구별도 영어사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beon/wesan* 과 *weorðan*의 수동태의 차이점에 관하여 Mitchell and Robinson (1992:§202, 203)은 전자는 동작의 결과에 의한 상태를 강조하고 후자는 동작 그 자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 (1) a. *he eall wæs beset mid heora scotungum*
‘he was completely covered with their missiles’
- b. *ne bið ðær nænig ealo gebrowen*
‘nor is any ale brewed there’ (showing the continuing state by the use of *bið*)
- c. *Ðær wearþ se cyning Bagsecg ofslægen*
‘there King B. was killed’ (lit. ‘became slain’)

이러한 차이점은 현대영어에서 *Be* 수동태와 *Get* 수동태의 차이점으로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에서 같이 *Be* 수동태와 *Get* 수동태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 (2) a. He got fired yesterday, because he's been late to work for the last 5 weeks.
- b. He was fired from his job, because he hasn't been able to produce enough sales.

(2b)에서 *He got was fired . . .* 는 약간 어색한데 *Get*은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Simon (2016) and Huddleston 과 Pullum (2002:1441-1443)에 따르면, *get* 수동태는 *be* 수동태 대신에 비공식적인 구어체로 쓰인다.

- (3) Their minibus got stolen in front of their house last night.

더 나아가서, *get* 수동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사용되고 따라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가 없다.

- (4) a. That house was blown over in the storm last night.
- b. That house got blown over in the storm last night.

9) 이러한 어순을 V-2(Second) 어순이라고 하는데 기저어순에서 V-2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현대 영어에서는 세 번째 위치에 나타난다. 문장 부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Yesterday he came to Chunchon.*이 있다.

10) Shin (1992; 2017), Mossé (1973)를 참조하십시오

11) *To whom did you speak?, the person to whom you spoke*와 같이 전치사가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5) a. Nothing is known about the robber.
b. *Nothing gets known about the robber.
- (6) a. It was believed that the document was a forgery.
b. *It got believed that the document was a forgery.

따라서, 우리는 현대 영어의 *get* 수동태와 *be* 수동태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E Get and Be Passives

Get Passive: [+informal, +dynamic, +unintentional]
Be Passive: [=informal, ±dynamic, ±intentional]

또 다른 영어사의 영어 교육에 대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영어사의 연구에 의하면 시대에 따라 BE 와 HAVE 완료형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7) a. ...my time has not yet come. John 2:4 PE(1979)
b. ...myne houre is not yett come. Tyndale(1526)
c. ...myn our cam not zit. Wycliffe(1389)
d. ...gyt min tima no com. AS(995)
yet my time not came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현대 영어에 Be 완료형의 잔재(relics)를 볼 수 있고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Elsness (1997:243)는 Be 완료형의 잔재로서 *be gone* 의 예를 다음 문장과 같이 들고 있다¹²⁾:

- (8) a. The money is gone. He is gone to his eternal home.
b. He has gone to New York.
c. He has been to New York
d. He went to New York.

위와 같은 변화에 의하여 현대 영어의 *He is gone*, *Spring is come* 같은 문장들을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영어의 구어체나 문어체에서, 특히 미국영어의 구어체에서, 현재완료와 과거형이 자유 변이 형태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 (9) Do not say, "I'll do to him as he has done to me; I'll pay that man back for what he did." Proverbs 24:29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여기에서 현재완료형 *he has done to me*과 과거형 *what he did* 이 자유롭게 교체되어 사용 된다. 그리고 *I'll pay that man back for what he did* 대신에 *I'll pay that man back for what he has done*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이것은 고대영어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보인다:

- (10) Leofa dohtor, þu gesingodest; mid þy þe þu woldest witan his beloved daughter you sinned when you would know his naman and his gelimp, þu hafast nu geedniwod his ealde sar name and his fortune you have now renewed his old sorrow
(Apollonius of Tyre XVI 255-256)

12) Ryden-Brorstrom (1987:211)은 다음과 같이 현대 영어의 예를 들고 있다. "He has/is changed.", "He has/is recovered.", "He has/is turned fifty.", "The sun has/is set.", "The bird has/is changed." (fig.). 다음과 같은 예도 포함 시킬수 있을 것이다. "I have/am finished (with the book)."

'Beloved daughter, you have done wrong; when you wanted to know his name and his fortune, you have now renewed his old sorrow'

여기에서 과거형 *þu gesingodest* (you sinned)과 현재완료형 *þu hafast nu geedniwod his ealde sar*이 자유롭게 변이되어 사용되는데, 과거형 *þu gesingodest* (you sinned)이 현대영어 완료형 *you have sinned* (*done wrong*)로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대영어의 과거형과 완료형이 자유 변이로 사용된 것처럼 현대영어에서 특히 미국 구어체 영어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¹³⁾

3. 결론

지금까지 영어사연구의 의의와 주요한 영어사에서 음운 통사 변화와 그에 따른 현대 영어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극히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영어사 연구가 현대영어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어사 연구를 영어교육에 접합시키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대 영어의 현상들을 단순히 기술하여 암기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면서 영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촘스키가 언어이론은 언어현상을 단순히 기술(*descriptive*)하는 기술적 충족성 뿐만이 아니라 설명적 충족성(*explanatory adequacy*)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어사를 영어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Algeo (2010), Algeo and Pyles (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영어의 많은 불규칙 현상들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비슷한 경우로서 현대영어의 구어체에서 *He bought him (himself) a nice brand new car*와 같이 *himself* 대신에 *him*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대영어에서 초기 근세영어에까지 재귀대명사(*himself, ourselves, and so on*)대신에 인칭대명사(*he, us, and so on*)가 쓰인 것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숙. 2002. 영어사 연구의 실용성. *영어사* 13. 117-138
- 김준호. 1999. 영어사교육 개선방안. *영어사* 7. 83-114.
- 김준호, 김명숙, 문안나, 황인태. 2003. 웹기반 영어사. 서울: 형설출판.
- 김충배. 2002. 영어발달사와 영어교육. *영어사* 14. 1-20.
- 문안나. 2005. 사범대학에서 영어사 교육의 위치와 효율적인 교수방안.
- Algeo, John. 201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Sixth Edition. Seoul: Wadsworth.
- Algeo, J. & T. Pyles. 200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 Boston: Thomson Wadsworth.
- Lightfoot, D. 1991. *How to Set Parameters : Arguments from Language Change*. Cambridge : The MIT Press.
- Mossé, F. 1975. *A Handbook of Middle English*. Baltimore and Lond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in, S. 2017.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Diachronic Study of English Word Order. *인문과학연구* 53. 133-166.
- Shin, S. 2017. A Diachronic Study of the English Get Passive. *영어영문학연구* 59. 2
- Shin, S. 2017. A Diachronic Study of the English Perfect Passive. *영어학연구* 23. 1-17
- Shin, S. 2016. On the Origin of the English Passive Progressive. *영어영문학연구* 58.3. 315-333.
- Shin, S. 2016. A Diachronic Study of the Origin of the English Progressive Revisited. *영어학연구* 59. 2. 239-259.
- Shin, S. 2016. A Constant Flux of Language Change with regard to English Present Perfect vs Preterit. *영어영문학연구* 57. 4. 259-282
- Shin, S. 2015. A Diachronic Study of English Progressive -ing: focusing on its function. *영어영문학연구* 59. 1 391-410
- Shin, S. 2014. A Diachronic Study of Be Gone. *영어영문학연구* 56. 3. 227-262
- Shin, S. 2013. On the Demise of English Be Perfect Based on Diachronic Bible Versions. *영어영문학연구* 55. 4. 331-356
- Shin, S. 2012.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English Have Perfect Based on Diachronic Bible Versions. *영어영문학연구* 54. 3. 251-268
- Shin, S. 1992. *Parameter-Resetting in the Diachronic Syntax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

Reflections on the Acoustic Feature [grave]

Lee, Ki-Suk(Jeju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Two major phonological features are Jakobson and Halle's (1956) distinctive features and Chomsky and Halle's (1968) universal set of phonetic features. While the former is chiefly based on acoustic terms, the latter is principally described in articulatory terms. Despite its own powerful functions for better phonological explanation, however, it follows that the former has been exceeded by the latter since the SPE. This paper is aimed to show that the acoustic feature [grave] can be responsible for many a phonological phenomenon that cannot otherwise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articulatory features. In so doing,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fact that [grave] is a universal feature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 it widely contributes to giving a convincingly plausible account of the phonological phenomena from a variety of different languages. Second, the feature is greatly committed to giving an answer to infants' arrangement of speech sounds, for which Gruber's and Jakobson's data will be used. In addition, it will also be suggested that the feature should be based on a multi-valued concept in the similar sense of Ladefoged's (1982) traditional features rather than a binary concept of [+grave] and [-grave].

II. On Grave

- (1) Jakobson, Fant, and Halle (1952)
 - a. [+grave] : low frequency energy concentration
 - b. [-grave] : high frequency energy concentration
- (2) Chomsky and Halle's (1968) articulatory counterpart
 - a. [+grave] : labials, velars
 - b. [-grave] : dentals, alveolars, palatals
- (3) Vowels
 - a. [+grave] : back vowels
 - b. [-grave] : front vowels
- (4) [+grave] in consonants
 - a. labials : [+anterior, -coronal]
 - b. velars : [-anterior, -coronal]
- (5) [-grave] in consonants
 - a. alveolars : [+anterior, +coronal]
 - b. dentals : [+anterior, +coronal]
 - c. palatals : [-anterior, -coronal]

III. Evidences for the feature [grave]

(1) Vago (1976) : Fronting of /w/ in Baule

a. Consonants

Labial	Alveoar	Palatal	Velar	Labio-Velar
p	t	c	k	kɸ
b	d	ɟ	g	gb
f	s			
m	n			
	l			
		y		w

b. Vowels

i	u
e	o
ɛ	ɔ

c. /w/ ---> [w̥] between an alveolar/palatal and a front vowel.

/w/ ---> [w] in other environments.

Alveolar C	Front V	Palatal C	Front V
t̥wi	'gun'	ayic̥w̥e	'tortoise'
s̥wi	'elephant'	muc̥w̥e	'eight'
l̥wi	'fat'	j̥w̥e	'fish'

Labial C	Front V	Velar C	Front V
bwi	'back'	kwe	'fetus'
bwe	'nose'	kwekw̥e	'comb'

f. Fronting of /w/ in terms of [grave]

$$\begin{bmatrix} -\text{cons} \\ -\text{syll} \\ +\text{round} \end{bmatrix} \Rightarrow [-\text{grave}] / \begin{bmatrix} -\text{syll} \\ -\text{grave} \end{bmatrix} \text{ ______ } \begin{bmatrix} +\text{syll} \\ -\text{grave} \end{bmatrix}$$

(2) Odden (1978) : s-Epenthesis in Sanskrit

After a word-final *n*, *s* is inserted before a word-initial voiceless dentals/palatals/retroflex stops, but not before a word-initial velars/labials.

- a. ra:jās ca 'And, Oh king!'
 ra:jāṣ ti:kam 'Oh king!, the commentary.'
 ra:jās tu 'But, Oh king!'
- b. ra:jan ji:va 'Oh king!, Oh life!'
 ra:jan pitar 'Oh king!, Oh father!'

ra:jan katham 'Oh king!, how?'

c. $\emptyset \rightarrow s / \left[\begin{array}{l} +nasal \\ +cor \end{array} \right] ___\# \left[\begin{array}{l} -voice \\ -cont \\ -grave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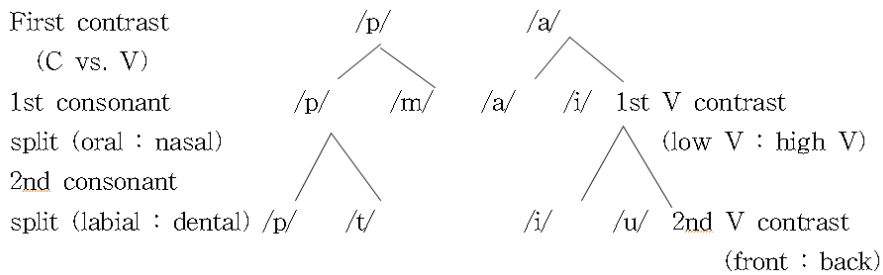
(3) Hyman (1975) : Feʔfeʔ-Bamileke

- a. [vɔp] 'to whip'
 - b. [fat] 'to eat'
 - c. [cɔk] 'to seek'
 - d. /a/ → [a] / ___ {p, k} ## (unmotivated)
 - e. Acute → Grave / ___ Grave ## (motivated)
- Low V Low V C

(4) Ladefoged (1982) : English (historical sound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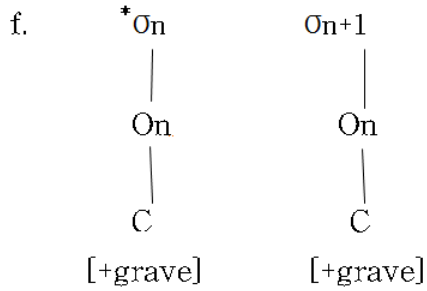
- a. Old English → Modern English
- b. velar fricative [x] → labiodental fricative [f]
- c. rough [rɰx] → [rɰf]
- tough [tɰx] → [tɰf] (both [x] and [f] are [+grave])
- d. night-group: night, high, bright, sigh etc.
- f. taught-group: taught, sought, bought, fought etc.

(5) Jakobson (1968) : Children's development of fundamental phonemic system



(6) Gruber's (1966) Law

- a. [-grave] [+grave] : ye, dew, tæ gə w^və
- b. [-grave] [-grave] : yə, do, deh
- c. [+grave] [+grave] : mə, mə, wə
- d. * [+grave] [-grave] :



(7) Lee's (2017) Korean particles (1st & 2nd person topic/subject markers)

- | | |
|------------------------------|--------------------------------|
| a. na [na] - [nin] (I- TM) | a' co [cə] - [nin] (I-TM/hon) |
| b.*nay [næ] - [nin] (I -TM) | b'*ce [ce] - [nin] (I-TM/hon) |
| c.*na [na] - [ka] (I - SM) | c.*co [co] - [ka] (I-SM/hon) |
| d.nay [næ] - [ka] (I - SM) | d. ce [ce] - [ka] (I-SM/hon) |
| e.*[α grave] [α grave] (OCP) | |

(8) Difference in vowels between GA and RP ([æ] vs. [ɑ])

- a. ask, bath, path, past, task cast ([æ] vs. [ɑ])
- b. ham, thank, tank, camp([æ] vs. *[ɑ])
- c. dance ([æ] vs. [ɑ])
- d. calf, half ([æ] vs. [ɑ])
- e. have ([æ] vs. *[ɑ])

IV. Suggestion for the degree of graveness

- a.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in backness between [a] and [ɑ].
- b. The acoustic feature [grave] plays a crucial role in accounting for some phonological phenomena, synchronic or diachronic.
- c. A relative concept of graveness needs to be interpreted as a multi-valued feature rather than a binary feature.
- d. Graveness hierarchy (based on F2- F1)
 - ɔ > ɑ > o > a > u > ə > æ > i > e > I

Works Cited

- Clark, J. & Yallop, C. 1990.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and phonology*.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Cambridge.
- Gleason, H. A. 1961.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London: Holt, Rinehart and Winston.
- Gruber, J. 1966. Playing with Distinctive Features in the Babbling of Infants. Quarterly Progress Report of the MIT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81, 181-186.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akobson, R. 1939. Observations sur le classement phonologique des consonnes.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 (Ghent) 34-41. Reprinted in Jakobson 1962: 272-9 and in Makkai 1972:305-9.
- Jakobson, R. & Halle, M.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Mouton.
- Ladefoged, P. 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 (e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 Odden, D. 1978. Further evidence for the feature [grave]. *Linguistic Inquiry* 9(1), 141-144.
- Reetz, H. & Hongman, A. 2009. *Phonetics: Transcription, production, acoustics, and perception*. Wiley-Blackwell.
- Trask, R. L. 1996. *A Dictionary of Phonetics and Phonolog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Vago, R. M. 1976. More evidence for the feature [grave]. *Linguistic Inquiry* 7(4), 671-674.

Idiomatic Passivization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Lee, Doo-Won(한국교통대학교)

I. Introduction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six-fold. First, it will be shown that when the first nominal of a DP receives a genitive case marker instead of an accusative or a nominative case marker in an inalienable possessive structure, the given sentence may preserve its idiomatic interpretation (cf. Choi and Harley 2016). Second, we will show that the multiple nominative marking process which involves adjoining the raised nominative possessor to TP where the possessum is situated in the subject position may arise at LF (cf. Choi and Harley 2016). This, in turn, will essentially indicate that an inalienable possessive structure can preserve its idiomatic interpretation even after MNC passivization takes place and can license the subject-honorific marker *si* through the spec-head agreement in Korean honorification. Third, we will demonstrate that when passivization takes place, the genuine inalienable possession-type constructions allow their possessor to be realized as the nominative subject on its own, leaving the accusative-marked possessum in-situ which clearly depicts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kinship-type constructions. Fourth, it will be shown that such a construction is not compatible with (*a/e*) *ci* passivization, but with (null) morphological passivization, as the distinction can be made through agentivity. Fifth, as far as the passivization of the inalienable possessor-possessum structure is concerned, we will argue that the degree of passivity varies among passive morphemes, for (*a/e*) *ci* displays the strongest type of passivity while *i/hi/li/ki* and \emptyset PASS respectively come next in line in order. Finally, we will argue that the null passive morpheme \emptyset PASS should be considered as a quasi-passive morpheme since it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nominative possessum when passivization takes place.

II. Proposal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inalienable possession-type MCM constructions conveying idiomatic interpretations in both active and passive voices in Korean. Similar to the term *sinsang* ‘personal matters or details’,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nalienable object of a person such as the body parts *son* ‘hand’ and *pal* ‘foot’, *papcwul* ‘means of living’ in (1a) is regarded as an inalienable object of a human being.¹⁾ At this point, it is vital to realize that the possessor *Chelswu* may undergo multiple accusative or multiple nominative case marking process as in (1a, b).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when the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in (1a) is passivized to (1b) or (1c), the sentence holds onto its idiomatic interpretation. To illustrate, the example in (1c) shows that the accusative possessor *Chelswu-lul* ‘Chelswu-ACC’ in (1a) may be realized as a nominative subject leaving the accusative-marked possessum *papcwul* ‘means of living’ in-situ while preserving its idiomatic meaning.

1) For further detail on this issue, refer to section 3.

- (1) a. *sacang-i Chelswu-uy/-lul papcwul-ul kkunh-ess-ta.*²⁾ (idiomatic)
boss-NOM C-GEN/-ACC line of steamed rice-ACC cut-PST-DC
Idiomatic meaning: 'The boss fired Chelswu.'
- b. *Chelswu-uy/-ka papcwul-i sacang-ey uyhay kkunh-ki(-e ci)-ess-ta.* (idiomatic)
C-GEN/-NOM line of steamed rice-NOM boss-by cut-PASS-PST-DC
Idiomatic meaning: 'Chelswu got fired by the boss.'
- c. *Chelswu-ka sacang-ey uyhay papcwul-ul kkunh-ki(*-e ci)-ess-ta.*³⁾ (idiomatic)
C-NOM boss-by line of steamed rice-ACC cut-PASS-PST-DC
Idiomatic meaning: 'Chelswu got fired by the boss.'

Additionally, the idiomatic interpretation in (2a), which is in its active voice, is left unharmed when the sentence is put into its inherent passive verb construction producing a null passive morpheme as shown in (2c).⁴⁾ Here, we refer to such constructions as suppletive passive constructions as well.

- (2) a. *halmeni-kkeyse halapeci-uy/-lul twythongswu-lul ttayli-si-ess-ta.*
grandmother-HON grandfather-GEN/-ACC back of the head-ACC hit-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mother hit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Idiomatic meaning: 'Grandmother betrayed Grandfather.'
- b. **halapeci-uy/-kkeyse twythongswu-ka halmeni-ey uyhay mac-∅PASS-usi-ess-ta.*⁵⁾ (idiomatic)
grandfather-GEN/-HON back of the head-NOM grandmother-by be.hit-∅-HON-PST-DC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was betrayed by Grandmother.'
- c. *halapeci-kkeyse halmeni-ey uyhay twythongswu-lul mac-∅PASS/*-ki/*-e ci)-usi-ess-ta.*
grandfather-HON grandmother-by back of the head-ACC be.hit-PASS-HON-PST-DC
Literal meaning: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was hit by Grandmother.'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was betrayed by Grandmother.'
(∅PASS = null passive morpheme)

Meanwhile, the idiomatic meaning in (3b) is not preserved but rather triggered by the passive markers such as *i/hi/li/ki* or *(a/e) ci*, which draws a dissimilar pattern from (2c).⁶⁾ What is crucial here is that idiomatic interpretations may be preserved or triggered by the passive markers such as ∅PASS, *i/hi/li/ki*, or *(a/e) ci* on Chomsky's (2001) phase head *v*, which creates an idiomatic domain, as shown in (1b, c), (2c), and (3b).⁷⁾

- (3) a. *halmeni-kkeyse halapeci-uy/*-lul philim-ul kkunh-usi-ess-ta.* (literal)
grandmother-HON grandfather-GEN/*-ACC film-ACC cut-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mother cut grandfather's (camera) film.'
- b. *kwaum-ulo halapeci-uy/-kkeyse philim-i kkunh-ki/-e ci-si-ess-ta.* (idiomatic)
excessive drinking-with grandfather-GEN/-HON film-NOM cut-PASS-HON-PST-DC

2) The term *papcwul* whose literal meaning is 'line of steamed rice' does not exist in actuality.

3) The passive verbal ending *(a/e) ci* cannot appear in the (1c), as will be discussed.

4) There exist some verbs with inherent passive verbs such as *mac* 'get struck', *ip* 'suffer, undergo', *tangha* 'suffer, be afflicted with', and *pat* 'receive' whose subject has the semantic role of patient, not that of agent (Chang 1996). These inherent passive verbs may be referred to as lexical passive verbs (Kim 2016). An inherent passive verb has a null passive morpheme (i.e., ∅PASS) and *mek* 'eat' may also appear as an inherent passive verb (Lee and Lee 2017b).

5) The literal meaning of (2b) is marginal at best.

6) For the sake of convenience, the null passive morpheme ∅PASS, the overt passive morpheme *i/hi/li/ki*, and the passive verbal ending *(a/e) ci* are referred to as passive markers here.

7) It has also been well known in literature (Marantz 2008, Stone 2008, 2013; K. Kim 2015; Lee & Lee 2017a, among others) that the phase head *v* forming an idiom creates an idiomatic domain.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did not remember what happened to him due to his excessive drinking.’

The passive counterpart of (3a) permits the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 (MNC), triggering an idiomatic interpretation with the presence of a passive marker such as *ki* or (*a/e*) *ci*, as shown in (3b).⁸⁾ Here, the component *philim* ‘film’ giving rise to an idiomatic interpretation refers to the meaning ‘remembrance’, which is considered to be inalienable, as will b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in section 3. In (3b), the possessor raising process of *halapeci-kkeyse* ‘grandfather-HON’ involves adjoining the raised nominative possessor to a higher spec-TP position while the lower spec-TP position is occupied by the possessum *philim-i* ‘film-NOM’. Furthermore, the higher copy of the honorific genitive possessor is present but unpronounced while the chain is realized by the lower copy within the possessum phrase (cf. Han and Kim 2004; Choi and Harley 2016). In this regard, the higher copy is licensed by the honorific feature [+hon] on T through the spec-head agreement à la Chomsky’s (1993) approach.

III. Traits of Passive Markers in Inalienable Possessive Structure

We need to note that the examples in (18a, b) can only convey idiomatic meanings, while the example in (17a) can only convey a literal one.

- (17) a. *halmeni-kkeyse halapeci-uy philim-ul kkunh-usi-ess-ta.* (literal)
 grandmother-HON grandfather-GEN film-ACC cut-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mother cut grandfather’s (camera) film.’
- b. **halmeni-kkeyse halapeci-lul philim-ul kkunh-usi-ess-ta.*
 grandmother-HON grandfather-ACC film-ACC cut-HON-PST-DC
 ‘Grandmother cut grandfather’s (camera) film.’
- (18) a. *kwaum-ulo halapeci-uy philim-i kkunh-ki/-e ci-si-ess-ta.* (idiomatic)
 excessive drinking-with grandfather-GEN film-NOM cut-PASS-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father’s (camera) film was cut due to his excessive drinking.’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did not remember what happened to him due to his excessive drinking.’
- b. *kwaum-ulo halapeci-kkeyse philim-i kkunh-ki/-e ci-si-ess-ta.* (idiomatic)
 excessive drinking-with grandfather-HON film-NOM cut-PASS-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father’s (camera) film was cut due to his excessive drinking.’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did not remember what happened to him due to his excessive drinking.’
- c. *halapeci-kkeyse philim-lul kkunh(?)?-ki/*-e ci-si-ess-ta.* ((?)?literal/*idiomatic)
 grandfather-HON film-ACC cut-PASS-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father’s film was cut by Grandmother.’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did not remember what happened to him’

Unlike in (19a), the nominal with the genitive case (i.e., *halapeci-uy* ‘grandfather-GEN’) in (17a) cannot undergo case alternation with the accusative case since *philim* ‘film’ is not an inalienable possessum, as shown in (17b). This, in turn, obscures the grammaticality of the literal meaning for the morphological passive in (18c). Going a step further, we realize that (*a/e*) *ci* passivization does not allow the accusative possessum to be in-situ, as shown in (18c) and (19c). Meanwhile, the nominal *papcwul* ‘means of living’

8) Note that *kkeyse* is an honorific nominative marker.

which participates in the idiomatic interpretation in (19) is regarded as an inalienable possessum, since it is directly involved in personal matters such as a means of living, as previously mentioned in section 2. Thus, the possessor may undergo possessor raising or undergo movement to the subject position when passivized, preserving the appropriate idiomatic meaning, as shown in (19b, c).

- (19) a. *sacang-i Chelswu-uy/-lul papcwul-ul kkunh-ess-ta.* (idiomatic)
 boss-NOM C-GEN/-ACC line of steamed rice-ACC cut-PST-DC
 Idiomatic meaning: 'The boss fired Chelswu.'
- b. *Chelswu-uy/-ka papcwul-i sacang-ey uyhay kkunh-ki(-e ci)-ess-ta.* (idiomatic)
 C-GEN/-NOM line of steamed rice-NOM boss-by cut-PASS-PST-DC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fired by the boss.'
- c. *Chelswu-ka sacang-ey uyhay papcwul-ul kkunh-ki(*-e ci)-ess-ta.* (idiomatic)
 C-NOM boss-by line of steamed rice-ACC cut-PASS-PST-DC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fired by his boss.'

Further note that the genitive nominal (i.e., *halapeci-uy* 'grandfather-GEN') in (18a) can not undergo possessor raising since its possessum (i.e., *philim-i* 'film-NOM') is not regarded as an inalienable object within the literal context. This, in turn, does not allow the honorific marker *si* to be realized for spec-head agreement of honorification (see Choi and Harley 2016 for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sue). On the other hand, note that the idiomatic component *philim* 'remembrance' in (18a, b), which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literal sense of a film, is realized as an inalienable possessum within its idiomatic context. Here, it is crucial to realize that while the idiomatic meaning in (19b) is preserved by the passive markers such as *i/hi/li/ki* or *(a/e) ci*, the idiomatic meanings in (18a, b) are triggered by the same passive markers when the inalienable possessor-possessum structure undergoes passivization. Note that the accusative possessum cannot be involved in idiomatic triggering but in idiomatic preserving, as the contrast between (18c) and (19c) shows.

For the present purpose, let's consider the passive suppletive construction in (25c). The idiomatic meaning of the example in (24) realized in an active voice is sustainable even in its inherent passive verb construction which allows a null passive morpheme to appear as in (25c).

- (24) a. *halmeni-kkeyse halapeci-uy twythongswu-lul ttayli-si-ess-ta.*
 grandmother-HON grandfather-GEN back of the head-ACC hit-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mother hit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Idiomatic meaning: 'Grandmother betrayed Grandfather.'
- b. *halmeni-kkeyse halapeci-lul twythongswu-lul ttayli-si-ess-ta.*
 grandmother-HON grandfather-ACC back of the head-ACC hit-HON-PST-DC
 Literal meaning: 'Grandmother hit back of Grandfather's head.'
 Idiomatic meaning: 'Grandmother betrayed Grandfather.'
- (25) a. **halapeci-uy twythongswu-ka halmeni-ey uyhay mac-∅PASS-usi-ess-ta.*
 grandfather-GEN back of the head-NOM grandmother-by be.hit-∅-HON-PST-DC
 *Literal meaning: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was hit by Grandmother.'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was betrayed by Grandmother.'
- b. **halapeci-kkeyse twythongswu-ka halmeni-ey uyhay mac-∅PASS-usi-ess-ta.*
 grandfather-HON back of the head-NOM grandmother-by be.hit-∅-HON-PST-DC
 *Literal meaning: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was hit by Grandmother.'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was betrayed by Grandmother.'
- c. *halapeci-kkeyse halmeni-ey uyhay twythongswu-lul mac-∅PASS-usi-ess-ta.* (idiomatic)
 grandfather-HON grandmother-by back of the head-ACC be.hit-∅-HON-PST-DC

Literal meaning: ‘The back of Grandfather’s head was hit by Grandmother.’
 Idiomatic meaning: ‘Grandfather was betrayed by Grandmother.’
 (∅PASS = null passive morpheme)

The example in (25c) shows that the possessor *halapeci* ‘grandfather’ in (24b) can be realized as the nominative subject, leaving the accusative-marked possessum in-situ.

The use of the null passive morpheme ∅PASS and *(a/e) ci* shows complementary distribution and the overt passive morpheme *i/hi/li/ki* shares common traits inbetween, as shown in <Table 1>.

<Table 1> Traits of Passive Markers in Inalienable Possessive Structures

voice	criteria for voice judgment	∅PASS	<i>i/hi/li/ki</i>	<i>(a/e) ci</i>
passivity	<i>by-agent phrase</i>	+	+	+
		<i>(halmeni-ey uyhay in (25c))</i>	<i>(sacang-ey uyhay in (19b))</i>	<i>(sacang-ey uyhay in (19b))</i>
passivity	MNC	-	+	+
		<i>(halapeci-uy/-kkeyse & twythongswu-ka in (25a, b))</i>	<i>(Chelswu-uy/-ka & papcwul-i in (19b))</i>	<i>(Chelswu-uy/-ka & papcwul-i in (19b))</i>
agentivity	nominative possessor & accusative possessum	+	+	-
		<i>(halapeci-kkeyse & twythongswu-lul in (25c))</i>	<i>(Chelswu-ka & papcwul-ul in (19c))</i>	<i>(Chelswu-ka & papcwul-ul in (19c))</i>

In <Table 1>, +/- features represent the compatibility/incompatibility of syntactic structures, such as the *by-agent phrase* structures, MNC structures, and nominative possessor and accusative possessum structures. Furthermore, agentivity is one of the traits or characteristics of active voice. MNC stands for the genitive or nominative possessor and nominative possessum sequence.

In the passive voice, the null passive morpheme is compatible with the nominative possessor which carries agentivity, whereas it is not compatible with the nominative possessum which does not carry agentivity.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observation that the inherent passive verb realized with a null passive morpheme may only be compatible with the agentive subject, as the contrast in (25) shows. To sum up the analysis given in <Table 1>,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three passive markers mentioned above are all considered to be passive markers varying in terms of the *degree* of passivity. Here, we argue that *(a/e) ci* is the strongest type of passive marker whereas *i/hi/li/ki* is the next strongest, and ∅PASS the weakest. Hence, there exist evidence on why the null passive morpheme ∅PASS in particular should be taken as a quasi-passive morpheme.

IV. Conclusion

The genitive case marker can undergo case alternation with the accusative case marker which is assigned

to the first nominative nominal, preserving an idiomatic interpretation, as far as the inalienable possessor-possessum relation is concerned. Furthermore, it has been observed that in the genuine inalienable possession-type constructions, the possessor alone can be realized as the nominative subject, leaving the accusative-marked possessum in-situ, which is not valid in the *(a/e) ci* passivization, but in the (null) morphological passivization of Korean. In this respect, a (null) passive morpheme is compatible with the accusative possessum, which holds onto agentivity as shown in <Table 1> of section 3. Additionally, we have shown that the multiple nominative marking process that involves adjoining the raised nominative possessor to the Spec of TP whose subject position is occupied by the possessum may arise at LF. Thus, a given sentence structure may receive an idiomatic interpretation or allow licensing of the subject-honorific marker *si* via the spec-head agreement, even if the genitive marker, instead of the nominative marker, is assigned to the first nominal. Further, we have pointed out that while direct objects can be passivized when the overt passive morpheme or the *(a/e) ci* structures appears, only the accusative possessor or the causee may be passivized in the null passive morpheme structures. Considering that the former type of passivization carries genuine traits of passive voice, we have argued that the null passive morpheme should be considered as a quasi passive morpheme.

Works Cited

- Ahn, Hee-Don and Sungeun Cho. 2013. Notes on Apparent X⁰ Replacement of Pro.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8.2: 397-412.
- An, Duk-Ho. 2015. Genitive Case in Korean and its implications for noun phrase structur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3: 361-392.
- Chang, Suk-Jin. 1996. *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4: Korean*. The Netherlands: Amsterdam.
- Choi, Jaehoon and Heidi Harley. 2016. Locality domains and morphological rules: Phases, heads, node-sprouting and suppletion in Korean honorification. Ms.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The view from building 20*, edited by Kenneth Hale and Samuel Keyser, 1-52.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ited by Michael Kenstowicz,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 Sungeun. 2000. Three Forms of Case Agreement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Diesing, Molly. 1992. *Indefinit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n, Chunghye and Jong-Bok Kim. 2004. Are there "double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istic Inquiry* 35: 315-337.
- Heidi Harley. 2017. The Morphology and Syntax of Complex Heads: Head-movement, M-merger, Prosodic Words and Agree. Lecture Packet of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Congerence Genverative Grammar.
- Jelinek Eloise. and Andrew Carnie. 2003. Arguments Hierarchies and the Mapping Principle. In Carnie, A. (ed.), *Formal Approaches to Function in Grammar in Honor of Eloise Jelinek*.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265-296.

- Jung, Yeun-Jin and Shigeru Miyagawa. 2004. Decomposing Ditransitive Verbs. Proceedings of SICGG, Summer 2004, 101-20. [<http://web.mit.edu/miyagawa/www/manuscripts.html>].
- Kang, Myung-Yoon. 1987. Possessor raising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80-88.
- Kim, Hyeong-Bae. 2005. "Study on Fixity of Idioms with Causative and Passive Expressions (in Korean)." *Korean Culture Studies* 16:1-28.
- Kim, Jong-Bok. 2016. *The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ong-Bok, Peter Sells, and Jaehyung Yang. 2007. Parsing Two Types of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al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1.1: 25-37.
- Kim, Kyumin. 2015. Phase-Based Account of Idioms and Its Consequences. *Linguistic Research* 32.3: 631-670.
- Kim, Min-Jung, and Soo-Hwan Lee. 2017. Passive Suppletion of mac- 'to be hit' in Korean. In *Proceedings of the 43rd Annual Meeting of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3: 23.
- Lee, Doo-Won. 2015. Causative *Cwu*-Constructions Revisited. *Studies in Linguistics* 35:227-46.
- Lee, Doo-Won. 2017a. Idiomatic Complement and Null pro Subject.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4.1:261-76.
- Lee, Doo-Won. 2017b. Morphological Passivization of Object-Verb Idioms.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2.2:273-94.
- Lee, Soo-Hwan and Doo-Won Lee. 2017a. Passivization of Accusative Object-Verb Idioms and Null Passive Morphem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81:235-56.
- Lee, Soo-Hwan and Doo-Won Lee. 2017b. Inherent Passive Verb *mek* 'to eat' Incompatible with Suppletion in the *kkeyse*-marked Subject Context. Manuscript.
- Marantz, Alec. 2008. Phases and Words.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 Park, Sang-Doh, and John Whitman. 2003. Direct Movement Passives in Korean and Japanese.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13: 307-21.
- Park, So-Young. 2012. Voice Alternations and the Principle of Idiomatic Interpretation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69: 1-20.
- Song, Hong-Ki. 2005. Causatives and Resultatives in Korean.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tone, Meagan. 2008. Passivizable and Nonpassivizable Idioms: A Minimalist Approach. Manuscript, University of Arizona.
- Stone, Meagan. 2013. Can Idioms Be Passivized?: Evidence from Online Processing? In *Coyote Papers: Proceedings of the Arizona Linguistics Circle* 6: 1-22.
- Ura, Hiroyuki. 1996. Multiple Theory of Checking: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Splitting. Doctoral dissertation. MIT.
- Yoon, James Hye-Suk. 1989.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in Korean, Madarin and French.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357-68.
- Yoon, Jong-Yurl. 1989. On the Multiple 'ka' and 'lul'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383-394.
- Yun, Gwanhi. 2004. Constraints on possessor raising and its structure in Korea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6: 406-421.

A Contrastive Study on the Polysemy Structure of the Preposition *over* and the Prefix *over*

Jeongsun Lee(Kangwon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Meanings of individual lexemes in English are often highly diverse (Aronoff & Fudeman, 2011: 139-140), and the polysemous phenomenon is extremely wide spread in most natural languages. Thus, polysemy categories have recently received a lot of research attention and have been studied by a number of cognitive linguists.

One of the major claims made by cognitive linguists is that there exist categories that should be defined, based on best examples such as prototypes. Prototype theory assumes that the members in category are connected together by a complex series of overlapping similarities described as ‘family resemblance’ (Lakoff, 1987; Langacker, 1987; Rosch, 1973; Taylor, 1995). Within this prototype framework, according to Croft and Cruse (2004), categories and structures in semantics, syntax, morphology and phonology are built up from our cognition of specific language use. In a similar context, meaning is conceptualized within cognitive domain, and grammar is regarded as a conceptual structuring system which is reducible to symbolic relationships within cognitive system (Langacker, 1987, 1991, 2002).

Thus, within a cognitive framework, any entity will be assimilated to a category if a person finds any ‘plausible rationale’ for relating it to prototypical members (Langacker, 1987) as one domain of experience is conceptualized in terms of another cognitive domain on the basis of meaning chain between central prototypes and peripheral members of a category (cf. Taylor, 1995). As the prototype theory “allows retaining flexibility, context- sensibility and extendability of the system whenever context demands such flexibility (Givon, 1984: 23),” the prototype solution is applicable to understanding the polysemous category of *over*. In other words as the semantic distinction among polysemous categories can be made by the degree of prototypicality, the polysemous categories of *over* can be arranged by the degree of semantic featur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lysemous tendencies in a prefix *over* in relation to those in a preposition *over*. Drawing up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section 2 reviews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preposition *over*, and finds out the most suitable research model for this contrastive study. Section 3 examines the polysemous structures of the prefix *over*,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of the preposition *over* in light of prototypicality. Section 4 analyzes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phrasal verbs with the preposition *over* and their counterpart compounds with the prefix *over*. Section 5 concludes the different tendencies found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preposition *over* and the prefix *over*.

II. Background studies on polysemous preposition *over*

A preposition is considered to be a function word that combines with a noun or pronoun to show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with other words in a sentence rather than a lexical property as function words

have little lexical meaning (Aronoff and Fudeman, 2011: 41-42). According to Taylor (1995: 109), however, among the most polysemous words in English are the prepositions. With their multiple meanings, their usage is often so idiomatic that it has to be memorized. Seemingly, each meaning of prepositional polysemy tends to be arbitrarily assigned, and lacks any obvious rules. However, prepositional usage seems to show a highly structured system in terms of cognitive paradigm. Semantic structure of preposition has been analyzed on the basis of image schema by cognitive linguists. For example, Langacker (1987: 231 ff) argues that prepositions in their spatial sense serve to locate one entity called trajector (TR) with reference to another called Land Mark (LM). Prepositions may be interpreted in terms of many different aspects of the TR-LM relationship. Preposition *over* has been studied by Lakoff (1987), Brugman (1988), Kretzner (1997), Tyler & Evans (2001), and Yoo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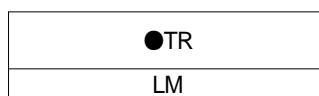


Figure 1. The image schema of prototype *over*

Tyler & Evans (2001) argue that previous accounts of *over* analyses by Brugman (1988), Lakoff (1987) are too fine-grained distinctive senses of *over*. They also criticized Kretzner (1997) for arbitrary definition of prototype of *over* without any criterion. Tyler & Evans (2001) have applied reconceptualization and pragmatic strengthening to simplify the previous categories of *over*, and devised 14 distinctive senses of *over*. Yoon (2004)'s later approach is simpler and proposes only 7 separate senses. Her prototype of *over* incorporates the 'control' sense and the 'preference' sense into the static, spatial 'above' sense. So her prototype combines three distinct notions into one, from which 6 more distinct semantic nodes are produced.

In contrast, the prototype of *over* by Tyler and Evans (2001) involves only one spatial notion, which follows the Taylor's claim that a mental representation of a prototype constitutes only one component of a person's knowledge of a category (Taylor 1995: 63). Moreover, this spatial sense of *over* is often listed first in dictionary entries, suggesting the prototypicality drawn by the general people since language users tend to mention prototypical members first (Taylor 1995, 52, 117). All of these prototypes denote a static TR in the higher position without any contact with the LM.

Another aspect of choosing the base model for this research is related to the finesse of the category design. In order to analyze varying degrees of semantic derivations of both preposition *over* and prefix *over-*, a model design which is not too fine-grained nor too broadly general seems to be appropriate as this research aims to distinguish prefixal usage of *over* from that of preposition *over*. Tyler and Evans's model of *over* with moderate 13 subsets seems to meet this requirement. In this respect, the model developed by Tyler and Evans is a more applicable starting ground in order to analyze the semantic tendency of prefix *over-* in compounds. The following Table 1 summarizes the Tyler and Evans's (2001) criteria of *over*.

Table 1. Tyler and Evans (2001)'s criteria of preposition 'over'

	Polysemy of preposition <i>over</i>	Example Sentences
1	protoscene; static higher position	The picture is over the mantel.
2	on-the-other-side-of	Arlington is over the river from Georgetown
3	above-and-beyond, excess	The arrow flew over the target.
4	completion	The cat's jump is over.

	Polysemy of preposition <i>over</i>	Example Sentences
5	transfer	She returned the key over to the janitor.
6	covering	He put the table cloth over the table.
7	examining	She looked over the manuscript.
8	focus-of-attention	He cried over his broken toy.
9	more	Jerome found over forty kinds of shells on the beach.
10	over-and-above , excess	The river flew over its banks.
11	control	She has a strange power over me.
12	preference	I prefer tea over coffee.
13	reflexive	The fence fell over.
14	repetition	This keeps happening over and over.

Their polysemy network of *over* with 14 distinct senses is centered on the protoscene representing an idealized abstraction from recurring experience of spatial scenes and a set of determinative criteria for other distinct senses resulting from pragmatic strengthening and conceptual integration. This model is chosen to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semantic tendency of prefix *over* in the following section.

III. The polysemy category of Prefix *over* in compounds

As pointed out by McCarthy, O’Keeffe and Walsh (2010: 52), words are constantly changing as the world is always changing, and thus old words and old meanings often disappear while new words are formed. However, very few completely new words are formed out of nowhere, since most of new items consist of existing words which acquire new meanings. Compounding is a process of word formation that involves combining two separate lexical forms into a single compound form or one lexical item (McCarthy, O’Keeffe, & Walsh. 2010: 2-4), which reflects a conceptual structuring system as well (Langacker, 1991: 3). A prefixal usage of *over* occurs in various senses in compounds. The prefix *over* attaches to nouns, verbs, and adjectives to make new words just as a preposition *over* has multiple meanings in phrases.

In order to analyze the semantic tendency of prefix *over-*,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published in 1997 was consulted for the collection of data. There are 69 endocentric and exocentric compounds with prefix *over-* from *overall* to *overwrought*. The following shows the polysemic categories of prefix *over-* based on the Tyler and Evans's model. The frequency of each semantic category from the highest occurrence to the lowest in the prefix *over* can be listed as in Table 2.

Table 2. The polysemous categories of prefix *over* in compounds

	Semantic categories of prefix <i>over</i> in compounds	frequency
1) 'excess' & 'more'	<i>overawed(a), overdraw(v), overburdened(a), overcharge(v), overcompensate(v), overcrowded (a), overdo(v), overdone(a), overdose(n), overeat(v), overestimate(v), overextend(v), overflow(v), overflow(n), overgrown(a), overload(v), overly(adv), overjoyed(a), overkill(v), overwrought(a), overworked(a), overpopulated(a), overpriced(a), overrated(a), overreact(v), oversimplify(v), oversleep(v), overstate(v), overweight(a), overtake(v), overshadow(v), overwhelm(v), overwhelming(a).</i>	33
2) 'control'	<i>overcome(v), overbearing(a), overpower(v), overpowering(a), override(v), overriding(a), overrule(v), oversee(v), overthrow(v), overturn(v)</i>	10
3) 'above & beyond'	<i>overhear(v), overtime(n), overrun(v), overshoot(v), overdue(a), oversight(n), overlook(v), overtake(v) overboard(adv), overstep(v)</i>	10

Semantic categories of prefix <i>over</i> in compounds		frequency
4) 'covering'	<i>overcast(a)</i> , <i>overall(a,adv)</i> , <i>overalls(n)</i> , <i>overcoat(n)</i> , <i>overview(n)</i> , <i>overrun(v)</i> , <i>overnight (a,adv)</i>	7
5) 'spatial above'	<i>overhead(a,n, adv)</i> , <i>overhang(v,n)</i> , <i>overpass(n)</i> , <i>overhand(v,a)</i>	4
6) 'on the other side of'	<i>overseas(a,n, adv)</i> , <i>over the counter(a)</i> , <i>overland(a,adv)</i>	3
7) 'examining'	<i>overhaul(v)</i>	1
8) 'repetition'	<i>overlap(v)</i>	1
9)1) 'completion', 'transfer', 'focus of attention', 'preference' & 'reflexive'		0
Total		69

The semantic criteria of prefix *over-* shows only 8 semantic nodes unlike the 14 semantic nodes of preposition *over*. In fact, prefix *over-* excludes six semantic categories which belong to preposition *over*. They are completion, transfer, focus of attention, more, preference, and reflexive sense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claim that prefix *over-* has fewer semantic derivations than preposition *over*. The following Figure 2 shows the frequency of each semantic category from the highest occurrence to the lowest in prefix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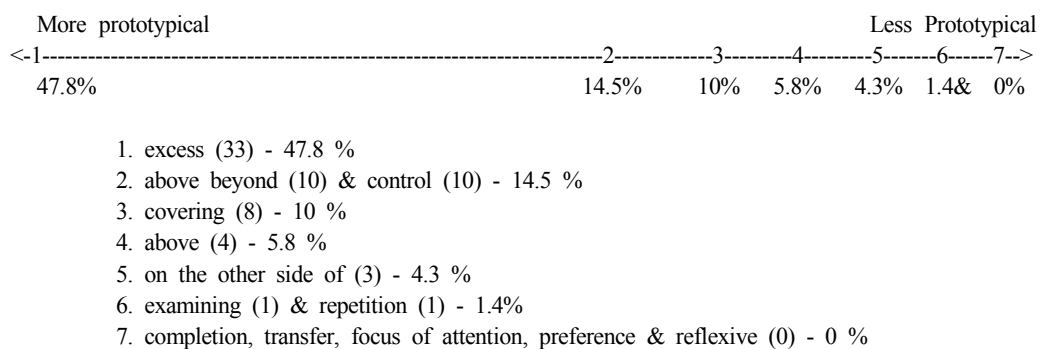


Figure 2. The semantic categories of prefix *over-* by degree of semantic shift

The occurrence of each semantic category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is as follows; the first is the ‘excess’ category with 33 compounds, the second places are the ‘control’ category with 10 compounds, and the ‘above and beyond’ category with 10 compounds, the third is the ‘covering’ with 8 compounds, the fourth is the ‘protoscene-above’ with 4 compounds, the fifth is the ‘on the other side of’ with 3 compounds, the six places are the ‘examining’ and ‘repetition’ with 1 word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ly used category in prefix *over-* is the sense of ‘excess’ while the least is the ‘examining’ and the ‘repetition’.

Frequency of words affects prototypicality. It is well known that the more frequent or familiar a word is, the faster a speaker can recognize it (Aitchison 2003, c.f. Aronoff, Mark & Kristen Fudeman 2011: 251). Members of category achieve prototypical status because we encounter them more frequently (Taylor 2005, 52). Even the impression of a higher frequency of occurrence may well be a symptom of prototypicality (Rosch 1973a, Taylor 2005: 52). In such a way, frequency as well as familiarity plays a crucial role in prototypicality. If we consider this frequency factor where prototypicality is concerned, the sense of ‘excess’ with 47.8 % of frequency rate is the most prototypical sense in prefix *over-*, while the most prototypical type

1) The sense of ‘more’ is not included in 9) but included in 1) as it is closely linked to the sense of ‘excess’.

in preposition *over* is the sense of spatial 'above'. The continuum of the semantic shift between the most prototypical prefix *over-* and the most prototypical preposition *over* can be drawn as Figure 3.



Figure 3. The continuum of semantic tendency between the prepositional prototype *over* and the prefixal prototype *over*

The prepositional prototype of *over*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spatial above', which is related to a more static spatial domain that is more tangible and physical. In contrast, the prefixal prototype of *over* is centered on the meaning of 'excess', which is associated with a more dynamic domain, covering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n the physical and the abstract world through the process of metaphorical extension. In what follows, we discuss the semantic contrasts occurring in the same morphemes: those in two word phrases with the preposition *over* and those in one word compounds with the prefix *over*.

IV.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 verbs combined with preposition *over* and those combined with prefix *over*

When *over* is employed as a preposition, it is not just a function word or a constituent of a sentence as it is always followed by an object, but it complements verbs by providing them with a variety of subtle semantic features. When *over* is used as a prefix, it creates a variety of lexical categories such as nouns,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In this section, we examine how the same free morphemes generat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ir formation types. For example, *over* in 'look over' functions as a preposition while *over* in 'overlook' is a prefix. Despite the same morphemes, these two expressions convey different meanings due to the semantic difference generated by *over*.

- (1) a. look over (v) --- examine
 (i) to examine or inspect someone or something carefully:
 ex) Please look over these papers.
- b. overlook (v) --- above and beyond
 (i) not to notice something:
 ex) He overlooked his grammatical error.
 (ii) to forgive someone's mistake:
 ex) She overlooked his fault

In (1), the phrasal verb²⁾ 'look over' takes on the definition which means 'to examine' or 'inspect', as

2) In terms of the 'phrasal verb',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preposition and the particle i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preposition *over* in ‘look over’ denotes the meaning of ‘examining’. In contrast, the compound ‘overlook’ takes on the meaning ‘not to notice something’, as the prefix *over-* in ‘overlook’ denotes the meaning that belongs to the ‘above and beyond’ category. Due to the different polysemous connotations conveyed by *over*, ‘look over’ and ‘overlook’ have different semantic features.

Another example can be found in a pair of ‘take over’ and ‘overtake’. The preposition *over* in ‘take over’ belongs to the ‘control’ category, and thus the phrasal verb ‘take over’ denotes ‘to get control of’ or ‘to become responsible for something’. On the other hand, as the prefix *over-* in ‘overtake’ belongs to ‘above and beyond’ category, the compound ‘overtake’ means to ‘move up and past something or someone in front’. Their semantic difference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different meaning conveyed by *over*, as summarized in (2).

- (2) a. take over (v) --- control
 (i) to get control of or become responsible for something:
 ex) His son will take over the business.
 (ii) to develop or increase more quickly than someone else.
- b. overtake (v) --- above and beyond
 (i) to move up and past something in front of you:
 ex) A green car overtook the taxi.

Likewise, there exists a semantic difference between ‘run over’ and ‘overrun’. As the preposition *over* in ‘run over’ conveys the meaning of ‘above and beyond’, the phrasal verb ‘run over’ means ‘to hit someone or something with a car or vehicle and drive over it’, as in (3a). In contrast, in the compound ‘overrun’, the prefix *over-* denotes the meaning of ‘covering’, and thus generates the definition of ‘spreading over a place quickly’ as shown in (3b).

- (3) a. run over v. ---- above and beyond
 (i) to hit someone or something with a car or other vehicle, and drive over him, her, or it: I think you just ran over some broken glass.
- b. overrun v. --- covering, everywhere
 (i) to spread over a place quickly and in great numbers, harming that place: A town is overrun with the tourists

Next example is a contrast between ‘work over’ and ‘overwork’. The phrasal verb ‘work over’ means ‘to do the work again’ or ‘to beat up someone’ because the preposition *over* conveys the meaning of either repeating or wielding power over someone as shown in (4a). On the other hand, ‘overwork’ only means ‘to work too much’, as the prefix *over-* denotes ‘excess’.

- (4) a. work over (v) --- repetition, control
 (i) to do over (again) as in “would you work over this report?”
 (ii) to beat up (to control) as in “the gang worked him over.”
- b. overwork: ---- excess
 (i) to work too much as in “Don’t overwork yourself on the job”

In fact, there are quite a few other examples that show a semantic difference as those in the above examples. The list of the anagrams is as follows: ‘hand over’ vs. ‘overhand’, ‘do over’ vs. ‘overdo’, ‘draw

over' vs. 'overdraw', 'extend over' vs. 'overextend', 'sleep over' vs. 'oversleep', and 'stay over' vs. 'overstay'. The semantic contrasts of these pair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in Table 3.

Table 3. The semantic contrasts between anagrams using over

	Verbs	Meaning	Semantic category of 'over'
1	look over	to examine or inspect	examine
	overlook	not to notice, to forgive, view from above	above & beyond,
2	take over	to get control of	control
	overtake	to move up and past something	beyond
3	run over	to hit something with a car	above & beyond
	overrun	to spread over a place quickly	covering
4	hand over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transfer
	overhand	to throw with hand above the shoulder	above
5	work over	to do over	repeat
	overwork	to work too much	excess
6	do over	to repeat, to start over	repeat
	overdo	to do more than is natural	excess
7	draw over	to draw a veil over something, not to reveal	covering
	overdraw	to spend more than that in your account	excess
8	extend over	to spread over someone or something.	on the other side of
	overextend	to try to do or use too much	excess
9	sleep over	to sleep at someone else's home.	on the other side of
	oversleep	to sleep too much	excess
10	stay over	to remain at someone's house for a night	on the other side of
	overstay	to stay longer than wanted	excess

The preposition *over* in the above phrasal verb list shows the frequency of the semantic nodes as follows: 3 examples of 'on the other side of', 2 examples of 'repeat', 1 'examine', 1 'control', 1 'above and beyond' and 1 'transfer'. In contrast, the prefix *over-* in the above compounds shows the frequency of semantic nodes as follows: 6 examples of 'excess', 3 examples of 'above and beyond', and 1 'covering'. Overall, the meaning of 'excess' is the most frequently used semantic category for the prefix *over-* while the meaning of 'on the other side of'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preposition *over* in these verb pairs.

These semantic contrasts show that the difference in their meanings arises from the compositional difference which derives from the process of combining polysemous *over* with the same head words. From the same lexemes as 'sleep' and 'over' in 'sleep over' and 'oversleep', a meaning difference is generated by a semantic difference of *over* that is being employed specifically in that expression either as a prefix or as a preposition.

The meaning of the head word 'sleep' itself hardly shows any semantic shift between the phrase of 'sleep over' and the compound 'oversleep'. However, as shown in Figure 5, it is *over* that shows a huge semantic shift between the phrase 'sleep over', meaning 'to sleep at someone else's house', and the compound 'oversleep', meaning 'to sleep too much', since the former *over* conveys the meaning of 'on the other side of' while the latter delivers the meaning of 'excess'. Thus, these semantic derivations seem to be caused by the versatile function of polysemy *over* rather than verbs that are employed as head words.

Although the semantic contrast between each verb pair seems to be arbitrarily assigned on the surface,

the arbitrariness is limited to a certain degree in relation to the semantic category of polysemy *over*. As their meaning difference concurs with the polysemous derivation of *over* in each expression, as can be seen in Table 3, it is legitimate to claim that the polysemous nature of *over* causes a great deal of semantic difference between phrasal verbs and their compound anagrams.

V. Conclusion

This research has aimed to investigate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prefix *over*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preposition *over* by identifying a semantic parameter that differentiates the prefix *over* from the preposition *over*. The general aspects of the semantic structure of *over* in the two are as follows.

First, in prefix *over* the frequency rate of each semantic node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is as follows: 1) 'excess', 2) 'control' and 'above and beyond', 3) 'covering', 4) 'prototypical spatial above', 5) 'on the other side of', and 6) 'examining' and 'repetition'. Other semantic categories such as 'completion', 'transfer', 'focus of attention', 'preference', and 'reflexive' are excluded from the prefix *over*. The meaning of 'excess' in the prefix *over* is the most frequently used category while the meanings of 'examining', and 'repetition' are used the least.

The second major finding from the data analysis in this comparative study is that there are 8 semantic categories in the prefix *over* while there are 14 semantic categories of the preposition *over* which suggests that the prefix *over* has fewer semantic derivations from a protoscene, compared to those of preposition *over*. In other words, the overall semantic criteria of the prefix *over* are subjugated to the semantic criteria of the preposition *over*.

However, a great deal of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preposition *over* and the prefix *over* at a semantic level. One aspect of the major difference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ototypicality of *over*. The notion of 'excess' with the highest frequency is the most prototypical type in the prefix *over* while the prototype for the preposition *over* is the notion of 'spatial above'. The semantic preference of 'excess' in the prefixal usage of *over* denotes a conceptual derivation from the spatial notion of *over*.

Another aspect of the difference lies in *over*-anagrams of the opposite structure. Although they are comprised of the same morphemes, there exists a great deal of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 phrasal verbs using the preposition *over* and the compounds with the prefix *over*. Their semantic contrasts tend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different meaning combinations of the polysemous *over* with the same head words, as in the contrast of 'stay over' vs. 'overstay'. In Table 2, each of the different meanings corresponds to one of the specific semantic categories of polysemous *over*.

Considering all these findings, it seems appropriate to claim that the polysemous *over* with a high degree of semantic versatility contributes to a great deal of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phrasal verbs with the preposition *over* and their compounds with the prefix *over*.

Works Cited

- Aronoff, M. and K. Fudeman. 2011. *What is Morphology?*. MA: Wiley-Blackwell.
- Brugman, C. 1988. *The story of over: Polysemy, seman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New York: Garland Press.
- Croft, W. and A. Cruse.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John Benjamins.
- Krietzer, A. 1997. Multiple levels of schematization: A study in the conceptualization of space. *Cognitive Linguistics* 8, 291-325.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2002.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McCarthy, M., A. O'Keeffe and S. Walsh. 2010. *Vocabulary Matrix: Understanding, learning, Teaching*. Hamshire, UK: Heile.
- Rosch, E.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Tyler, A & Evans, V. 2001. Reconsidering prepositional polysemy networks: The case of over. *Language* 4, 724-765.
- Taylor, J. R.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on, S. Y. 2004. The Polysemy Networks of Over.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3.

영어학 분과 2 (308호)

조직위원장: 이두원, 정원돈 / 조직위원: 조남호, 엄병호, 권종일, 이제원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00 ~ 1:40	김형엽 원호혁	고려대 고려대	Translating Korean Negation with Lexical Phonology	신미영 (강원대)	김형엽 (고려대)
1:40 ~ 2:20	구자혁	강릉원주대	Survive-minimalism and Coordination	강남길 (극동대)	
2:20 ~ 3:00	강남길	극동대	On R-expressions	박준석 (세명대)	
3:00 ~ 3:30	휴 식				
3:30 ~ 4:10	박준석	세명대	Analysis of the Types of Errors by the Google Translator	신소나 (한라대)	정원돈 (세명대)
4:10 ~ 4:50	김일규	강원대	Rethinking the real-time status of island phenomena	구자혁 (강릉원주대)	
5:00 ~ 5:20	지역 총회(강원: 304호 / 충청: 001호)				
5:20 ~ 6:00	전체 총회(001호 대강당)				

Translating Korean Negation with Lexical Phonology

Kim, Hyoungyoub·Won, Hohyeuk(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사전 연구에서는 어휘음운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의 단형부정을 접두사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음운론의 측면에서 접근한 영어의 부정어와 한국어의 부정어 계층을 간략히 보일 것이며 이를 통해 한영번역, 영한번역에 있어서 부정어를 각기 대응하는 계층에 따라 번역하는 언어학적인 전략이 한국어 단형부정과 장형부정 모두를 번역에서 살리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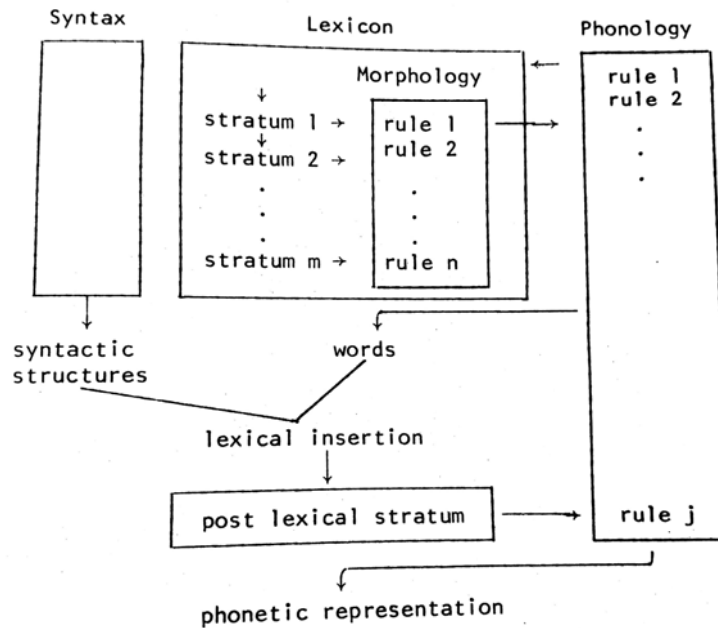
1. Introduction

Mohanan(1982) and Kiparsky(1982) firstly suggest Lexical Phonology which is the lexical rule applied before constituents work as a syntactic feature. Lexical boundary acts in morphological boundary, between words by words. Suffixes and compounds are the best examples of them. Siegel(1974) divide English prefix into two classes. Class I Affix has phonological changes when they are strictly connected with root words like prefix 'in' changes its forms to 'il-' or 'im-'. Class II Affix does not change its form to be collaborated with root words, and it has more possibility to combined with more words than Class I Affix. Prefix 'un-' is an example of Class II Affix. In this paper, we will suggest Korean Negation also has the hierarchical difference and could act in two classes, Class I Affix and Class II Affix. After that, we will suggest that this could be the strategy to translate negation from English to Korean, and From Korean to English.

2. Lexical Phonology with English Negation

After Chomsky(1965) suggests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some people get interested in lexicons before they are used. Mohanan(1982) focuses on lexical features and divide lexical boundary and post-lexical boundary. And, he also divides lexical boundary's class(Mohanan calls stratum) and suggest that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emantical rules work according to the level. And syntactical rules works in the post-lexical boundary. Following <Picture 1> is the model of lexicon.

<Picture 1> Lexical Model(Mohanan, 1982: 11)



Siegel(1974) distinguishes derivational words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called Class I Affix changes its form to stems or root words because phonological area and morphological act together. Because of this, negative prefix ‘in-’ changes to ‘irresponsible’, ‘immature’, ‘illegal’, and ‘in[n]complete’. Like this, Class I Affix causes phonological change like stress movement, nasal assimilation, etc. However, Class II Affix ‘un-’ does not change and just attaches only to root words.

According to Level Ordering Hypothesis, Class I Affix could not transgress Class II Affix boundary. However, words mingled with prefixes and suffixes could not follow the hypothesis like ‘ungrammaticality’. ‘un-’ is Class II Affix, but ‘-ity’ is Class I Affix. Because prefix ‘un-’ must be attached to adjective, ‘un-’ must be combined with ‘grammatical’. But, ‘grammar’ and suffix ‘-ity’ must be attached first in order. Irony occurs here and Mohanan(1982) sets a loop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only with prefixes which have same function and are in different classes, Level Ordering Hypothesis is observed. So, we will spare not much time here and skip to Lexical Phonology of two languages.

3. Lexical Phonology with Korean Negation

No(1988), 박정규(1996), and Kim-Won(2017) suggest that Korean short-form negations ‘ahn-(안-)’ and ‘mot-(못-)’ could act as a prefix. This is because Korean short-form negations have restriction like other prefixes when they are combined with other stems(like ‘bulahn(不安)’) or words. Also, they couldn't act as an adverb like many people have thought. Adverbs could be located elsewhere and be duplicated. However, Korean short-form negation can't do that. Korean negation has two forms. First one comes before verbs, and it is called short-form negation. Second one comes after verbs, and it is called long form negation, ‘-ji ahnta(-지 않다)’ and ‘-ji motada(-지 못하다)’. Negation with two forms is a really special case and could causes difficulty in translation.

원호혁(2017) insists that, if we regard Korean short-form negation as a prefix, Korean negation also could have classes like English affixes are separated. Korean negative prefixes are ‘bul(不)-’, ‘bu(不)-’, ‘bi(非)-’, ‘mi(未)’ which have meaning ‘not’; ‘mu(無)-’, ‘mol(沒)-’ which have meaning ‘do not have’. They came from Chinese Character and shows complementary distribution.³⁾ These negatives do not have pause between the prefix and attach to specific words oriented from Chinese because almost all words like these come from China. Also, they could not precede next class prefixes ‘ahn-’, and ‘mot-’ like ‘*bulahnchamseokhada(un notattend)’ is incorrect following Level Ordering Hypothesis. In addition, they do not have syntactic feature and work in lexical boundary only. Negative Polarity Items(NPIs) require syntactic negative feature [+neg] to be grammatical, but negative sentences with NPI and Korean negative prefixes are wrong like ‘Amu-to pulsengsilha-ta(Chung, 2007: 107)’.

But, Korean short negations ‘ahn-’ and ‘mot-’ have different aspects. They have a pause when they are combined with verbs and have syntactic feature like ‘Amu-to Mot-chamseokha-tt-ta(Kim·Won, 2017)’. Although 원호혁(2017) insists that they also have many restrictions like long syllable words, Sino-Korean words, idiomatic expressions etc., they are much weaker than the restrictions of Korean negative prefix with words. According to these facts, we could divide Korean negative prefix as a Class I Prefix and Korean short-form negation as a Class II Prefix.⁴⁾

4. Translation Strategy with Lexical Phonology

According to Lexical Phonology, Class I Affix have more restriction, and Class II Affix has broader boundary when it is combined with words. For example, Class I Prefix could not precede Class II Prefix like ‘*inunhappy’ is wrong grammatically. Even though they are not work as a prefix, we could set ordinary expressions ‘not’ in English⁵⁾ and long form negation ‘-ji ahnta’-‘-ji motada’ in Korean as a third class⁶⁾. This is because they have almost no restrictions. Below is the summarized version of separated negation of English and Korean.

<Chart 1>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Neg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English	Korean
Class I Prefix	‘in-’/‘ir-’/‘im-’/‘il-’/‘in[ɪ]-’ etc.	‘bul-’, ‘bu-’, ‘bi-’, ‘mi-’, ‘mu-’, ‘mol-’ etc.
Class II Prefix	‘un-’, ‘dis-’, ‘mis-’ etc.	‘ahn-’, ‘mot-’
Class III	‘no’, ‘not’	‘-ji Ahnta’, ‘-ji Motada’, ‘-ga eptta(없다)’, ‘-lul moruda(모르다)’, etc.

3) The example of ‘Bisangsick’ and ‘Molsangsick’ is a really special case, but they have difference with their mea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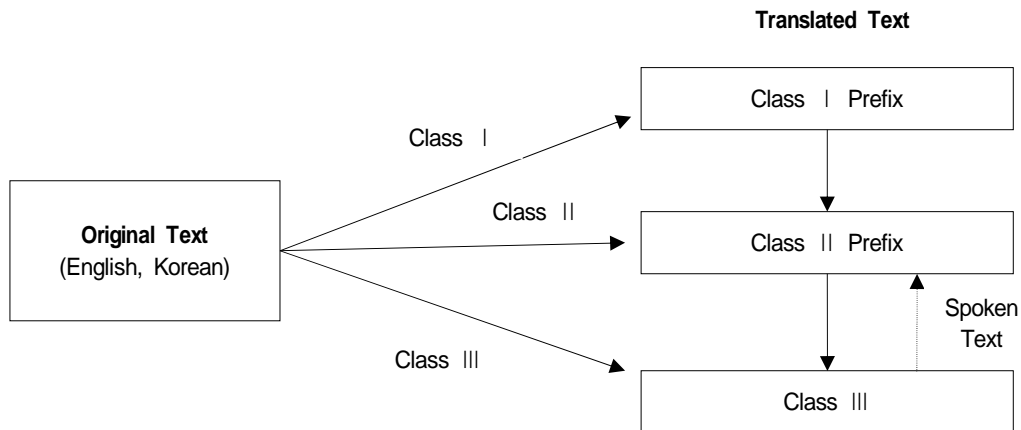
4) Original Lexical Phonology divide its boundary in the point of phonology's view like ‘in-’ changes its form to ‘il-’. However, in these days, phonological rules are not that strictly followed in Korean. ‘불법(不法)’ must be pronounced like ‘Bul-b(ㅂ)ub’ as a rule, but it is pronounced like ‘Bul-bb(ㅃ)ub’ in Korean. It shows that it is hard to explain Lexical Phonology by phonological view in Korean.

5) However, ‘not’ could be positioned everywhere because it acts as an adverb literally. In our point of view, the position of ‘not’ acts only to make sentences effective like intensification and inversion.

6) Originally, over Class III Prefix is the boundary of compounds. But, because there are no negation compounds, we will not consider compounds and set third boundary as basic form of negations.

As a translation strategy, we could apply this hierarchy to English-Korean and Korean-English translating negation in the way of following the restrictions from Class I to Class III. If original texts' prefix is Class I, we must go translate it to Class I Prefix in translated text. Then, we move downward if there is no lexicon that have same meaning in the class. Also, there are some restrictions in each class like Class I Prefix could attach to particular words. We also go down to next class if the class rule is obeyed. Below is the process of this shown by the picture.

<Picture 2> Translation strategy using Lexical Phonology



I set the loop turning Class III back to Class II Prefix in case of dialogue, interview, and spoken corpus etc. because Korean long-form negations are barely used in spoken text. In this case, if verbs do not obey strict law(verbs longer than 5 syllables, verbs taking complements, idiomatic expressions) to be short-form negation, we could translate sentences using short-form negations.

Using this strategy, if we try to translate 'un-happy' in Korean, we could match this to Class II Prefix boundary and translate like 'Ahn hangbok-hada'. In addition, if target texts do not have same meaning with source texts, we could move to higher class because higher class like <Picture 1>. Below are the examples I use this strategy to translation. The numbers after 'E(nglish)' and 'K(orean)' means the negation's class in each language.

- (1) a. "내 작품은 아직 미완성이야." -> "My work is unfinished yet." : K1 -> E2
- b. "Why do you dislike her?" -> "너는 왜 그녀를 안 좋아하니?" : E2 -> K2
- c. "I found him unconscious on the floor." -> "나는 그가 마루 위에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 : E2 -> K3
- d.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 "I do not eat in my house." : K3 -> E3

However, we must also consider the semantic features of each negation. For example, prefix 'mis-' like 'misunderstand' has the meaning of [-possibility]⁷⁾. After the consideration about semantic feature, we could suppose that 'misunderstand' might be translation to '(zal[dʒ])mot ihae-hada(understand)'. We must consider semantic features with lexical class if the words do not have defined meanings. For example, 'mistrust' is translated to 'bulshin(不信)' even though it is Class I Prefix in Korean. This is because 'mis-' doesn't

7) 시정근(1998), 국어의 부정어와 어휘분해, 203-205.

has [-possibility] meaning in this usage, and also it have defined meaning 'do not trust'. According to the example words' designated meanings and semantic features operate before the Lexical Phonology Translation Strategy.

5. Conclus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translating neg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can be done by the linguistic strategy following Lexical Phonology. This kind of strategy could be applied to practical translation or machine translation, and it could solve the problem that Korean negation has two forms. After this presentation, we will use parallel corpus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methods to support our theory.

References

- 박정규(1996), 부정 부사 ‘안(아니)’의 접사적 성격에 대하여, 국제어문, 17, 3-28.
- 시정근(1998), 국어의 부정어와 어휘분해, 한국어학, 7, 193-225.
- 원호혁(2017, 인쇄중), 접두사로서의 한국어의 단형부정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 M.I.T. Press.
- Chung, Inkie(2007), Suppletive Negation in Korean and Distributed Morphology, Lingua, 117-1, 75-148.
- Kim, Hyoungyoub, Won, Hohyeuk(2017, in press), Korean negation 'Ahn' with Lexical Phonology Theory, The Proceedings of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ech Science.
- Kiparsky, Paul.(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91, Seoul: Hanshin.
- Mohanan, Karuvannur Puthanveetil(1982), Lexic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No, Yongkyoon(1988), Negative Morphemes in Korean: Evidence for a Derivational Treatment, The Proceedings of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556-567.
- Siegel, Dorothy(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disse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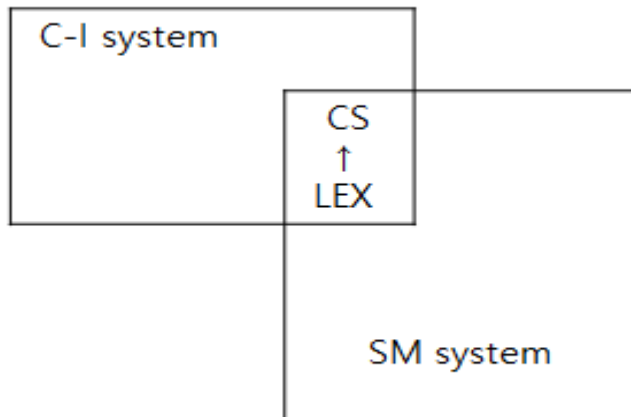
Survive-minimalism and Coordination

Koo Jahyeok(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I . Survive-minimalism

1.1. The Architecture of FL

(1) Intersective subsystems with overlapping properties



(2) the Merge operation

- a. $\{ \alpha [+F], \beta [+F] \} \rightarrow [\alpha \beta]$ (=operation for matching features)
- b. Concatenate and Copy
- c. No internal merge (cf. Chomsky 2005)
- d. the output that does not crash at the performance systems (Frampton and Gutmann's (2002) crash-proof)

(3) No Agree operation

- a. There appear to be six very hungry children sitting at the kitchen table.

(4) No Transfer operation, because all structural output material is necessarily produced, and constrained, in the performance systems.

(5) No Economy Condition, because CS resides in the performance systems.

(6) Each LI in LEX has performance system features(PSFs) and a concatenation feature that must pair

with a matching feature to be concatenatively licit, as in (2a).

(7) Inventory of Concatenative Features

- a. SUBCATegorial features - Features of an LI (e.g., [+V], [+N], and [+P]) that identify the CATegories of the LI's co-occurring arguments; these features are checked, via the (Re-)merge operation, by the CAT features of the LI's sisters.
- b. PSFs - Morpho-syntactic and syntactico-semantic concatenative features, such as Topic features, Focus features, property and agreement features, and wh-features, among others, that have developed out of prelinguistic cognitive and perceptual features. These features need to be exhaustively determined, but they may include reference features, quantity features, and temporality features.
- c. CATegorial features - The unique lexical-class feature of an LI that identifies the LI's syntactic category.

(8) Survive Principle (Stroik 1999)

If Y is a syntactic object (SO) in an XP headed by X, and Y has an unchecked feature [+F]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features of X, Y remains active in the Numeration.

(9) Rmerge

Only if lexical material “survives” in Numeration, it can be brought into SD more than once.

1.2. Derivation in the Survive-minimalism

(9) John was fired.

(10) a. Numeration for (9): {T, was, fired, John}

- b. Merge {fired <passive, PATIENT thematic argument>, \emptyset } → [fired] <passive, PATIENT thematic argument>
- c. Merge {John <Case, thematic role>, [fired] <passive, PATIENT thematic argument>} → [fired John] <passive>
- d. Merge {was <Tense, passive>, [fired John] <passive>} → [was [fired John]] <Tense>
- e. Merge {T <Case, Tense>, [was [fired John]] <Tense>} → [T [was [fired John]]] <Case>
- f. Merge {John <Case>, [T [was [fired John]]] <Case>} → [John [T [was [fired John]]]]

1.3. The Numeration in Survive-minimalism

(11) Three Essential Properties of Survive-minimalism

- a. NUM is not blindly selected prior to the SD.
- b. It is constructed throughout the course of an SD.
- c. It resides within the performance systems.

(12) Types of syntactic operations allowable in Survive-minimalism

- a. SynOp: LEX → NUM
- b. SynOp: NUM → SD

- (13) The Necessity of a WorkBench
- a. This woman loves me.
 - b. I gave this woman a present.
- (14) a. Sam and his dog walked[PAST] in the park and visited[PAST] their friends.
b. *Sam and his dog walked[PAST} in the park and visit[PRES] their friends.
- (15) a. Sam and his dog went for a walk in the park.
b. *His dog and Sam went for a walk in the park.
- (16) a. *[Which famous playwright] did [close friends of which famous playwright] become famous?
b. *Who did [my talking to who] bother Hilary?
c. *Who did you consider [friends of who] angry at Sandy?

II. The Structure of Coordination

2.1 Symmetrical Properties

- (17) a. Jim and Sue are studying linguistics together.
(plural subject, plural verb)
- b. Jim is reading Chomsky and Sue e Jackendoff.
(deletion by symmetry/parallelism)
 - c. Sue is writing a paper and preparing for exams.
(one subject symmetric with two VPs)
 - d. That book Jim despises t and Sue loves t.
(symmetric binding)

(18) [X1 and X2] (cf. Chomsky 1965, Takano 2004)

2.2. An Asymmetrical Property

- (19) a. Every man and his dog left.
b. *His dog and every man left.
- (20) [X1 [and X2]] (cf. te Velde 2009, Zhang 2010)

2.3. Problem: the Principle C violation

- (21) a. *Pat hugged her and kissed Sue.
b. *I gave a book to her and to Sue's father.
c. *Chris hired him and Sam fired Bob's mother.
d. *Sue believes that Chris hired him and that Sam fired Bob's mother.

2.4. Solutions

2.4.1. Stroik and Putnam (2013)

2.4.1.1. Two possible structures for the derivation of conjunction constructions.

(22) List-copy: a copy-to-same operation, such as Copy to NUM)

- a. a,b,c,...x,y, and z (A child's recitation of the alphabet)
- b. \$7.75, \$8.00, \$9.00, and \$10.00 (store-clerk counting out change from a \$10.00 bill on a \$7.75 purchase)
- c. [Sam and Chris] left.

(23) Structure-copy/merge: a copy-to-match operation, such as Copy to a syntactic derivation. However, since the coordinate conjunction and does not have a <SUBCAT> feature (or any other syntactic features), copying it to the SD interrupts the SD because the conjunction does not check the <CAT> feature of the first/right conjunct. The <CAT> feature “survives” in NUM, but it also suspends the SD as there is nothing in the SD left to project. At this point, Stroik and Putnam (2013) argues that the SD is re-started with the “initial” LI of the second/left conjunct, building the left conjunct on top of the right conjunct. The right conjunct which has an unchecked feature will be recycled to the SD only if its features are the same as the projected FM of the SD.

(24) a. *a story about him and a poem about Bob

(25) a. *Mary likes those men and each other's wives.

- b. *Mary likes each other's wives and those men.
- c. Those men like Mary and each other's wives.
- d. Those men like each other's wives and Mary.
- e. *Mary wrote poems about those men and stories about themselves.
- f. Those men wrote poems about Mary and stories about themselves.

2.4.2. This paper's solution

(26) Coordinate conjunctions are, like clitics and many adverbs, do not check any features, including PSFs. There is good evidence that conjunctions behave like adverbs in German:

a. Hans spielt gern Fußball, aber Fritz geht lieber schwimmen.

‘Hans plays gladly soccer, but Fritz goes rather swimming’

a' Hans spielt gern Fußball, Uwe aber Tennis.

b. Erich fährt gern Auto, doch er fliegt höchst ungern.

‘Erich drives gladly car, though he flies highly ungladly’

b' Erich fährt gern Auto, doch fliegt er höchst ung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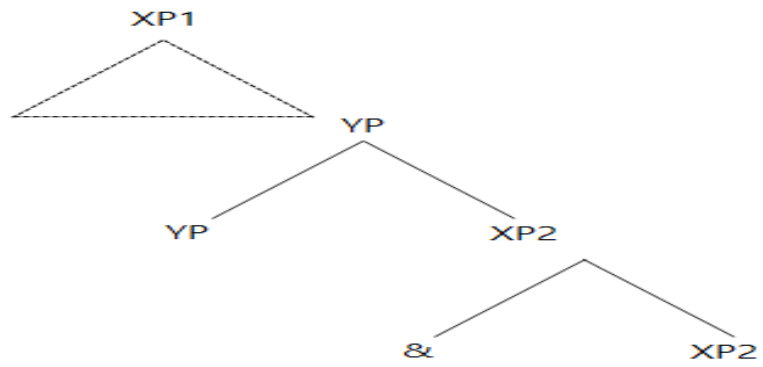
c. Peter wollte ins Kino gehen, jedoch Frank hatte keine Lust.

‘Peter wanted (in)to the cinema go, however Frank had no desire’

c' Peter wollte ins Kino gehen, Frank hatte jedoch keine Lust.

(27) The right/second conjunct is adjoined to a maximal projection of the first/left conjunct. Any number of conjuncts may be conjoined in one sentence

(28) The Structure of Coordination



Works Cited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2005.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1-22.
- Frampton, J. and S. Gutmann. 2002. "Crash-proof syntax," in S. Epstein and T. Seely (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Oxford: Blackwell 90-105.
- Putnam, M. and T. Stroik. 2009. "Traveling without moving: The conceptual necessity of Survive-minimalism," in M. Putnam (ed.), *Towards a derivational syntax: Survive Minimalism*.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3-19.
- Stroik, T. 1999. "The Survive Principle," *Linguistic Analysis* 29, 239-258. 2009. *Locality in minimalist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Stroik, T. and M. Putnam. 2013. *The structural design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no, Y. 2004. "Coordination of verbs and two types of verbal inflection" *Linguistic Inquiry* 35, 168-78.
- Velde, J. te. 2009. "Using the Survive principle for deriving coordinate (a)symmetries," in M. Pu (ed.), *Towards a derivational syntax: Survive Minimalism*.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169-192.
- Zhang, N. 2010. *Coordination in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R-expressions

Kang, Nam-Kil (Far East University, Chungbuk, Korea)

I. Abstract

The ultimate goal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the binding behavior of R-expressions which have been treated as exceptions to Binding Condition C. First, we observe that bound variable anaphora can be available with demonstratives and referential expressions. Likewise, we argue that demonstratively used pronouns, given appropriate pragmatics, can give rise to a bound variable reading. Second, we point out that English pronominal possessives can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under the c-command condition, whereas their Serbian counterparts cannot. We contend that the binding difference of English and Serbian pronominal possessives is attributed to the presence vs. absence of the c-command condition in these languages. Third, we argue that English pronominal possessives can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since the c-command condition in question does not hold. This effect can be ideally obtained from Higginbotham's (1992) Binding Condition C: an R-expression cannot be linked in common reference with a c-commanding argument. Fourth, we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short NP and a long NP for a bound variable reading if the antecedent is a B-type QP. Also, we argue that if the dependent term is a long NP, A-type QPs do not induce a bound variable reading, whereas if the dependent term is a short NP, A-type QPs readily induce a bound variable reading. Fifth, we review Nediger's (2017) approach which accounts for epithets which have been treated as exceptions to Condition C. We argue that if an epithet which is antilogophoric is in the sentential complement of an attitude verb, it cannot corefer with the subject of that verb, but Korean epithets do not show the antilogophoricity effect. Nediger (2017) maintains that epithets are more dependent than R-expressions and as dependent as other types of pronouns. However, we maintain that Korean epithets are as dependent as reflexives, pronouns, and R-expressions. Finally, we provide the Syntactic Competition Principle and Semantic Competition Principle in order to deal with Korean R-expressions and epithets, assuming that they cannot fall on Safir (2004) and Nediger (2017).

Keywords: R-expressions, Epithets, Binding Condition C, C-command, Quantifiers

II. Summary

To begin with, in this article, we review two previous approaches to R-expressions and Binding Condition C. Hoji (1991) suggests that since kare 'he' and a demonstrative nominal category are demonstrative, they cannot be bound by quantifiers. Katada (1990) also contends that this property of demonstratives must be represented in Principle C. However, one prima facie problem with these approaches is the existence of cases in which bound variable anaphora is available with demonstratives and referential expressions. In this article, we show that the two previous approaches are undermined by the

fact that demonstratives can be bound by quantifiers. Likewise, we maintain that demonstratively used pronouns, given appropriate pragmatics, can give rise to a bound variable reading. In this article, we also review LaTerza's (2016) approach to R-expressions which have been treated as exceptions to Binding Condition C. LaTerza (2016) argues that the binding difference of English and Serbian pronominal possessives is attributed not to the presence vs. absence of DP in these languages but to the LF movement of Serbian pronominal possessives. We point out, however, that English pronominal possessives can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under the c-command condition, whereas their Serbian counterparts cannot. We contend that the binding difference of English and Serbian pronominal possessives is attributed to the presence vs. absence of the c-command condition in these languages. That is, English pronominal possessives can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since the c-command condition does not apply to them, whereas a Serbian pronominal possessive cannot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in the clause regardless of the c-command condition since Serbian is a language in which the c-command condition does not apply. In this article, we argue that English pronominal possessives can be coreferential with an R-expression since the c-command condition in question does not hold. This effect can be ideally obtained from Higginbotham's (1992) Binding Condition C: an R-expression cannot be linked in common reference with a c-commanding argument. In this article, we also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short NP and a long NP for a bound variable reading if the antecedent is a B-type QP. We demonstrate that if the dependent term is a long NP, A-type QPs do not yield a bound variable reading, whereas if the dependent term is a short NP, A-type QPs readily yield a bound variable reading. Additionally, we review Nediger's (2017) analysis of epithets and contend that if an epithet which is antilogophoric is in the sentential complement of an attitude verb, it cannot corefer with the subject of that verb, but Korean does not show the antilogophoricity effect. Nediger (2017) maintains that epithets are more dependent than R-expressions and as dependent as other types of pronouns. We maintain, however, that Korean epithets are as dependent as Korean reflexives, pronouns, and R-expressions and that Korean R-expressions and epithets cannot be accounted for by Safir (2004) and Nediger (2017). Finally, we show that two principles such as the Syntactic Competition Principle and Semantic Competition Principle are necessary in order to deal with Korean R-expressions and epithets and that the properties of Korean R-expressions cannot reduce to Safir (2004) and Nediger (2017)

Works Cited

- Buring, D. (2005). *Binding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spic, M. (2011). *Syntax in the Absence of Determiner Phra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Despic, M. (2013). Binding and the Structure of NP. *Linguistic Inquiry* 44: 239-270.
- Evans, G. (1977). Pronouns, Quantifiers, and Relative Clause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777-797.
- Higginbotham, J. (1992). Anaphoric Reference and Common REference. ms., MIT, Cambridge.
- Hoji, H. (1991). Kare in C, Georgopoulos and R. Ishihara, ed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Language: Essays in Honor of Koroda*, 287-304.
- Hoji, H. (1995). Demonstrative Binding and Principle B. *NELS* 25: 255-271.
- Kang, N-K. (2000). *Reflexives and the Linking Theory in Universal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 Kang, N-K. (2007). Quantifiers, Pronouns, and a Bound Variable Interpretation.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and Literature* 49 (1):1-20.
- Katada, F. (1990). *The Representation of Anaphoric Relations in Logical For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lifornia.
- LaTerza, I. (2016). Binding in English and South Slavic and the Parameterized DP Hypothesis. *Linguistic Inquiry* 47 (4): 742-754.
- Lasnik, H. (1986, 1989). On the Necessity of Binding Conditions. In *Essay on Anaphora*. ed, 149-167. Dordrecht: Kluwer.
- Nediger, W. (2017). Overcoming Empirical Challenges for an Extended Approach to Condition C. *Linguistic Inquiry* 48 (1): 1-24.
- Pesetsky, D. (1987). Wh-in-situ: Movement and Unselective Binding. in E.J. Reuland and A. G. B. ter Meulan, eds., *The Representation of (In) Definiteness*. MIT Press.
- Safir, K. (2004). *The Syntax of Anaphora*. Oxford University Press.
- Ueyama, A. (1998). *Two Types of Dependenc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Analysis of the Types of Errors by the Google Translator

Park, Jun-Suk(세명대학교)

Introdu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lation programs have attained a high level of reliability in terms of the accuracy of their translation output. In this regard,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o what level the AI translation program, especially the Google translation program, has advanced so far, and how soon the translation program will take us to the next level. To tes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Google translator's output, numerous Korean data were used for input. The tests in this research focus on identifying the types of errors that the Google translation program produces. Korean data for input were randomly collected randomly for approximately three months. The findings of the tests show that the Google translator makes various types of mistakes including lexical, syntactic and idiomatic ones. These results indicate there still remain many areas in translation that require human efforts and intuition.

1. Background

세계적인 바둑시합에서 AphaGo에 의해 세계랭킹 2위의 바둑기사가 패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헤럴드경제 2016. 3. 9). 가까운 미래에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이 AI 기술에 의해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영한 한영인공지능번역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Choi(2016)은 한국어의 시제표현에 관한 번역가와 영한번역프로그램(투엔투, 구글, 네이버)의 번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번역의 정확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Google 번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실제로 다양한 언어적인 환경들 하에서 한국어의 텍스트들이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2) 오류가 나타난다면 어떤 유형의 오류들이 나타나는지를 실험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Google 번역기의 사용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1)

2. 본론

구글번역기의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구글번역기의 번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1) 본 논문에 예시들로 제시된 영어문장들은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google번역기로 번역된 문장임을 밝힌다.

구글번역기의 번역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가정

- a. 구글 번역기는 수많은 기존의 번역데이터에서 번역을 추출해내므로 문장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기존에 널리 존재하는 번역문맥이나 텍스트에 대한 번역의 정확도는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울 것이다.
- b. 구글 번역기는 수많은 기존의 번역데이터에서 확률에 의한 최적의 번역을 추출해 내므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 나올 경우 최대한 기존에 존재하는 번역산출물에 가까운 번역을 제공할 것이다.
- c. 구글 번역기는 중의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의 번역시에 인간번역가와와는 다른 유형의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 d. 구글 번역기의 번역산출물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나 창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 e. 구글 번역기의 번역산출물이 만약 창의적이라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창의력일 것이다.
- f. 구글 번역기는 새로운 데이터의 축적에 의해서 진화하며 따라서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번역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

아래의 문장 (1)을 보면 Google번역기는 일정 수준의 문맥인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omonym들이 포함된 문장들도 문맥에 맞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번역으로 제시한다.

- (1) a. 그의 사과를 맛있어 보인다.
His apple looks good.
- b. 그의 사과를 진정성 있어 보인다.
His apology seems authentic.

특히, 텍스트가 문어체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수록 번역의 질은 완벽한 것으로 관찰된다.

- (2) a. 정책입안자들은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정책이 중소기업자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 b. Policy makers are convinced that the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will be very encouraging for small businesses.
- (3) a. H사의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번 분기의 수익은 지난분기 대비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이 출시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b. H's operating profi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last three quarters, and revenues for the quarter increased by 30% from the previous quart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newly launched products are well received by consumers.

2. 1. Google 번역기의 번역상의 문제점들

2. 1. 1. 문맥파악의 오류들

(2)와 (3)에서 보여지는 구글번역기의 번역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구글번역기는 인간번역가만한 언어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4)와 (5)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 (4) a.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받은 (체)벌은 정당하다.
His punishment is justified by his actions.
- b.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받은 벌들(은)은 정당하다.
The bees he received due to his actions are legitimate.

2) 구글 번역기가 ‘벌들’을 bees로 번역한 것은 의외이다. punishment는 복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영어언어민들에 의해 종종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 (5) a. 그는 밤을 먹기를 싫어한다. 밤의 껍질을 까기 힘들기 때문이다.
He does not like to eat the night. It is hard to bark the night.
b. 그는 밤의 껍질을 벗기려고 했다.
He tried to peel the night off.
c. 그는 그 밤이 맛있다고 생각했다.
He thought that night was delicious.

(4a) 와 (4b)에서 ‘벌’은 문맥상 모두 체벌의 의미로 (5)의 세 문장에서는 모두 chestnut의 의미로 인식되어 번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번역의 오류가 나타난다. 구글번역기가 문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 (6) 사나운 말들(wild horses) 때문에 울타리가(fence) 잘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³⁾
I wonder if the fence can stand up because of the wild words.

(6)은 문맥인식을 위해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cue)가 주어져도 정확한 번역이 산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7)이 보여주듯이 단서를 다른 유사어로 치환시켜도 정확한 번역이 산출되지 않는다.

- (7) 사나운 말들 때문에 축사가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It is doubtful whether the barn can stand well because of the harsh words.

(8)에서 보여주듯이 결정적인 단서인 ‘야생말’이 주어지고 나서야 올바른 번역이 산출된다.

- (8) 야생말들 때문에 울타리가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It is doubtful whether the fence will survive because of wild horses.

(9)가 보여주는 것은 대체표현이 없는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 외에는 번역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 (9) a. 그 정당의 발기대회에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A number of politicians participated in the erection contest of the party.
b. 신당 발기를 위한 서명작업은 10월 초에 끝났다
The signing work for your new erection ended in early October.

특히 은유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google 번역기의 모습은 문장 (10a)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 (10) a. 국민이 낸 피와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The news that the same tax as the blood of the people is being wasted has angered the public.⁴⁾
b.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The news that the taxes paid by the people are being wasted angered the public.

그러나, (10b)가 보여주듯이, 한국어의 은유적인 표현이 제거된 문장에 대한 번역은 완벽했다.

2. 1. 2. 통사적인 문제점들

2. 1. 2. 1. 화제(topic)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번역

구글번역기가 영어권국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topic과 주어가 동시에 들어

3) 이 문장에 대한 본인을 포함한 한국어원어민들의 언어직관은 horses(말들)이 우리(fence)안에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피와 같은 세금이란 표현이 한국어의 의미대로 영어로 번역되지 못하는 점은 영어의 경우 세금을 국민들의 피에 비유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에 기 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간 한국어문장을 원문장의 의미 그대로 번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11a)와 (11b)는 Google번역기가 topic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topic을 주어로 인식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점을 보여 준다.

- (11) a. 이 남성은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서 벽돌이 발견되어 경찰로 이송되었다.⁵⁾
 The man was found in a bag he carried and was transported to a police.
 b. 나는 카메라를 도둑맞아서 여행지에서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다.
 I was stolen from the camera so I could not take a picture of it on my trip.

이러한 점은 은/는, 이//가의 격조사가 붙는 명사구를 주어로 인식하는 우리말의 문법구조상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오류라고 사료된다. 즉, 영미권에서 개발된 구글번역기는 은/는 의 또 다른 문법적인 기능인 topicalizing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google번역기가 topic을 주어로 번역하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12)-(13)의 문장들이 보여 주듯이 1)관계절이 포함된 경우에 관계절내의 topic marker를 nominative marker로 바꾸어주고 2)관계절이 포함되지 않은 주어의 경우에는 topic marker를 주어 앞에 위치하는 소유격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자 (11a-b)의 정확한 번역들이 산출되었다.

- (12) 이 남성이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서 벽돌이 발견되어 남성은 경찰로 이송되었다.
 The brick was found in the bag that the man carried and the man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13) 나의 카메라를 도둑맞아서 여행지에서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다.
 My camera was stolen and I could not take a picture on my trip.

2. 1. 2. 2. 내포절을 포함하는 문장 번역

번역을 할때 주의해야한 문법적인 구조 중에 대표적으로 내포절을 포함한 문장이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내포절(embedded clause)이 포함된 문장들의 경우 Google 번역기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번역을 보여준다.

- (14) 나는 존이 메리를 사랑한다고 영수가 말했다고 생각한다.
 I think Youngsoo said that John loves Mary.
 (15) 그들은 그 수업이 지루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모두 결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They heard that all students who thought the class was boring were absent.
 (16) 나는 내가 믿어왔던 모든 신념들이 단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최근에 깨달았다.
 I have recently realized that all beliefs I have believed are merely illusions.

Google 번역기의 신뢰성은 내포절이 IP Island인 경우 즉, NP head를 가지고 있는 내포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17)-(20)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 (17)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만큼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격언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Young people need to keep in mind the proverb that dreams can be achieved as much as they dream.
 (18) 인간은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Man never gives up unless he accepts the idea that he has no choice but to give up.
 (19) 경찰은 그 범인으로부터 그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자백을 얻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왔다.
 The police have collected evidence from the perpetrator to get a confession that he is taking the drug.
 (20) 경찰은 존이 그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데이빗으로부터 들었다는 그녀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
 The police do not believe her statement that she heard from David that John had committed the murder.

5) 문장(11a)에서 ‘이 남성은’의 은은 topic marker이고 ‘벽돌이’의 이/는 nominative marker이다. 이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특수한 문법형태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쉽게 관찰된다.

a. 나는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2. 1. 2. 3. 등위절을 포함하는 문장의 번역

등위문장의 경우에도 해석의 오류가 발견된다. 아래의 문장(21)-(22)은 Google번역기의 등위절에 대한 해석이 한국인의 언어직관과 다름을 보여준다.

- (21)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1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The number of marriages and births in January fell to the lowest level ever since more and more married couples were reluctant to postpone their marriage.
- (22) 과제를 미루거나 제출하지 않으려는 학생들 때문에 교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Professors are having headaches because of students who do not want to postpone or submit assignments.

즉, 일반적인 한국인 원어화자들의 직관은 위의 등위절을 각각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23) [결혼을 미루거나 or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
Those who postpone their marriage or do not want to get married at all
- (24) [과제를 미루거나 or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학생들
Students who postpone their assignments or do not want to submit them at all.⁶⁾

이러한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 반하는 google의 번역은 등위접속사 나(or)의 수식범위를 언어직관과 다르게 상정하는데서 기인한다. 즉, google 번역기는 등위접속사 나의 수식범위를 아래의 (25)와 같이 상정하는 것이다.

- (25)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
Those who do not want to postpone marriage
- (26) [과제를 미루거나 제출하지] 않으려는 학생들
Students who do not want to postpone or submit assignments.⁷⁾

2. 1. 2. 4. 수식범위의 비대칭성

2. 1. 2. 4. 1. 부사의 수식범위의 비대칭성

다음의 문장들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자.

- (27) a. 나는 다행히 그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보았다.
Fortunately I sa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⁸⁾

- 6) 두 문장(23-24)은 google 번역기의 번역이 아닌 한국인의 언어적인 직관에 따른 번역임을 밝힌다.
- 7) 언어적 직관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google 번역기의 해석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아래의 두 문장 (즉, 한국인 화자의 언어직관에 의한 구문해석)에서 *가나*가 명사 *이들*을 수식하는 문장의 통사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통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google 번역기는 *가나*를 관계대명사절안의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로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 a.[결혼을 미루거나 or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
b.[과제를 미루거나 or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학생들
- 8) 문장(27a)의 부사 ‘다행히’는 한국어에서는 ‘보았다’를 수식할 수도 있고 ‘합격함’을 수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google 번역기는 첫 번째 문장을 ‘다행히’가 주절의 동사인 ‘보았다’를 수식하는 문장으로만 번역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사의 수식의 범위가 중의적인 경우 Google 번역기가 확률적으로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진 문장구조로의 번역을 회피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번역메카니즘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맥적으로 ‘다행히’가 내포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즉, 내포절안의 ‘합격함’을 수식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아래의 (a)와 (b)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 a. 나의 많은 친구들이 불행히도 그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나는 다행히도 그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보았다.
Many of my friends unfortunately failed the exam, but fortunately I sa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

- b. 다행히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보았다.
Fortunately, I sa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
- c. 나는 그 시험에 다행히 합격한 친구를 보았다.
I sa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 fortunately.
- d.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다행히 보았다.
Fortunately I sa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28)-(29)는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는 빈도부사가 종속절에 내포되는 해석을 보여준다.

- (28) 나는 매일매일 그가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듣는다.
I hear that every day he reads a book.
- (29) 나는 매주 그가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듣는다. 9)
I hear that every week he reads a book.

(27)에서 관찰된 부사 *fortunately*의 수식범위로 추론해 볼때 (28-29)의 부사 *매일매일/매주*가 수식범위가 *matrix verb*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google* 번역기는 반대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30)이 보여주듯이 *매일매일*이 유사한 의미인 *날마다*로 대체되었을 때 *Google* 번역기는 주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문장구조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 (30) 나는 날마다 그가 책을 읽는 다는 소식을 듣는다.
Every day I hear that he is reading a book.

이러한 관찰로부터 추론하건대 *google*번역기의 번역메카니즘은 영어와 한국어의 심층적인 문법구조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기존에 웹상에 존재하는 번역데이터의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2. 1. 2. 4. 2. 형용사의 수식범위의 문제점들

위에서는 부사의 수식범위에서 관찰되는 비대칭성을 다루었다. 수식범위의 오류는 형용사의 번역에서도 발견된다. (31)의 *harmful*의 해석의 *scope*를 살펴보자.

- (31) a. "I will keep working with Congress, with every agency, and most importantly, the American people, until we eliminate every unnecessary, harmful and job-killing regulation that we can find," Trump said at a White House signing ceremony.
- b. 트럼프 대변인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불필요하고 유해한 일자리를 없애는 모든 규제를 없애기 전까지는 의회와 각 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과 함께 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b. 나는 다행히도 그 시험에 합격했지만 불행히도 그 결과를 듣지 못한 친구를 안다.
Fortunately, I know a friend who passed the exam but unfortunately did not hear the results.
흥미로운 점은 *bracket*을 첨가해줄 경우 부사가 *embedded* 절의 동사를 정확히 수식하는 번역이 산출된다는 점이었다.
- c. 나의 많은 친구들이 불행히도 그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나는 [다행히도 그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보았다.
Many of my friends unfortunately failed the exam, and I saw [a friend who fortunately passed the exam].
- d. 나는 [다행히도 그 시험에 합격했지만 불행히도 그 결과를 듣지 못한 친구를] 안다.
I know [a friend who fortunately passed the exam but unfortunately did not hear the result].

9) 문장(27)과 문장(28-29)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정은 *google*번역기가 다루어온 한국어와 영어의 번역자료들은 *매일매일/매주*를 포함한 번역문들의 경우 *embedded clause*에 포함되는 것으로 번역한 번역문들이 더 많으며 *다행히*의 경우 *matrix clause*에 포함되는 것으로 번역된 번역문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번역가라면 위 문장(31)의 harmful이 job을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32)와 같이 번역할 것이다.

(32) 불필요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든 유해한 규제를

문장 (33)-(34)를 살펴보자. Google번역프로그램에서 우리말의 연결형 어미인 *고/며*를 동일한 문장에 사용했을 때 형용사의 수식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¹⁰⁾

(33) 키가 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People with large, diverse skills supported the job.

(34) 키가 크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People who are tall and have diverse skills have supported the job.

문장(33)에서 ‘키가 크고’는 ‘다양한’과 등위적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문장(34)에서는 ‘키가 크며’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과 등위적으로 연결된다. 이 두 문장이 보여주는 점은 google 번역기의 등위 구조에 대한 인지가 얇은 부정확한 번역을 산출시킨다는 점이다.

아래의 문장 (35)-(36)은 다시한번 연결어미 *고/며*와 관련된 google번역프로그램의 번역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35) 섬세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지원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Applicants with delicate and diverse skills have supported the job.

(36) 섬세하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지원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The applicants, who are delicate and have a variety of skills, assisted in the job.¹¹⁾

주목할 만한 점은 문장(33)에서(36)에 걸쳐 보여지는 ‘지원하였다’의 번역상의 오류와 관련하여 네 문장에서 마침표를 제거할 경우 Google 번역기는 완전한 번역을 산출한다는 점이다.¹²⁾ 이는 후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37) 키가 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People with large, diverse skills have applied for the job

(38) 키가 크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People who are tall and have a variety of skills have applied for the job

(39) 섬세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지원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Applicants with delicate and diverse skills have applied for the job

(40) 섬세하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지원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였다

The applicants who are delicate and have a variety of skills have applied for the job

2. 1. 3. 다의어 번역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의 경우에 의미선택의 오류도 발견된다.

10) 국어학자들에 의하면 연결어미 *~고*와 *~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식의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33)~(34)에서 관찰되는 구글번역기의 번역상의 차이는 흥미롭다. 여기에서 ‘지원하였다’의 번역상의 오류는 논외로 한다.

11) 사실상 이 문장에서 ‘섬세하고’의 수식범위가 정확한 문장이 산출된 것은 확률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위의 예문들에서도 동일한 수식범위의 상정에 의한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 문장이 부정확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동사의 번역상의 오류는 논외로 한다.

12) Input문장에 마침표가 없을 경우 번역이 완벽하게 되는 점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현상이다. 후속 논문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41) Two of the regulations nullified Monday had to do with school performance and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월요일에 무효화 된 규정 중 두 가지는 학교 공연¹³⁾ 및 교사 준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의어의 정확한 의미도출의 오류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문장(42)는 and를 동반하는 대등접속절이 없어진 문맥에서는 performance의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42) Two of the regulations nullified Monday had to do with school performance

월요일에 무효화 된 규정 중 두 가지는 학교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Google번역기의 다의어의 번역은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의미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43-46)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 (43) a. This car is a Ford production of 1965
이 차는 1965년의 포드 생산품입니다.
b. Production of the new products has doubled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신제품의 생산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44) a. The customer acknowledged receipt of his ordered item.
고객은 주문한 품목의 수령을 인정했습니다.
b. The customer forgot to take the receipt.
고객이 영수증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45) a. Application for the manager position was an arduous process.
관리자 직책에 대한 신청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b. No application for the manager position has been received yet.
관리자 직책에 대한 신청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46) a. The examination on the patient was a boring and painstaking process.¹⁴⁾
환자에 대한 검사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b. The examination on math gave the students a headache.
수학 시험은 학생들에게 두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의어의 의미들 중 사용빈도가 적은 의미는 해석상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47-48)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 (47) a. There was an industrial revolution in Europe.
유럽에는 산업 혁명이 있었습니다.
b. Revolution of Earth around the sun was not accepted in the Medieval Age
중세 시대에 태양 주위의 지구 혁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 The Moon's revolution around Earth takes approximately one month.
지구 주위의 달의 혁명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48) a. The CEO made a reservation for a flight to Shanghai.
CEO는 상하이 행 비행기 예약을 했다.
b. The CEO had some reservation for investing the company's fund on the risk venture.¹⁵⁾
CEO는 회사의 펀드를 위험 벤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 이 문장에서 performance는 학생들의 수행능력, 즉, 학업능력 또는 학업성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다의어 performance의 해석상의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뒤에 나오는 program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본다. program이란 단어의 connotation(함의)이 performance를 event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했다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14) examination의 다의미에 관련된 논의는 Davies and Dubinsky (2003)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15) (48b)에서 reservation은 주저함, 망설임의 의미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는 reservation의 의미중 사용빈도가 낮은 의미이다.

2. 1. 4. 이//가 목적격조사로 사용된 구문

Google 번역기의 또 다른 통사적인 구조와 관련된 번역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한국어의 구어체적인 문법표현을 포함한 문장들을 번역할 때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언어표현들 중 구어체인 표현이 가장 기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어에서 목적격조사 *을/를* 대신에 *이//가* 가 대체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 (49) a.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매일 성경을 읽는다.
He reads the Bible every day because he wants to read God's Word.
b.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
He reads the Bible every day because God's Word wants to read it.
c. 존은 부모가 보고 싶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John moved to California because his parents wanted to see him.

그러나 문장이 길이가 짧고 사용빈도가 빈번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들의 경우에는 Google번역기가 *이//가*의 목적격조사로서의 문법적인 기능을 인지하여 정확히 번역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 (50) a. 민호는 사과가 먹고 싶었다.¹⁶⁾
MinhoI wanted to eat an apple.
b. 민호는 그 일이 하고 싶다.
Minho wants to do that.
c. 나는 얼마 전 외국으로 떠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화상통화를 했다.
I made a video call because I wanted to talk to a friend who had left for a while ago.
d. 나는 수첩이 필요해서 가게에 갔다.
I went to the store because I needed a notebook.

Input으로 입력되는 한국어의 문장의 길이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어 문장이 다수의 종속절을 포함할 경우 번역의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 (51) 나는 얼마 전 열렸던 기업설명회에서 발표를 하던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랐었는데 어제 우연히 그를 만났다.
I was so smart that the person who made the announcement at the company briefing I had just opened and hoped to have a chance to meet him again. I met him by accident yesterday.

그러나 다수의 종속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도 사용빈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문장일 경우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

- (52) 얼마 전 오랫동안에 한국에 나온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를 만나려 했으나 전화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어서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I just wanted to see a friend who was in Korea a long time ago, so I tried to meet him, but I could not contact him because his phone number had already changed.

특히, 띄어쓰기에 의해 문장의 표현이 약간씩 바뀌어 해석되는 점도 관찰되었다.¹⁷⁾

- (53) a. 최근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Whether or not the recent government stimulus package can restore the depressed national economy is a must.

16) *이//가*의 alternation과 관련된 주제는 Jung, Hyun Kyoung (2016)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17) 이 문제는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번역이 달라지는 현상과 더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 b. 최근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Whether or not the recent government stimulus package will restore the stagnant national economy is a must.

- c. 최근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It is unclear whether the recent government stimulus package will restore the stagnant national economy.

2. 2. 구글 번역기는 진화하고 있는가?

Google 번역기가 진화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 인공지능번역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간의 언어적인 직관을 닮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글번역기는 기존에 웹상에 존재하는 번역된 데이터들을 응용하는 수준의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높은 수준의 전문분야의 텍스트들을 정확하게 수 초만에 번역해내는 능력과 더불어 아래의 문장들의 번역에서 보여지듯이 예상할 수 없는 실수를 산출해내는 점을 볼 때 구글번역기를 현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래의 문장들을 이와 같은 추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 (54) 많은 한국인들은 부모가 보고 싶어 고향을 찾는다.

Many Koreans want to see their parents and find their hometown.

- (55) 그의 슬픈 연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났다.

I was tears because of his sad smoke.

바로 위의 문장들은 google번역기의 번역메카니즘이 문맥을 통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파악이 아닌 확률과 통계에 의한 번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통계와 기존의 데이터에서 벗어난 어휘적, 문법적, 관용적 표현들을 만났을 때 Google 번역기는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단계에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본론의 도입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Google 번역기는 경제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한영번역은 대단히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Google번역기는 동음이의어인 *사과*를 포함한 문장의 번역에서 관찰되었듯이 일정 수준의 문맥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벌/밤*의 경우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맥인식능력은 문장이 복잡해질 경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통사적으로는 *topic*과 주어가 동시에 한 문장 내에 존재하는 경우와 예상되는 격조사대신에 다른 격조사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이/가*가 목적격조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Google번역기의 문맥파악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다행히/매일매일/날마다*의 경우처럼 내포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부사의 수식범위가 일관되지 못하게 파악되어 번역되는 점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점은 번역프로그램이 접하는 *input data*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다의어가 포함된 문장들이 제시될 경우에 드물게나마 문맥에 어울리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도출되지 못하고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의미가 도출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의어의 또다른 의미가 빈번히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의미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내포절을 포함하는 문장을 번역하는 구글번역기의 정확도는 놀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Google 번역기가 가까운 장래에 인간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텍스트들을 신뢰성 있게 번역해 내지 못하리라는 가정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이 번역프로그램이 전문적인 내용의 번역작업을 위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

인간의 언어행위의 상당한 부분은 화자의 자의적인 표현들이 제시될때 의도하는 의미를 제시된 문맥이나 상황 또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으로 파악해내는 능력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글한영 영한번역프로그램이 이러한 인간의 언어능력을 모두 구현해내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gle번역기는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언어의 구조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도록 하며 전문적인 내용의 번역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Google번역기의 번역의 특성을 이해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분별력있게 이 번역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나침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Works Cited

- Choi, D. I. 2016. Comparison Between Translators'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of English Complex and Compound Sentences in Past Tense. *Studies in Linguistics* 39, 377-398.
- Davies, W. and S. Dubinsky. 2003. On Extraction from NP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1, 1-37.
- Jung, H. K. 2016. Nominative/Accusative Case Alternation in The Korean 'Siph-ta' Construction. *Coyote Paper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Linguistic Theor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Linguistics Circle.
- <https://translate.google.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09000987>

Rethinking the real-time status of island phenomena

Kim, Ilkyu(강원대학교)

I. Introduction

Since Engdahl (1983), parasitic gap (PG) constructions have attracted many syntacticians' attention due to their peculiarities, among which is the fact that they can violate island constraints. Although much effort has been put on figuring out the nature of the PG constructio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few have looked at the problem from the processing point of view.

Recently, Phillips (2006) has conducted experiments dealing with processing of PG constructions. Specifically, he focused on the construction where a PG is inside the subject island constraint. The fact that PGs are created inside a subject island and still make the sentence in which they occur totally acceptable is interesting not only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processing point of view, because it has been widely known (or at least claimed) that the parser cannot posit a gap inside an isl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Phillips claims that the processor can posit a gap inside an island only if the gap can be a PG in the given sent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discuss Phillips's analysis and propose an alternative account. The organization of the paper is as follows. Section 2 provides a detailed examination of Phillips' (2006) experiments and their results. Then, in Section 3, I propose an alternative account of Phillips' results. Finally, Section 4 concludes the paper.

II. Phillips's (2006) analysis

According to Phillips (2006), the fact that obligatory PGs are created in complex NP island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with respect to sentence processing: Does the processor posit a gap in the place of obligatory PGs as soon as possible (e.g. right after *to* in *Which boy did Mary's talking to bother most?*)? If the answer is yes, then the assumption that the processor is sensitive to islands, which is widely accepted especially among those who take the processing accounts of islands, significantly loses its empirical justification. It is because, Phillips claims, if the island effects are matter of processing, the processor is never expected to posit a gap in complex NP islands because the processor must "know" that the complex NP is an island and no gap can exist in it. On the other hand, if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negative and it turns out that the processor posits a PG after processing its licensor, namely, the real gap (e.g. after *bother* in the above example sentence), then incremental nature of processing comes to face a serious problem.

2.1 Phillips's (2006) first experiment: Are PG constructions acceptable?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rocessor is sensitive to a PG or not, Phillips (2006) conducted two experiments. The first experiment, an off-line judgment task, was to show that PG constructions are just natural English sentences and not marginal (or unacceptable) in acceptability. This was done by comparing acceptability of three different constructions: 1) a sentence with only a real gap, 2) a sentence with only a PG and 3) a sentence with both a real gap and a PG. Example sentences are shown in (1) and (2).

(1) Infinitival condition

- A. REAL GAP: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o preserve the important habitats had harmed t.
- B. P-GAP: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o preserve pg had harmed the annual migration.
- C. BOTH GAPS: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o preserve pg had harmed t.

(2) Finite condition

- A. REAL GAP: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hat preserved the important habitats had harmed t.
- B. P-GAP: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hat preserved pg had harmed the annual migration.
- C. BOTH GAPS: The outspoken environmentalist worked to investigate what the local campaign that preserved pg had harmed t.

The reason for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infinitival and finite conditions is that gaps only in infinitival complements are possible PGs. This distinction plays a crucial role in Phillips's second experiment, which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next subsection.

What is relevant to the current discussion are two results of this experiment.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eptability between (1A) and (1C), which shows that PGs are a real phenomenon, not just marginally acceptable. And as expected, (1B), in which there is only a PG, was significantly lower in acceptability compared to the other two sentence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1A) and (2A) was not significant but there was "a small but reliable effect" (Phillips 2006: 806) between (1B) and (2B). That is, the infinitival vs. finite contrast affected significantly on acceptability of the PG condition. Although this result is treated not to be important (because the effect was small) and ignored in Phillips' paper, I do not take this result to be trivial at all, and later propose a different explanation that takes account of this result.

2.2 Phillips's (2006) second experiment: Is the processor sensitive to PGs?

The second experiment, which is the main one, was a word-by-word on-line self-paced noncumulative reading task. The aim of the second experiment was to test whether the active gap-creation mechanisms used in the processing of normal wh-dependencies operate in the same manner in PG contexts. The experimental items consist of twenty-four sets of four conditions, organized in a two x two factorial design. The factors were plausibility (plausible vs. implausible) and finiteness of the complex NP complement (infinitival complement vs. finite relative clause) as shown in (3).

(3) a. Infinitival + plausible

The school superintendent learned **which schools** the proposal to **expand** (i) drastically and innovatively upon the current curriculum would overburden _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b. Infinitival + implausible

The school superintendent learned **which high school students** the proposal to **expand** (ii) drastically and innovatively upon the current curriculum would overburden _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c. Finite + plausible

The school superintendent learned **which schools** the proposal that **expanded** (iii) drastically and innovatively upon the current curriculum would overburden _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d. Finite + implausible

The school superintendent learned **which high school students** the proposal that **expanded** (iv) drastically and innovatively upon the current curriculum would overburden _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The prediction is that if the processor attempts to create a PG as soon as it encounters the verb without waiting for further confirmation of the real gap, there should be a difference in reading time between (3a) and (3b) at points (i) and (ii) but not between (3c) and (3d) at points (iii) and (iv). This prediction is based on two facts: 1) PGs are possible only in infinitive complements but not in finite relatives of complex NPs and 2) the implausibility will slower the reading time at the PG site if the PG is posited in real-time.

Two results are relevant here.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lausibility effect only for the infinitival condition (i.e., faster reading time at (i) than at (ii) but no significant reading time difference between (iii) and (iv)). According to Phillips, this shows that the processor posits a gap violating an island constraint only in (6a). Second, although he does not discuss it in detail, there was a main effect of finiteness in two regions, expand and drastically. That is, in these regions the sentences of the finite condition were read significantly more slowly than the sentences of the infinitival con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experiments, Phillips (2006) concludes that “the parser’s apparent violation of an island constraint in the infinitival condition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a parasitic-gap construction” (Phillips 2006: 813). In other words, “the parser avoids constructing gaps inside islands that cannot be licensed, but actively constructs gaps inside islands that may subsequently be licensed as parasitic-gap constructions” (Phillips 2006: 813). Then, he further goes on to claim that “[t]he unacceptability of gaps inside subjects must reflect some additional representational constraint, although the current results provide no reason to choose among the many available formal accounts of subject islands” (p. 818).

III. An alternative account

Although Phillips attributes the results of his experiments to the processor’s sensitivity to PG constructions, this account has at least two crucial problems. First, as Phillips himself admits, if the previous processing studies (e.g. Kluender 1991, 1992, 1998, 2004, Kluender & Kutas 1993) are on the right track, his analysis implies that milder islands (such as complex NPs with infinitival complements) reflect formal or representational constraints but more severe islands (such as complex NPs with finite relative clauses) are explained by limitations on real-time parsing mechanisms. This would be odd because “it would suggest that the most severe instances of island violations are grammatically well-formed and only certain milder violations are formally illicit” (Phillips 2006: 818).

He avoids this problem by assuming that the previous processing accounts may not be on the right track.

That is, he open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cessing difficulty itself, although it may have some role to play, might not be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severe islands. For this alternate account to be persuasive enough, there must be a satisfactory account of exactly which part of the severe islands are explained by processing effects and which part by formal accounts.

The second problem is that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his two experiments, Phillips ignores two kinds of significant effects. First, as mentioned above, although the results of the first experiment showed that there was “a small but reliable effect” between the infinitival vs. finite contrast in sentences with PGs only, he ignores this fact and claim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ite and infinitival conditions [shown in the second experiment] is unlikely to be due to the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subject islands themselves, since they received similarly low ratings in [the first experiment]” (Phillips 2006: 813).

Third, Phillips gives no consideration for the fact that the infinitival complements were read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finite clauses in the regions expand and drastically, which is well expected according to the previous processing studies (e.g. Kluender 1992, Sag et al. 2007). That is, it is widely known that “[e]ventive finite clauses are the hardest to process; infinitival clauses the easiest, with modal finites being intermediate” (Sag et al. 2007: 4). Example sentences are given below.

- (4) a. What were you unsure how to file? ≥
 b. What were you unsure how you should file? ≥
 c. What were you unsure how they had filed?

In fact, the significant acceptability difference between (1B) and (2B) are also naturally predicted by the finiteness effect. In other words, it is natural to expect that the sentences that are easier to process are more acceptable.

Then, would it be also possible to account for the main results of Phillips’ second experiment? Although he does not take this possibility into account, it seems to be convincing enough. That is, it can be argued that the parser posited a gap only in the infinitival clauses because it is easier to parse infinitival clauses and thus the processor has more available resources for positing filler-gap dependencies in infinitival clauses than in finite clauses.

If this alternative explanation is on the right track, then all the problems raised above for Phillip’s analysis can be naturally explained. First, we do not have to accept the logically odd consequence that milder islands are to be accounted for by grammatical principles while severe islands are created just by processing effects. Instead, under the alternative analysis proposed here, even milder islands are also attributed to processing effects. Second, as discussed above, the significant acceptability difference in the first experiment and the significant finiteness effect in the second experiment are all naturally explained and do not have to be ignored. (Rather, they play a crucial role!)

Furthermore, contrary to what Phillips claims, the processing account of his results is not contradictory with other previous processing accounts of island constraints. Phillips argues that the processing account of islands must predict that the processor does not posit a gap in islands at all. However, as Sag et al. (2007: 1) has clearly pointed out, “processing-based explanations are inherently gradient”,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if the processor is responsible for island effects it should not posit a gap in islands. Rather, it is the strongpoint of the processing account that it can naturally predict that there can be a gap in a complex NP island with an infinitival complement but not in a complex NP island with a finite relative

clause. It is the grammatical (and formal) account that finds difficulty in accounting for such differences coherently.

Another advantage of taking the processing account of Phillips' results is that by doing so, grammar becomes simpler. By attributing most, if not all, of island effects to independently motivated processing (and/or functional) factors, the grammar does not need to have any extra, otherwise unmotivated, mechanisms in syntax in order to give accounts of the island phenomena. For example, by resorting to processing effects, no extra grammatical constraints are needed for explaining obligatory P-gaps. However, if we take Phillips' account, some grammatical constraints or rules must be introduced only for P-gaps, which would be highly likely to be ad-hoc.

IV. Conclusion

In this paper, Phillips' interpretation of his experiments on PG constructions have been critically examined.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can better be explained by the traditional processing analysis of island phenomena than by his structure-oriented analysis.

Works Cited

- Engdahl, Elizabeth. 1983. Parasitic gap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5-34.
- Kluender, Robert. 1991. *Cognitive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Kluender, Robert. 1992. Deriving island constraints from principles of predication. In Helen Goodluck & Michael Rochemont (eds.) *Island Constraints: Theory, Acquisition and Processing*, 241-279. Dordrecht: Kluwer.
- Kluender, Robert. 1998. On the distinction between strong and weak islands: A processing perspective. In Peter Culicover & Louise McNally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29: The Limits of Syntax*, 241-279. San Diego: Academic Press.
- Kluender, Robert. 2004. Are subject islands subject to a processing account? In B. Schmeiser, V. Chand, A., Kelleher, A. Rodriguez (eds.) *WCCFL 23 Proceedings*, 101-125.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Kluender, Robert & Marta Kutas. 1993. Subjacency as processing phenomen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8.
- Phillips, Colin. 2006. The real-time status of island phenomena. *Language* 82, 795-823.
- Sag, Ivan A., Philip Hofmeister, and Neal Snider. 2007. Processing complexity in subjacency violations: the 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In *Proceedings of 43rd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 Seely, T. D. 1987. The dependence hypothesis: Toward a theory of processing of parasitic gaps. In *Proceedings of the Six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291-303.

영어교육 분과 1 (304호)

조직위원장: 이승복 / 부위원장: 나경희 / 조직위원: 한혜령, 윤택남, 신미영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00 ~ 1:40	윤택남	춘천교대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Improving EFL learners' vocabulary through AVI Method	장재학(강원대) 박찬규(중원대)	나경희 (충북대)
1:40 ~ 2:20	김동미	충북대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on Korean EFL college students to be more motivated in class through class activities.	정은숙(춘천교대) 이지연(한림대)	
2:20 ~ 3:00	김정렬	한국교원대	영어교수법의 조망	김남국(강원대) 이승복(춘천교대)	
3:00 ~ 3:30	휴 식				
3:30 ~ 4:10	김병선	가톨릭 관동대	SNS 활용을 통한 학습자 교수자간 관계 향상 연구	나경희(충북대) 강상구(청주대)	이승복 (춘천교대)
4:10 ~ 4:50	Wawan Gunawan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Exploring Teachers' Knowledge of Texts: First Step in Finding Best Practices and Empowering Teachers in Indonesian Contexts of Education	최수정(연세대) 김인옥(춘천교대)	
5:00 ~ 5:20	지역 총회(강원: 304호 / 충청: 001호)				
5:20 ~ 6:00	전체 총회(001호 대강당)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Improving EFL learners' vocabulary through AVI Method

Tecnam Yoon(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mixed method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vocabulary enhancement and the improvement of critical thinking with young EFL learners in Korea. Using AVI (Associated Visual Imagery) method, 5 EFL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astern Kangwon province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case study for one semester. While doing weekly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in English class, each student was instructed 1) to make a list of new/unfamiliar words found in the reading texts, 2) to search the associated visual images from the Web (<https://www.kiddle.co/>) which are related to the new/unfamiliar words, 3) to post those images with a sample sentence using that specific word on the class website, and to share with all the other classmates. The Web used in this research, Kiddle (<https://www.kiddle.co/>) is a safe search web tool for kids that filters search results to enhance younger children safe search experience. In Kiddle's case "co" stands for "children only".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mixed research method was chosen to employ. A pre-/post vocabulary test was administered; interviews with students were conducted, and then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fter a 8-weeks experi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learning with AVI showed improvement mean of 28 percent in vocabulary tests, suggesting the conceptualization and creation of such images would allow young EFL learners to have the deep processing necessary for long term retention. Most of the students agreed that associated images promoted to decode unknown words, decreased task complexity, and assisted in developing memory for the written words. In addition to development of the vocabulary, AVI learning method also helped students build more critical thinking than before. Students used their imagination to invent vivid images that were easy to remember; made them humorous or dramatic, logical or ludicrous, used exciting action or a story line. It was also revealed that by creating a sentence or a story using online images, they built up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associated visual imagery can assist young EFL learners in learning new/unfamiliar word meaning, in storing them long-term memory, and in bringing a positive effect on reading comprehension, communication and further gener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on Korean EFL college students to be more motivated in class through class activities.

Kim, Dongmie(Chungbuk National Univ.)

1. Conceptual framework

1.1 Intrinsic Motivation

Ryan and Deci defines intrinsic motivation as “the doing of an activity for its inherent satisfactions rather than for some separable consequence” (p. 56) Thus, intrinsic motivation refers to involving oneself in an activity for its own sake, interest, or the pleasure and satisfaction acquired from the experience (Lin, 2007). Gagne and Deci (2005) associates intrinsic motivation with people engaging in an activity because they find it interesting and achieve satisfaction from the activity itself Luthans (1989) stated intrinsic motives are motivators that the person identifies with a task or job. The rewards granted from acting upon these intrinsic motives include feelings of responsibility, achievement, accomplishment, challenge, etc. When applied to a real life setting such as organizations or businesses, intrinsic motivation could be shown as forms of conducting mission, overcoming challenges and developing trust between colleagues. Ko (2002) identified “Self-determination” as a desire that drives a person to make a decision by himself or herself when he or she has more intrinsic motivation than pressure or outer influences. Koestne, Losier, Vallerand, and Carducci (1996) also identified the intrinsic motivation as deriving satisfaction from the activity the person is involved in, and forming self-determination of interests, excitement, or pleasure from the activity or event intrinsic motivation has been proved to have good effects than extrinsic motivation in terms of creativeness, absorbance, and continuity (Deci & Ryan, 1992). The above-mentioned authors and their definition of intrinsic motivations seem to share certain qualities - happiness, pleasure, excitement, challenge, and desire.

1.2. Extrinsic Motivation.

A few scholars define extrinsic motivation as “acting out of goal as a means of result” (Moon & Kim, 2001; Teo & Lim, 1999, Davis, Bogazzi & Warshaw 1989). It is the opposite of intrinsic motivation which highlights inner rewards such as happiness, pleasure, challenge, etc. Examples of extrinsic motiv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wage, work relationships, rules, organization, and work environment (Salen & Hyde, 1969). Lepper, Greene, and Nisbett (1973) stated while intrinsic motivation is drawn from pleasure or interests of the person’s inner, or personal,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is derived from external goals. Some factors of extrinsic motivations include evaluation, recognition, financial matters, others’ control, and constraints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Importantly, Amabile et al (1994) asser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is not extremely different. Similarly, Saleh and Hyde (1969) listed payment, retirement, workplace relationships,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purposeful goal, and the working environment. Kim (2005) had also compiled a similar list of examples, including pay, workplace relationship, and job benefits.

3. Research & analysis.

3.1 Main Research Questions

This research aimed to discover how satisfied the students were during class with teaching method, teacher's nationality, or any other class materials. However, there are more to consider - how do we improve the teaching method? What are the necessary changes to promote students' motivation? What other factors could be altered if the teachers were changed? Two questions are to be asked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1) Question: What are students' tendencies of Korean EFL college class teaching approach (method)?

This question comprises of many small branch questions. First, we need to know the current trend of English education. What do they want teachers to manage in the class? How do they want to be taught English? How is college level English education different from previous level of education? Second, we should investigate these questions, and evaluate potential teaching methods. They range from face to face teaching methods to interactions via online courses. As for face to face, typical teaching methods are presentation, interview, games, group pair work, discussion, simple lectures, role-play, etc. Online class interactions include using a phone, computer,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MP3player, recorder, and radio. Third consideration is how much the students want to learn English. In other words, do they feel learning English is necessary or not? Students from 3 different colleges, regions, level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2) Question: what are the strategies for Korean EFL college environment?

Students' class activities can be described in several ways. Class activities can include group discussion, presentation, and interviews. Group discussion is able to provide a safe environment where students are able to learn English among their peers. However, this interactive nature of group discussion may be considered disadvantageous. Often times, students who are academically advanced may intimidate other students and take over the discussion. As for presentation as a class activity, it can serve 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show their English skills and knowledge, while encouraging teamwork and organization of learning materials. On the other hand, its disadvantages are that academically weaker students may feel stressed, and not all students put the same level of effort. Lastly, interview activities can greatly help students with interview techniques for their future opportunities. However, the disadvantages are that they require a lot of pre-teaching, and students may be intimidated when speaking English in front of their peers. Other types of class activities include: using a cell phone with vocabulary, UCC (User Created Contents), English computer game, and online assignment.

3.2 Method

To conduct this survey, I have collected the survey participants from 3 different colleg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Kangwon Province, Kyungdong University in Kangwon Province,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ll of them were freshmen except few students with 10 different majors. Approximately 240 surveys were retrieved. They were collected from 3 different regions, different schools, diverse majors, but same general English subject in Korea.

3.2.1 Data Sources.

The survey's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12 quantitative questions, 2 rank order questions, and 1 qualitative question. Quantitative questions inquired each student's cultural background, his or her identity and trend in class. 2 rank order questions asked the current tendency of Korean colleges' English classes. The qualitative question asked about the students' preference Korean EFL programs. Following were the questions asked:

3.3.2 Data Analyses.

Table1. The Culture of Students' Tendency and Identity

Questionnaire	Path&La	Mana	Nursing	Math	AB	GeoEdu	Elect	Archi	BS	Total
•Belonged to the millennium student	33/Yes	24/Yes	24/yes	12/Yes	4/Yes	11/Yes	18/Yes	17/Yes	10/Yes	153/205
•Skillful to the Internet or SNS	29/Yes	25/Yes	29/Yes	8/Yes	5/Yes	11/Yes	16/Yes	10/Yes	7/Yes	140/205
•Needed to do online assignment	13/Yes	6/Yes	8/Yes	2/Yes	1/Yes	1/Yes	3/Yes	0/Yes	2/Yes	36/205
•Online class(a) or offline class(b)	A4/ b25	A3/ b19	A5/ B23	A3/ B6	A1/ B4	A2/ b9	A4/ B13	A2/ B9	A0/ B5	A24/b 113/205
•Needed to conduct online class	9/Yes	7/Yes	12/Yes	4/Yes	o/Yes	o/Yes	4/Yes	1/Yes	1/Yes	38/205
•Needed to conduct offline class	23/Yes	22/Yes	27/Yes	11/Yes	6/Yes	5/Yes	10/Yes	12/Yes	7/Yes	123/205
•Needed to learn general English	40/Yes	36/Yes	35/Yes	6/Yes	9/Yes	15/Yes	26/Yes	17/Yes	10/Yes	194/205
•Unknown vocabulary (internet,I)	34/I	34/I	33/I	14/I	10/I	14/I	27/I	15/I	9/I	190/205
•Needed English part	21/sp	34/sp	14/sp	9/sp	6/sp	12/sp	24/sp	12/sp	4/sp	136sp /205
•English improving factor(self-determination)	30/SD	20/SD	25/SD	9/SD	8/SD	15/SD	24/SD	15/SD	10/SD	156/205
•Total	/42	/30	/36	/16	/11	/15	/28	/17	/10	/205

Table2. Making an order question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class's tendency in EFL environment

	1	2	3	4	5	6	7
•presentation					5th		
•interview						6th	
•Smart-phone	1st						
•Asking &answering from teacher		2nd					
•Just one-side teaching			3rd				
•Pair-work				4th			
•Online assignment							6th
•Total	150/205	39/205	5/205	4/205	3/205	2/205	2/205

Table3. Preference item of future English class in Korean EFL college environment

	1st	2nd	3rd	4th	fifth	Sixth
•Paper dictionary						✓
•Laptop computer		✓				
•Recorder				✓		
•Radio					✓	
•Smart-phone	✓					
•MP3 player			✓			
Total	173/205	24/205	5/205	2/205	1/205	0/205

Table4.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EFL in college general English?

	Path&La	Mana	Nursing	Math	AB	GeoEdu	Elect	Archi	BS
•More Basic, Practical, easier	19	19	20	9	6	12	22	6	12
•More difficult, complicated	11	4	11	3	3	1	3	3	4
•Too much easy	2	1	0	0	0	0	1	0	0
•Indifferent	10	4	5	4	2	2	2	1	1
Total	42	30	36	16	11	15	28	10	17

4. Results.

Question 1: What are students tendency of Korean EFL college class teaching approach (method)?

As you can see in table 1, more than 2/3 of the participants considered themselves millennials and skillful at utilizing the internet and SNS, but did not like online assignments or online classes except UCC (User Created Content). The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in learning general English and self-determi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mprove English. During classes, most students use their smartphone to look up vocabularies they do not know. Most of them want to learn how to speak English and consider speaking to be their weakest area. Table 2 reveals that the participants did not want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which included interviews and presentations and makes no use of modern technology. In fact, regardless of what nationality the teachers are, students preferred personally interacting with the teachers over interviews and presentations. The results from Table 3 suggests that the students favored smartphones the most, followed by laptops.

Question 2: What are the strategies for Korean EFL colleg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above investigated materials, traditional teaching method such as interview or presentation is not preferred to the Korean EFL students. In particular, they do not like having a presentation or interview in front of people or other students. They like to have a class activity including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with a teacher regardless of the teacher's nationality. They think who teaches pretty well professor or teacher is better than a native speaker. If a teacher chose interview or presentation as the class activity, he/she had better use with the computer related class appliances. Millennium students are familiar with computer or smart-phone with Internet or any other applications. Meanwhile, even though they like to use computer or smart-phone, they prefer not to do homework or classwork at home. They prefer to learn English with a good teacher in person, and learn how to speak English more than any other aspect of the language such as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They are ready to learn General English in college because General English is comparatively easier than the level of

English that was required in previous schools' exams. In short, to make General English classes interesting and effective, class size should be 25 students maximum, with the duration of 50 minutes in order to make time for teacher-student interaction (at least 2 minutes). Frequent usage of smartphones in classrooms should be considered. 741

Also, needed to complete the presentation or interview into with the computer or Internet related something, instead of presentation in front of blackboard, interview with the simple preparation materials or plain situations

5. Discussions

5.1 Limitations.

This paper surveyed Korean freshmen from 3 regions, 2 national universities, and 1 private university. English proficiency may differ between students who attended 2 year universities and students who attended 4 year universities. Additionally, other regions were not referred to in this paper including Kyunggi Province, Jeolla Province, Jeju Province, Kyungsang Province and Seoul. English proficiency may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For instance, Seoul has the highest Korean SAT scores in English. In other words, survey results could differ depending on which region or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urthermore, students who attended public universities scored a little higher than those who attended private universities, suggesting that the intrinsic motivation of the stud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might be a little higher than the intrinsic motivation of students in private universities is sam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glish proficiency gap may not necessarily be the result that there could be a different English proficiency gap, even though answer students are different region's same freshmen, it would be a gap among grades such as sophomore, junior and senior. A freshman's school life and a junior's school is different, juniors should prepare for their future, in other words, to get a job it is mostly needed to get a English certificate Grade including TOEIC, so extrinsic motivation could be a little higher than intrinsic motivation.

5.2 Implications

In Korea, General English in universities is offered in every university, except a few ones, targeted towards the freshmen. English is not the only languag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Kingdom, but also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the world. From the 1980s, Korea had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and came to have a larger variety of cultures in education. Education has changed a lot by globalization. As this phenomenon appeared, the importance of English proficiency kept getting larger. As an example, during job interviews, one cannot help getting asked for their TOEIC scores. A few decades ago, it was not necessary to study English for any purpose. As time went by in Korea, speaking English began to be less unusual in a workplace, college campuses, or any other social organizations. So learning of foreign language, in particular, English is not so unfamiliar phenomenon.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nglish is our neighbor English even though it not our native language, in this reason, the necessary of learning English is not force to by anybody else. Therefore, the college students today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during school days. Compared to 5 years ago, the expected proficiency of English for

universities has been set higher. The students think that they need to learn English to find their self-identity as well as getting a job. Above mentioned analyses of them are freshmen, intermediate level of Korea, not high as well as low. So it can be representative of Korean college general English. But, how to teach English is another thing. Even though the necessity of learning English is increasing, if the teaching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the students, there cannot be a sound class, education, society, nation, so the teaching method needs to be check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eaching. In Korea,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specially smartphones, it could change and contribute to the English class and language education.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is study, class activity or appliances can change the quality of students' attitude in class.

6.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ass activity and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closely related. In other words, if a class activity/teaching method is interesting for the students, it can be effective for a class, or any other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f the teacher/professor reads the students' attitudes or what they want in class, the teacher/professor can increase the students' interest or excitement of class. And with time passed, the class activity/teaching method could be changed, so the teachers/professors need to check their class activities/teaching methods. Today, most students consider themselves "the millennium students", being adept with technology. They think that if the teacher teaches competently, then they are willing work hard to learn English. So, the class needs to adjust to the students' demands to have a good class with a smart phone/computer related class appliances to motivate the students to be interested during the class without traditional and plain class activity. The survey results make it clear that a lot of students think they need to learn English, with a good teacher, one-on-one, speaking with a smartphone, more than group discussion, interview or presentation except UCC. Hence, I suggest class activities that are developed digital lessons with a small size class (maximum 25), with a teacher-related speaking activity. Even though students like computer related appliances, they do not like only online class or assignments. Therefore, if the class is prepared actively with the teacher, class activities could improve the students' attitudes and intrinsic motivation would be slightly higher than other kinds of lecture.

영어교수법의 조망

김정렬(한국교원대학교)

그동안 영어교육사에 나타난 영어교수법들을 조망해보면 크게 객관주의 교수법, 인본주의 교수법과 구성주의 교수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객관주의 교수법은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교사, 학생, 교육 내용 가운데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교수법으로 언어적 훈련과 탄탄한 이론적 기반위에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 교수법은 학생을 영어교육의 중앙에 놓고 생각하는 교수법으로 언어적인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지적인 구성 능력에 맞추어서 영어교육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인지적 구성 능력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인식론적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어학습 방법이다. 이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당 범주에 속하는 교수법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객관주의 교수법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은 외연적인 지식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양을, 가능하면 학습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 학습의 경제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교수 학습방법들이 연구되어졌고, 교실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이 실천되어 왔다.

짧은 시간에 지식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형태가 교사 중심의 일제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달하기 위해서는 암기식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의 내용이 개인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외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흥미나 관심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학문 연구의 결과로 나와있는 외연적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들의 인지적 발달수준에 맞게 내용과 양을 나누고, 각 학년마다 분배하여 수업을 통하여 전달하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6 3 3제 또는 k 12제 등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배워야 할 지식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한 마디로 객관주의 교육은 학습에 있어서 일종의 처방식 이론(prescriptive theory of learning)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절대적인 학습도구로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진도를 나가는 정해진 틀의 수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용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적을 담은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라서 국정이나 검인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객관주의에 기초를 둔 영어과 교수 학습활동은 특징적으로 영어 형태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배열하며, 영어를 통합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언어체계로서 발음, 어휘, 어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과 같이 언어지식 체계에 따른 분과주의적 형태로 가르치고 학습하게 된다. 수업상황에서는 반복연습을 강조하고, 새로운 어휘를 암기하도록 하며, 의미보다는 탈맥락화된 형태의 정확성을 깨우치도록 하

여,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상황에 적절하게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상에 나타난 객관주의적 교수법들은 아래와 같고, 제1부에서는 다음의 교수법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 ☞ 구화식 교수법(Oral Method)
- ☞ 상황적 언어교수법(Situational Language Teaching)
- ☞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 ☞ 초단파 교수법(Microwave Method)
- ☞ 시청각 교수법(Audio Visual Method)
- ☞ 음철법(Phonics)
- ☞ 어휘지도법(Vocabulary Teaching Method)

2. 인본주의 교수법

학생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는 인본주의 언어교육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이 기존의 형태와 다르게 요구된다. 우선 교사는 교실 안의 모든 참여자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촉진시키는 역할과 교사 자신의 독립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학생들의 요구를 잘 분석하여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고 나아가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습지도를 해야 하는 임무를 띤다. 학습자는 목표언어로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적으로 정보를 얻고 제공하는 상호 의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수상황에서는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이나 소집단 언어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 암시교수법(suggestopedia) 등과 같이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나 인지 과정을 보다 많이 고려한 교수 학습방법을 실행하게 된다.

교수 학습활동 중에서 평가에 관해서도 기존의 평가형태는 결과 중심의 계량적인 평가로 등급과 순위 매기기의 기능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으나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육 상황에서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형태를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언어발달 상황을 누가 기록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정보로 제공되어 언어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 학습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법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본주의적 교수 학습방법을 통한 영어과 수업에서 교사, 학생 및 교재의 역할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업진행의 형태는 학생의 활동이 주가 되고 교사는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기술로서 짝활동, 그룹 활동, 전체 활동에 학생들이 골고루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에 교사는 여유를 가지고 적절히 통제를 하며 학생들의 오류를 교사가 직접 수정해주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발화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깨닫고 수정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찾거나 인지하고 놀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목표언어를 구사한다. 짝활동, 그룹활동 등에 참여하는 태도가 무척 긍정적이다.
- 노래나 게임, 역할극을 통한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좋아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컴퓨터와 멀티비전, 그리고 CD ROM의 사용으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고조시키고 CD ROM의 기능을 잘 이용하여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진행한다.

- 그림카드, 단어카드, 디지털 피아노 등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투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상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교수법들은 아래와 같고, 제2부에서는 다음의 교수법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 👉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 👉 소집단 언어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 👉 암시교수법(Suggestopedia)
- 👉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
- 👉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 👉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
- 👉 문학을 통한 영어지도법(Literature based Language Learning)

3. 구성주의 교수법

von Glasersfeld(1989)는 지식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대상의 표현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개념도(concept map)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주제와 학습자료는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유용한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의 암기나 반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교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실질적인 학습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학습상황에서 일어난다. 즉, 다양한 정보와 같은 인지적 도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학습은 일어난다. 따라서, 교단 선진화와 같은 학습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학습자는 문제해결을 하면서 개개인이 현장에서 직접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또 의미를 새겨 봄으로써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구성주의자 교실은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지식을 쌓고 구성하는 환경이다. 이는 혼자 따로 배운다거나 다른 학생들이 배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의 교육환경은 비디오 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상황들을 학생들이 탐구해 가면서 과학적, 수학적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한 상황학습(anchor instruction) 환경,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Microworld 환경, 지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전자 교과서, 전자사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인터넷 등의 정보은행 환경, 편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컴퓨터의 발전으로 더욱 편리해진 여러 가지 기호의 활용, 레고, 학습막대, 수학자료, 모형 건축자재 등과 같은 구성물체(construction kits),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whole language)할 수 있도록 조성된 학습 환경 등이다. 오늘날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환경은 점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개성과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재구성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학습자는 사회활동을 통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힐 수 있으며, 사회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협동으로써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는다.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 상에 나타난 구성주의적 교수법들은 다음과 같으며, 제3부에서 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 인지적 교수법(Cognitive Language Learning)
- 🔸 과제수행 교수법(Task based Approach)
- 🔸 경험 언어학습(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
- 🔸 열린교육에서의 영어지도법(English Teaching Method in Open Education)
- 🔸 컴퓨터를 이용한 영어교수법(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 🔸 웹 기반 영어교수법(Web based English Teaching)

SNS 활용을 통한 학습자 교수자간 관계 향상 연구

Improving student-teacher relationship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김병선(가톨릭관동대학교)

1. 서론

학습자들의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교수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업시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물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과제 수행도 높일 수 있다. 필자가 담당하던 상당수의 대학 영어 학습자들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무관심과 몰인정이 영어를 포기하게 된 계기였다고 언급하는 것만 봐도 교수 학습자간 라포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교수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학업 성취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와 학습자간 긴밀한 관계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학 교실은 계급적인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다.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점과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은 교수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교수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른다. 교수 입장에서 보면 유교 문화에서 자란 환경 탓에 권위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습자들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대학 수업이라는 것이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하기에 초, 중, 고등학교보다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수 학습자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교수 학습자간 관계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교수의 전문성과 인성 개발 그리고 지지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고 하였다(Hershkovitz & Ang, 2015). 디지털 시대에 교수 학습자간의 소통은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ing Sites)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학습자들과 교수간의 세대차이로 인해 사회관계망의 사용 정도와 인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즉,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를 얻는데 반해, 교수자들은 교실 안에서 면대면 소통 외에는 별다른 소통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SNS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수업 보조재로써 활용에도 적잖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업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실시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만 던져 놓으면 학생들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점검할 수 있다. 둘째, 교실에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습자들이 개인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유도하다 보니 점점 발언하는 횟수도 늘고 질문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간단한 동영상 카카오톡 메시지에 올려서 이어폰을 가지고 개개인이 보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개별학습도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수업 전 학습 목표를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다 보니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SNS 활용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학 영어 교실 안 밖에서 교수 학습자간 사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접근하고자 한다. 확실한 것은 요즘 학습자들이 SNS 활용 의존도가 높다는 데 교수들이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SNS 앱을 많이 선호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모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SNS 활용을 즐거움에도 호흥을 맞출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교실은 교수자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SNS 툴을 선행학습을 통해 알아보고 선호하는 앱을 조사해 봄으로써 교수자들도 활용해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교수들과 어떤 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봄으로써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혁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것이다.

2. 선행 연구

2.1 SNS 개념

SNS는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 사회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이다(IWGDPT, 2008).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혹은 일부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받을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이다(Boyd & Ellison, 2007).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2)은 SNS를 서비스 기능에 따라 8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표 1〉 SNS의 기능별 유형화

SNS분류	기능	서비스
프로필 기반	특정 사용자나 분야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비스	싸이월드,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카카오토리
비즈니스 기반	업무나 사업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서비스	링크나우, 링크드인, 비즈스페이스
블로그 기반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네이트통, 원도우라이브스페이스
버티컬	사진, 비즈니스, 게임, 음악, 레스토랑 등 특정 관심분야만 공유하는 서비스	유튜브,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패스, 포스퀘어, 링크드인
협업 기반	공동 창작, 협업 기반의 서비스	위키피디아
커뮤니케이션 중심	채팅, 메일, 동영상, 컨퍼런싱 등 사용자 간 연결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세이클럽, 네이트온, 이버디, 미보
관심주제 기반	분야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 특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도그스터, 와인로그, 트렌드밀
마이크로블로깅	짧은 단문형 서비스로 대형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서비스	트위터, 텀블러, 미투데이
관심주제 기반	분야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 특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도그스터, 와인로그, 트렌드밀
마이크로블로깅	짧은 단문형 서비스로 대형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서비스	트위터, 텀블러, 미투데이

2.2 SNS 종류와 이용 현황

2.2.1 페이스북: 우리나라의 싸이월드와 같은 미국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 웹 기반 소셜(Social) 네트워크이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인맥을 중심으로 학교 동창 등 여러 정보를 기반으로 지인을 만들어 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맥 사이트이다.

2.2.2 카카오톡: 한국 국적의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글로벌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말한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채팅을 할 수 있으며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은 사용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돼 있거나 상대방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친구추천한다.

2.2.3 트위터: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라 하는데,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2.2.4 마이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제 사회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로 국내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이용자들이 자기만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여 글이나 사진을 올려 서로 교류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2.2.5 이용자 수: 페이스북 이용자 수 2014 1분기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12억 7천만 명, 일 이용자 8억 명, 트위터 이용자 수 월 2억 명, 페이스북 국내 월간 이용자 수 월 1천 3백만 명, 카카오톡 4천만 명, 연령대별로 다른 이용을 보인다.

〈표 2〉 세대별 주요 SNS 이용 현황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1	카카오톡 (33%)	페이스북 (38.9%)	카카오톡 (41.4%)	카카오톡 (39.6%)
2	페이스북 (23.9%)	트위터 (22%)	싸이월드 미니홈피 (19.1%)	페이스북 (23.2%)
3	싸이월드 미니홈피 (23%)	카카오톡 (20.8%)	페이스북 (18.8%)	트위터 (22.7%)
4	트위터 (13.8%)	싸이월드 미니홈피 (15.2%)	트위터 (18.2%)	싸이월드 미니홈피 (9.4%)
5	기타 (6.4%)	기타 (3.1%)	기타 (2.6%)	기타 (5.1%)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 연구 방법

대학영어를 수강하는 120명의 학생들과 의료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현황과 선호하는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 20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과 교수들이 실제 SNS 상에서 소통해 봄으로써 유의 내지는 어려운 점들을 알아볼 것이다.

Exploring Teachers' Knowledge of Texts: First Step in Finding Best Practices and Empowering Teachers in Indonesian Contexts of Education

Wawan Gunawan, Iwa Lukmana, Dadang Sudana, Riesky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wagoen@upi.edu

Abstract

This study began by exploring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n one of middle schools in Southern part of West Java province, Indonesia. As a follow-up to this study's findings of the teachers' knowledge, this study attempts to empower the teachers with genre based pedagogy concept in response to the mandate of the current English language curriculum nationally enforced in Indonesia. Relying on case study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ultiple data resources including interviews, classroom observations, and tes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teachers' lack of knowledge of texts affects the way in which they provide students explicit instruction and write some text types mandated by the currently enforced curriculum. The teachers' conceptual development resulting from an intervening teacher training in Genre based pedagogy will be the bases for exploring best practices in responding to the nationally mandated content of curriculum.

Keywords: Teacher knowledge, text types, curriculum, local values

The national curriculum has been enforced to better quality of education. However, a wide range of cultural features of Indonesia calls for a certain attention. The curriculum cannot afford to address certain areas' specific needs due to its general nature. Therefore, some policies in the curriculum need to be adjusted to the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 of Indonesian societies. The general nature of curriculum has become a constrain especially in the areas in which the learning sources are not well provided such as in some areas in the south parts of West Java (see Abdurachman, 2014). This site will be the case in which we identify the English teachers' current knowledge of genre based pedagogy. The result of the analysis will be the bases for formulating a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from which we can explore best practices of teaching English based on genre pedagogy which attends to local students and schools' contexts.

The problem statement in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ep towards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developing teacher professionalism. At this stage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nglish teachers' competence with regard to their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of texts.

This study is considered urgen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eachers are the spearheads in education, so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 and its implementation is a pre-condition towards success in learning process;
2. South parts of West Java are relatively behind compared to other parts of West Java with regards to their access to economy and information resources (Abdurachman, 2014) as well as quality of education (Sudana, 2011);
3. Local potentials of the southern parts of West Java need to be developed by integrating education based on local values and cultures (Abdurachman, 2014);
4. South parts of West Java have minimum references and resources for teachers;

가). Genre and Local Culture Text-based Instruction

SFL/genre-based pedagogy is a pedagogical concept which was initially developed in Australia at the University of Sydney to support academic writing development by providing explicit instruction of a text type and making visible linguistic resources of the text. SFL is the conceptual basis of genre development. SFL focuses on theory of language which is based on how people get things done with language and other semiotic systems within 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y interact and it focuses on how the use of language and other semiotic systems shap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semiotic systems (Halliday & Matthiessen, 2004). Two of the main constructs in SFL which reflect social contexts for people to get things done with language are systemic and functional. First, language being systemic means that there is no binary theory of language which involves dichotomies such as Chomsky's competence and performance, or Saussure's langue and parole (Christie, 1990; Halliday, 1994; Bloor & Bloor, 1995 & Veel, 1997). Halliday (1994) states that "SFL would not dissociate the system from the instance, language from text, langue from parole, competence from performance, or other related oppositional pairs" (p. 94). Rather, Halliday views the two acts of meaning as a unity of classes of phenomena which is further stated as a unite identity (parole) and meaning potentials (langue). The acts of meanings are described as semantic in nature and as a subclass of semiotic acts. In this sense, Halliday (2009) expounds that the acts of meaning consist of a process of making choices from meaning potentials, which are dynamic, modifiable, and differentiated. Second, language is functional. Being functional means that language systems should be useful and purposeful to get things done in real life (Halliday, 2009). Christie (1999) and Martin (1997) refer to being functional in SFL as a system which provides purposeful and useful modeling of language.

Martin and his colleagues have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context of culture and the context of situation differently from Halliday. Martin and his colleagues use the term genre to realize the context of culture and separate it from the register system (Martin, 2009). Martin recognizes that, in Halliday's SFL, genre is embedded in the tenor, one of the register variables, but he separates genre from the register system to "allow for shifts in field, tenor, and mode variables from one stage of a genre to another" (Martin, 2009, p. 13). In making a connection with schooling context, Gebhard and Harman (2011) indicate that Martin's use of Halliday's constructs of the context of culture and the context of situation is to capture the language of schooling which reflects canonical patterns of genre moves and variation in register choices as an attempt to achieve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address audiences, and fit with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see Martin & Rose, 2008). Martin acknowledges variations that may happen to the field such as variations in subject matter, in the tenor such as in terms of formality, and in the mode such as abstraction. Such variations according to Martin can unfold in some instantiations of the same genre. Therefore, as shown in the model above, Martin illustrates how genre acts as a context to mobilize language use and as a context of culture which leads language choices at the level of register to achieve its social purposes. According to Martin (e.g., Martin, 1993; Martin, 2009), genre and register simultaneously construct the meaning making process instantiating and realizing the trinocular conception of language. This concept has been developed especially in response to school needs for literacy education by apprenticing students in learning to read and write academically. For example, Rose and Martin (2012) provides a map of how genre works for the production of text, which shows genre developments and variations in schools.

5. Research Methodology

The long term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empowered independent English teachers who are able to respond to the educational policy dynamics. The short term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identify the conditions of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culture as reflect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of tex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nsightful feedback for developing teacher professional education. Thus student 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improves. In other words, this study can hopefully provide education policy makers information as bases for developing quality English teacher competence which responds to current changes in societies.

The data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many sources: interviews, classroom observations, and tests. More specifically, the test consists of sheets of tests to measure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and their ability to writ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ssigning the codes. Coding is given to provide supporting information about the teachers' portrait of their knowledge of texts gained from the tests

가.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This study explores the teachers'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content they teach in middle schools based on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e teachers were assigned to take a multiple choice test of text types, their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 their social functions, text structures, and language features (see Table 1. for the test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in general the teachers lack knowledge of texts. As evidenced in their answers to the test, the teachers were not able to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texts' social function. Even no teachers answered test item 2 regarding the social function of a recount text. On the other hand, 60% of teachers only answered several questions correctly.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s not as bad as their knowledge social functions of texts. There are two items for which less than 80% of teachers answered them correctly. On the other hand,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 structure is not worse than their knowledge of text structure and function. There are two test items for which less than 60% of teachers answered them correctly (see Table 1).

Table 1: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spects of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tem number	Correct Answers	Percentage	Wrong Answers	Percentage
Social Functions	2	0	0%	5	100%
	4	5	100%	0	0%
	6	3	60%	2	40%
	10	3	60%	2	40%
	11	5	100%	0	0%
	16	5	100%	0	0%
	21	3	60%	2	40%
	24	5	100%	0	0%
	25	3	60%	2	40%
Text Structures	1	5	100%	0	0%
	3	5	100%	0	0%
	14	3	60%	2	40%
	15	4	80%	1	20%
	20	2	40%	3	60%
	22	5	100%	0	0%
	23	5	100%	0	0%
Language Features	5	5	100%	0	0%
	7	4	80%	1	20%
	8	3	60%	2	40%
	9	5	100%	0	0%
	12	5	100%	0	0%
	13	3	60%	2	40%
	17	5	100%	0	0%
	18	5	100%	0	0%
	19	4	80%	1	20%

Table 2: The Teachers' Ability in Writing

Evaluated Aspects	Teachers' existing knowledge	Teachers' lack of knowledge	Necessary Improvements
Social Functions of texts	Being able to describe several aspects of a thing; being able to report factual information; being able to focus on one topic and several aspects of the topic.	Being unable to report factual information effectively due to unclear thesis statement at the beginning of their writing.	Teachers' knowledge of social functions of texts such as defining, classifying or describing several aspects of a thing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ay in which the statements those functions are supposed to be expressed;
Text Structure	Being able to define a thing/things Being able to describe the topic in categories	Being unable to write a general statement or classification (thesis) at the beginning of a report text; Being unable to make paragraphing function to help report factual information effectively;	The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stages of writing an information report by learning how an information report is commonly written; The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paragraphing by attending to the concept and function of paragraphing in conveying information clearly and effectively;
Grammar/Language Feature	Being able to include many relational processes – verbs to define and categorize things; Being able to write a subject or participant in a general sense by pluralizing or singularizing it; Being able to minimize the number of appraisal in an information report; Being able to use formal language; Being able to include technical terms related to a topic.	Being unable to consistently use count nouns and noun count nouns correctly; Being unable to use correct Subject-verb agreement defining and classifying; Being unable to write complete sentences in a grammatical manner; Being unable to use pronouns for several subjects;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English grammar especially in the following aspects; Count and non-count nouns; The concept of sentences; Subject-verb agreement; Theme-rheme progressions Pronouns; Parallel structures;

More specifically, lack of knowledge related to social functions of texts is reflected in the teachers' answers to the questions of social function of recount, information report, and descriptive text. There were some teachers who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s correctly. Although all types of texts were not included into the questions, the teachers' inability to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social functions of texts are the indicators of the teachers' lack of knowledge of texts. The question items are related to the problems the teachers commonly encounter in schools such as recount, report, and descriptive texts. The teachers' inability to answer the question items correctly indicates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to have similar problems when they encounter other types of texts. The teachers' inability to answer the question items correctly such as in identifying and mentioning the social function of text may affect their ability in providing explicit instruction of texts.

Based on the data gained from the test,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 structures should be improved, so they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generic structure of texts (such as question item 14). The teachers' ability to identify the text structures is evidenced in how they answered questions items of text structures (such as question item 20). The teachers' inability to identify the generic structure of texts and mention the stages of text construction may affect how they provide explicit instruction of developing a text.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n general is portrayed in how they answer the question items in this test. As shown in the table 1, the teacher's knowledge of language features is not a big problem. However, the teachers' answers to the related question items (such as question items 8 and 12) shows that the teachers have no clues in answering those questions. The questions require the teachers to have knowledge of subject and participants (such as actors, senser, or sayer). Those questions are related to subject and participant identification. The teachers' lack of ability in answering those questions mainly results from their minimum understanding of language patterns with a long and complex subject. Teachers do not have problems in identifying concrete subjects such as people and pronouns. However, a complex subject such as the combination of several nouns, adjectives, and prepositions (such as question items 8 and 12) gave the teachers difficulty in providing the correct answers. The teachers' knowledge of more complex subjects or participants such as nominalized subjects, noun clauses, and adjective clauses should be improved, so the teachers are able to provide explicit instruction about the features of language of certain text types such as those mostly including complex subjects and participan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current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n summary, the portraits of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s mapped out to explore some possible follows-ups.

6. Conclusion

There are some main conclusions drawn from the data analysis. The most critical issue of the teachers' competence clearly lies in their knowledge of texts and their ability in writing the text types being taught in schools.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 is crucial because the current curriculum includes text based language instruction. Lack of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 and minimum grades for their writing indicates that they are not ready to assume the curriculum mandate. With regard to their competence in understanding and producing texts, the teachers are ranked "average". Although there are some teachers having more knowledge of texts than others, substantially they lack ideal performance in coming to grips

with the concept of texts and how they produce texts.

The teachers' knowledge of texts is portrayed in how the teachers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social function, structure, and language feature of texts. The teachers' knowledge of the social function of texts does not show a solid portrait of all teachers being investigated because not all teachers could answer correctly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three aspects of texts. The teachers' knowledge of the text structure does not reflect their comprehensive mastery of texts. The main indicator of their minimum comprehension is that they are not able to write a thesis or general statement of an information report. Such a mastery will influence clarity of text development and structure.

Last, the teachers reflect an urgent need for improving their knowledge of English grammar. Their knowledge of grammar is tightly related to text types. A certain text type requires typical grammatical structures to make the texts more meaningful.

REFERENCES

- Abdurachman, I. (2014). Pengembangan Jawa Barat bagan selatan. Teredia di http://bappeda.tasikmalayakab.go.i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imam&catid=15&Itemid=185
- Christie, F. (1999). Genre theory and ESL teaching: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TESOL Quarterly*, 33(4), 759 – 763.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 & Matthiessen, C.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Halliday, M.A.K., (2009). *The Essential Halliday*. NY: Continuum
- Martin, J. R. (1993). A contextual theory of language. In B. Cope & M. Kalantzis (Eds.), *The powers of literacy: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pp. 116-136).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artin, J. R. (1996). 'Evaluating disruption: Symbolising theme in junior secondary narrative.' In Hasan, R. & William, G. (Eds). *Literacy in Society* (pp. 124 – 171).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Martin, J. R. (2000). Design and practice: Enacting functional linguistic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0, 116 – 126.
- Martin, J. R. (2009). Genre and language learning: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Linguistics and Education*, 20, 10-21.
- Rose, D., & Martin, J.R.. (2012). *Learning to write, reading to learn*. Bristol, CT: Equinox.
- Sudana, D. (2011). *Analisis peta kompetensi hasil Ujian Nasional dan model pengembangan mutu pendidikan SMA di Jawa Barat*. Laporan Penelitian Pemetaan dan Pengembangan Mutu Pendidikan, Dikti.